畿甸考古

창 간 호

2001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발 간 사

근래 우리 경기도 전역에서는 도시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경기지역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굴, 보존하고 그런 작업을 통하여 경기도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경기문화재단에서는 1999년 기전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제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설립된 지 3년이란 짧은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이루어 놓은 성과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고유사업인 문화재의 발굴조사와 지표조사 등 학술조사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귀중함과 그 특성을 일깨워 주는 문화재관계자 연수,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 등의 관련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민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여 문화재 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창립 이래로 매년 30~40건의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구명하는 데에 더없이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기록, 보존하여 보고서로 발간중이며, 이제 그간의 결과를 모아서 연보 겸 학술지인 『畿甸考古』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창립 이후 3년간의 활동상황을 총괄하는 최초의 간행이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활동상과 역사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일은 앞으로 더 나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도내에서 활동중인 젊은 소장학자들의 논문과 2001년도에 경기지역에서 이루어진 각종 유적조사 및 논저류에 대한 정리, 기전문화재연구원의 활동 상황, 그리고 부록으로 최근 10년간의 경기도 문화재조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정보들이 문화재연구와 보존을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준비하는 우리 경기도와 함께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앞날에 더욱 큰 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畿甸考古』의 발간에 참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2. 4. 강경호

기전문화재연구원 전경

유물정리실

자료실

수장고 내부

기전문화재연구원 지도위원 회의

1999년 교산동 건물지유적조사 개토제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원향사지 발굴조사 출토유물

회암사지 발굴조사 전경

회암사지 출토 소조품 각종

죽전지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기흥구갈(3)지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양수리 선사유적 시 · 발굴조사 출토유물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2001년 문화재관계자연수 개회식

2001년 문화재관계자연수 중 회암사지 답사광경

2001년 문화유적 답사프로그램을 마치고(양주향교)

차 례

발간사

화보

Ⅰ. 연혁과 현황

1. 설립목적 · · · · · 17
2. 주요연혁 · · · · · 17
3. 현황 · · · · · 18
4. 향후과제 · · · · · 21

Ⅱ. 조사연구 및 각종 사업

1. 조사 연구 활동 · · · · · 25
2. 주요 유적의 조사개요 · · · · · 31
3. 간행물 · · · · · 51
4. 문화재 관련 사업 · · · · · 52

Ⅲ. 2001년 경기지역 고고학계 소식

1. 유적조사 · · · · · 57
2. 현장설명회 · · · · · 60
3. 학회모임 및 각종 소식 · · · · · 77
4. 출판물 · · · · · 85

Ⅳ. 연구노트

1. 古南里類型의 一檢討 -古南里式 土器를 中心으로- · · · · · 유병린 93
2. 驪州 元香寺址의 歷史的 性格에 관한 一考察 · · · · · 윤용희 110
3. 조선시대 陵墓碑의 종류에 대한 一考察 · · · · · 이민식 133
4. 驪州 하거리 방미기골 古墳 出土 太環耳飾 構造와 製作方法에 대하여 · · 김선덕 153

Ⅴ. 글마당

1. 고인돌은 왜 안되나요 · · · · · 김병모 163
2. 땅을 파다보니… · · · · · 서봉수 170

Ⅵ. 부록

1991~2000년 경기지역 문화재조사 자료 · · · · · 177

Ⅰ. 연혁과 현황

1. 설립목적

2. 주요연혁

3. 현황

4. 향후과제

1. 설립목적

경기도 지역은 산업화와 외부 인구유입의 증가로 도시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여 훼손을 방지함과 아울러 올바른 연구와 정리 및 고증을 통해 경기도 역사에 투영시킴으로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설립목적이 있다.

2. 주요연혁

날 자	내 용
1999. 4. 1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으로 발족 / 업무 시작 설립목적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문화유적의 지표조사 문화재 관련 사업의 추진 문화재의 연구와 보존방안의 수립
4. 10	기문원 매장문화재조사 운영지침안 작성 문화재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고서 제출 및 지정 (문화재관리국)
7. 31	연구실과 행정지원팀 소관업무 분리
8. 14	조사현장 운영관리안 작성
12. 17	기문원 사무실 확장 이전 및 유물정리실, 수장고 확보
2000. 3. 5	연구실 하부조직 편성, 업무분장 명칭변경 및 관계기관 통보(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 기전문화재연구원)
3. 11	기전문화재연구원 지도위원회 개최(한병삼 외 5인 참석)
4. 30	기전문화재연구원 지도위원 8인 위촉 및 승낙서 접수 기간 : 2000. 5. 1 ~ 2001. 4. 30 (1년)
2001. 5. 25	기간 만료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 등록신고서 제출 및 재지정(문화재청)
5. 30	기전문화재연구원 지도위원 8인 위촉 및 승낙서 접수 기간 : 2001. 5. 1 ~ 2002. 4. 30(1년)
6. 29	재단사옥 이전에 따라 확장 이전 - 각 조사팀별 분리, 자료실 확보, 유물정리실 · 수장고 확장

3. 현 황

1) 기전문화재연구원 지도위원 (2001년)

성 명	전 공	현 직
김 동 현	고건축	동국대학교 교수
김 병 모	선사고고학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임 효 재	신석기시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조 유 전	선사고고학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최 병 현	역사고고학	숭실대 사학과 교수/박물관장
이 인 숙	고고학	(전)경기도박물관장
이 선 복	구석기시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이 남 규	철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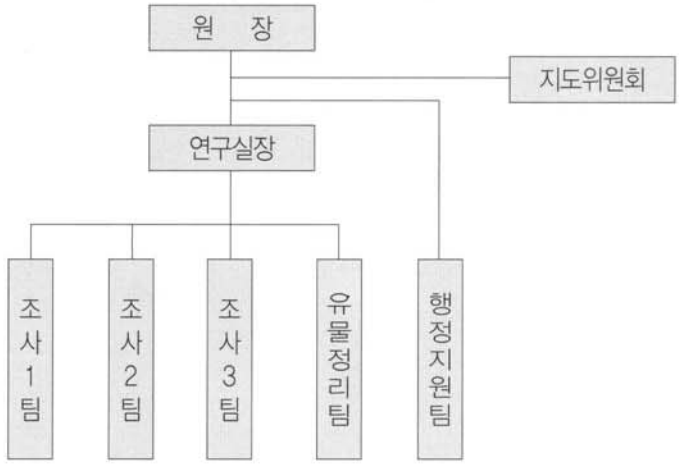
2) 기전문화재연구원 역대 지도위원 (2000년)

성 명	전 공	현 직
한병삼(작고)	고고학	문화재6분과위원장, (전)국립중앙박물관장
김병모	고고학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전)한양대교수, 박물관장
임효재	신석기시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최병현	삼국시대	숭실대 사학과 교수/박물관장
이남규	철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이선복	구석기시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박경식	불교미술	단국대 사학과 교수
이인숙	고고학	경기도박물관장

3) 기전문화재연구원 역대 지도위원 (1999년)

성 명	전 공	현 직
한병삼(작고)	고고학	문화재6분과위원장, (전)국립중앙박물관장
김병모	고고학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전)한양대교수, 박물관장
임효재	신석기시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최병현	삼국시대	숭실대 사학과 교수/박물관장
이남규	철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이선복	구석기시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박경식	불교미술	단국대 사학과 교수
이인숙	고고학	경기도박물관장

4) 기구도



5) 직원현황 (2001년)

직제별	계	연구직	일반직	기능직	비정규직
원장	1(1)	수석연구원1(1)			–
연구실장	1(1)	책임연구원1(1)			–
조사1팀	2(1)	선임연구원1(0) 연구원1(1)			조사원(6)
조사2팀	2(2)	선임연구원1(1) 연구원1(1)			조사원(7)
조사3팀	2(2)	선임연구원1(0) 연구원1(2)			조사원(6)
유물정리팀					위촉연구원(2) 조사원(2)
행정지원팀	3(2)		일반직4급1(1) 일반직6급1(0)	기능직6급1(1) 기능직7급1(1)	–
계	11(9)	8(7)	2(1)	2(2)	(23)
총계	33명				

○ 직원명단(2001)

직 급	성 명	소 속	전 공
수석연구원	장 경 호	원장	고건축학
책임연구원	김 성 태	연구실장	고고학(병기)
일반직4급	임 재 옥	행정지원팀장	일반사회교육
선임연구원	김 무 중	조사2팀장	고고학(토기)
연 구 원	김 아 관	조사3팀장	고고학(신석기)
연 구 원	소 상 영	조사1팀장(대행)	고고학(신석기)
연 구 원	김 성 수	조사3팀 팀원	고고학(신석기)
연 구 원	정 해 득	조사2팀 팀원	문헌사(지방사)
위촉연구원	윤 한 택	유물정리팀	문헌사
위촉연구원	김 영 화	〃	고고학
조 사 원	김 기 태	조사1팀	고고학(구석기)
조 사 원	윤 용 희	〃	고고학(기와)
조 사 원	고 재 용	〃	고고학
조 사 원	이 승 연	〃	건축사
조 사 원	김 태 근	〃	고고학
조 사 원	김 영 준	〃	고고학(신석기)
조 사 원	김 현 준	조사2팀	고고학(청동기)
조 사 원	유 병 린	〃	고고학(청동기)
조 사 원	최 철 희	〃	고고학(역사고고학)
조 사 원	이 상 걸	〃	고고학(청동기)
조 사 원	조 병 택	〃	고고학
조 사 원	유 은 식	〃	고고학
조 사 원	정 상 석	〃	고고학(부여선비고고학)
조 사 원	허 미 형	조사3팀	고고학(기와)
조 사 원	서 봉 수	〃	고고학(기와)
조 사 원	이 동 성	〃	고고학(동물고고학)
조 사 원	노 대 석	〃	도자사
조 사 원	서 길 덕	〃	고고학(주거지)
조 사 원	윤 현 희	〃	불교조각사
조 사 원	진 수 정	유물정리팀	고고학
조 사 원	윤 소 영	〃	고고학
조 사 원	안 갑 용	행정지원팀	일반행정
기 능 6 급	유 영 주	〃	회계학
기 능 7 급	채 정 민	〃	사무자동화
일 용 직	이 종 애	〃	세무회계

○ 역대 직원명단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비 고
조사원	이 창 원	'99. 6. 1 ~ '01. 2. 28	–
조사원	허 세 연	'99. 7. 12 ~ '00. 7. 31	(現)중앙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이 민 식	'99. 7. 12 ~ '00. 12. 31	(現)여주군사편찬위원회
조사원	조 성 호	'99. 9. 1 ~ '01. 9. 29	–
조사원	한 정 규	'00. 10. 2 ~ '01. 6. 30	–

6) 시설물 관련 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6

○ 총면적 : 254평

용 도	면적 (평)	비 고
원장실	15	임차
회의실	18.5	〃
연구실장실	7	〃
조사1팀	25	〃
조사2팀	26	〃
조사3팀	25	〃
유물정리팀	26	〃
행정지원팀	13.6	〃
자료실	26	〃
유물수장고(2동)	40	〃
접견실	10.2	〃
창고	21	〃
계	254	

4. 향후과제

1) 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장문화재 연구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 전반에 걸친 연구 및 조사 활동 확대

2) 경기문화의 선양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재 관련 사업 확대

3) 경기문화재와 관련된 종합정보센타의 운영으로 도민들에게 문화재 관련 학술정보 제공

Ⅱ. 조사 연구 및 각종 사업

1. 조사 연구 활동

2. 주요 유적의 조사 개요

3. 간행물

4. 문화재 관련 사업

1. 조사 연구 활동

1) 1999년도

(1) 지표조사

번호	건명	조사기간	조사지역	면적	성과	의뢰기관	보고서
1	용인시 수지읍 대우아파트 신축예정부지 지표조사	5.1~ 5.2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109,091㎡	성과없음	풍산주택/ 효명건설	1999년 5월 약보고서 제출
2	용인시 김량장동 아파트 신축부지 지표조사	5.13~ 5.15	용인시 김량장동 산 17-3	4,412㎡	성과없음	세안건축사 사무소	1999년 5월 약보고서 제출
3	용인수지읍 정광종합건설 아파트 신축부지 지표조사	5.15~ 5.16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65,336㎡	성과없음	(주)정광 종합건설	1999년 5월 약보고서 제출
4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온천 개발지구 지표조사	5.18~ 5.19	의정부시 장암동 135번지		성과없음		1999년 5월 약보고서 제출
5	광주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7.9~ 00.5.31	광주군	광역조사	유물산포지 다수	광주군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6	시흥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문화유적 분포도 작성	8.18~ 00.8.11	시흥시	광역조사	유물산포지 다수	시흥시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7	이천 2001세계도자기 엑스포 부지 지표조사	10.12~ 11.12	이천시 관고동 산69-1의 26필지	198,150㎡	성과없음	이천시	〈이천시2001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조성예정부지문화재지표조사〉
8	여주군 도자기 엑스포단지 조성부지 지표조사	11.3~ 11.12	여주군 북내면 천성리 297-1의 48필지	86,044㎡	와류, 도자류다수	여주군	〈여주군2001세계도자기엑스포도예 문화단지 조성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9	고양 관산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8.4~ 8.7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45	72,900㎡	파평윤씨묘 외 성과없음	대한 주택공사	〈고양 관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0	용인 기흥 신갈 · 구갈 택지개발지구 지표조사	8.2~ 8.27	용인시 신갈리, 구갈리 일원	66,804㎡	려말 선초의유구/ 와편,백자,분청류	대한 주택공사	〈용인 신갈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1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 지표조사	8.10~ 8.13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 산116, 117번지	41,036㎡	성과없음	현대토목 측량설계공사	〈화성군 북양리 개발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 결과보고서〉
12	광주군 광주읍 직리지표조사	8.24~ 8.25	광주군 광주읍 직리 산47번지	80,566㎡	성과없음	(주)세진 산업개발	〈광주군 직리 개발지역내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13	수원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9.6~ 00.9.5	수원시	광역조사	유물산포지 다수	수원시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4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지구 지표조사	9.6~ 11.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725,000㎡ (219,000평)	무문토기, 도자류,와편	수자원공사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5	능곡현대건설 연합주택 조합 신축부지 지표조사	9.20~ 9.21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45-21	99,100㎡	성과없음	현대건설	〈능곡현대건설연합주택조합아파트 신축부지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6	광주군 도자기 엑스포단지 조성부지 지표조사	11.1~ 12.10	광주군 실촌면 삼리 산 29-9	4,959㎡	추정 고려시대, 건물지,구석기류	광주군	〈광주군2001도자기엑스포단지조성 예정부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17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인입선 복선전철 공사구간내 (수원-화전)지표조사	11.8~ 12.7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화전동 · 강매동	총길이 5km	성과없음	철도건설	1999년 12월 약보고서 제출
18	평택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지표조사	11.11~ 12.20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어연리	총길이5.88km	오학린효자비 외 성과없음	본부 경기지방	〈평택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	광주 운동 휴양지구 예정부지 지표조사	11.22~ 12.17	광주군 광주읍 목현리 산25	78,210㎡	백자편 수점	공사 광주군	1999년 12월 약보고서 제출
20	경기도 종축장 건립공사 예정부지 지표조사	12.1~ 12.30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143	228,000㎡	성과없음	경기도 축산위 생연구소	〈경기도 종축장 건립공사 예정부지 문화재지표조사〉
계			20 건				

(2) 시 · 발굴조사

번호	건명	조사기간	조사지역	유적성격	성과	의뢰기관	보고서
1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여주 원향사지 발굴조사	8.12~ 00.3.8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	고려 사지	귀면와,연화문막새 도자류	한국도로공사	확장 발굴조사 결정
2	여주 고달사지 2차 발굴조사	9.27~ 00.6.25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411-1	고려 사지	와류, 도자류,주구토기 등 토기류	여주군	경기도박물관과 공동조사 공동보고서 출간예정
3	여주~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8.2~ 9.10	여주군 여주읍 상리 산1	성과없음	성과없음	한국도로공사	『여주 상리 · 매룡리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
4	여주 상리 · 매룡리 시굴 및 발굴조사	9.13~ 10.10	여주군 여주읍 상리 산1	횡구식 석실묘 8기	토기류, 금동관	여주군	『여주 상리 · 매룡리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
5	여주 파사성지 긴급발굴조사	9.15~ 11.13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삼국시대 석성	토기류, 철기류 외 각종	여주군	2002년 상반기 출간예정
6	여주 상리 산 3-3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시굴조사	8.19~ 8.30	여주군 여주읍 상리 산 3-3	성과없음	토기류,와류, 도자류, 금속유물	지범수	『여주 상리 · 매룡리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
7	용문~용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양평 광탄리 유적시굴조사	8.18~ 9.2	양평군 광탄리	성과없음	성과없음	풍림산업	1999. 9월 약보고서 제출
8	'99 양주 회암사지 공동 발굴조사	12.20~ 00.10.5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 14-1	려말-조선 사지	성과없음	경기도/ 양주군	2002년 통합보고서 출간예정
9	화령전 발굴조사	8.3~ 11.5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전사청지 규모 확인	금속제,도자류 외 각종	수원시	『화령전 전사청지 발굴 조사 보고서』
10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8.23~ 00.12.18	하남시 교산동 78-3	조선시대 건물지	도자류, 전돌, 와편 토,도자류/와류	하남시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중간 보고서』
11	하남 천왕사지 주변 시굴조사	1.10~ 1.30	하남시 하사창동 355, 391-1	성과없음	성과없음	하남시	〈하남시 하사창동 천왕사지 인접지역 긴급 시굴조사 약보고서〉
12	시화호 공룡알 화석 발견지 지표 · 발굴조사	12.28~ 00.12.27	화성시/안산시 시화호 전역	공룡알화석지	공룡알화석지 확인	경기도	『시화호 공룡알 화석 발견지 유적지표조사결과보고서』
계			12 건				

2) 2000년도

(1) 지표조사

번호	건명	조사기간	조사지역	면적	성과	의뢰기관	보고서
1	평택 생산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문화재 지표조사	2.29~3.12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819,000㎡	성과없음	(주)쌍용건설	2000. 3월 약보고서 제출
2	새한주택 아파트부지 지표조사	4.25~5.8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산72	188,656㎡	성과없음	(주)새한주택	〈새한주택 아파트 건설예정부지 지표조사보고서〉
3	광주군 퇴촌면 채석장부지 지표조사	5.3~5.9	광주군 퇴촌면 산 39-20 외 2필지	40,834㎡	성과없음	삼능산업	〈삼능산업채석예정부지 지표조사 보고서〉
4	광주군 광주읍 채석장부지 지표조사	5.8~5.30	광주군 광주읍 직리 산47	628,251㎡	성과없음	주)세진 산업개발	〈광주군 직리 채석장예정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5	여주 매룡리 고분군 정밀 지표조사	5.2~12.30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상리 일대	309,249㎡	고분,무문토기산포지, 삼국시대토기 산포지	여주군	「여주 상리 · 매룡리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6	광주군 곤지암 스키장개발부지 지표조사	5.19~5.31	광주군 도척면 도웅리 산 40-1	1,250,000㎡	성과없음	(주)다화산업	〈광주군 도웅리 스키장 예정부지 지표조사 보고서〉
7	하남 덕풍 도로포장구간 지표조사	5.24~7.23	하남시 덕풍동, 광암동, 교산동, 풍산동	도로7.7㎞	토기편,와편 수점	하남시	〈하남 덕풍~광암 정수장간 도로 확 · 포장 공사구간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8	용인 구성 · 보라지구 지표조사	5.25~8.22	용인시 구성면 보라리일원	2,240,000㎡	무문토기 외 각종 토기편, 와편	대한주택공사	〈용인 구성/보라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지표조사〉
9	고양시 벽제동 아파트부지 지표조사	6.5~6.9.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94-1	45,621㎡	성과없음	(주)동익건설	〈고양시벽제동동익아파트부지 문화유적지표조사약보고서〉
10	이천 도자기엑스포 부대행사장 지표조사	6.19~7.18	이천시 관고동 401번지	73,774㎡	나말여초의 유물 집중 출토	이천시	〈이천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부대 행사장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1	화성군 봉담지구 지표조사	7.14~9.11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상리,와우리, 분천리 일원	797,000㎡	토/도자류 다수	대한주택공사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2	화성 발안지구 지표조사	7.18~8.22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제암리 일원	208,000㎡	무문토기,백제토기, 인화문토기, 도자류	대한주택공사	「화성 발안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3	화성 태안3지구 지표조사	7.18~9.1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안녕리 일원	948,000㎡	백제~조선 유물산포지 9개소	대한주택공사	「화성태안(3)택지개발예정지구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4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지표조사	7.14~7.30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약4,500평	무문토기편 수점	(주)제너럴 라이팅	〈용인 봉명리 공장건설부지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5	삼곶제 개수공사지구 지표조사	7.19~8.18	연천군 중면 삼곶리 422, 408, 181 일대,	제방연장 3.1㎞	신석기-백제토기편 수점 옹기가마터	(주)삼안건설 기술공사	〈연천삼곶제개수공사예정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6	하남~하일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지표조사	8.21~10.19	하남시, 하일IC 일원	도로7.7㎞	토/도자류 다수	하남시	〈하남~하일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지표조사 보고서〉
17	도립 우산리 청소년 야영장 건립공사부지 지표조사	12.15~12.31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88번지	288,612㎡	파괴 가마터 토/도자류 다수	(주)신성 엔지니어링	〈도립 우산리 청소년야영장 건립공사부지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8	하일~미사 도로개설구간 지표조사	12.12~01.1.20	하남시 망월동 694-1 ~236-3까지 약 1.7㎞이내	51,000㎡	토/도자류 다수	하남시	〈하일(강일)~미사간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계			18 건				

(2) 시 · 발굴조사

번호	건명	조사기간	조사지역	면적	성과	의뢰기관	보고서
1	양주 관아지 발굴조사	1.20~ 11.30	경기도 광주군 유양리 136번지 외 17필지	조선 관아지	토/도자류, 와류,철제류	양주군	『양주 관아지 시굴 및 1차 발굴조사 보고서』
2	여주 파사성지 1차 발굴조사	3.15~ 7.12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삼국시대 석성	백제/통일기 토기류, 도자류,와류	여주군	2002년 출간예정
3	광주군 도자기 엑스포부지 시굴조사	1.17~ 7.16	광주군 실촌면 삼리 산 29-9	구석기	뗀석기류 다수	광주군	2002년 출간예정
4	이천2001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시굴조사	7.27~ 10.5	이천시 관고동 398번지 일대	통일기와요지 외 건물지	토/도자류, 기와류	이천시	『이천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5	화령전 우물지 발굴조사	4.24~ 5.6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23	조선시대 우물지	자기류,철제품	수원시	『화령전 전사청지 발굴 조사보고서』
6	인천 문학경기장 부지 공동발굴조사	1.22~ 8.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 5-1	청동기 시대 구상유구	마제석기, 무문토기류, 타제석기 외	인천광역시	『인천 문학동 선사유적』 인하대박물관과 공동조사
7	용인 죽전지구 시굴조사	5.24~ 01.12.30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보정리 일원	총 13지점의 유물산포지역 확인	기문원 9지점 토지박 4지점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2002년 상반기 출간예정
8	서안산IC개량 공사구간내 시굴조사	6.23~ 01.5.28	시흥시 거모동 1596-4번지 일원	제4기 경산세 퇴기층, 고려 -조선 건물지	몸돌,와류, 도자류	한국도로공사	『서안산 IC접속부 개량 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9	용인 신갈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6.30~ 10.15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5번지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와류, 토/도기류 다수	대한주택공사	『용인 신갈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0	하남 교산동 2차 발굴조사	7.3~ 01.11.24	하남시 교산동	조선 건물지, 담장지, 석축연못지	와류, 토/도자류	하남시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II)』
11	용인 봉명리 공장부지시굴조사	8.16~ 10.30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115-2일원	세장방형주거지 1기외 성과없음	청동기시대 석기류, 토기류	(주)제너럴 라이팅	2002년 출간예정
12	용인 구갈(3) 택지개발지구 시굴조사	8.23~ 11.30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57-2일원	원형 주거지, 수혈유구	삼발형토기편 외 적갈색/ 회흑색 토기편	경기지방공사	『기흥구갈(3)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유적긴급시굴조사보고서』
13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 시굴조사	10.5~ 12.30	오산시 지곶동 155	석축 산성	토/도자류, 와류	오산시	『오산 독산성 · 세마대지 시굴조사 보고서』
14	여주 고달사지 3차 발굴조사	11.1~ 01.8.24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고려시대 사지	토/도자류, 와류, 기타	여주군	유물정리 및 보고서 작업중
15	계수-과림 도로개설구간 시굴조사	11.29~ 01.1.28	시흥시 계수동 안골	청동기주거지, 고려석렬유구, 토광,조선분묘	무문토기, 방추차, 도자류, 와류	(주)준 종합건설	2002년 발간예정
16	수도권광역상수도 사업지구시굴조사	12.7~ 01.1.26	안양시 관양동	청동기시대 주거지	무문토기, 마제석기, 방추차 외	한국수자원공사	2002년 상반기 보고서 발간 예정
17	경복궁 태원전권역 공동시굴조사	12.1~ 12.30	종로구 세종로 1번지	19세기 경복궁의 부속건물	와전류,도자류	문화재청	〈경복궁 태원전권역 시굴조사〉
18	양주 관아지 2차 발굴조사	12.20~ 01.10.15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136 외	조선시대 관아지	토/도자류, 철제류, 와류	양주군	2002년 상반기 보고서 발간 예정
19	회암사지 3차 발굴조사	3.8.~ 01.4.26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14-1	회암사의 전체 사역 파악	금속유물, 불상류, 도자류,와류 각종	경기도/양주군	통합 보고서 출간예정
20	남양주 호평 · 평내동 시발굴조사	7.~ 12.00.12.1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일원	조선시대 민묘군	각종 명기류 외	한국토지공사	『남양주 호평 · 평내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보고서 I』
21	용인 죽전지구 발굴조사	9~ 01.12.15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산 10-4번지일원(7구	청동기-근대 주거지 및 분묘유적	무문토기, 석기, 원형점토대토기, 백제토기,금속류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2002년 발간예정
계			21 건				

3) 2001년도

(1) 지표조사

번호	건명	조사기간	조사지역	면적	성과	의뢰기관	보고서
1	성남~장호원 도로개설공사 예정지역 지표조사	1.2~2.20	광주시 오포면 태전리~용수리	1,280000㎡	빗살무늬, 무문토기편, 자기편	(주)현대건설·동일기술공사	〈성남~장호원 도로개설(2공구) 건설공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	용인 풍덕천리 택지개발지 지표조사	1.10~1.20	용인시 풍덕천리 산37번지 일원	40,265㎡	성과없음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용인 풍덕천리 주택건설 사업부지지표조사보고서〉
3	용인 언남리 택지개발지 지표조사	1.10~1.20	용인시 언남리 산83번지 외 15필지 일원	67,620㎡	성과없음	상원건설 주식회사	〈용인 언남리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표조사 보고서〉
4	하남 신장2지구 택지지구 지표조사	1.26~2.28	하남시 신장12동 일대	128,679㎡	백자편 소수 외 성과없음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지구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5	평화생태공원 조성지구 지표조사	3.2~4.20	파주시 마정리·사목리 일원	454,644㎡	자기편, 토기편	경기도	〈평화생태공원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6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 지표조사	3.5~7.20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일원	9,060,000㎡	유물산포지, 분묘군	한국토지공사	「화성 동탄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7	화성 동탄 아파트부지 지표조사	12.7~12.20	화성시 태안읍 가산리 188번지 및 반월리 713-3번지 일원	80,159㎡	성과없음	엘디산업개발 주식회사	약보고서 제출
8	여주 우회도로개설구간 지표조사	3.15~6.30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 대신면 가산리	도로9.816㎞	추정 건물지, 도자류	(주)풍림산업	약보고서 제출
9	화성 남양대광그린타운APT 신축공사부지 지표조사	4.24~5.23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 산13-13번지 일원	62,935㎡	성과없음	(주)대광건설	약보고서 제출
10	남양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사능~호평)개설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6.19~9.19	남양주시 사능 호평간	6,134㎡	옹기편, 자기편, 기와편, 도기편	(주)한진중공업 (주)환경그룹	〈남양주시 사능~호평간 도로 개설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1	여주대학 시설확장부지 지표조사	7.16~8.15	여주군 여주읍 교리산6-7 일대	253,427㎡ (약30,000평)	성과없음	여주대학	약보고서 제출
12	화성 금의 지방 산업단지 지표조사 용인시 문화복지	8.17~10.17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식포리, 수촌리 일원	253,427㎡	자기편, 기와편	(주)천일기술단	〈화성 금의 지방 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3	용인 행정타운 건립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10.30~12.8	용인시 역북동 산68-19번지 일대	262,547㎡ (약79,420평)	성과없음	용인시	〈용인 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 부지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4	연천-신탄리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 문화재지표조사	10.30~11.29	연천군 현가리~신탄리	16.4㎞	백자편, 기와편, 옹기편, 주름무늬병편	(주)수성엔지니어링	〈연천-신탄리간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5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지조성 위한 실시설계 및 평가용역	10.20~12.5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06	748,405㎡ (226,393평)	성과없음	(주)삼안건설 기술공사	〈고양 국제 전시장 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6	이천 모가면 소고리 골프장 조성부지 지표조사	11.8~12.8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산91-9일원	748,405㎡	자기편, 기와편	(주)딤플	〈이천 모가면 소고리 골프장 조성부지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7	외국인을위한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11.23~02.2.22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	992,450㎡	성과없음	경기도	〈외국인을 위한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일원 문화적 지표조사 보고서〉
18	남양주권소각잔재매립장설치 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	11.28~12.27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	284,000㎡	기와편, 자기편	남양주시	〈남양주군 소각잔재 매립장 설치사업 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	용인 삼가동 아파트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12.10~12.23	용인시 삼가동 일대	18,344㎡ 외 8필지	토기편 소수 외 성과없음	(주)늘푸른주택	〈용인 삼가동 아파트부지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계			19 건				

(2) 시 · 발굴조사

번호	건명	조사기간	조사지역	유적성격	출토유물	의뢰기간	보고서
1	기흥 구갈 3지구 발굴조사(2000년~)	~12.27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57-2 일원	주거지, 구덩이유구, 소형유구, 석실분 등	토기류, 철기류, 방추차,자기류, 도기류, 동전등	경기지방공사	보고서 간행작업 진행중
2	양평 양수리 선사유적 시 · 발굴조사	1.12~ 4.3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65번지 일대	청동기시대 주거지	석기류, 무문토기류	양평군	『양평 양수리 선사유적 시 · 발굴조사』
3	화성 발안 택지개발지구 시굴조사	3.16~ 10.6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원삼국-초기백제의 주거지, 수혈유구,도랑유구	원삼국-백제의 토기편 다수	대한주택공사	현장조사 진행중
4	수도권 광역상수도 지구 추가시굴조사	3.16~ 10.6	안양시 관양동 15-12번지 일대	주거지, 수혈구덩이, 석곽묘, 토광묘	무문토기, 마제석기, 숫돌, 석촉편, 자기편 등	한국 수자원공사	2002년 상반기 간행예정
5	인천 운서 토지구획 정리지구 공동시굴조사	3.9~ 4.19	인천시 중구 운서 동일대 4개소	수혈주거지	자기편, 토기편, 도기편 등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고서간행준비중
6	여주 원향사지 2차 발굴조사	3.20~ 8.4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 산 41-1번지 일대	고려 사지	소조나한상, 자기편, 토기편, 기와편 등	한국도로공사	유물정리 및 보고서작업 중
7	남양주 호평 · 평내 와요지 및 기타유적 발굴조사	3.27~ 02.6.30	남양주 호평 · 평내동 택지개발지구내	조선 와요지, 석렬유구	석기, 기와편, 자기편	한국토지공사	2002년 상반기 보고서 발간예정
8	수원 농수산물 유통센터 부지내 유적시굴조사	4.9~ 8.6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214-1번지 일원	수혈주거지, 저장공, 분묘	자기편, 토기편, 도기편	수원시	2002년 상반기 간행예정
9	하남 교산동 축사 건축부지 시굴조사	5.2~ 6.30	하남시 교산동 87-1, 86-1,272-3번지 일대	없음	자기편, 토기편, 기와편	하남시	약보고서 제출
10	화성 동탄 성원임대아파트 건립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5.2~ 6.30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37번지 일대	없음	자기편, 토기편, 기와편	(주)성원 산업개발	약보고서 제출
11	연천 학곡제 개수 공사지역 시굴조사	6.7~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일원	건물지	빗살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화살촉, 자기편, 도기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현장조사 진행 중
12	시흥시 계수~과림간 도로개설 구간내 안골A지점 발굴조사	6.14~ 10.30	시흥시 계수동 안골마을 산55-5번지 일원	주거지, 석렬유구, 토광묘, 분묘 등	공열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반원형석도, 석부, 유리구슬등	시흥시	2002년 보고서 간행 예정
13	회암사지 4차 발굴조사	7.20~ 02.5.15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 14일대	건물지	각종 유물 다수	경기도/양주군	현장조사 진행 중
14	용인 이동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 시굴조사	7.23~ 12.22	용인시 이동면 서리 547번지	고려백자요지	고려백자, 조선백자	용인시	2003년 통합보고서 간행 예정
15	하남 교산동 3차 발굴조사	7.30~ 12.31	하남시 교산동 78-3번지 일원	담장지, 건물지, 석축연못지	기와편, 자기편, 토기편, 도기편, 어망추 등	하남시	보고서 작업 진행중
16	시흥 서안산IC 발굴조사	9.3~ 02.3.16	시흥시 거모동 1546-4번지 일원	건물지	토기, 청자, 기와류	한국도로공사	현장조사 진행중
17	오산 양산동 아파트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8.30~ 11.2	오산시 양산동 산7번지 일대	없음	자기편, 도기편, 기와편	(주)늘푸른 주택	현장조사 진행중
18	용인죽전지구 문화재 시굴조사(9번주변)	9.10~ '02.7.13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석곽묘,고려 도기가마 외	인화문토기, 도기, 금속유물 외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2002년 12월 보고서 발간예정
19	여주 파사성지 2차 발굴조사	9.27~12.1 02.3.13~4.30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	삼국시대 산성	토기편 각종	여주군	현장조사 진행중
20	용인 청덕리 광도아파트 신축부지 시굴조사	9.20~ 11.22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9-6번지 외 4필지	고려시대석곽묘	청자완, 청자대접, 청동제 숟가락, 무문토기편 등	(주)광도건설	2002년 보고서 발간예정
계			20 건				

2. 주요 유적의 조사 개요

1)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⑴ 위　　치 : 광주시 실촌면 삼리 산 29-9번지 일대

⑵ 조사기간 : 2000년 4월 ~ 11월

⑶ 시　　대 : 구석기시대

⑷ 조사내용

삼리 유적은 행정구역상 광주시 실촌면 삼리 산 29-9번지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일대가 "광주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가 열리는 행사장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찾아졌다. 지표조사 결과 이곳에는 제4기 갱신세 고토양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2지역과 5지역에서 여러면석기, 몸돌, 격지 등의 뗀석기들이 수습되어 구석기시대 유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유적의 전체면적은 약 10만여평에 이르나 유물이 출토되는 범위는 약 2만평 정도이다.

시굴 및 발굴 조사는 2000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조사지역을 구릉 능선에 따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1~5지역으로 설정하고, 2 · 3 · 4지역에서는 발굴조사를, 1 · 5지역에서는 시굴 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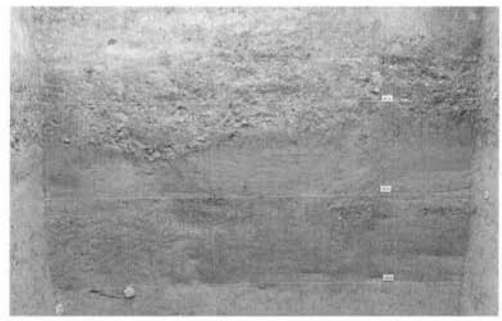
실촌면 삼리일대는 발리봉(해발 514m)에서 발원한 잔구성 구릉들이 북동방향으로 발달해 있으며 유적은 해발 80m에 해당하는 구릉들 위에 위치한다. 구릉 능선에는 제4기 갱신세 고토양층이 광범위하게 퇴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퇴적층 아래로 구하상 자갈층이 넓게 분포한다.

2지역 I-17 칸을 기준으로 볼 때 삼리 유적의 일반적인 층위 쌓임은 아래서부터 기반암(8층), 구하상기원 모래 · 자갈층(7층), 모래질 · 찰흙층(6층), 하부 토양쐐기층(5층), 사질 · 역층(4층), 상부 토양쐐기층(3층), 암갈색 찰흙층(2층), 표토층(1층)등 8개 지층으로 이루어진다. 석기는 2지층, 3지층, 3지층과 4지층의 경계면에서 출토되어 각각 1, 2, 3문화층으로 설정하였다. 발굴에서 출토된 석기는 약 3,500여점이 넘으며, 지표에서도 많은 석기가 수습되었다.

출토된 석기 가운데에는 몸돌, 격지, 돌조각을 비롯하여 주먹도끼, 찍개, 여러면석기, 긁개, 홈날, 밀개 등이 있다. 특히 5지역에서 이루어진 시굴조사에서는 석영, 규암질 석기들과 함께 흑요석으로 만든 좀돌날을 비롯하여 슴베찌르개, 뚜르개, 새기개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형성 시기는 중기구석기시대에서 후기구석기시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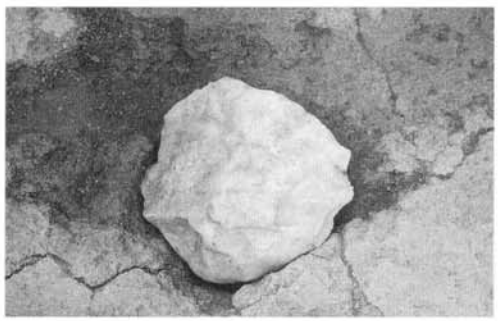
삼리 유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된 대부분의 중요한 구석기유적이 주로 큰 강 주변에 위치하는 것과는 달리 내륙의 작은 하천주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삼리 구석기유적은 한강의 남쪽에서는 드물게 찾아지는 구석기유적 가운데 하나로 유적의 규모와 출토된 유물의 성격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경기도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석기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5지역에서 출토된 흑요석 석기는 지금까지 발굴된 구석기유적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흑요석 석기와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흑요석 돌감의 기원 및 획득 양상에 대한 연구는 구석기시대 선사인류의 활동범위 및 경제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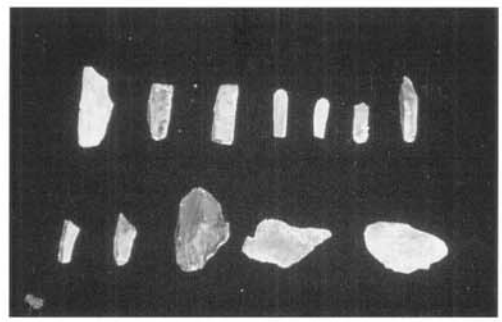
〈사진 1〉 조사II지역 전경(남→)


〈사진 2〉 조사II지역 I-17트렌치 동벽

〈사진 3〉 조사III지역 발굴후 전경(서→동)

〈사진 4〉 조사III지역 시굴 5트렌치 출토 유물


〈사진 5〉 조사I지역 시굴 21트렌치 출토유물


〈사진 6〉 조사V지역 출토 흑요석 석기

2) 여주 高達寺址

(1) 위　　치 :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2) 조사기간 :

- 1 · 2차 : 1999년 9월 27 ~ 2000년 6월 22(경기도박물관 공동조사)
- 3차 : 2000년 11월 1일 ~ 2001년 7월

(3) 시　　대 : 고려시대

(4) 조사내용

고달사지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는 예전에 高達院 또는 高達禪院이라고도 불렸다. 여기서 보이는 "원(院)" 명칭은 선종 계열의 개인 수양처로서 "禪院"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보면 고달사지는 九山禪門 중 鳳林山門에 속하는 사찰로 764년(경덕왕 23)에 창건된 이래로 고려 광종대에 가장 번성했으며 16세기를 전후해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머물렀던 고승으로는 圓鑑大師 현욱(玄昱:788-869), 眞鏡大師 심희(審希:855-923)와 元宗大師 찬유(璨幽:869-958)를 들 수 있다.

일찍이 고달사지는 사적 제382호로 지정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여주군은 고달사지 주변에 대한 정비, 정확한 현상과 규모를 파악하여 잃어버린 역사유적지를 복원하고자 하였으며 그 첫 번째 방안으로 1998년에 사전 학술조사를 경기도박물관에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고달사지의 사역이 당시 주변의 민가지역까지 이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여주군에서는 주변 민가를 매입, 철거한 후 정밀발굴조사를 의뢰하였고 경기도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은 1999년 9월 27일부터 2000년 6월 22일까지 공동으로 1차와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건물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3차 발굴조사는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7월까지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이때 유적의 조사범위는 전체 유적의 남서쪽(원종대사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의 서쪽 지역) 일부 지역과 유적의 동쪽(6 · 7건물지의 동쪽 지역) 일부 지역에 한정하였다.

조사결과 고달사지는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건물군으로 남향한 채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사찰의 규모가 확장되어 새로운 영역을 형성해 나가면서 건물군의 전체향이 동향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고달사지는 하나의 건물지를 중심으로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1건물지〉를 중심으로 한 영역, 〈2건물지〉를 중심으로 한 영역, 〈3건물지〉를 중심으로 한 영역, 〈6건물지〉를 중심으로 한 영역, 〈원종대사혜진탑비〉를 중심으로 한 영역, 〈1축대〉와 〈추정회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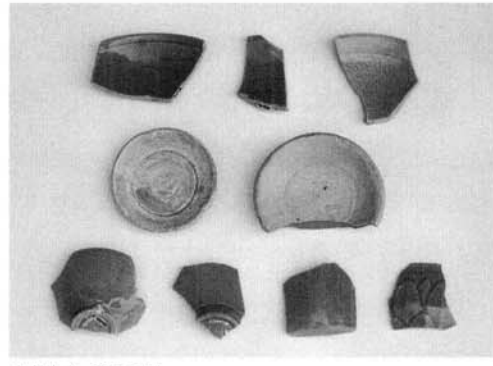
로 구획된 영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발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람배치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며 검토 중에 있다.

처음에는 〈1건물지〉와 〈6건물지〉, 〈원종대사혜진탑비〉 각각이 중심이 되는 몇 개의 원(院)이 중심이 되어 남향을 하고 놓였던 배치로 추정된다. 이후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1건물지〉와 〈2건물지〉가 주변 건물들과 더불어 새로운 중심 사역으로 재구성되고, 그 전면에는 〈1축대〉와 〈추정회랑지〉가 전체적인 경관을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조사되지 않은 동쪽 구역에서는 사찰의 문지 및 기타 전각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추후 발굴을 통해 검토해 나갈 것이다.

〈사진 1〉 유적전경

〈사진 2〉 1건물지 전경

〈사진 3〉 출토유물



〈사진 4〉 출토유물

3) 여주 元香寺址

⑴ 위　　치 :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 산 41번지 일대

⑵ 조사기간

- 1차 : 1999년 8월12일~ 2000년 1월 31일
- 2차 : 2001년 3월26일~ 8월 12일

⑶ 시　　대 : 고려시대

⑷ 조사내용

이 유적은 충북대학교에서 1992년에 실시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예정구간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지형은 남서쪽으로 해발 80m 내외의 얕은 구릉을 끼고 있으며, 북동쪽으로 넓은 들판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2차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차 조사는 도로 구간만을 대상으로 1999년 8월12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2001년 3월26일부터 동년 8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1, 2차 발굴조사를 통해 조사된 면적은 약 2,500여평으로 전체 사역의 1/2 정도로 확인된 유구는 18동의 건물지를 비롯해 담장지, 暗渠, 기타 유구 등이 발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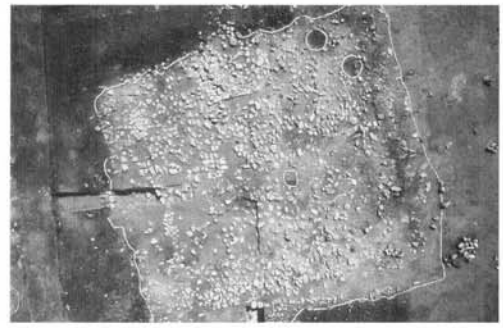
건물지에 사용된 석재는 주초석 일부와 中門址(13호 건물지)의 장대석을 제외하고 자연석에 약간의 손질을 가했을 뿐 치석된 것은 거의 없다. 가람배치는 木塔址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사역과 남쪽의 부속건물들로 이루어졌다. 중심사역의 배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中門→塔→金堂→講堂이 일렬로 배치되고 남쪽과 북쪽에 回廊址가 위치한 1塔 1金堂式을 기본으로 그 외곽에 부속건물이 위치한다. 유물로는 '元香寺' 銘 기와를 비롯한 각종 기와류와 청자, 토기, 금속제품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元香寺址는 유적이 위치한 지명의 이름을 따라 원부리사지라 불리거나 '元香寺' 銘 기와가 채집됨에 따라 元香寺址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元香寺' 銘 기와가 출토되고 寧越 興寧寺址에 위치한 澄曉大師 寶印塔碑(944년 고려 혜종 원년 건립) 비문에 元香寺가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이 유적이 元香寺의 옛터임이 밝혀졌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元香寺는 7~8세기대 창건되었고, 9세기말 사자산문과 관련된 선종계 사찰로 존속되었으며, 10세기 중엽 호족세력의 후원으로 사세를 확장하여 번성하다 12세기 중엽 무렵 화재로 인해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3세기대로 볼 수 있는 상감청자도 일부 출토되고 있어 몽고전란에 의해 폐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元香寺址는 건물지의 형태와 다양한 출토유물로 볼 때 상당한 사세와 위엄을 갖춘 고려시대의 사찰로 이 시기 지방사찰과 청자, 기와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사진 1〉 遺構 전경


〈사진 2〉 木塔址 전경

〈사진 3〉 '元香寺'銘 기와

〈사진 4〉 塑造佛

4) 용인 죽전지구 유적

죽전 1 – 대덕골 유적

(1) 위　　치 :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산 10-4번지 및 산 48-1번지 일원

(2) 조사기간 : 2000년 12월 19일 ~ 2001년 12월 18일

(3) 시　　대 : 청동기시대 ~ 근세

(4) 조사내용

- 조사유구 :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 소성유구 1기, 소형유구 43기, 백제시대 토광묘 20기,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3기, 조선~근세 분묘 48기, 회곽묘 3기, 미상유구 3기 등 총 126기
- 출토유물 : 빗살무늬토기편, 구순각목공열문토기, 공열문토기,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소형토기, 백제시대의 직구호, 광구호, 단경호, 통일신라시대 파배, 완, 소호, 조선~근세의 청동제 · 철기유물, 각종 석기류 등 약 500여점

⑴ 조사된 유구의 내부 퇴적토와 자연구상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들이 소량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⑵ 능선 정상부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있어 세장방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2~3기가 1개 단위로 조성되어 있다. 이는 최근에 조사된 아산 명암리유적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당시의 가족구성 단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호 주거지의 공열문토기와 4호 주거지의 구순각목공열문토기는 흔암리유형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유적의 상한 연대를 기원전 8C경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 내부 출토유물이 매우 빈약한 점으로 보아 폐기원인은 이주를 상정할 수 있다.

조사된 주거지는 5기뿐이지만 한강 이남, 특히 용인지역에서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청동기시대 최초의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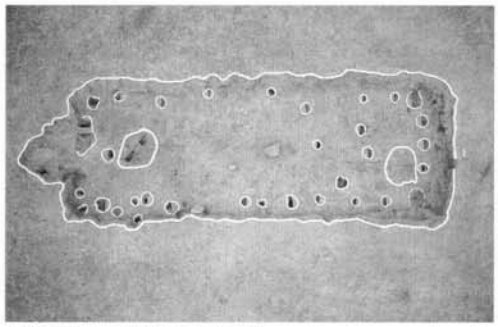
⑶ 수혈유구 중 2 · 5 · 40호는 내부에서 세형동검문화와 관련이 깊은 원형점토대토기, 두(豆), 흑도 등 청동기시대 후기의 문화상을 반영하는 유물조합을 보이고 있다.

원형점토대토기 중에는 환원소성된 회백색연질토기가 다수 보이는데 이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밀폐요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소성유구는 천장이 함몰된 것이 확인되며, 연소실과 소성실이 구분된다. 연소실은 20~30㎝가량의 할석이 수적되어 있다. 소성실의 벽은 약 10㎝가량 소결되어 있어 가마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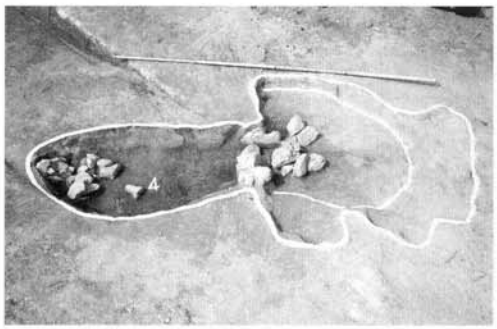
⑷ 백제시대의 토광묘는 20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유물이 출토된 것은 11기이며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9기는 유구가 확인된 층위 및 등고선과 나란히 조성된 점으로 보아 백제시대 토광묘로 분류하였다. 토광묘는 대부분 구릉 동사면에 형성된 자연구 상면에서 확인된다. 부장품은 충진토 상면에 매납되었으며, 부장 위치는 동일하다.

⑸ 조선시대의 분묘는 총 43기인데 이 중 16호에서는 조선통보 8점이 출토되었으며, 9 · 18호에서는 청동제 숟가락과 백자대접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조선초기로 비정되는 민묘가 1기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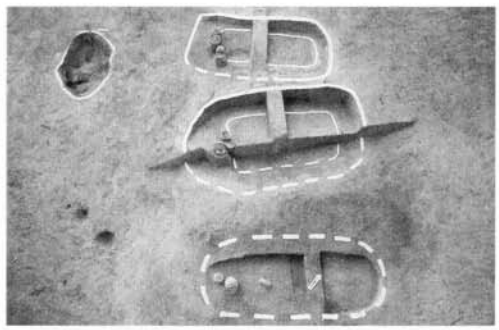
〈사진 1〉 죽전7지점 항공사진



〈사진 2〉 죽전7지점 3호주거지



〈사진 3〉 소성유구



〈사진 4〉 죽전7지점 7-13, 14, 15호 토광묘

죽전 2 - 도기가마 Ⅰ · Ⅱ 유적

⑴ 위　　치 : 용인시 수지읍 죽전 1리 산 48-1, 91번지 일대

⑵ 조사기간

- Ⅰ 유적 : 2001년 3월 19일 ~ 2001년 6월 30일
- Ⅱ 유적 : 2001년 9월 14일 ~ 2001년 12월 15일

⑶ 시　　대

- Ⅰ 유적 : 고려시대
- Ⅱ 유적 : 통일신라 ~ 근세

⑷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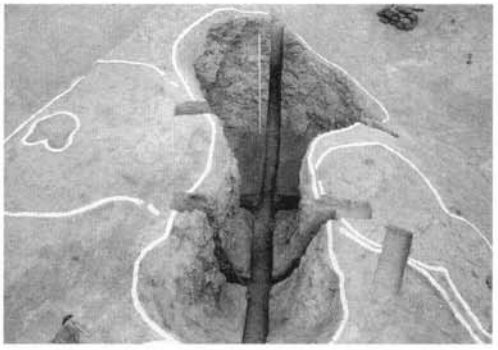
- Ⅰ 유적 : 북쪽으로 발달한 구릉 서사면에서 가마 1기와 3개소의 폐기장, 북사면에서 가마 1기와 2개소의 폐기장이 조사되었으며 청자 잔, 토제 벼루 외 호 · 병 · 옹 · 장군 · 시루편 등 다량의 고려시대 도기편이 출토되었다.

- Ⅱ 유적 : 계곡 서측의 구릉 서사면에 가마 2기 및 7개소의 폐기장,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기, 시대미상 석곽묘 1기, 중세시대 수혈주거지 2기, 추정 주거지 1기, 분묘 5기가 위치하며, 동측의 경사면에는 탄요 1기, 분묘 3기 등 통일신라~근대에 이르는 총 16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출토유물

은 토기류, 금속제류, 자기류 외 고려시대 도기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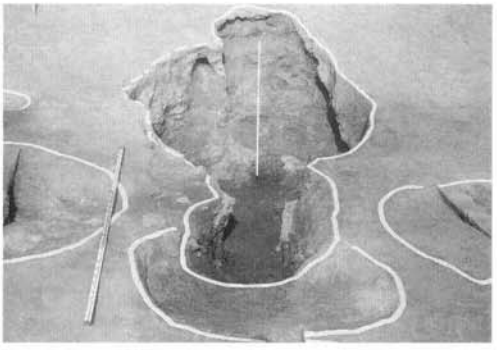
조사된 4기의 도기가마는 모두 지하식 평요로서 중부지방 일대에서는 안성 화곡리 1기, 화성 매곡리 3기를 제외하고는 조사 예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접한 용인 성복리유적(통일신라시대 가마), 보정3리 사기막골 청자요지 등과 함께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이 지역이 도자기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이 시기 도기 및 가마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1〉 도기가마 I 유적



〈사진 2〉 I-1호 가마 전경

〈사진 3〉 도기가마 2유적



〈사진 4〉 I-2호 가마 전경

5) 기흥 구갈(3)지구 유적

(1) 위　　치 : 용인시 구갈리 57-1번지 일원

(2) 조사기간 : 2001년 3월 6일 ~ 2001년 12월 1일

(3) 시　　대 : 백제 ~ 조선

(4) 조사내용

기흥 구갈(3)지구 발굴조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2001년 3월 5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 실시 되었으며 백제시대 주거지와 구덩이유구, 소형유구, 토광묘, 도랑과 횡구식석실묘, 고려이후분묘 등 118여기에 이르는 유구와 다수의 토기류, 철기류 등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16기인데, 대부분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의 수혈주거지이며 내부시설로 기둥구멍, 벽구시설, 부뚜막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지 형태에 있어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미사리유적 등 서울 강남지역 일대에서는 육각형 또는 몸자형 주거지가 확인되는데 비하여 구갈리유적을 비롯한 경기남부의 화성 왕림리, 당하리유적 등에서는 방형계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어 양 지역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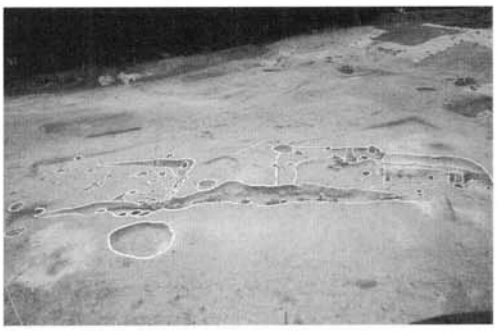
62기가 확인된 구덩이 유구는 평면형태상 원형과 타원형, 방형계의 2가지로 대별된다. 원형의 규모는 직경 1~3m, 깊이 1~3m 정도의 대형으로 상부보다 하부가 넓어지는 단면 복주머니형(플라스크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두 구덩이가 하부에서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三國志』 魏志 「東夷傳」 등의 기록과 최근 사적으로 지정된 공주 장선리유적 등지에서 조사된 토실(土室)과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된다. 따라서 그 용도에 관해서도 단순한 저장시설로 만이 아닌 주거, 취사, 방어시설 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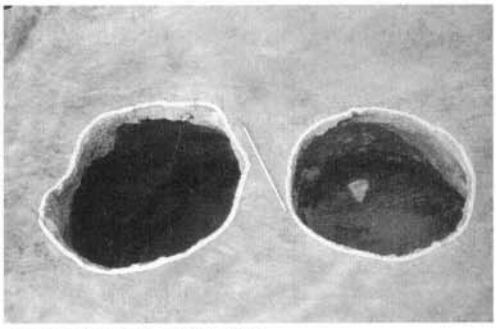
한편 장방형 내지 타원형의 구덩이는 길이 2m 내외, 깊이 1m 내외로 원형보다 작고 얕다. 특히 9호 구덩이에서는 회색연질파수부시루와 적갈색완이 출토되고 불땐 흔적 등이 있어 간단한 취사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백제시대 토광묘, 소형유구, 구상유구 등과 고려이후의 분묘가 있다. 그리고 구릉 정상부에서 횡구식 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다.

유물 중 토기류에 있어서 시루,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호형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으나 고배류, 삼족기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한성백제의 초기유적으로 추정된다.

본 유적은 조사결과 대부분의 유구가 백제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많은 수의 유구가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강유역를 제외하고 밝혀지지 않았던 백제의 지역문화상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유적전경


〈사진 2〉 4, 5, 6호 주거지 전경


〈사진 3〉 16, 17호 구덩이 전경

〈사진 4〉 석실묘 전경

6) 양주 회암사지 2~4차 조사

(1) 위　치 :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14-1 일대

(2) 조사기간

- 2차 : 2000년 3월 2일 ~ 2000년 9월 30일
- 3차 : 2001년 3월 8일 ~ 2001년 4월 26일
- 4차 : 2001년 7월 8일 ~ 현재

(3) 시　대 : 고려말 - 조선

(4) 조사내용

양주 회암사지에 대한 조사는 1997년도 시굴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7개 년에 걸친 중장기 발굴조사를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차조사는 경기도박물관 단독으로 8단지에 대하여 1998년 8월 27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차 조사부터는 경기도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이 공동으로 7단지와 6단지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3차조사는 6단지 건물지의 내부구조 확인과 5단지 서쪽 지역을 조사하였고 4차 조사는 회암사지 5단지 동쪽 지역과 4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물지는 8단지 5동, 7단지 8동, 6단지 6동, 5단지 9

동, 4단지 13동 등 현재까지 41동이 확인되었다.

회암사지는 문헌 기록에 의하면, 이미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말~조선 초에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 중창을 거듭하면서 사역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는 창건기까지 소급할 수 있는 건물지까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굴조사의 목적이 회암사지의 정비 및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사 직전의 건물지 노출과 함께 전각 배치를 파악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이외에 4차 발굴조사에서는 기존의 발굴조사가 실시된 지역에 대한 보강 조사도 실시하였다.

보강 조사에서는 특히 8단지를 중심으로 건물지 내부 기단토 조사와 더불어 건물지 외부 배수로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복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류해왔던 보광전 건물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시굴갱 조사를 통하여 건물지 내부 층위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지도위원회의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5차 발굴조사에서는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 유물전시관이 건립될 유물산포지 "라"지역과 진입로 포장공사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4단지 동쪽 지역의 상단부는 조사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잡목 제거에 대한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는 5차 발굴조사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3차 조사는 2000년도 3월에 시작하여 6월에 완료하고 4차 조사는 7월에 시작하여 2002년 5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동계시 유구의 훼손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는 건물지 노출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2002년에는 구들 및 아궁이와 같은 내부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차와 4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도자기류, 기와류, 금속류 및 석제품 등으로 구분되며, 이전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큰 차이가 없다.

1) 도자기류

도자기류는 상당히 많은 양이 조사지역의 와적층 및 구지표면상에서 출토되었으며, 도자기가 사용된 본래의 위치에서 출토된 경우는 극히 적다. 출토된 자기류 가운데 가장 많은 출토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백자, 분청사기 순이고, 기타청화백자, 고려 및 조선청자가 극히 소량 출토되었다.

출토된 백자편 중에서 저부 바닥 내지 내면에 명문이 있는 것이 소량 출토되었는데 기존의 출토된 명문백자와는 큰 차이가 없지만, 특히 4~5단지에서 출토된 백자 중에는 "左", "右", "別" 등 광주 가마터에서 1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들이 많으며, "右辛亥" 銘의 백자는 광주 탄벌리 1호~5호 가마에서 1611년에 제작된 것이다. 분청사기 가운데 "內膳"과 같은 관청명이 새겨진 도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시기는 1403년에서 1600년 사이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타 "寧" 명문의 분청사기도 출토되었다. 자기류의 기종은 대접, 접시, 발, 완 등 일상용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백자동자상은 8단지에서

5단지까지 흩어져 출토된 것을 접합한 것으로 회암사 폐사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복식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2) 기와류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시굴조사 및 1 · 2차 조사시에 출토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각 건물지 주변의 와적층에서 다양한 형태의 막새기와들이 출토되었는데, 수막새에는 범자문 수막새가 가장 많고, 봉황문이 있는 수막새도 다량 출토되었다. 이외에 대장전 건물지 기단토 조사에서는 고려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귀목문 막새가 출토되었다. 암막새는 범자문이 많고 다음에 용문이 다량 출토되었다. 특수기와류로는 2차 조사시 보광전 북동모서리에서 토수와 함께 용두가 출토되었는데, 복원을 완료하여 이번 지도위원회에 처음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광전 남동 모서리인 5단지 답석부에서 잡상이 출토되었다.

3) 금속류

회암사지 3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금속제 유물은 크게 철제류와 청동제류, 금동제류로 구분된다. 철제 유물은 건물지 목조결구용 철정이 다수를 차지하며, 기타 철겸, 철창, 철도자, 살포, 방두정 등 다양한 종류의 철기류가 출토되었으며, 4단지 "카" 건물지 내부에서 삼족의 철솥이 출토되었다. 청동제 유물로는 정식 출토유물은 아니지만, 2차 발굴조삿시 천랑 건물지에서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 청동발과 동일한 청동기가 인근 회암리 마을 뒤편에서 동네 주민에 의하여 발견되어 발굴단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청동제 유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국화가 새겨진 청동 거울이 4단지 문지에서 출토되었으며, 북서쪽 구지표면에서 9개의 청동 방울이 실로 묶여진 채로 출토되었다. 이외에 청동추, 거북이 모양의 청동제품, 청동 정병의 주구부 등이 출토되었으며, 보광전 건물지 후대 퇴적부에서 150개의 동전이 출토되었다. 금동제 유물은 작은 편이 4점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살상의 寶冠장식으로 추정되는 금동편이 있다. 화염문 내에 3개의 구슬문이 장식된 것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4) 석제품

석조물은 2점이 출토되었는데 잔존 상태가 좋지 않아 분명치 않지만, 사자 또는 용을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도한 활석제의 약탕기가 4단지 "가" 건물지 서쪽 배수로 위에서 출토되었는데, 겉면에는 잦은 사용으로 인하여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다. 이외에 활석제의 뚜껑편이 출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석제 벼루는 모두 3점인데 이 가운데 상면에 구름과 새를 조각한 벼루는 색조가 다른 퇴적암 계통의 석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예술성에 있어 최고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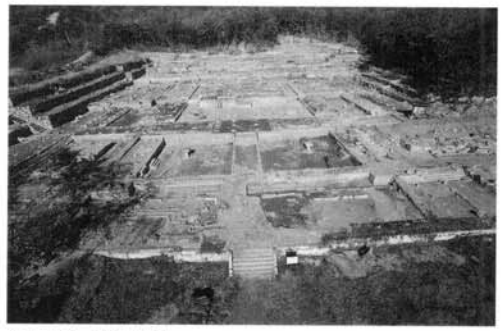
5) 소조품

소조품류는 4단지 門址에서 다량으로 일괄 출토되었다. 대부분이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小片들인데, 동체는 따로 모양을 만든 후 동체를 장식하기 위하여 부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눈 모양의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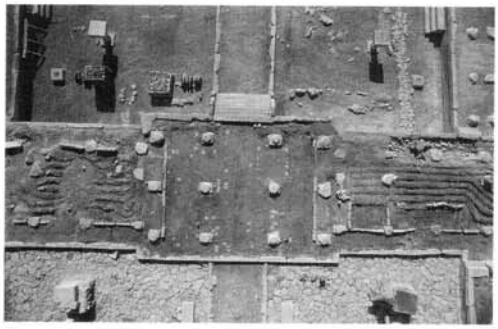
편도 출토되었는데, 이는 原傷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대부분의 파편 모양이 佛畵에 그려진 四天王의 갑옷 문양에서 발견되는 점, 그리고 부릅뜨고 있는 형상의 눈 파편이 출토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그 原傷이 四天王傷일 가능성이 높다. 기타 소조품 가운데에는 용두, 귀면, 상투를 튼 사람 얼굴 등이 출토되었는데, 구체적인 용도는 알기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광전 건물지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하여 선대 기단을 확인함으로써 보광전 중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회암사의 폐사 시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3차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명종~선조대로 좁혀 볼 수 있으며, 폐사 이후의 1세기 가량은 승려들에 의한 회암사 재건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출토 유물과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차례의 발굴조사에서 모두 18개소의 건물지들을 조사하였는데, 4단지 동쪽의 상단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건물지만도 21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8단지에서 4단지까지 분포하고 있는 건물지 수는 모두 4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회암사의 전각 배치는 고려말 목은이 회암사의 전각 배치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과 비교해 볼때, 보광전을 비롯하여 보광전 북동쪽 및 북서쪽에 위치한 향화료, 지장료 건물지까지만 일치하고 있으며, 6단지 이하의 건물지들은 문헌 기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여러 차례의 중수, 중창 내용과 관련하여 전각 배치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

〈사진 1〉 전체 유적 모습



〈사진 2〉 사역 전경



〈사진 3〉 근접 유구 모습

〈사진 4〉 와류 각종

다. 이제까지의 조사에서는 건물지에 대한 내부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몇몇 건물지에서 고건축학상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새로 확인되었다. 먼저 4단지 문지 서쪽에 연결된 "사"건물지에서는 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던 서승당 건물지와 같은 구조의 구들 시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의 구들 시설은 경남 하동 칠불암에 있는 '꼽' 자방과 유사한 형태이나, 구들의 평면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들 구조에 입각한 새로운 명칭이 요구된다. 또한 4단지 "가"건물지 내부에서는 4매의 장대석을 장방형으로 결구하여 그 내부를 빈 공간으로 한 시설이 확인되었는데, 건물지 내부에 시설된 저장 공간 내지 解憂所가 아닌가 추측된다.

7) 양평 양수리 선사유적

(1) 위　　치 :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65번지 일대
(2) 조사기간 : 2001년 1월 12일~4월 3일
(3) 시　　대 : 청동기시대
(4) 조사내용

양수리유적은 1972년 팔당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조사시 5기의 지석묘가 발굴된 이후 후속조사가 없다가 1999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이 행한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조사에서 파괴된 주거지 1기가 확인되어 새로이 주목받게 된 유적이다.

양수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하중도로서 북한강쪽에 연접하여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고도는 28m 정도이다. 현재는 팔당댐 건설로 인해 완전한 섬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섬의 동편을 통해 걸어서 건너다닐 수 있는 지역이었다.

2001년도 본 연구원의 조사는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이 지표조사시 확인한 파괴주거지에 대한 수습조사와 더불어 유적의 범위파악을 위한 시굴조사를 병행하였다. 시굴조사는 현지 여건상 일정 간격의 규칙적인 트렌치를 설정하지는 못하였지만 굴토된 모든 트렌치에서 무문토기 관련 유구가 확인되어 유적의 범위가 이번 조사지역보다는 훨씬 넓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굴조사는 당초 파괴된 주거지 1기에 대한 수습조사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조사과정에서 상부에 층을 달리하는 주거지가 겹쳐 있는 것이 확인되어 절차상 상부의 주거지 1기만을 먼저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의 층위는 표토층과 2개의 무문토기문화층, 모래층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지표하 1.5m 이하로는 문화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2개의 무문토기문화층은 유물상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층간의 시기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내부조사까지 완료된 2기의 무문토기주거지를 포함하여 6개소의 트렌치에서 10여기의 주거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가운데 일부 유구는 주거지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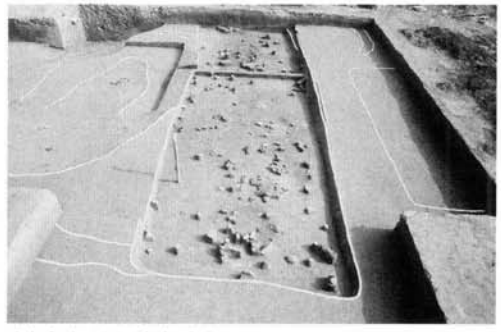
닐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거지로 판단되는 유구 가운데에는 미세한 석기 박편과 함께 반제품의 석기가 밀집되어 있는 곳도 확인되어 석기를 제작하던 공방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출토유물은 각종 석기와 공열토기, 단도마연토기 등이 있다. 석기류는 타제 내지 반타제의 석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석촉 및 반월형석도 등 매우 정치한 석기도 함께 출토되고 있다.

반월형석도는 중부지방에서 많이 보이는 주형석도 일색이며, 석촉은 모두 신부의 능이 경부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들이다. 토기류는 무문양의 발형, 호형 무문토기와 공열토기, 단도마연토기 등이 동일유구에서 공반되고 있어 한강유역 무문토기주거지의 일반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열문 외에 토기 장식 요소인 이중구연, 단사선, 구순각목 등은 전혀 보이지 않거나 1~2점만이 확인되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순수하게 공열토기만을 내는 유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양수리유적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현상을 유적 전체의 현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만 이것이 양수리유적 내의 부분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한반도 무문토기 편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밖에도 소량의 즐문토기와 원삼국~백제에 이르는 타날문토기가 수습되었다. 이들 유물은 이번 조사에서 관련 문화층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유물이 수습되는 지역이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을 달리하여 관련 유구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유적전경


〈사진 2〉 1호주거지 전경

〈사진 3〉 1호주거지 유물 출토 상황

〈사진 4〉 2호주거지 전경

8) 남양주 호평 · 평내지구 유적

⑴ 위　　치 : 남양주시 호평, 평내동 택지개발지구내

⑵ 조사기간

- 1차 시 · 발굴조사 : 2000년 7월 24일 ~ 2001년 1월 3일
- 2차 시 · 발굴조사 : 2001년 3월 27일 ~ 2001년 12월 8일
- 3차 발굴조사 : 2002년 4월~ (예정)

⑶ 시　　대 : 구석기시대 · 조선시대

⑷ 조사내용

남양주시 호평, 평내동의 약 58만평 지역은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 1998년에 정밀지표조사를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였다. 숭실대학교 박물관은 지표조사 결과 총 15개소의 유적을 확인하고 그 중 조선시대 기와가마터 3개소와 조선시대 분묘군 3개소에 대한 시 ·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우리 연구원에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를 요청하여 1차 시 ·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조사에서는 분묘군 2개소에 대한 시 · 발굴조사와 와요지 2개소에 대한 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차 조사에서는 나머지 분묘군 1개소(추후 1개소 추가)와 와요지 1개소에 대한 시굴조사, 그리고 1차 조사에서 이루어진 와요지 2개소에 대한 시굴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굴조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평내 1 · 2 · 4지구에서는 내시 분묘 6기와 일반 분묘 3기를 비롯하여 숯가마 2기, 성격미상의 집석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수백점의 구슬류와 함께 수저, 벼루, 관정류, 자기류, 기와류, 도기호, 석물 등이다. 특히, 내시분묘에 대한 발굴조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가 드물어 향후 조선시대 내시라는 특수한 신분계층의 장례제도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평내 2지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내시의 후손인 유분묘 한 기만을 발굴조사하였는데 그 외 지역은 시굴조사 결과 아무런 유구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만 무연고 몇 기만을 확인하였다. 무연묘에서는 이장과정에서 청동합 1점과 숟가락이 수습되었다.

평내 3지구는 조선시대 와요지 유적으로 시굴 및 발굴조사 결과 총 6기의 기와가마와 건물지유구 2기, 성격미상의 석렬유구 1기, 분묘 2기가 최종 조사되었다. 기와가마는 조선전기에서 중기에 걸쳐 조성되어 번와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평기와만을 구운 전용와요로 추정되어 관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기와류가 중심을 이루며 약간의 자기류와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한편, 1차조사시에 약간의 타제 석기류가 수습되어 2차 조사시에 이에 대한 구석기 시굴조사를 시행

하였으나 석기와 관련된 유물포함층은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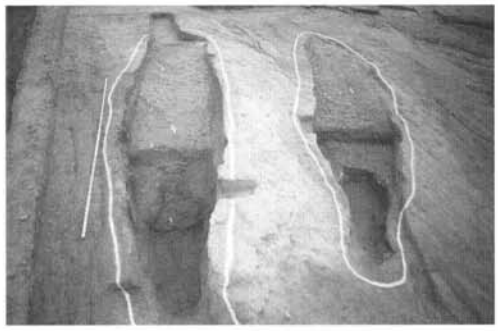
호평 1지구는 조선후기의 와요지로 시굴 및 발굴결과, 총 2기의 기와가마와 함께 폐기장, 탄재구덩이, 기와건조용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연구도 확인되었으나 조사하지는 않았다.

기와가마는 조선후기의 단시간내에 번와한 기와가마로 추정되며 출토된 기와류 역시 단일한 형식으로 번와되어 향후 조선후기 기와와 가마의 형식 및 편년문제에 표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와요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와요지 노출층 아래로 석기 포함층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흑요석 및 좀돌날 석기, 찍개류, 격지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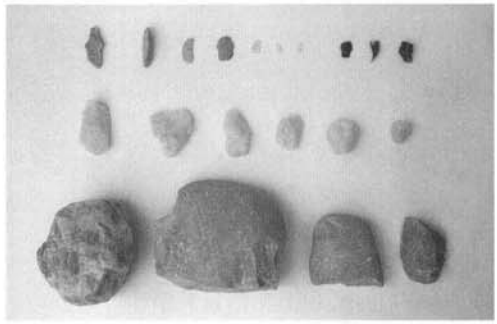
이는 추후 한국토지공사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3차 조사를 통해 구석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호평 2지구도 지표조사 당시 조선시대 와요지로 보고된 곳이나 2차 조사에서 시행한 시굴조사 결과 아무런 유구층을 확인할 수 없어 지도위원회의를 거쳐 조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호평 3지구는 조선시대 분묘군으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묘제상이 확인되었다. 총 12기의 분묘와 함께 숯가마 1기, 소성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수십점의 명기류와 구슬류, 관정, 자기류 등 다양하다. 호평 3지구에서 확인된 분묘는 비록 그 수가 12호에 불과하나 조선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묘제상이 모두 확인되어 이 지역 장제변화의 일면 및 조선시대 묘제양식의 변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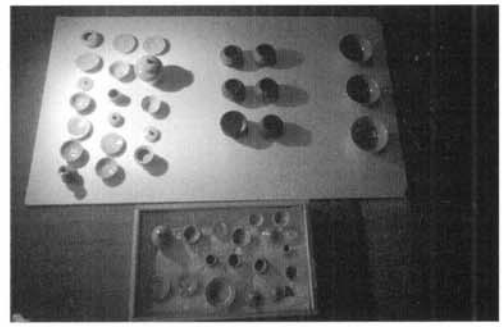


〈사진 1〉 평내 3지구 1 · 2호요 전경

〈사진 2〉 지도위원회 광경



〈사진 3〉 호평 1지구 출토 석기들



〈사진 4〉 호평 3지구 출토유물

9) 여주 婆娑城

(1) 위　　치 :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일대

(2) 조사기간

- 1차 : 1999년 9월 15일 ~ 12월 9일 / 2000년 3월 15일 ~ 2000년 6월 15일
- 2차 : 2001년 10월 8일 ~ 진행

(3) 시　　대 : 삼국 ~ 조선

(4) 조사내용

파사성은 한강 중류 변에 위치한 산성으로 성벽의 둘레는 935.5m이며, 문지 2개소와 치 3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성은 일찍부터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되어 신라가 축성한 성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군이 파사성의 앞길을 통해 한양을 향하게 됨으로서 급히 승군 도총섭 의암에 의해 성의 수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파사성은 2차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며, 동, 서, 북벽의 일부와 치 2개소, 동문지, 성내 2곳의 평탄대지 시굴조사가 진행되어 있다. 이를 요약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사성은 부정 삼각형에 가까운 성으로 북벽이 높고 남벽이 낮다. 성은 테뫼식으로 축조되었으며, 체성은 내외협축을 기본축성방법으로 하며 산의 자연경사면을 정지한 후 치석한 장방형 석재를 기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단으로부터 한 단을 물려 성돌을 올렸으며 그 윗 단에서는 약간씩 안으로 물려 쌓았다. 체성 상태는 기단에서 7~8단은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였고 상부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장방형 석재를 이용한 구간과 부정형 할석과 쐐기 돌을 사용한 구간이 있다. 전자는 북벽과 동벽 일부가 해당하며, 후자는 서벽과 남벽의 일부에서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체성은 2번 이상의 개축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며, 북벽과 동벽의 일부구간은 낮은 지형을 인위적으로 주변 성벽의 높이에 맞추어 내외협축으로 축성하고 높아진 체성의 내벽을 보강한 흔적이 노출되었다. 또한 동벽의 일부구간에는 배수를 위해 경사진 내벽 지형에 U자형의 홈을 성벽 쪽으로 판 흔적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치는 북벽과 서벽의 치 2개소가 조사되었는데 서벽의 치는 남문의 서쪽에 있으며, 성벽의 기단보축과 이어지는 반원형 3단의 기단 위에 방형의 구조로 축조되었다. 치의 주변에서는 조선시대 기와류가 치의 하단부와 서쪽에서 다량 수습되어 지붕구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서벽의 치는 성의 외벽에 7.6×10.3m 크기의 방형 구조로 기단은 성벽과 같이 내어 쌓았으며, 상부는 1/2로 나누어 바깥부분은 6개의 장방형석재를 놓아 포루로 사용한 듯하다. 성벽쪽은 방형의 계단식 구조와 기와를 이용한 지붕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내의 평탄대지는 모두 8개소정도이나, 성의 면적이 좁고 성내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계단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성내의 곳곳이 유용하게 활용된 듯하다. 지금까지 조사된 평탄대지는 동문쪽의 평탄지로 건물지 1기와 구들 유구 14기, 성격미상 유구 2기가 노출되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백제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파사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 호류를 비롯하여 중도식 무문토기와 승석타날문 토기호등과 철촉, 철도자 등의 철기류, 각종 기와류, 송나라로 추정되는 중국동전 등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각종유물이 다양하게 출토되어 파사성의 사용연대를 가늠케한다.

파사성은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여서 단정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 보면 한강변에 위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주거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에 이르면 비록 1기에 불과하나, 백제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 영향권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기의 유적이 산성의 축조연대와 관련될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산성의 체성 상태 등을 고려 할 때 신라와의 밀접한 관련이 상정되며, 성내에 잔존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와 청자류등으로 볼 때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조실록에 언급되었듯 승군에 의한 대대적인 개축이 있었으며, 왜란이후 다시 산성으로서의 효용성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 파사성 원경

〈사진 2〉 나지구 원경

〈사진 3〉 북벽노출상태

〈사진 4〉 치1 주변

3. 간행물

1) 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 총서

연 번	도 서 명	간행년도	총 쪽수	배판
1집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567	국배판
2집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438	〃
3집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	2000	496	〃
4집	시화호 공룡알 화석 발견지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2000	205	4×6배판

2) 학술조사 보고서

연 번	도 서 명	간행년도	총 쪽수	배판
1책	여주 상리 · 매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0	188	국배판
2책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1999)	2000	227	〃
3책	양주 관아지 1차 발굴 및 시굴조사 보고서	2001	145	〃
4책	화령전 전사청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0	98	〃
5책	여주 파사성 발굴조사 중간보고서(Ⅰ)	2000		〃
6책	하남 시가지 우회도로 확 · 포장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0	31	4×6배판
7책	하남 덕풍-광암 정수장간 도로 확 · 포장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0	35	〃
8책	용인 구성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0	47	〃
9책	용인 보라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0	41	〃
10책	화성 발안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0	31	〃
11책	화성 태안(3)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0	69	〃
12책	기흥 구갈(3)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유적 긴급시굴조사 보고서	2000	57	〃
13책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0	31	〃
14책	용인 신갈 택지개발지구내 발굴조사보고서	2001	69	국배판
15책	이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2001	84	〃
16책	시흥 서안산 IC 접속부 개량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001	68	4×6배판
17책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2공구) 건설공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1	62	〃
18책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 시굴조사 보고서	2001	157	국배판
19책	화성동탄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1	335	국배판
20책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중간 보고서(Ⅱ)	2001	257	〃
21책	남양주시 호평 · 평내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보고서(Ⅰ)	예정		
22책	양평 양수리 선사유적 시 · 발굴조사 보고서	예정		
23책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예정		

4. 문화재 관련 사업

1) 문화재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 개최목적

· 경기도의 시 · 군 문화재 담당 직원, 문화원 및 향토사단체 임직원 또는 매장문화재의 형상변경과 관계되는 개발 업무 담당자들의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고시켜, 최종적으로 문화재의 연구 및 보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1~2회 개최해오고 있다.

· 특히 2001년도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던 사업을 부설기관인 우리 연구원에서 이관 받아 개최하였다.

· 실무와 관계 깊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더욱 내실 있는 연수였다는 평가를 받은 2001년도 문화재 관계자 연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제 : 도내 발굴문화재의 활용방안

○ 일시 : 2001. 11. 22(목) ~ 23(금)

○ 장소 :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 참석자 : 50명

구 분	인 원
시/군 관계자	16명
시/군사편찬위원회	9명
문화원관계자	17명
향토사단체 관계자	8명
총인원	50명

○ 연수일정

▣ 제 1 일차 – 강연

◎ 강연차례

강의 1 : 문화재의 조사와 업무처리(김성태 :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및 매장문화재보존을 위한 지방단치

단체와 향토사 연구단체의 역할

강의 2 : 문화재의 개념과 관리(송성근 :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
- 문화재 조사 관리방법 : 문화재조사(지표조사 · 발굴조사)

용역의 성격, 용역 비용의 합리적 산정방법 및 계약, 관리 등

강의 3 : 유적의 보존과 활용(임효재 : 서울대학교 교수)

- 오산리 유적과 외국의 예에 비추어서

강의 4 : 회암사지의 발굴조사와 정비계획(김홍식 : 명지대학교 교수)

- 발굴조사 후 보존 · 정비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 참고자료 : 담양시가문화권 역사공원 조성

강의 5 : 조선왕조의 왕릉문화와 풍수 이야기(목을수 : 전 화성관리 사무소 소장)

▣ 제 2 일차 – 답사 및 수료식

답사지 :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현장

수료식 : 양주군청 회의실

2)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

○ 개최목적

· 우리 재단 기전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현장을 도민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 답사를 통하여 일반 도민에게 기전문화재연구원의 활동과 위상을 홍보하고자 한다.

·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호심의 증폭을 목적으로 한다.

○ 일시 : 2001년 12월 20일

○ 장소 : (오전) 양주 회암사지 발굴조사 현장

(오후) 양주향교

○ 답사인원 : 경기문화재단 지원 교양강좌 수강생(수원, 군포지역) 외 일반 경기도민 등 총 55명 참가

Ⅲ. 2001년 경기지역 考古學界 소식

1. 유적조사

2. 현장설명회

3. 학회모임 및 각종 소식

4. 출판물

1. 유적조사

시 · 발굴 유적조사는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을 합쳐서 총 47건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며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1) 경기 남부

번호	유적명	위치	발굴기간	발굴기관	발굴성과	의뢰기관
1	안산 대부도 석곽묘군	안산시 대부남동 일원	2001.1.3 ~(60일)	한양대박물관	석곽묘군	안산시
2	화성행궁지 5차 발굴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3일원	2001.2.26 ~3.22	한양대박물관	백자 등 4점	수원시
3	화성 발안 시굴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2001.3.23 ~12.15	기전문화재연구원	주거지24, 수혈유구20, 구상유구외 多	대한주택 공사
4	군포 대야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굴	군포시 대야동 산 1-95일원	2001.3.23 ~4.16	한양대박물관	주거지	군포시
5	수원 농수산물 유통센터부지내 유적 시굴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28-1일원	2001.4.9~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중	수원시
6	광주 무갑리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시굴	광주시 초월면 무갑리 산 129-1일원	2001.4.16 ~4.26	이화여대박물관	백자 뚜껑등 다수	이공제 외 5인
7	남한산성 행궁지 4차 발굴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일원	2001.4.19~	토지박물관	조사중	광주시
8	하남 춘궁동 축사 건립부지내 시굴	하남시 춘궁동 350-1 일원	2001.4.20 ~5.10	세종대박물관	출토유물 無	최태복 외 2인
9	용인 마북리 태영레스빌 건립	용인시 수지읍 마북리 391일원	2001.4.27 ~7.18	세종대박물관	토기편 등 多	태영주택 조합 외 2인
10	화성 중리 아파트 건립부지내 유적 발굴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 37일원	2001.5.2 ~5.15	기전문화재연구원	백자편 등	성원개발
11	하남 교산동 축사건립부지내 유적시굴	하남시 교산동 86-1일원	2001.5.2 ~6.9	기전문화재연구원	출토유물 無	정명구 외 2인
12	시흥 계수~과림간 도로개설구간내 유적 발굴	시흥시 계수동 산 55-5일원	2001.6.14~	기전문화재연구원	보고서간행 작업중	시흥시
13	광주 분원리 조선백자 도요지 발굴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산 5 일원	2001.6.20~	이화여대박물관	보고서간행 작업중	광주시

번호	유적명	위치	발굴기간	발굴기관	발굴성과	의뢰기관
14	여주 중암리 도요지 발굴	여주군 북내면중암리 산 142-1일원	2001.7.2~	경기도박물관	조사중	여주군
15	하남 풍산동 축사 부지내 유적 시굴	하남시 풍산동 81-17일원	2001.7.9 ~7.15	세종대박물관	조사중	김기조
16	오이도 주거밀집 지역내 유적 발굴	시흥시 정왕동 912-982일원	2001.7.18~	서울대박물관	노지 다수확인 각종 토기편 수습	한국 수자원공사
17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시굴	용인시 이동면 서리	2001.7.30~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중	용인 문화원
18	하남 교산동 건물지 3차 발굴	하남시 교산동 78-3 일원	2001.7.30~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중	하남시
19	하남 미사리선사 유적지 주변 시굴	하남시 미사동 335-7	2001.8.2 ~10.13	세종대박물관	도랑유구집터, 유물포함층 외	하남시
20	하남 이성산성 9차발굴	하남시 춘궁동 산 36일원	2001.8.6~	한양대박물관	조사중	하남시
21	이천 설성산 성지 발굴	이천시 장호원읍선읍리 소재 산 115-1	2001.8.22~	단국대매장문화재 연구소	조사중	이천시
22	오산 양산동아파트 건립부지내 유적 시굴	오산시 양산동 산 1 일원	2001.9.1 ~9.21	기전문화재연구원	백자편 등	늘푸른 주택
23	서안산IC접속부 개량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시굴	시흥시 거모동 1596-4	2001.9.3 ~3.	기전문화재연구원	몸돌, 격지, 토 · 도류 외	한국 도로공사
24	태평흥국명 마애여래보살좌상 주변 시굴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83-1	2001.9.17 ~10.18	단국대매장문화 재연구소	토기편 등	이천시
25	용인 죽전 택지개발지구내 유적 2차발굴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산 91 일원	2001.9.17~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중	한국 토지공사
26	하남시 천왕사지 2차 시굴	하남시 하사창동 351 일원	2001.9.17~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조사중	하남시
27	용인 청덕리 아파트건립부지내 유적 시굴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 산 9-6	2001.9.17~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중	(주)광도 건설
28	여주 파사성지 2차 발굴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9	2001.9.24~	기전 문화재연구원	조사중	여주시
29	화성 봉담아파트 부지내 유적 시굴	봉담면 유리 100-1	2001.12.15 ~12.24	한신대박물관	현장조사 완료	(주)기산 종합건설
30	평택 내천리 지석묘 발굴	서천면 내천리 556	2201.12.15 ~10일간	세종대박물관	지석묘 2기	평택시
31	용인 구성 동백 택지개발지구내 유적 시굴	구성읍 동백리	착수일 ~45일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조사완료	한국 토지공사
32	용인 성복리 C지구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산7	2001.12.17 ~2002.1.10	한신대박물관	현장조사 완료	(주)부림 건설
33	수원 장안플라자 신축부지내 유적 시굴	장안구 장안동 49	2002.1.18 ~2.16	기전문화연구원	조사중	(주)대한 건설

2) 경기 북부

번호	유적명	위치	발굴기간	발굴기관	발굴성과	의뢰기관
1	양평 양수리 선사유적 시/발굴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65번지	2001.1.12 ~4.3	기전문화재연구원	주거지 2기 각종 석/토기류	양평군
2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 발굴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28번지일대, 고능리 60	2000.7.5 ~2001.2.28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각종 석기류	연천군
3	포천 자작리 발굴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	2002.12.1 ~2001.4	경기도박물관	초기 백제 주거지 토기류 외	포천군
4	양주 회암사지 제 3 · 4차 발굴조사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14-1	2000.3.8 ~2001.4.26/ 2001.5.7 ~2002.5.16	기전 문화재 연구원 /경기도박물관	토/자기류/ 금속기등 다수	경기도/ 양주군
5	연천 호로고루 발굴조사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호로고루	2001.4~6	토지박물관	각종 토기류, 기와류, 금동불상 등	연천군
6	양주 관아지 유적 2차 발굴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136번지	2001.3.5 ~7.24	기전문화재연구원	백자토/자기류, 와류 외	양주군
7	연천 군남제 개수 공사지역 및 삼거리 고분 시 · 발굴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삼거리, 선곡리	2001.5.18 ~7.18	토지박물관	마제석촉, 구슬, 백제토기편 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8	포천 반월산성 6차발굴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산 5-1	2001.5.21 ~8.10	단국대매장 문화재연구소	각종 토기류, 와류	포천군
9	남양주 호평 · 평내 택지개발지구내 유적 시/발굴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일대	2000.7.24 ~2001.12.8	기전문화재연구원	각종 와류, 토기류 도자류 외	한국 토지공사
10	파주 혜음원지 발굴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001.8.27 ~12.12	단국대매장 문화재연구소	고려기 도자류, 기와류	파주시
11	연천 학곡제 시굴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2001.8.25 ~12.31	기전문화재연구원	토기편, 마제석기, 석제 어망추 등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12	연천 삼곶제 시굴	연천군 중면 상곶리	2001.12.24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정적 부식토층 확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13	남양주 마석지구 유적발굴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518-2	2000.11.3 ~2001.5.31	한림대박물관	토/도자류, 와편 등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2. 현장설명회

1) 양평 양수리 선사유적

- ㅇ 일　　시 : 2001. 3. 22 (목)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65번지 일대
- ㅇ 조사기간 : 2001. 1. 12 ~ 2001. 4. 3
- ㅇ 조사기관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2)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

- ㅇ 일　　시 : 2001. 3. 24 (토)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28번지 및 고능리 60번지 일대
- ㅇ 조사기간 : 2000. 7. 5 ~ 2001. 2. 28
- ㅇ 조사기관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ㅇ 조사내용 :

금번 시굴조사는 전곡리 유적의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곡리 및 고능리 222개 필지 약 24만평(777,791㎡)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시굴피트 209개를 지형상으로 연관되도록 배치하여 조사한 결과, 전지역에 걸쳐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4기 지질시대의 층위가 남아 있었으며, 퇴적층이 두터운 지점에서는 약 7미터에 이르는 퇴적단면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시굴지역 중 약 30%의 유물출토지점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중심지역에는 유물이 집중출토되는 지점이 노출되었다. 기존의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번에 수습된 석기들은 전곡리 석기공작의 특징을 확인하게 해 준다. 특히 주변을 전면가공한 좌우대칭의 주먹 도끼는 현재까지 동아시아구석기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들 중 전형적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와 유사한 형태로 주목된다.

금번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사적지정구역 전체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전반적인 지질 및 지형구조와 구석기문화층의 분포, 층위의 구조, 유구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전곡리 유적의 관리에 절대적인 지침이 될 것이며, 장차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기본구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3) 포천 자작리유적

ㅇ 일　　시 : 2001. 4. 2 (월)

ㅇ 조사지역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 발굴조사 현장

ㅇ 조사기간 : 2000. 12. 1~2001. 4

ㅇ 조사기관 : 경기도박물관

ㅇ 조사내용 :

포천 자작리 유적은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의 포천군 일대에 대한 광역 지표조사(1998년) 과정에서 처음 알려진 유적으로, 유적의 중요성에 비추어 학계에 출토유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그 후 경기도 박물관에서 3대하천 광역 지표조사의 일환으로 포천 자작리 유적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료 저장구덩이 단면에 노출된 주거지를 확인함과 더불어 주변에서 다량의 유물을 채집할 수 있었다. 채집된 유물로 보았을 때, 원삼국시대의 주거지와 한성백제시대의 주거지가 밀집된 마을유적으로 판단되었는데, 특히 기벽이 두꺼운 대옹편들이 채집되어 파주 주월리유적과 같은 거점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었다.

조사 대상지역 230여평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呂자형 백제주거지 1기와 소형 육각형주거지 1기, 기타 굴립주 건물지, 도랑, 소형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呂자형 주거지는 길이가 23.6m, 폭이 13.2m인 국내 최대의 주거지로, 주거지 앞면에는 따로 출입구를 마련하고 본 방은 육각형의 형태를 갖춘 특이한 형태의 집 구조이다. 특히 완벽한 부뚜막이 출입구 반대편에 시설되어 있으며, 부뚜막 주변에서는 대형 토기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 주거지는 같은 시기의 주거지와는 달리 지붕에 기와를 얹은 기와집으로 이는 한성백제시대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서만 조사되었다. 또한 출입구 시설 내부에서 출토된 완형의 통형기대(그릇받침) 역시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서만 출토된 것으로 그 위상을 짐작케 한다.

한편 소형의 육각형 주거지에서는 풍납토성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바 있는 東晋代(317~420) 중국 청자편이 출토되어 5세기대의 한성백제가 중국청자와 같은 위신재를 지방의 首長들에게 분여함으로써 지방을 지배했던 당시의 지방통치체제를 엿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심발형토기, 시루, 손잡이가 달린 동이, 토기뚜껑 등의 토기류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화살촉, 소찰(갑옷편), 꺽쇠, 철정 등의 철기류도 출토되었다.

4) 하남 천왕사지

- ㅇ 일　　시 : 2001. 4. 13(금)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340-2번지 일대현장
- ㅇ 조사기간 : 2000. 11. 1~2001. 4
- ㅇ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ㅇ 조사내용 :

河南 天王寺址는 1999년 세종대학교의 문화유적 분포조사를 통해 이미 다량의 "天王"銘 瓦片과 불탑의 추정 심초석으로 판단되는 대형석재가 확인되어 기록상의 "天王寺"로 추정되었던 곳이다. "天王"銘 기와의 출토는 여주 高達寺址의 元宗國師慧眞塔碑 등의 문헌기록에서 언급되었던 廣州 天王寺를 이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춘궁리 철불로 불리던 寶物 332號 鐵佛의 臺座로 추정되는 大形 石製臺座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어 대형사찰의 존재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天王寺址를 고려-조선시대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융성했던 불교문화유적의 중심지로 인식하고, 사역의 규모와 성격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획,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연구조사단에 시굴조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 결과 조사된 유구는 추정 목탑지 1동, 건물지 1동, 담장시설 3렬, 배수시설 3렬, 기타 석렬 1렬 등 9개소 이다. 또한 유물은 "天王" 명문와, 암 · 수막새, 치미, 연목와, 방형전 등 다양한 와전류와 대호, 해무리굽 청자, 소조불편 등 약 60여 점이 출토되었다.이러한 성과와 함께 이번 조사의 意義로는 첫째, 推定 木塔址와 建物址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推定 木塔址와 건물지가 동일 축선상에서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점은 天王寺址의 가람배치형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즉 推定 木塔址와 建物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가람형태 및 연결방향, 배치형태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람의 배치형태는 남-북방향을 중심으로 축선이 형성되지 않고 정북에서 동쪽으로 약 40°가량 기울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지역 내에서 출토된 여러 형태의 "天王"명 기와를 통해서도 본 유적이 天王寺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담장지와 배수시설이 맞닿아 시설된 石列이 "나"지구에서 "다"지구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석렬이 가람의 북쪽 경계일 가능성도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셋째, 담장지와 배수시설 등이 전체 조사구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초창기의 사역 범위는 조사지역보다 훨씬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조사단이 이후 해결해야 될 과제로 "가"지구의 대형 柱座에 대한 해석과 天王寺址의 사역 범위 및 가람배치, 가람의 시대적인 변천과 각 유구별 시기차, 최종 폐사 과정에 관한 부분은 점차 밝혀내야 할 당면과제라 여겨진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현재 하남 천왕사지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융성했던 라말여초의 대형 사찰지로서 조선시대 전기까지는 존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시굴조사는 현재까지 가능성으로 전해져왔던 사지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후의 본 발굴조사는 현재의 시굴범위 중 "다" 지구의 구릉상부에 해당하는 복토 부분을 제외한 시굴조사 지역 전 지역에 발굴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사역의 범위와 가람의 배치 등을 밝혀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양주 회암사지 3차 조사

- ㅇ 일　　시 : 2001. 4. 26(목)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 14-1
- ㅇ 조사기간 : 2000. 3. 8 ~ 2001. 4. 26
- ㅇ 조사기관 : 기전문화재연구원/경기도박물관

6) 연천 호로고루

- ㅇ 일　　시 : 2001. 5. 25(금)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호로고루
- ㅇ 조사기간 : 2000. 11. 10.~2001. 5. 31.
- ㅇ 조사기관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ㅇ 조사내용 :

호로고루는 임진강의 북쪽에 위치한 고구려성으로서 이번 조사를 통하여 축성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고구려 기와와 금동 불상을 비롯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지금

호로고루성 출토 금동불상

호로고루성 동벽 전경

까지 남한지역에서는 약 40여개소의 고구려성이 조사되었지만 대부분 둘레가 100-300m 정도인 보루 형태인데 비해, 호로고루는 둘레 401m의 평지성이고, 말을 타고 바로 임진강을 도하할 수 있는 여울목에 자리잡고 있어 평양-개성-서울을 잇는 최단거리상의 중요한 관문에 해당하며, 성내에서 많은 양의 기와가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다른 성들에 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에서는 고구려 토기편을 비롯하여 고구려 기와와 벼루, 철제 화살촉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휴대용 금동 불상 한점이 출토되어 주목받고 있다. 가로, 세로 4cm 정도 크기의 護身佛인 이 불상은 가운데에 있는 불좌상의 좌우에 보살상이 한 구씩 있고, 그 사이에 합장한 인물이 하나씩 서있는 오존상의 형태로서, 향후 불상의 형태와 제작연대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정확한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단은 '호로고루'는 성벽의 바닥과 가운데 부분은 판축을 하고, 안팎은 돌로 쌓고 바깥쪽에는 다시 보축을 하고 보강토로 덮어 토성과 석성의 장점을 결합한 특이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용걸(충북대교수)은 "발전된 고구려의 축성기술이 빚어낸 걸작품으로서 판축부와 석축부가 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산된 축성기법"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보축성벽의 보강토 위에 형성된 고구려 기와층 바깥쪽에 7세기 후반경 신라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쌓은 외벽이 잘 남아있어, 5세기경에 축성된 고구려성벽과 신라성벽의 축성기법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교과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보축성벽의 기원을 신라에서 찾았지만 고구려성벽에서 분명한 보축시설이 확인됨으로써 축성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7) 수도권 광역 상수도 6단계 구간 유적

- ㅇ 일　　시 : 2001. 6. 5(화)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12번지
- ㅇ 조사기간 : 2001. 3. 16~6. 10
- ㅇ 조사기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8) 양주 관아지 유적

- ㅇ 일　　시 : 2001. 6. 8(금)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136번지
- ㅇ 조사기간 : 2001. 3. 5~7. 24
- ㅇ 조사기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9) 기흥 구갈(3)지구 유적

- ㅇ 일　　시 : 2001. 6. 9(토)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57-1
- ㅇ 조사기간 : 2001. 3. 5 ~ 12.1
- ㅇ 조사기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10) 강화 선원사지(사적259) 4차

- ㅇ 일　　시 : 2001. 6. 12(화)
- ㅇ 조사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선원사지
- ㅇ 조사기간 : 2000. 11. 13~2001. 6. 28
- ㅇ 조사기관 : 동국대학교 박물관
- ㅇ 조사내용 :

현재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사적지의 내부와 북단 일부이다. 4차 발굴에서는 여러 지도위원들의 견해에 따라 사적지의 내부 곳곳에 보이는 중복 유구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탐색갱 조사를 통해 동시대의 건물지가 확인된 사적지 동북단 지역을 전면 발굴하는 동시에 탐색 작업만 이루어진 사적지 서남단부의 추정 중문지대를 전면 조사하여 본 건물지군의 성격을 보다 명백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주변 지역의 탐색 조사에서 노출된 유구들에 대해 연차적인 조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사 결과 선원사이었음이 확인될 경우, 향후 이의 정비 및 복원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대장경 판각과 관련된 선원사의 사적 의미와 고려후기 건축사의 중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1) 용인 죽전 유적 현장 설명회

- ㅇ 일　　시 : 2001. 6. 14(목)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용인 죽전5리 대덕골 유적과 죽전1리 도기요지 I 유적
- ㅇ 조사기간 : 2001. 9. 10~2002. 7. 13
- ㅇ 조사기관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12) 연천 군남제 개수공사지역 시굴조사 및 삼거리고분 유적

- ㅇ 일　　시 : 2001. 6. 21(목)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삼거리, 선곡리

ㅇ 조사기간 : 2001. 5. 18~7.18

ㅇ 조사기관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3) 소연평도 패총유적 조사

ㅇ 일　　시 : 2001. 6. 12(화)

ㅇ 조사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토

ㅇ 조사기간 : 2000. 10. ~11, 2001. 3. ~ 5

ㅇ 조사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조사내용 :

소연평도 패총유적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1년에서 2000년까지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문화유적에 대해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 · 조사된 유적이다. 이번 발굴조사를 포함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군사보호구역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 중 연천군 삼곶리 백제적석총, 양양군 가평리 주거유적, 고성군 문암리 주거유적 등 중요한 유적에 대해서는 지표조사에 이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많은 학술적인 성과를 축적하였다. 발굴조사 대상지는 2000년 군사보호구역 지표조사를 통해 소연평 패총Ⅱ로 명명된 유적으로 현재 연평 초등학교 소연평 분교의 남쪽 완만한 구릉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직경 16m 내외의 조개무지(유적 전체를 통칭하는 패총과 구분하기 위함) 2기가 확인되었으며, 패각층의 두께는 최대 50cm에 이르는 규모이다.

유물은 토기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그물추와 생선뼈 등도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그러나 다른 중부 서해안 도서지역 패총유적에 비해 출토된 토기 및 생선뼈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 특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조사유적의 성격이 다른 패총과는 차별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주목된다.

토기류는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뾰족밑의 빗살무늬(횡주어골문양)토기와 함께 그간 다른 지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양의 토기도 다량 출토되었다. 또한, 저장용기로 추정하는 구경 35cm가 넘는 대형토기가 내륙지역이 아닌 중서부 도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되었고, 그리고 남부내륙지역과 문화적인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소위 '금강식 토기'라는 눌러찍은 무늬 토기도 4~5개체분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300여 점에 달하는 많은 양의 그물추와 생선뼈가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중서부 도서지역의 생계경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유적의 패각층 내에서 수습한 패각을 이용하여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한 결과

B.C.2860~B.C.2450(신뢰도 95%)의 절대연대가 산출되어 신석기 중기 말에서 후기 초에 해당하는 연대를 보인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많은 양의 유물은 그동안 발굴조사자료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의 고고학적 연구에 있어 토기문화의 변천상과 신석기인의 생계유형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소연평도에 인접한 대연평도 등 향후 8개년에 걸쳐 중부서해안 도서지역 신석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이 지역 신석기시대 전반적인 문화상을 밝히는 조사 · 연구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14) 포천 반월산성 6차 조사

- ㅇ 일　　시 : 2001. 8. 13(월)
- ㅇ 조사지역 :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산 5-1번지 반월산성
- ㅇ 조사기간 : 2001. 5. 21 ~ 2001. 8. 10
- ㅇ 조사기관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ㅇ 조사내용 :

금번 발굴조사는 5차 발굴시 일부 노출되었던 동문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과 성벽 정비 과정에서 노출된 추정 내성벽을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밖에도 5차 발굴에서 확인된 대형건물지 서쪽 경사면과 북쪽 건물지에 대한 보강조사도 계획되었다. 금번 조사 지역은 크게 5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Ⅰ지구는 동문지 일대이다. Ⅱ지구는 5차 발굴조사시 설정되었던 Ⅰ확-3트렌치를 포함하여 서쪽으로 형성된 완만한 경사면이다. Ⅲ지구는 5차 발굴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평탄대지이다. Ⅳ지구는 5차 발굴시 내성으로 추정되는 성벽이 발견된 애기당지 남쪽과 서쪽의 경사면이다. Ⅴ지구는 동문지 남쪽의 성벽 절개트렌치이다.

동문지와 성벽주변 트렌치, 성내부 트렌치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기와류는 막새기와나 명문기와는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지만, 다량의 평기와가 와적층에서 출토되었는데 기존 5차 발굴에서 나타난 기와의 양상과 유사하다. 대체로 시문된 문양은 종선문, 사선문 등의 선문계열의 신라시대 기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출토된 토기는 신라토기와 백제토기가 크게 구분된다. 하지만 대부분 파편상태이므로 일부 복원작업이 필요하다. 동문지 Ⅰ확 트렌치와 Ⅱ확 트렌치에서는 백제토기 편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출토양상은 기존의 조사에서 지표에서 수습되었던 것과는 달리 확실한 층위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토광에서는 심발형토기편, 장란형토기편과 각종 승문이 타날된 동체편이 출토되었으며, 동문지 Ⅰ 확 트렌치에서는 각종 승문이 시문된 연 · 경질토기편이 출토되었

다. 그리고 Ⅱ지구 확장트렌치에서도 회백색 원저발과 함께 승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출토 예를 통해 백제와 반월산성의 관계를 접근하는 확실한 자료가 제공되었다. 출토된 백제토기의 편년은 대략 4세기 중·후반경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백제토기는 지난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던 배면을 대칼로 정리한 원추형 경질고배, 장란형토기편, 심형토기편, 원저발과 각종 연질토기편 등과도 양식적으로 비슷하다.

그리고 반월산성에서 출토된 백제토기는 최근 본 연구소에서 조사하였던 소홀읍 고모리산성에서 출토된 백제토기와는 시기차를 보이고 있다. 고모리산성의 백제토기는 3세기전반에서 5세기초에 걸치고 있는데, 특히 3세기후반부터 4세기전반에 해당하는 유물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에 비해 반월산성에서 출토된 백제토기는 4세기 중·후반이후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고모리산성에서 백제토기가 점차 소멸되어가는 것과 반월산성의 백제토기가 출현하는 것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라토기는 고신라기로 볼 수 있는 기형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으며, 거의 통일신라기에 속하는 유물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 시기로 추정이 가능한 것은 단각고배, 완, 침선문이 시문된 뚜껑 등이다. 고배는 대부분 굽이 매우 낮거나 배신이 얕은 양식이며, 또는 투창이 작게 뚫려 있다. 그리고 7세기 유적에서 나타나는 대부완도 출토되고 있다. 또한 각종 인화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 뚜껑편과 경부에 음각파상문이 시문되거나 돌대가 돌려진 호편이 출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반월산성에서 출토되는 신라토기의 편년은 대체로 7세기경부터 출현하여 9세기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5) 이천 설성산성 유적

- ㅇ 일　　시 : 2001. 10. 13(토)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산 115-1 설성산성
- ㅇ 조사기간 : 2001. 8. 1 ~ 2001. 10. 12
- ㅇ 조사기관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ㅇ 조사내용 :

설성산성은 삼국시대에 있어 전략적 요충의 하나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천시 설성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내에서는 장호원은 물론 이천시 일원과 안성 음성군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고 있다. 산성은 전체둘레 1,095m의 포곡식산성으로, 성내에는 건물지 12개소, 장대지 1개소, 우물지 1개소, 문지 2개소 등이 확인되었으며 성벽에서는 기단 보축이 확인되었다. 수습유물과 역사·지리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삼국시대에 축성되어 고려시대까지 산성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라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활용되

었던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조사단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주목하여 산성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조사계획의 수립을 지시하였다. 금번의 발굴조사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된 1차 발굴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지표조사시 확인된 서문지의 규모와 시기별 변화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그 결과 지표조사시 추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문지는 현문식이었고 통행 방법도 남쪽 계곡에서 성문을 통과하여 성내부에서 다시 남쪽으로 꺾여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문지는 초축 이후 최소한 2차례에 걸쳐서 개축되었던 것이 파악되었다. 이를 초축 문지부터 축조 순서대로 각각 1차 문지, 2차 문지, 3차 문지로 명명하였다.

설성산성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백제토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축조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하지만 하부 판축층과 같은 안정된 층에서나 지표 또는 교란된 층에서 모두 파편으로 수습되었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다. 문헌기록을 보면 백제가 늦어도 4세기경에는 이천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5세기까지 지배하에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설봉산성의 경우 4세기 후반 경에 백제가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이와 비슷한 시기나 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설성산성이 백제에 의하여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설성산성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유물은 신라시대 유물이므로,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용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 기록으로 보아 설성산성에 신라가 진출한 것은 550년 대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지조사를 통해 출토되는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신라토기는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과 양식상의 특징을 통해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로 편년되는 투창 뚫린 고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9세기에서 10세기로 편년되는 기종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목에 파상문이 있고 동체부에 돌대가 돌려진 대형호, 줄무늬토기, 덧띠무늬토기, 4면 편병, 편구병 등이다. 기와류에 있어서도 선조문 평기와가 확-1트렌치에서 와적층을 이루며 출토되었다.

16) 오이도 추가단지내 유적

- ㅇ 일　　시 : 2001. 10. 16(화)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 ㅇ 조사기간 : 2001. 7. 18 ~ 10. 16
- ㅇ 조사기관 : 서울대학교 박물관
- ㅇ 조사내용 :

(1) A지역

시굴조사시 확인된 층위인 흑색사질토층(표토) – 패각층 – 황색모래층 중 표토인 흑색사질토층을 전면 제거하여 패각의 평면상 분포범위를 확인하였다. 패각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둑 남쪽 지역에 5×5m 그리드를 구획하여 바닥인 황색모래층 위까지 굴토하였다. 모래층 위의 패각을 제거한 결과, 재 또는 불에 탄 패각으로 이루어진 부정형의 노지가 현재 36기 확인되었는데, 불 맞은 돌이 노지 중앙에 4~5개 남아 있는 것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별다른 시설이 없는 것이다. 굴토 시 다량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패각층 내에서보다는 바닥면 위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구연부에 단사선문, 동체부에 다치의 횡주어골문을 거칠게 시문한 전형적인 서해안식 토기 이외에도, 황해도에서 주로 출토되는 'W'대문과 점열문이 시문된 토기도 소량 출토되었다.

(2) B지역

시굴조사시 이 지역의 기본 층위는 표토 – 명갈색점토층 – 패각층 – 흑색점토층 – 흑갈색점토층 – 고토양층으로 확인되었고, 지점에 따라 명갈색점토층과 흑색점토층 사이에 패각층이 퇴적되어 있었다. 패각의 분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표토를 전면 제거한 결과, 당시 이 지역은 동서 방향으로 상당한 협곡을 이루고 있었고, 패각은 협곡의 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B지역 전체에 5×5m 그리드를 구획하여 흑색점토층 또는 흑갈색점토층까지 굴토하였다. 퇴적된 패각층의 두께가 1.0m 미만인 협곡 정상부는, 지표 하 10cm 부근은 점토대토기와 백제토기가 함께 출토되는 등 일부 교란된 부분도 있으나, 그 이하는 점토대토기 단일 출토층이다. 원형·삼각형 점토대토기 구연부 및 무문의 동체부편, 굽 달린 저부와, 양면 또는 삼면에 홈이 파인 석기, 동물뼈가 다량 출토되었고, 점토대토기와 함께 소량의 외반구연 무문토기, 단도 마연토기, 흑도 장경호, 소형 잔, 우각형 파수가 출토되었다. 층위상 불에 탄 패각이나 재, 점토로 이루어진 너비 1.0~2.0m의 간층이 순패층 또는 혼토패층 내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패각층이 1.5m 이상으로 두껍게 퇴적된 협곡 하단부는, 지표 바로 아래에서부터 점토대 토기가 출토되는 정상부와 달리, 지표 하 0.5~1.0m 가량까지는 백제토기 출토 패각층이 두껍게 퇴적되었으나, 그 이하의 퇴적 양상과 출토 유물은 정상부와 동일하다. 협곡 최말단부에 해당하는 도로 동쪽은 퇴적된 패각층의 두께가 0.5m 이내이고, 출토 토기도 백제토기가 대부분이나 바닥 층 가까이에서는 점토대토기도 소량 출토된다.

(3) C지역

완만한 구릉을 이루는 지형으로, 해당 지역의 하부에는 바닥면인 적색사질토 위로 퇴적토가 2.0m 이상 쌓여 있었다. 표토와 퇴적토를 제거한 결과, 경사면을 따라 'L'자형으로 수혈을 판 14기의 수혈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거의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온돌이 5기 확인되었는데, 이들 중 3기는 아궁이가 고래의 중앙에 있는 'T'자형 온돌이다. 이러한 온돌은 주거지 중앙부에 설치되었는데, 부엌에 해당하는 온돌 아래쪽 공간이 온돌 위쪽 공간보다 낮게 마련되었다. 모든 유구에서 인화문 토기나 물레자국이 뚜렷한 대부완 등 통일신라의 토기가 주로 출토되고, 퇴적토에서는 고려나 조선의 자기도 소량 출토되었다. 여러 점의 방추차가 모든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17)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 ㅇ 일　　시 : 2001. 10. 17 (수)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 ㅇ 조사기간 : 2001. 7. 24~ 10. 16
- ㅇ 조사기관 : 경기도박물관
- ㅇ 조사내용

(1) 유구

조사결과 확인된 가마는 낮은 구릉의 경사면에 굴모양으로 길게 만들어진 登窯이다. 가마의 주향은 동서방향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 23° 기울어져 있다(W23°S). 아궁이-번조실-굴뚝부로 이어지는 가마의 경사도는 11~13°이다. 전체 노출된 가마의 규모는 길이는 20.4m이며 너비는 번조실 내부공간은 100~170cm이다. 시설물은 상단과 하단부에 굴뚝부와 아궁이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측면에 출입구가 3곳이 있다. 벽체는 점토를 다져 조성한 진흙가마의 형태이다. 굴뚝부와 아궁이 시설부는 할석재의 내면을 다듬어 석렬을 이루고 점토를 이용하여 단을 조성한 석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곳에는 벽체보강을 위해 하부구조는 석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벽체에 장방형의 벽돌을 사용한 흔적이 여러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점은 굴뚝부 하부조사에서 초기에 조성된 벽체가 벽돌로 조성되었고 트렌치 조사에서 다량의 벽돌이 수습되는 점으로 보아 가마 초기에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의 형태로 벽체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정부는 남아있지 않으나 잔존 측면부 형태가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것으로 보아 궁륭식 천장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번조실 내부는 소토화된 모래층이 색조를

달리하여 50여 차례 반복 퇴적되었다. 전체 퇴적된 깊이는 110~170cm에 이르고 있다.

가마의 수 · 개축의 흔적은 각 시설물별로 하부에 탐색피트를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5차례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⑵ 출토유물

중암리 요지에서는 이 시기 다른 유적들과는 달리 청자와 백자가 함께 출토되지 않고 순수 백자만이 출토되었다. 층위에 따라 백자는 태토의 질과 유약의 시유상태, 굽깎음새, 굽접지면 너비, 측사면의 각도, 번조받침의 수법 등을 달리하며 나타난다. 아래층일수록 기벽이 얇고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고 담갈색과 담청색 유조로 광택이 강하게 나는 것이 많다. 반면 위층으로 갈수록 태토가 거칠고 유층이 일정하지 않고 대형기종들이 나타난다. 번조방법은 갑발에 넣어 정성스럽게 굽는 갑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극소수는 원통형의 도지미 위에서 예번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갑발 내에서 큰 기종 안에 작은 기종을 포개구운 경우도 일부 나타난다. 위의 경우 모두 굽받침은 고운 백색내화토나 황갈색내화토를 사용하였다.

현재까지의 출토유물 중 기종분류와 수량 파악이 가능한 개체수는 모두 2,200여점 정도이다. 기종은 완 · 발 · 접시 · 잔 · 호 · 병 · 대발 등 모두 12종류로 분류된다. 이중 해무리굽완은 우리나라 자기발생기의 대표적인 기종인데 굽의 접지면이 넓은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이 해무리굽은 中國 唐代의 자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吳越이후에는 거의 보이지않기 때문에 그 사용시기를 비교적 분명히 알 수 있다.

요도구는 시편 · 갓모 · 도지미 · 토봉 · 갑발 등 5종으로 분류된다. "U"형의 시편과 지름 12cm 내외의 갓모, 지름 8.5cm의 도지미, 단면이 타원형 또는 방형인 토봉 등이 수습되었다. 토봉의 경우 한쪽 끝에만 불먹은 자국이 남아 있으며 굴뚝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갑발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⑶ 조사성과 및 의의

여주 중암리 유적은 고려백자요지로 고려초기 백자의 발생 및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역사적 · 도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번 조사는 유적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밝히고 출토유물의 분석을 통한 학술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나타난 성과 및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백자가마의 전체적인 규모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마는 경사면에 굴모양으로 길게 조성한 登窯이며 규모는 길이가 20.4m이고 내부너비가 100~170cm이다. 주향

은 W23°S 이며 가마의 경사도는 11~13°이다. 구조는 아궁이, 번조실, 굴뚝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초기가마 유적중 가장 잘 남아있는 가마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적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지속적인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마는 5회 이상 수·개축하였음이 하부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가마의 조성초기에는 벽체의 구조가 벽돌가마의 형태였으나 3차 개축 이후부터 진흙가마로 변화하였으며, 가장 늦은 시기에는 아궁이 및 굴뚝부에 석재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아 벽체를 조성하였다. 또한 시기가 지나면서 가마를 축소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하부조사를 통해 인근 용인의 서리와 시흥 방산동 유적과 관련하여 초기가마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지역의 지역적·문화적인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퇴적구는 모두 5개의 층위로 나누었으며 모두 2,200여점에 이르는 유물을 수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층위 및 기종에 따른 분류를 하였고 이에 따른 속성 및 제작양상의 변화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출토유물은 12기종으로 나누어지며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갈수록 기종이 다양하고 장고·대반과 같은 대형기종들이 나타나고 있다. 출토 양상은 아래층에서는 내저곡면의 완과 발, 굽이 낮은 연판문잔탁 등이 수습되며 윗층에서는 내저원각의 완과 발, 화판형잔 등이 주로 확인된다. 이 자료들은 이후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되어오던 자기발생설 및 미술사적 유물 편년설정에 중요한 데이터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관련유적에 대한 주변 지표조사를 통하여 모두 31개소의 도요지를 새로이 확인하였는데 이들 도요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시기에 걸쳐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까닭은 남한강과 섬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교통로의 합류지점에 유적이 입지한다는 점과 자기 제작에 필요한 태토와 땔감이 풍부하다는 점이 이 지역에 도요지가 밀집 분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면 보다 많은 도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 하남 이성산성(9차)

- ㅇ 일　　시 : 2001. 11. 16 (금)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284 발굴조사 현장
- ㅇ 조사기간 : 2001. 8. 16~ 11
- ㅇ 조사기관 : 한양대학교박물관

o 조사내용

이번 9차 조사의 초기에 설정된 목표는,

(1) 제8차 조사(2000년도조사)에서 발굴 미완된 C지구(윗저수지의 북편일대)에서 드러난 건 물유구들에 대한 시굴과 발굴조사의 연속으로서 이 건물지들의 성격을 규명하는 자료를 수습하고,

(2) C지구 서편구역내에서 새로이 제기된 "추정고분"에 대한 유구의 유무와 성격확인.

(3)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의 동편에 대한 조사로서, 동문지에 대한 조사와 동 쪽 성벽의 구조를 밝히고,

(4) 동문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파괴고분지"에 대한 수습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발굴조사와 병행하여 일부 파괴된 성벽의 복원작업을 기획하여 실시하고자 하였다.

(5) 조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금년도 제 9차 조사에서 저수지 일대의 건물유구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많은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고분으로 추정되던 유구도 건물지임이 밝혀졌다. 또한 성의 동벽 부분의 구조가 확인되고 또한 동문지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물론 구조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사실은 이제 이성산성 발굴이 새롭게 시작되는 면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문지의 구조확인이다. 현문식으로 되어 있고 앞에 등성시설이 있는 구조로서 수차에 걸쳐서 보축 또는 수축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조사된 부분의 성벽 개 · 보수양상과 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성산성의 규모와 성격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대를 달리하는 3차례 이상의 개 · 보축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동문지의 초축의 시기에 대해서는 백제시대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의 토대 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C 지구, 즉 윗 저수지의 북편 일대의 건물지는 초기 산성의 건축물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 걸치는 유구들이 발견되어 이 성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수축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애초에 고분으로 추정되었던 C지구의 서편의 독립된 장방형의 부석 건물지는 위치와 견고한 구조로 보아 대단히 중요한 건축물의 기단으로 보이는데 전면에 있는 장방형 건물지와 더불어 이 일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로 판단된다.

⑤ 동쪽의 성벽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여러 지점에서 내외 협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⑥ 이성산성 내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구의 부존 가능성이 이번 조사에서 수습된 당시의 유

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⑹ 이번 발굴에서 많은 것이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 새롭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① 동문지의 구조상의 불확실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벽에 연결된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문지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건물지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또한 전면과 측면의 조사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동쪽 성벽의 시굴에서 드러난 성벽의 구조에서 내부 축조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절개가 필요하며 성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C지구 건물지들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기적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시기에 건축물의 분포상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인접한 지점을 확장발굴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재의 유구를 수습 정리할 필요가 있다.

④ 성벽과 성 내부의 미진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이미 제기된 장기적인 발굴조사계획 하에 발굴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곽 지역에 대한 조사계획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 양주 회암사지(4차)

- ㅇ 일　　시 : 2001. 11. 24 (토)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34-1
- ㅇ 조사기간 : 2001. 8. 27~2002. 5. 15
- ㅇ 조사기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 경기도박물관

20)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 ㅇ 일　　시 : 2001. 12. 12 (수)
- ㅇ 조사지역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 4리 혜음원지
- ㅇ 조사기간 : 2001. 8. 27~12.12
- ㅇ 조사기관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ㅇ 조사내용

혜음원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가지구에서 초창시 혜음원지의 모습 중 일부가 노출되었다. 발굴조사 전 이곳은 잡목이 덮여 있었으며,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10여년 전까지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후 경작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농업용수를 확

보하기 위하여 굴착되거나 민묘가 조성되면서 훼손되었다. 그렇다해도 현재 혜음원지에서는 이 지역이 가장 훼손이 덜 된 곳이기 때문에 유구가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발굴조사 결과 상부 유구는 거의 유실되었지만 다행히도 하부 유구는 남아 있어서 건물지의 구조, 규모, 배치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가지구 건물지는 크게 3단(남쪽부터 하단, 중단, 상단)의 석축에 의하여 구분이 되고 있다. 조사된 전체 면적은 東西 54m×南北 47m이다. 이곳의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 경사면에 석축을 하고 지반을 다져서 평탄하게 한 후, 그 위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각 단은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서술의 편의상 이를 남쪽부터 하단 · 중단 · 상단 건물지로 명명하여 기술하였다. 아직 전체 사원의 규모와 전각의 배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규명될 때까지 임시로 붙여진 명칭이다.

이 번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당시 건물의 성격 및, 규모, 건립시기를 규명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출토된 유물을 기와류, 자기류, 토기류, 기타유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와들의 양상을 보면 고려시대 기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전시대로 올라가는 기와들은 출토되지 않았다. 또한 동일층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조사된 지역의 건물들은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경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와들은 평기와류와 막새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상당량의 명문기와와 특수기와가 출토되었다.

막새류 중에 명문이 새겨진 것은 암막새이다. 명문암막새는 막새면 좌우에 귀목문을 두고 그 사이 중앙에 세로로 "惠蔭院"이라 양각하였다. 글자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글자판형으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막새류는 연화문 수막새가 일부 출토되기도 하였지만 고려시대 전형적인 귀목문 수막새와 암막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평기와의 명문은 제작 시기나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에서 간지와 "惠蔭寺" 명이 새겨진 것도 출토되었다. 명문으로 보아 院과 寺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寺가 院을 관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기와는 대형과 소형으로 분류되는데, 대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키와는 무문이 대부분이며, 암키와는 선문 · 어골문 · 사격자문 · 복합문 등 다양하다. 그 중에 등면의 중앙에 띠형태의 문양대를 마련하고 상하대칭형 어골문이나 집선문 또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배치는 형태와 복합문이 다수 확인된다. 기와 안쪽면에는 모골에 마포를 대고 성형한 흔적이 역력하며, 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와도를 그은 후 분할하였다.

암키와는 기와끼리 서로 잘 맞물리도록 하단부가 약간씩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 암키와 중에서 명문기와가 19점 출토되었는데,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판독은 어려운 상태이다. 명문이 새겨진 암키와들은 돋을띠를 두고 그 사이에 양각하였다. 명문 암키와는 다른 암키와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와 표면에 파수와 같은 돌출부를 붙인 것도 출토되었다. 이것은 기와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다른 기와가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출토된 자기류는 주로 고려청자이며 중국산 자기와 분청사기도 일부 나타난다. 청자는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었으며 규석을 받쳐 갑발안에서 정성스럽게 구운 고급청자가 많다. 그리고 지방가마에서 번조한 조질청자도 드물게 있다. 종류는 완, 대접, 접시, 바리떼, 잔, 뚜껑, 두침 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주로 완, 대접, 접시가 많다. 시문되어진 문양은 무문, 음각, 양각, 상감, 퇴화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지만 대부분 음각으로 구성했다.

혜음원지에서 출토된 토기는 호·옹류와 병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파손되고 결실부분이 많아 복원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호류는 광견호, 단경호, 편호 등의 기종이 파악된다. 복원된 토기를 통해서 보면, 높이 20㎝ 내외로, 경부가 없거나 아주 짧게 올라가며 외반되고 바닥이 편평한 평저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토기질은 아주 무른 연질이거나 경도가 높은 연질이 많다. 편호는 4면이 눌려진 형태가 확인된다. 옹류는 회청색 경질로, 평저의 바닥에 배가 부른 형태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파편이기 때문에 전체 기형파악은 어렵다.

출토된 토기의 제작기법은 돌려쌓기와 물레를 이용한 방법이 확인된다. 정면방법은 타날기법이 대형토기편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주로 내벽에서 다양한 문양의 박자흔이 관찰된다. 또한 회전력을 이용한 물손질흔도 잘 남아있다.

3. 학회모임 및 각종 소식

1)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별세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한병삼선생님께서 2001년 3월 4일 새벽에 급환으로 별세하셨다. 영결식은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3월 8일 08:00에 거행되었으며 장지는 일산 통일전망대 옆의 동화공원묘지이다.

2) 경기향토문화재연구소 부설 선사유물전시관 개관기념 국제 학술회의

– 주최 : 한국선사고고학회 · 원당선사유물전시관

– 주제 : 동아시아에서 한국 구석기문화의 위치

– 일시 : 2001년 4월 21일 (토) 11:00

〈제 1부〉 11:00~17:00

– 사회 : 최정필(세종대박물관 관장)

– 개회사 : 원당선사유물전시관 개관 설명---------- 최무장(원당전시관 관장)

– 축사 : 김교주(연천군의회 의장)

– 주제발표

– 사회 : 배기동(한양대박물관 관장)

· 한탄강 상류 구석기문화 : 최복규(강원고고학연구소 소장)

· 중국 전기 구석기문화와 한국과의 관계 ---------- 王幼平(中國 北京大 교수)

· 일본 구석기문화의 고고학적 위치 ---------- 鈴木忠可(日本 京都文化博物館)

· 한 · 일 선사문화의 동물고고학적 연구성과 ---------- 內山純藏(日本 富山大 교수)

〈제 2부〉 17:00~

– 한국선사고고학회 임원회의 및 임효재 회장 회갑기념 만찬회

– 참가자 : 한국선사고고학회 임원

– 장소 : 원당선사유물전시관

3) 임효재 선생 출판 기념회

한국선사고고학회 학회장인 임효재 선생의 "두더지 고고학-집문당"과 "한국 고대 도작문화의 기원-학연문화사"의 출판 기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 일시 : 2001년 5월 3일

– 장소 : 압구정동 대동강회관

4) 제 9회 전곡 구석기 문화제

- 장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 일시 : 2001년 5월 4일 ~ 5월 5일
- 주최 : 연천군
- 주관 :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 문화제 실무위원회, 연천문화원,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
- 후원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국구석기학회

5)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문화재위원회가 5월 18일(금)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 최영희(崔永禧) 위원장을 비롯한 임기 2년(2001. 4. 26~2003. 4. 25)의 위원장단을 선출하였다.

이는 문화재청(청장 盧太燮)에서 지난 4월 26일 문화재위원 59명을 새로이 위촉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규정'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와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 7명의 분과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것인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 원 장 : 최영희 / 한림대학교 객원교수
부 위 원 장 : 안휘준 / 서울대학교 교수
부 위 원 장 : 심우성 / 공주민속박물관장
제1분과위원장(건조물) : 김일진 /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제2분과위원장(동 산) : 안휘준
재3분과위원장(사 적) : 최영희
제4분과위원장(무형문화재) : 심우성
제5분과위원장(천연기념물) : 윤일병 /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
제6분과위원장(매장문화재) : 최숙경 /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박물관분과위원장 : 정양모 /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6) 제44회 전국역사학대회 개최

- 개최일시 : 2001년 5월 25일(금) ~ 5월 26일(토)
- 장　　소 : 건국대학교 "종합강의동(법과대학) 116호"
- 공동주제 : 역사에서의 공공성과 국가 (5/25 금)
- 고고학부 주제 : 한국고고학의 새로운 발견
- 발표유적 및 발표자 : (발표 30분, 질의 · 응답 10)
- 사회 : 송계현(부산복천박물관)

〈오전일정〉

- 10:00~10:40 공주 장선리유적 발굴조사 개요
  발표자 : 이 훈(충남발전연구원)
  질의자 : 성정용(충남대 백제연구소)
- 10:40~11:20 강릉 강문동 저습지유적
  발표자 : 지현병(강릉대학교 박물관)
  질의자 : 조현종(국립제주박물관)
- 11:30~12:10 천안 장산리유적
  발표자 : 박양진 · 김경규(충남대학교 박물관)
  질의자 : 안승모(원광대)

〈오후일정〉

- 13:20~14:00 포천 자작리유적 발굴조사 개요
  발표자 : 송만영(경기도박물관)
  질의자 : 이남규(한신대)
- 14:00~14:40 연천 호로고루유적
  발표자 : 심광주(토지박물관)
  질의자 : 최종택(고려대)
- 14:50~15:30 사천 봉계리유적
  발표자 : 김 현(경남고고학연구소)
  질의자 : 조영제(경상대)

7) 제7차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 개최일시 : 2001년 10월 12일~14일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주　　제 : 고구려 유적발굴과 유물
- 주　　최 :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

〈第1日 : 2001. 10. 12(金)〉

第1部 開會式 (09 : 00 ~ 09 : 30)

第2部 研究發表(09 : 30 ~ 18 : 00) : 高句麗 遺蹟 發掘과 遺物

- 午前 司會 : 朴性鳳(慶北大)

① 〈09 : 30 ~ 10 : 30〉 1945年 以前의 高句麗 遺蹟 發掘과 遺物

---發表 : 西谷 正(九州大)

---討論 : 金秉模(韓國傳統文化學校)

② 〈10 : 30 ~ 11 : 30〉 中國의 高句麗 考古研究에 대한 綜合考察

---發表 : 孫進己(東亞研究中心)

---討論 : 任孝宰(서울대)

③ 〈11 : 30 ~ 12 : 30〉 新中國 以後 高句麗 考古學에서 거둔 몇 가지 收穫에 관한 小考

---發表 : 孫玉良 孫文範 (吉林省 社會科學院 高句麗研究中心)

---討論 : 徐榮洙(檀國大)

- 午後 司會 : 梁起錫(忠北大)

④ 〈13 : 30 ~ 14 : 30〉 遼寧省에서 發掘된 高句麗 遺物에 대한 綜合考察

---發表 : 孫泓(東亞研究中心)

---討論 : 崔茂藏(建國大)

⑤ 〈14 : 30 ~ 15 : 30〉 北韓의 高句麗 遺蹟 發掘과 所藏 遺物

---發表 : 金希燦(江南大)

---討論 : 韓昌均(漢南大)

⑥ 〈15 : 50 ~ 16 : 50〉 韓國의 高句麗 遺蹟 發掘과 所藏 遺物

---發表 : 沈光注(土地博物館)

---討論 : 朴慶植(檀國大)

⑦ 〈16 : 50 ~ 17 : 50〉 日本 西日本地域 博物館에 所藏된 高句麗 遺物

---發表 : 吉井 秀夫(京都大)

---討論 : 趙由典(文化財硏究所)

〈第2日 : 2001. 10. 13(土)〉

- 午前 司會 : 車勇杰(忠北大)

① 〈09 : 30 ~ 10 : 20〉 高句麗 山城 築城法의 特徵 -城頭(雉城, 馬面)-

---發 表 : 徐吉洙(西京大)

---質疑討論 : 王宏北(黑龍江省考古硏究所)

② 〈10 : 20 ~ 11 : 10〉 遼寧省 撫順 高爾山城 2區 遺蹟에 대한 再認識

---發 表 : 達(撫順市文物管理所)

---質疑討論 : 余昊奎(外國語大)

③ 〈11 : 10 ~ 12 : 00〉 遼寧省 瀋陽市 石臺子山城 發掘 成果

---發 表 : 李曉鐘(瀋陽市文物管理所)

---質疑討論 : 沈正輔(한밭대)

- 午後 司會 : 沈正輔(한밭대)

④ 〈13 : 00 ~ 13 : 50〉 黑龍江 渤海 古城에 나타난 高句麗의 特徵

---發 表 : 王禹浪(哈爾濱市社會科學院)

---質疑討論 : 朴燦圭(檀國大)

⑤ 〈13 : 50 ~ 14 : 40〉 遼寧省 桓仁地區 高句麗 早期 遺蹟

---發 表 : 李新全(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質疑討論 : 孔錫龜(한밭대)

⑥ 〈14 : 40 ~ 15 : 30〉 遼寧省 新賓地域의 高句麗 遺蹟發掘과 遺物

---發 表 : 肖景全(撫順市博物館)

---質疑討論 : 林起煥(서울敎大)

⑦ 〈16 : 00 ~ 16 : 50〉 吉林省 通化 萬發撥子遺址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發 表 : 王綿厚(遼寧省博物館)

---質疑討論 : 尹明喆(東國大)

⑧ 〈16 : 50 ~ 17 : 40〉 高句麗 石室墓의 起源

---發 表 : 孫仁杰(集安市博物館)

---質疑討論 : 李南奭(公州大)

〈第3日 : 2001. 10. 14(日)〉

- 午前 司會 : 金渭顯(明知大)

① 〈09 : 30 ~ 10 : 30〉 高句麗 土器의 樣相과 變遷

---發表 : 崔鍾澤(高麗大)

---討論 : 朴순발(忠南大)

② 〈10 : 30 ~ 11 : 30〉 高句麗 기와의 特性

---發表 : 崔孟植(扶餘文化財硏究所)

---討論 : 崔태선(中央僧家大)

③ 〈11 : 30 ~ 12 : 30〉 高句麗 佛像의 特性

---發表 : 鄭永鎬(韓國敎員大)

---討論 : 黃壽永(學術院)

- 午後 司會 : 李基東

④ 〈13 : 30 ~ 14 : 30〉 高句麗 武器에 대한 硏究

---發表 : 金性泰(畿甸文化財硏究院)

---討論 : 金吉植(國立中央博物館)

⑤ 〈14 : 30 ~ 15 : 30〉 高句麗 馬具의 發展과 그 與周령 주변 민족과 지구의 관계

---發表 : 魏存成(吉林大)

---討論 : 金斗喆(東國大博物館)

⑥ 〈15 : 50 ~ 16 : 50〉 吉林省 集安市 發掘 高句麗 허리띠 꾸미개(帶飾) 硏究

---發表 : 張雪巖(集安市博物館)

---討論 : 金大煥(高句麗硏究會)

⑦ 〈16 : 50 ~ 17 : 50〉 高句麗 積石串墓 硏究

---發表 : 柳嵐(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質疑討論 : 姜賢淑(忠南大)

8) 2001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 주제 : 동아시아 1~3세기의 주거와 고분
- 일시 : 11월 23(금)~24(토)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강당

9) 제64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 주제 : 북한의 고대 문화유산
- 일시 : 2001년 12월 1일(토) 14:00~18:00
- 장소 : 연세대학교 100주년기념관(박물관) 시청각실
- 주최 : 한국고대사학회
- 후원 : 한국방송 KBS
- 프로그램 : *사회 - 서영수(단국대)

제1주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북한 문화유산
발표자 : 한창균(한남대) 토론자 : 안승모(원광대)

제2주제
고조선과 낙랑의 북한 문화유산
발표자 : 송호정(교원대) 토론자 : 윤용구(인하대)

제3주제
고구려와 발해의 북한 문화유산
발표자 : 전호태(울산대) 토론자 : 한규철(경성대)

4. 출판물*

1)학위논문

(1) 京畿地域의 烽燧硏究
- 저　자 : 김주홍(학위:석사)
- 수여기관 : 상명대

(2) 한강유역 1~3세기 주거지 연구 -"풍납동식 주거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저　자 : 신희권(학위:석사)
- 수여기관 : 서울대

(3) 경기북부지역 성곽출토 고구려 평기와 연구
- 저　자 : 백종오(학위:석사)
- 수여기관 : 단국대

(4)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송국리형주거지 연구
- 저　자 : 김한식(학위:석사)
- 수여기관 : 단국대

(5) 백제성곽연구-웅진, 사비시대를 중심으로-
- 저　자 : 서정석(학위:박사)
- 수여기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 광주군 삼리 구석기유적(2지점)의 석기 연구
- 저　자 : 김기태(학위:석사)
- 수여기관 : 단국대

* 2001년도 발간 출판물의 경우, 논문이나 보고서류들의 집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2002년도 『畿甸考古』에서 보충할 예정이다

(7) 안성 봉업사지 출토 고려전기 명문기와 연구

- 저　자 : 김병희(학위:석사)
- 수여기관 : 단국대

(8) 이천 설봉산성 출토 백제토기 연구

- 저　자 : 방유리(학위:석사)
- 수여기관 : 단국대

(9) 중서부해안지역 무문토기시대에 대한 연구

- 저　자 : 유병린(학위:석사)
- 수여기관 : 한양대

2) 기타 학회지 게재논문

(1) 裵眞晟, 2001.4, 柱狀片刃石斧의 變化와 劃期 - 有溝石斧의 發生과 無文土器時代 中期 社會의 性格 -, 韓國考古學報 44.

(2) 洪潛植, 2001. 4, 농기구와 부장유형 - 영남지역의 2세기 후반~4세기대 분묘부장품을 대상으로, 韓國考古學報 44.

(3) 趙榮濟, 2001.4, 水平口緣 鉢形器臺에 대하여 - 소위 小伽倻式 土器의 分布와 관련하여, 韓國考古學報 44.

(4) 崔秉鉉, 2001.4, 新羅 初期 石室墳의 樣相 - 新羅의 地方石室墳 硏究(2), 韓國考古學報 44.

(5) 李鮮馥 , 2001.4, 雷斧考, 韓國考古學報 44.

(6) 林尙澤, 2001.4, 빗살무늬토기문화의 地域的 展開 - 중서부지역과 영동지역을 대상으로 - , 韓國新石器硏究 創刊號.

(7) 李東注, 2001.4, 中東部 海岸地域 빗살문토기문화의 性格 - 남해안지역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 韓國新石器硏究 創刊號.

(8) 林尙澤, 2001.4, 中西部 新石器時代 石器에 대한 初步的 檢討 I - 석기조성을 중심으로 - , 韓國新石器硏究 創刊號.

(9) 李永德, 2001.4, 扶安 大項里貝塚의 檢討, 韓國新石器硏究 創刊號.

(10) 藤達夫, 李相均譯 , 2001.4, 朝鮮有紋土器의 變遷, 韓國新石器硏究 創刊號.

(11) 李相均, 2001.4, 韓國 新石器研究 관련 日本 文獻目錄, 韓國新石器研究 創刊號.

(12) 安德任 · 李仁盛, 2001.10, 酸素同位元素分析을 이용한 大竹里貝塚 조개채집의 季節性 研究. 韓國新石器研究 2.

(13) 강봉원, 2001.5, 서구 고고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고고학의 방향, 한국상고사학보 34.

(14) 이형우, 2001.5, 석재와 거리에 따른 영국 전기구석기 유물의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34.

(15) 하문식 · 김주용, 2001.5, 고인돌 덮개돌 운반에 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34.

(16) 강형태 · 나경임, 2001.5, 풍납동 유적의 절대연대측정, 한국상고사학보 34.

(17) 이훈 · 강종원, 2001.5, 공주 장선리 토실유적에 대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34.

(18) 李俊貞, 2001.6, 수렵 · 채집경제에서 농경으로의 轉移 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嶺南考古學 28.

(19) 한영희, 2001.8, 한반도의 신석기(공우석 · 박용안 외, 한국의 제4기환경, 서울대학교출판부)

(20) 金建洙, 2001.10, 群山 노래섬貝塚 食料資源의 季節性 檢討, 韓國新石器研究 2.

(21) 崔鐘赫, 2001.10, 生産活動에서 본 韓半島 新石器文化 – 中西部地方과 東北地方의 貝塚遺蹟을 中心으로 –, 韓國新石器研究 2.

(22) 河仁秀, 2001.10, 東三洞貝塚 1號住居址 出土 植物遺蹟, 韓國新石器研究 2.

(23) 崔三鎔, 2001.10, 白翎島 말등遺蹟의 뼈유물 研究, 韓國新石器研究 2.

(24) 金碩勳, 2001.10, 黃海 中部 섬 지역의 新石器遺蹟 現況, 韓國新石器研究 2.

(25) 李永德, 2001.10, 扶安 蝟島의 新石器 貝塚, 韓國新石器研究 2.

(26) 尹 凝, 2001.10, 原州 法泉里 新石器時代 遺物, 韓國新石器研究 2.

(27) 姜元鍾, 2001.10, 長水 月谷里遺蹟 收拾 新石器時代 遺物, 韓國新石器研究 2.

(28) 徐國香, 2001.10, 長水 南陽里遺蹟 收拾 新石器時代 遺物, 韓國新石器研究 2.

(29) 金圭東, 2001.10, 扶安 界火島의 新石器遺蹟, 韓國新石器研究 2.

(30) 金壯錫 · 梁成赫, 2001. 10,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과 패총 이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 韓國考古學報 45.

(31) 金承玉, 2001. 10, 금강유역 송국리형 묘제의 연구–석관묘 · 석개토광묘 · 옹관묘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45.

(32) 趙鎭先 2001.10, 細形銅劍의 形式變遷과 意味, 韓國考古學報 45.

(33) 盧赫眞, 2001.10, 粘土帶土器文化의 社會性格에 대한 一考察–住居遺蹟의 特色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45.

(34) 李尙律, 2001.10, 天安 斗井洞, 龍院里古墳群의 馬具, 韓國考古學報 45.

(35) 尹相憙, 6~7세기 신라토기 상대편년 시론, 韓國考古學報 45.

(36) 신숙정, 2001.11,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 한국상고사학보 35.

(37) 박진일, 2001.11, 영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35.

(38) 김경주, 2001.11, 제주도 적갈색토기연구, 한국상고사학보 35.

(39) 홍보식, 2001.11, 고고자료로 본 가야 멸망전후의 사회동향, 한국상고사학보 35.

(40) 심정보, 2001.11,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35.

(41) 안승모, 2001.11, 고양시 일산지구 출토 벼자료의 수수께끼, 벼의 기원 및 전래와 쌀 브랜드화 전략(한쌀회 총서 11), 한국쌀연구회.

(42) 임효재, 2001.12, 암사동 신석기문화 연구의 전망, 한국선사고고학보 8.

(43) Sarah M. Nelson, 2001.12, Western Approaches to the Neolithic and Their Application to Amsadong, 한국선사고고학보 8.

(44) 內山純藏, 2001.12, 繩文から 岩寺洞へ, 한국선사고고학보 8.

(45) 金英熙, 2001.12, 遼東半島와 한반도 중서부의 관련성문제 검토, 한국선사고고학보 8.

(46) 이동주, 2001.12, 암사동 빗살문토기의 원류에 대한 새로운 시점, 한국선사고고학보 8

(47) 최정필, 2001.12, 20世紀 考古學 理論의 展開過程에 대한 小考, 한국선사고고학보 8.

(48) 하문식, 2001.12, 청동기시대 연구사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 , 한국선사고고학보 8.

(49) 이상균 · 이재운, 2001.12, 만경강 하류역의 매장문화유적, 한국선사고고학보 8.

3) 2001년 경기지역 발간 발굴조사 보고서

보 고 서 명	간 행 기 관
풍납토성 I -현대 연합주택 및 I 지구 재건축부지	국립문화재연구소
漣川 元堂里 舊石器時代 遺蹟	건국대박물관
용인 마북리 고려고분	경기도박물관
남북연결도로(통일대교~장단간)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경기도박물관/육군 박물관
會岩寺 I	기전문화재연구원/경기도박물관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中間報告書 II	기전문화재연구원
龍仁 新葛 宅地開發地區內 發掘調査報告書	기전문화재연구원
시흥 서안산 IC접속부 개량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利川 2001世界陶磁器엑스포敷地 試掘調査 報告書	기전문화재연구원
기흥 구갈(3)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유적 긴급시굴조사 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고양 운봉서원지 기본조사 용역 보고서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5차 발굴조사 보고서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용인 彦南里 유적	세종대박물관
하남 방어시설 추정지 시굴조사 보고서	세종대박물관
의왕 월암동유적	세종대박물관
城南 千臨山燧遂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南漢行宮址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남양주 마석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한림대박물관
화성 지방산업단지내 동학산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한신대박물관
京畿 南部의 朝鮮時代 遺蹟	한신대박물관
二聖山城 8次 發掘調査報告書	한양대박물관
唐城 (2차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박물관
산이리 지석묘	한양대박물관
전곡리 구석기유적 2000~2001 전면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문화재연구소
芳山大窯	해강도자기미술관

Ⅳ. 연구노트

1. 古南里類型의 一檢討 / 유병린

2. 驪州 元香寺址의 歷史的 性格에 관한 一考察 / 윤용희

3. 조선시대 陵墓碑의 종류에 대한 一考察 / 이민식

4. 驪州 하거리 방미기골 古墳 出土 太環耳飾
構造와 製作方法에 대하여 / 김선덕

古南里類型의 一檢討

- 古南里式 土器를 中心으로 -

유 병 린*

Ⅰ. 머리말
Ⅱ. 古南里類型의 설정 및 단계 검토
Ⅲ. 古南里類型의 편년
Ⅳ. 맺음말

Ⅰ. 머리말

筆者는 拙稿에서 中西部海岸地域의 無文土器 屬性 중 口脣刻目文과 原始打捺文의 性格에 따라 '古南里類型'을 設定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 遺蹟들의 編年을 試圖한 바 있다.[1] 이 지역은 첫째 口脣刻目文의 전통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며,[2] 둘째 '原始打捺文'[3]이라는 새로운 토기 성형방법이 출토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송국리문화는 전기 무문토기문화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전기의 요소와 차별되는 특징들을 도출해서 편년하였다. 하지만 그간 연구들의 한계는 송국리유형[4] = 송국리문화라는 도식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속

*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1) 兪炳隣, 2001, 「中西部海岸地域 無文土器時代에 대한 硏究」, 漢陽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 松菊里遺蹟에서는 松菊里型土器와 口脣刻目文이 結合된 예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3) 자의적인 용어이며, 원삼국기의 타날문, 타날문토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4) 이와 관련된 논문은
①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彌生土器」『彌生文化の硏究 3』, 雄山閣出版.
② 李淸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韓國上古史學報 創刊號』, 韓國上古史學會.
③ 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硏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碩士學位論文.
④ 李健茂, 1992, 「松菊里型 住居分類試論」『擇窩 許善道先生 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⑤ 安在晧,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嶺南考古學 11』, 嶺南考古學會.
⑥ 송만영, 1995, 「中期 無文土器文化의 編年과 性格」, 崇實大碩士學位論文.
1997, 「中西部地方 無文土器 文化의 展開」,『崇實史學 10』, 崇實大學校史學會.
⑦ 李康承 · 朴淳發, 1995, 『屯山』, 忠南大學校博物館.
⑧ 성정용, 1997, 「大田 新垈洞 · 比來洞 靑銅器時代遺蹟」「湖南考古學의 諸問題」〈第21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韓國考古學會, 205~236쪽.
⑨ 金奎正, 2000, 「湖南地方 靑銅器時代의 住居址硏究」, 木浦大碩士學位論文.
⑩ 李宗哲, 2000, 「南韓地方 松菊里型 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全北大碩士學位論文.
⑪ 李賢淑, 2000, 「中西部地方 前 · 中期 無文土器文化의 地域性 檢討」『先史와 古代 14』, 韓國古代學會.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중서부해안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남리식 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고남리유형은 중심문화가 주변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토착문화의 동화로 발생한 변형으로 이를 통해서 보다 세밀한 지역군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 研究史 및 問題提起

松菊里遺蹟의 發掘은 無文土器時代의 모든 부문에 대한 연구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국리문화에 대한 검토는 첫째, 남한지역 전역에 걸쳐 동일한 전개과정을 거치며 순수한 松菊里類型을 지닌 문화만을 中期로 보는 견해[5]와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後期까지 지속된다는 견해[6]로 요약되며, 上限 年代에 대해서는 200년 가량 상향 소급하자는 견해[7]와 기존의 上限線, 즉 B.C. 6세기로 보는 見解가 있다.[8]

송국리문화의 형성과정에 대해 이홍종은 寬倉里式土器라는 유형을 설정하고 休岩里와 松菊里 사이에 편년하고 있다.[9] 이런 견해는 송국리문화의 조형을 休岩里에서 찾고 있는 기존의 研究傾向과 동일하며, 휴암리에서 송국리로의 單線上에 中間段階를 設定하고 있다.

安在晧는 송국리유형의 형성과정을 한강유역의 공열토기 전개과정에서 이해하고 있는 논고에서 남한지역을 西南地域, 東南端地域, 東南內陸地域의 3개 지역으로 나누고, 고남리유적을 서남지역에 포함시키고 주거지를 E군, 패총을 F군에 분류하여 송국리유적에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0]

이현숙은 中西部地方의 無文土器時代 遺蹟을 주거지의 형태와 지리적인 立地與件을 基準으로 크게 4가지 地域群으로 분류한 바 있는데, 中西部海岸地域은 "錦江 中·下 流域과 그 주변에 인접한 西海岸地域의 扶餘·公州·論山·舒川·保寧 일대에서 前期의 細長方形·長方形 집자리 문화 要素보다 松菊里文化가 集中化되는 地域群"으로 分類하여 잠정적으로 이 지역의 문화가 송국리문화와 동시기임을 암시하고 있다.[11]

중서부해안지역의 중요한 토기 속성 중 하나인 원시타날문에 대해 송만영은 중서부지방 무문토기

5) 주 4)의 ③, 『前揭書』.
주 4)의 ⑤, 『前揭書』.
6) 李根旭, 1994, 「寶城江流域 집자리 遺蹟의 性格과 變遷」, 서울大碩士學位論文.
7) ① 박순발,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湖西考古學 -創刊號-』, 湖西考古學會.
② 朴榮九, 2000, 「嶺東地方 靑銅器時代 住居址 硏究」, 檀國大碩士學位論文.
8) 이홍종, 2000, 「無文土器가 彌生土器 성립에 끼친 영향」『先史와 古代 14』, 韓國古代學會.
9) 주 8)의 『前揭書』.
10) 주 4)의 ⑤ 『前揭書』.
11) 이와 함께 이 지역 前·中期에 대해 ① 前期의 細長方形·長方形 집자리가 입지한 곳에 圓形집자리가 다시 축조되는 類型, ② 典型的인 松菊里類型의 圓形·方形집자리가 分布하는 類型, ③ 圓形집자리만이 分布하는 類型으로 나누고 古南里住居址를 ①類型으로 區分하고 있다.
주 4)의 ⑫, 『前揭書』, 93~95쪽.

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다루고자한 논고에서 정면수법으로 보고 保寧 寬倉里遺蹟과 舒川 烏石里遺蹟에서의 출토예와 함께 지역적인 양식으로 간주하고 있다.[12]

河仁秀는 大也里 3호 주거지에서의 出土例를 들어 土器製作에 있어 打捺技法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하였고,[13] 이성주는 保寧 校成里와 고남리패총의 출토예를 들어 점토대토기 단계에 打捺文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4]

이와 같은 견해들은 중서부해안지역 무문토기문화를 남한지역 전체의 무문토기 발전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다루고 있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무문토기문화는 송국리문화를 기초로 중기 무문토기시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과 동일시되고 있으나 오히려 유물양상은 송국리유형의 변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것이 송국리문화로의 과도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방계문화의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송국리문화의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15]

本考에서는 拙稿에서 제시한 기존의 分析資料를 토대로 古南里類型의 屬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古南里類型의 설정 및 단계 검토

1. 古南里類型의 設定

최성락은 類型을 ① 型式(Type), ② assemblage, ③ 文化類型의 3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16]

이 중 그간 우리 학계에서 통용되어 온 개념은 型式(Type)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그 동안의 研究가 遺物과 遺構를 중심으로 한 分類作業에 集中되어 있기 때문이다.[17]

고남리유형은 송국리유형과 고남리 일대에 정체되어 있던 前時期文化, 後行하는 原始打捺文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遺構와 遺物에 있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데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석기조합은 송국리유형, 토기는 古南里式土器와 松菊里型紅陶[18]로 구분된다.

12) 송만영, 주 4)의 ⑥ 『前揭書OO 』, 17쪽.
13) 주 4)의 ③, 『前揭書』, 50쪽.
14) 李盛周, 2000, 「打捺文土器의 展開와 陶質土器의 發生」『韓國考古學報 42』, 韓國考古學會.
15) 이현숙, 주 4)의 ⑫, 『前揭書』, 92쪽.
16) 최성락, 1998, 「문화의 개념」『한국고고학의 방법과 이론』, 학연문화사, 261~285쪽.
17) 본 고의 목적은 중서부해안지역 유적들이 지니고 있는 지역성의 검토가 논점이므로 유물의 형식분류와 분석이 기초되어야 하므로 그의 정의 중 형식을 차용하여 사용한다.
18) 하인수, 주 4)의 ③, 『前揭書』.

⑴ 古南里式土器의 定義

古南里式土器는 기표면에 원시타날문이 있고 구순각목문이 시문된 外反口緣壺(甕)로 구분된다.

古南里式土器는 다음의 3형식으로 정의되는데,

- Ⅰ式 : 口脣刻目文 + 松菊里型土器
- Ⅱ式 : 口脣刻目文 + 原始打捺文 + 松菊里型土器
  原始打捺文 + 松菊里型土器
- Ⅲ式 : 口脣刻目文 + 原始打捺文 + (深)鉢形土器
  原始打捺文 + (深)鉢形土器

Ⅰ式은 松菊里型土器에 口脣刻目文이 施文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前時期 休岩里 段階에서 고남리로 유입된 토기 전통이 새로이 유입된 송국리문화와 결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Ⅱ式은 Ⅰ式에 口脣刻目文이 施文되지 않은 형태도 포함된 것으로 전시기의 구순각목문과 송국리문화가 결합된 형태에 원시타날문이 성형시에 베풀어졌다.

Ⅲ式은 Ⅱ式의 頸部가 直立하여 深鉢形으로 변화된 것이다. 또한 토기의 燒成度는 보다 硬質化되는 特徵을 지닌다. 따라서 이 단계의 (深)鉢形土器는 前期 段階의 것과는 구별되는 松菊里型土器의 頸部가 直立化된 것이다.

이를 속성별로 살펴보면 〈도면 1〉과 같다.

	Ⅰ	Ⅱ	Ⅲ
구연부			

〈도면 1〉 古南里式土器 屬性 分析表

古南里式土器의 변화와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石鏃이다. 〈도면 3〉 石鏃은 前時期 段階에서는 莖部와 身部의 구별이 뚜렷한 有莖式石鏃이 주류를 이루며, Ⅰ式 段階에서는 前時期의 傳統이 계속 이어지고, Ⅱ式 段階에서는 柳葉形石鏃이 등장하며, Ⅲ式 段階에서는 신부가 축약되거나 身部와 莖部의 구별이 정형화되지 않은 石鏃이 나타난다.

고남리식토기는 차령산맥 서쪽의 보령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지역과 도서지방에서 출토된다. 〈도

면 2〉 고남리유형의 표식유적인 고남리유적 중 貝塚 出土 原始打捺文土器의 口緣部 · 底部別 屬性은 다음의 〈表 1 · 2〉와 같다.

〈表 1〉 貝塚別 原始打捺文土器 口緣部 型式 分類表

( )안은 %

區分 / 出土地		原始打捺文土器										總計
		(深)鉢形土器(I형)						壺形土器(II형)				
		內彎(a)		直立(b)		外反(c)		短頸(a)		長頸(b)		
		口脣刻目①	無文樣②	口脣刻目①	無文樣②	口脣刻目①	無文樣②	口脣刻目①	無文樣②	口脣刻目①	無文樣②	
A貝塚			1	1	9			10	10	2	6	39(44.8)
B貝塚	I號			2	1				2	1		6(6.9)
	II號											
	1號 住居址											
	2號 住居址											
	3號 住居址											
	1號 野外爐址											
C貝塚												
D貝塚				8	16	7	11					42(48.2)
小計			1 (1.1)	11 (12.6)	26 (29.9)	7 (8.0)	11 (12.6)	10 (11.4)	12 (13.8)	3 (3.4)	6 (6.9)	87 (100)
總計		8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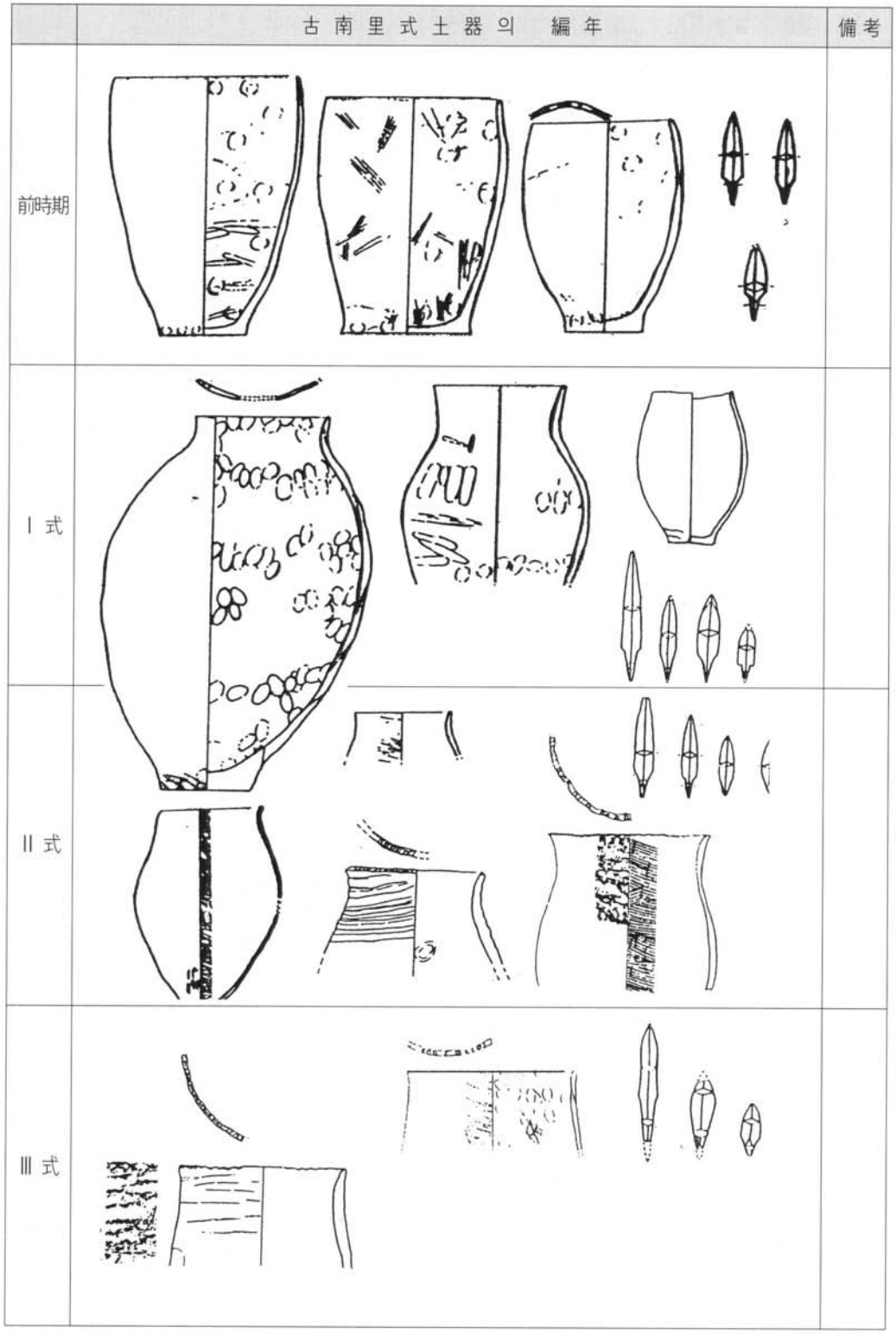
- A패총 : 1차 발굴조사 지점
- B-I호 패총 : 1 · 2호 주거지 폐기 후 형성된 패총
- B-II호 패총 : 3호 주거지 폐기 후 형성된 패총
- C패총 : 4~8차 발굴조사 지점
- D패총 : 한서대학교 발굴조사 지점

〈表 1〉에서 원시타날문토기는 A · D패총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소량이 B-I 패총에서 확인되었다.[19] A패총에서는 (深)鉢形土器와 壺形土器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D패총은 壺形土器의 출토예가 없다.

口脣刻目文의 比率은 31점으로 약 35.6%의 비율을 차지한다. 고남리식토기는 II-a · b-①식(II식), I-b · c-①식(III식)으로 분류되며, 점유율은 II식이 13점(14.9%), III식이 18점(20.6%)이다.

19) B-I 패총은 보고서의 도판과 도면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고남리식토기의 속성을 지닌 토기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고서에 보고된 것 만을 분류하였다.

〈도면 2〉 古南里式土器의 分布地域



〈도면 3〉 古南里式土器의 編年

〈表 2〉 貝塚別 原始打捺文土器 底部 型式 分類表 ( )안은 %

出土地 \ 區分		原始打捺文土器						總計
		平底(I형)			上底(II형)			
		축약된 굽 (a)	축약없는 굽 (b)	굽 없음 (c)	축약된 굽 (a)	축약없는 굽 (b)	굽 없음 (c)	
A 貝塚		11	12	4	1	1	1	30 (58.8)
B 貝塚	1號	1	2		1			4 (7.8)
	2號							
	1號 住居址							
	2號 住居址							
	3號 住居址							
	1號 野外爐址							
C 貝塚								
D 貝塚		4	8	2		2	1	17 (33.4)
小計		16(31.4)	22(43.1)	6(11.8)	2(3.9)	3(5.9)	2(3.9)	51
總計		51(100)						(100)

〈表 2〉를 살펴보면, 原始打捺文土器 底部는 역시 A · D · B-I 패총에서만 확인되며, 이의 比率은 51점(11.8%)이다.

⑵ 古南里式土器의 出土 樣相

中西部海岸地域은 松菊里類型과 古南里類型 兩者간의 빈도 차이에 의해서 遺蹟 상호간의 序列을 想定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3〉 貝塚別 古南里式土器 出土 樣相(古南里)

底部 \ 口緣部	I	II	III
a	C패총 · B-II 패총	A패총 · B-I 패총	A · D패총
b			
c			A · D패총

〈表 3〉은 고남리 각 패총별 고남리식토기의 출토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I-a에서 III-c식의 시간적인 서열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통해서 각 패총간의 形成時期와 存續期間을 유추할 수 있다.

〈表 4〉 保寧地域 遺蹟別 古南里式土器 出土 樣相

口緣部 / 底部	I	II	III
a	巢松里 '나' 遺蹟 貝塚	巢松里 '나' 遺蹟 貝塚 保寧 寬倉里 B·F·G區域 寬倉里 周溝墓(KM-401)	
b	舒川 鳥石里 94-2號 住居址	寬倉里 B·G區域	
c			

〈表 4〉는 보령지역 유적들의 古南里式土器 출토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完形으로 출토된 소량을 제외하고는 구연부의 형태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보령지역의 유적들은 古南里 패총단계보다는 이른 시기에 편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古南里類型의 段階 區分

고남리식토기의 발전단계는 Ⅰ→Ⅲ식으로의 순차적인 이행과정을 거치며, 形成時期는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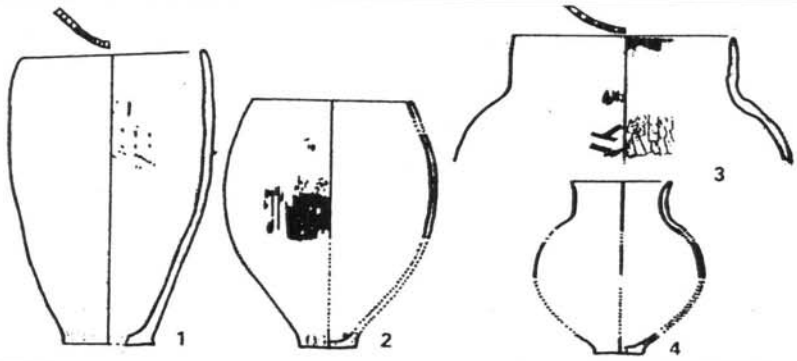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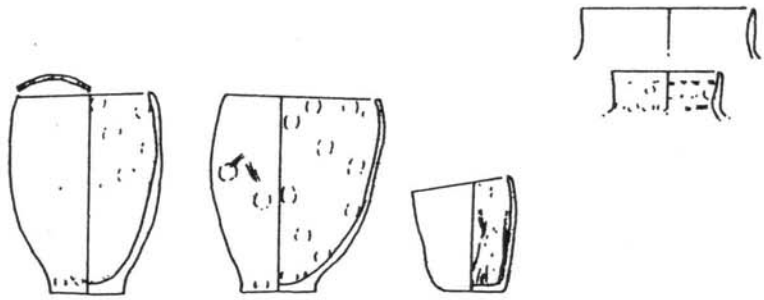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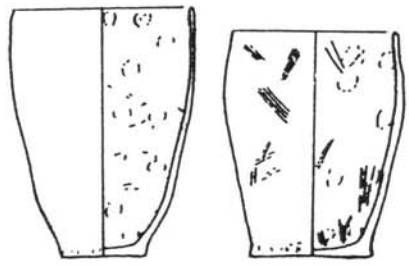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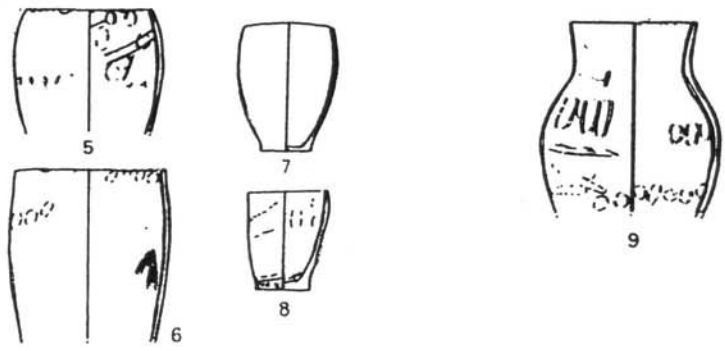
- Ⅰ段階 : 松菊里文化 流入 以前 段階
  (前時期 : 古南里住居址, 休岩里段階)
- Ⅱ段階 : 松菊里文化 流入 後 原始打捺文 流入 以前 段階
  (古南里Ⅰ式土器 段階)
- Ⅲ段階 : 原始打捺文 流入 以後 段階(古南里Ⅱ · Ⅲ式土器 段階)

각 단계의 구분과 이행은 주로 기형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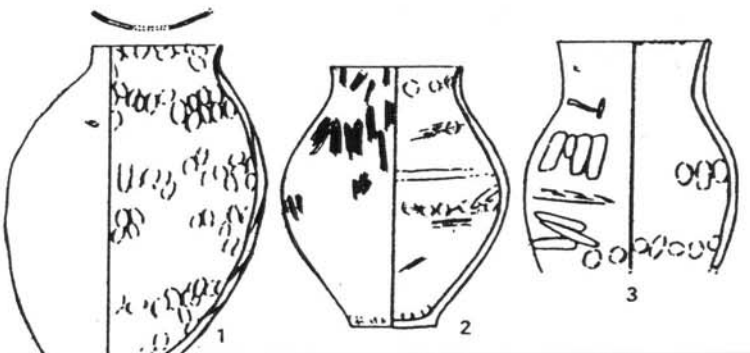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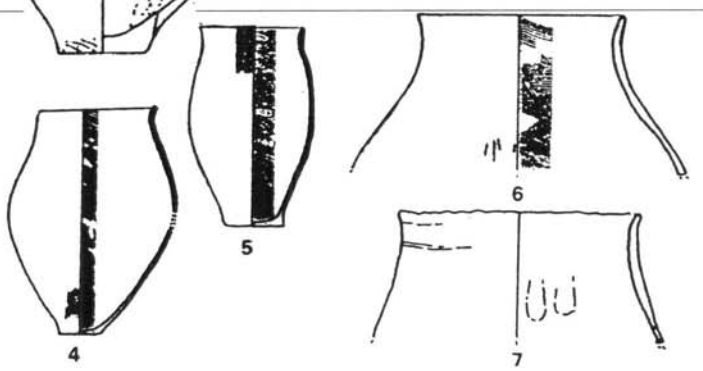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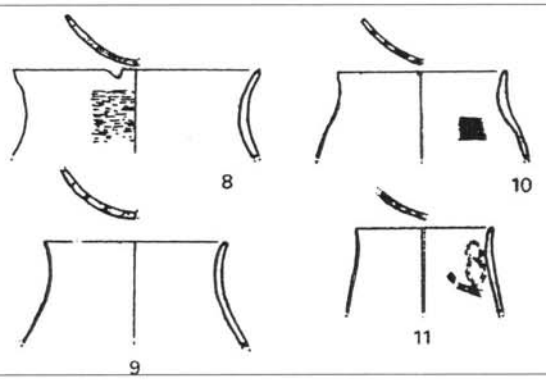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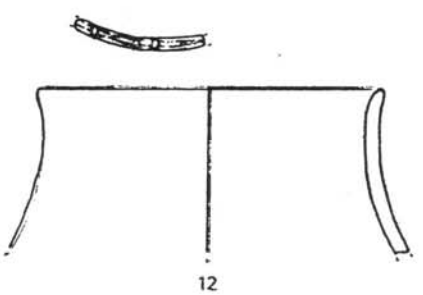
⑴ 前時期(口脣刻目文 深鉢形土器 段階)

口脣刻目文 深鉢形土器는 고남리주거지 단계의 유물이다. 유적으로는 해미 휴암리, 소송리 '나' 패총 하층이 있다. 〈도면 4〉를 보면, ①~④는 휴암리유적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판단되는 A호 주거지 출토품이며, 공반유물 중 구순각목공열문토기도 출토되어 전기 무문토기문화의 변화상을 유추할 수 있다. 심발형토기는 구연부 형태와 동체부의 풍만도에 의해 2개 유형으로 나뉘며, 호형토기는 단경에 직립구연을 지닌 것과 구순부가 외반하는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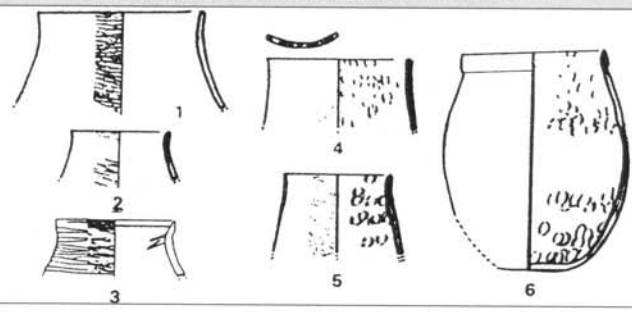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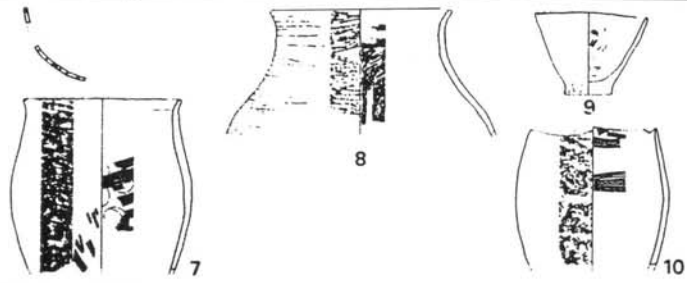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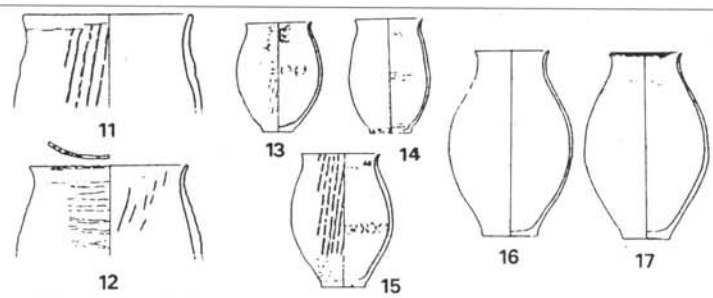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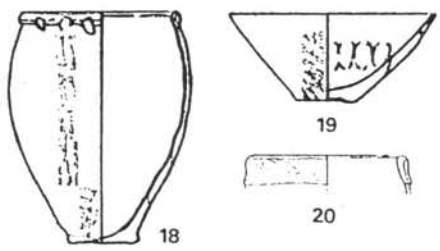
고남리주거지 B-1호 주거지 출토품은 휴암리유적에 비해서 기고가 축소되고 구연부가 직립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B-3호 주거지 출토품은 내만각도가 휴암리유적과 유사해 고남리주거지 중 가

遺蹟名		古南里 I 式土器(口脣刻目文 深鉢形 土器)	備 考
海美休岩里			
古南里住居址	B-③		
	B-①	 1~4 : A號 住居址 5·8 : 古南里 B-I號 貝塚 6·9 : 古南里 B-II號 貝塚 7 : 巢松里 '나' 貝塚	
其 他			

〈도면 4〉 前時期 土器 段階 屬性 變化(縮尺不同)

遺蹟名	古南里 I 式土器(口脣刻目文 松菊里形 土器)	備 考
古南里貝塚		1. C패총 2. B-I 패총 3. B-II 패총
巢松里 '나' 貝塚		
寬倉里 'F' 區域 住居址		15호 주거지
其 他		청원 내수리 주거지

〈도면 5〉 古南里 I 式土器 段階 屬性 變化(縮尺不同)

遺蹟名	古南里 I 式土器(口脣刻目 原始打捺文 松菊里形 土器)	備 考
古南里貝塚		1·2 : A패총 3 : B-I 패총 4~6:B-II 패총
巢松里 '나' 貝塚		
寬倉里 'F' 區域 住居址		11~37호주거지 14:8호 주거지 15:11호 주거지 16:12호 주거지 17:38호 저장공
校成里		18:6호 주거지 19·20 : 3호 주거지
其 他		21 : 시도패총 제III지구 지표

〈도면 6〉 古南里 II · III式土器 段階 屬性 變化(縮尺不同)

장 선행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⑵ 古南里Ⅰ式土器(口脣刻目文松菊里型土器) 段階

古南里Ⅰ式土器는 松菊里型土器와 前時期의 要素인 口脣刻目文이 결합된 형태이다.

〈도면 5〉에서 古南里貝塚 出土品은 구연부가 짧고 동체부가 일정하지 않으며, B-Ⅱ패총 출토품(도면 5-③)은 경부가 비교적 길다. 소송리 '나' 유적 패총 출토품은 동체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송국리형토기의 형태를 하고 있다. 관창리F구역 출토품은 완형으로 출토되지 않아 전체적인 기형은 파악할 수 없지만 경부의 외반각도로 보아 소송리 '나' 패총 출토품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⑶ 古南里Ⅱ · Ⅲ式土器(口脣刻目原始打捺文松菊里型土器) 段階

古南里Ⅱ · Ⅲ式土器는 原始打捺文이라는 새로운 成形技法의 도입과 함께 Ⅰ式이 결합된 형태이지만 구순각목문이 없는 器形 역시 포함된다. Ⅱ式 土器는 성형기법에 있어 원시타날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경부의 외반 각도는 송국리형토기와 동일하다.

〈도면 6〉에서 고남리패총 출토품 중 1~3은 Ⅱ식에 4~6은 Ⅲ식에 해당한다. 구연부의 직립화 경향은 소송리 '나' 패총과 관창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따라서 이 두 유적은 고남리Ⅰ · Ⅱ식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Ⅲ. 古南里類型의 편년

고남리유적의 표식유적인 고남리유적 각 패총에 대한 C14 및 조개를 이용한 First-Order測定値[20]를 정리하면 〈表 5〉와 같다.

20) 이 측정법은 시간과 비용은 저렴하나 시료가 조개에 국한되고 오차범위가 넓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Glover, E., Glover, I. & Vita-Finzi, C. 1990. First-Order 14C dating of marine molluscs in archaeology, Antiquity 64:562-7.
Vita-Finzi, C. 1983. First-Order C14 dating of Holocene molluscs,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65:389-92.

〈表 5〉 古南里貝塚 C14 年代測定値

貝塚 \ 區分		C14(RCYBP)	First-Order	시 료
A貝塚	2層		1,800±200 UCL-236	조개
B-Ⅰ貝塚	6層	1,270±50 KSU-2036 2,420±90 Beta-44977	3,200±200 UCL-233	조개
	6層	1,330±80 KSU-2038 3,340±80 Beta-44978		木炭
	7層		1,250±100 UCL-234	조개(表土)
	12層		4,150±250 UCL-235	조개(新石器時代 文化層)
B-Ⅱ貝塚	2層		2,400±100 UCL-232	조개
	3層	2,650±70 Beta-44975		조개
2號 住居址		1,590± KSU-2039		木炭
3號 住居址		1,260±60 KSU-2037 2,620±80 Beta-44976		木炭
C貝塚	1號 爐址	2,640±80 Beta-105624		木炭 보정연대 925-755, 685-540(Cal)
	3層	2,710±70 Beta-105625		木炭, 1,000-790(Cal)
	6層	2,910±70 Beta-105626		木炭, 1,295-905(Cal)
D貝塚	N0E0 3層	2,590±70 Beta-105615		木炭, 845-515(Cal)
	N1W0 3層	2,690±70 Beta-105616		木炭, 980-780(Cal)
	S0W0 3層	2,580±70 Beta-105614		木炭, 835-505(Cal)
	S1E0 5層	2,430±80 Beta-105613		木炭, 795-375(Cal)

※ KSU : 교토산업대학, Beta : Beta연구소, UCL : 런던대학교 지질학과
※ RCYBP : RadioCarbon Years Before Present ※ Cal : Calendar Year

〈表 5〉에서 B-Ⅰ패총 6층에서 수습된 Beta-44977 · 44978시료는 2,420±90(B.P.)로 B.C. 6~5세기경으로 編年된다. B-Ⅱ패총 3층에서 수습된 Beta-44975는 2,650±70(B.P.)의 측정치를 보여 B.C. 8~7세기경으로 편년된다. 3호 주거지에서 수습된 Beta-44976은 2,620±80(B.P.)의 측정치로 B.C. 8~6세기경으로 편년된다. C패총은 補正年代에 의해 대략 上限은 B.C. 9~13세기, 下限은 B.C. 6~10세기로 編年되며, D패총은 보정연대에 의해 上限은 B.C. 8~10세기, 下限은 B.C. 4~8세기로 編年된다.

이와 함께 보령지역 유적들의 絕對年代測定値는 〈表 6〉과 같다.

〈表 6〉을 살펴보면, 烏石里 4號 住居址는 B.C. 6세기경으로 편년되며, 巢松里 貝塚의 상한은 B.C. 8세기, 하한은 B.C. 4세기경으로 편년되고 館山里遺蹟은 B.C. 9~4세기로 편년된다.

이외에 保寧 館山里遺蹟은 하한연대에 있어 B.C. 10~9세기의 연대를 보이고 있어 보령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表 6〉 古南里貝塚 C14 年代測定値

貝塚 \ 區分		C14	補正年代(B.C.)	試料
舒川 烏石里	4號 住居址	2480±60 CAMS-21638(AMS)	530	木炭
	4號 住居址	2530±60 CAMS-21639(AMS)	580	木炭(서쪽구덩이 내)
	4號 住居址	2580±50 CAMS-21640(AMS)	630	木炭(주거지 내 탄재)
	4號 住居址	2450±60 CAMS-21641(AMS)	500	木炭(주거지 내 탄재)
	4號 住居址	2420±60 CAMS-21642(AMS)	470	木炭(주거지 중앙 탄재)
保寧 巢松里	1層	2,440±50 KCP-329	760~400	조개
'나' 貝塚	4層	2410±50 KCP-330	760~390	조개
保寧 館山里 遺蹟	KC 004	2,890±60 Beta-86476	1,260~905(Cal)	木炭
	KC 009	2,750±60 Beta-86477	1,015~805(Cal)	木炭
	KC 011	2,570±70 Beta-86478	830~485(Cal) 465~425(Cal)	木炭
	KC 012	2,780±70 Beta-86479	1,110~805(Cal)	木炭
	KC 013	2,920±70 Beta-86480	1,305~910(Cal)	木炭
保寧 寬倉里 遺蹟 'A·F' 區域	7號 住居址	2,550±60 Beta-108816(AMS)	815~485(Cal) 465~425(Cal)	木炭(저장공)
	8號 住居址	2,460±60 Beta-108817	790~395(Cal)	木炭(바닥)
	10號 住居址	2,440±60 Beta-108818	785~390(Cal)	木炭(바닥)
	21號 住居址	2,600±60 Beta-108819(AMS)	835~755(Cal) 685~540(Cal)	木炭(타원형구덩이)
	26號 住居址	2,530±70 Beta-108820	815~405(Cal)	木炭(바닥)
	30號 住居址	2,480±70 Beta-108821(AMS)	800~395(Cal)	木炭(타원형구덩이)
	38號 저장고	2,480±50 Beta-108822(AMS)	790~405(Cal)	木炭

※ Beta : Beta연구소 KCP : 국립문화재연구소
※ AMS :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가속질량분광법) ※ Cal : Calendar Year

Ⅳ. 맺음말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남리주거지의 중심연대는 휴암리유적보다 후행하는 B.C. 7세기 후반 ~ 6세기 후반동안 조성되었으며, 고남리패총은 대략 B.C. 6세기 전반(B-Ⅱ패총)에서 3세기 전반(D패총)에 걸친 약 300년 동안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보령지역의 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것은 전기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관산리유적으로 B.C. 8세기 경으로 편년되며, 고남리유형을 지니고 있는 소송리, 오석리, 관창리유적은 B.C. 8~5세기의 시간폭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남리 패총간의 시간서열은 고남리식토기의 유·무에 의해 구분되며, Ⅰ→Ⅲ식으로의 순차적인 이행과정을 거친다. 보령지역의 유적들이 고남리패총 단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속한다.

셋째, 고남리유형의 단계는 Ⅰ→Ⅲ단계로 발전하는데, 이는 송국리문화의 유입, 쇠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고남리식토기는 전형적인 송국리형토기에 비해 구순각목문이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토기양상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군의 설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고남리식토기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충남의 보령, 서천지역 등 주로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거창 대야리유적에서의 출토예가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내륙지역에서도 출토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의 분포가 광범위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 토기 역시 송국리문화의 확산과정에서 기존의 토착문화와 결합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송국리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대한 연구는 중심문화와 방계문화와의 결합에 의한 지역적인 차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 參考文獻

강인구 외, 1979, 『松菊里 Ⅰ』, 국립중앙박물관

高麗大學校 埋藏文化硏究所, 1997, 『寬倉里 周溝墓』

公州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公社, 1996, 『烏石里遺蹟』

金奎正, 2000, 「湖南地方 靑銅器時代의 住居址硏究」, 木浦大碩士學位論文

國立扶餘博物館, 1987, 『保寧 校成里 집자리』

국립중앙박물관, 1987, 『松菊里 Ⅲ』

권오영, 1991, 『松菊里 Ⅳ』, 國立中央博物館

김길식, 1993, 『松菊里 Ⅴ』, 國立中央博物館

金秉模·沈光注, 1990, 『安眠島 古南里貝塚〈1次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博物館

金秉模·安德任, 1990, 『安眠島 古南里貝塚〈2次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博物館

金秉模 外, 1993, 『安眠島 古南里貝塚〈3·4次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博物館

金秉模·蘇相永, 1995, 『安眠島 古南里貝塚〈5·6次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博物館

金秉模·俞炯麟, 1997, 『安眠島 古南里貝塚〈7次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博物館

金秉模·俞炯麟·任惠娟, 1998, 『安眠島 古南里貝塚〈8次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博物館

박순발,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湖西考古學 -創刊號-』, 湖西考古學會

朴榮九, 2000, 「嶺東地方 靑銅器時代 住居址 硏究」, 檀國大碩士學位論文

성정용, 1997, 「大田 新垈洞·比來洞 靑銅器時代遺蹟」『湖南考古學의 諸問題』〈第21回 韓國考古學會 全國大會 發表要旨〉, 韓國考古學會

蘇相永, 1999, 「安眠島 新石器文化 研究 – 古南里貝塚遺蹟을 중심으로 –」,漢陽大碩士學位論文
송만영, 1995, 「中期 無文土器文化의 編年과 性格」, 崇實大碩士學位論文
1997, 「中西部地方 無文土器 文化의 展開」, 『崇實史學 10』, 崇實大學校史學會
安在晧,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嶺南考古學 11』, 嶺南考古學會
安德任 · 俞炯磷, 1998, 『泰安郡 古南面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한서대학교박물관 · 태안문화원
安德任 · 俞炯磷, 1999, 『安眠島 古南里貝塚』, 한서대학교박물관
吳相卓 · 姜賢淑, 1999, 『寬倉里遺蹟(A · F區域 發掘調査報告書)』, 亞州大學校博物館
俞炯磷, 2001, 「中西部海岸地域 無文土器時代에 대한 研究」, 漢陽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尹武炳 · 韓永熙 · 鄭俊基, 1990, 『休岩里』, 國立中央博物館
李康承 · 朴淳發, 1995, 『屯山』, 忠南大學校博物館
李健茂, 1992, 「松菊里型 住居分類試論」『擇窩 許善道先生 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李根旭, 1994, 「寶城江流域 집자리 遺蹟의 性格과 變遷」, 서울大碩士學位論文
李盛周, 2000, 「打捺文土器의 展開와 陶質土器 發生」『韓國考古學報 42』, 韓國考古學會
李宗哲, 2000, 「南韓地方 松菊里型 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全北大碩士學位論文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韓國上古史學報 創刊號』, 韓國上古史學會
李賢淑, 2000, 「中西部地方 前 · 中期 無文土器文化의 地域性 檢討」『先史와 古代 14』, 韓國古代學會
이홍종, 2000, 「無文土器가 彌生土器 성립에 끼친 영향」 『先史와 古代 14』, 韓國古代學會
지건길 외, 1986, 『松菊里 II』, 國立中央博物館
최성락, 1998', 「문화의 개념」『한국고고학의 방법과 이론』pp. 261~285, 학연문화사
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碩士學位論文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韓國道路工社, 2000, 『西海岸高速道路(藍浦~熊川)建設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韓炳三, 1970, 『矢島貝塚』(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8册), 國立中央博物館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彌生土器」, 『彌生文化の研究 3』, 雄山閣出版
Glover, E., Glover, I. & Vita-Finzi, C. 1990. First-Order ^{14}C dating of marine molluscs in archaeology, Antiquity 64:562-7
Vita-Finzi, C. 1983. First-Order C^{14} dating of Holocene molluscs,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65:389-92.

驪州 元香寺址의 歷史的 性格에 관한 一考察

윤 용 희 *

Ⅰ. 머리말
Ⅱ. 원향사 가람의 변천
Ⅲ. 원향사 단월세력의 추이
Ⅳ. 맺음말

Ⅰ. 머리말

元香寺址는 京畿道 驪州郡 占東面 元富里에 위치하는 고려시대 사찰유적이다. (〈도면 1〉 참조) 원향사지는 19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1차 및 2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1]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다수의 遺構 및 遺物은 遺蹟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원향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원향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 및 統一新羅末~高麗初의 시기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원향사가 가지는 歷史的 性格에 대한 하나의 考察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되었다. Ⅱ장에서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 등 유구의 배치 관계를 살피고, 이를 출토된 유물 중 평기와에 대한 분석결과[2]와 비교 · 검토함으로써 원향사지의 伽藍配置 및 變遷過程에 대한 하나의 假說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원향사지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 江原道 寧越郡 興寧寺址의 '澄曉大師寶印塔碑'의 碑文 내용을 분석한 연구결과[3]와 이를 통

*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1)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1999, 「여주 원향사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여주 원향사지 2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2) 윤용희, 2001, 「남한강유역 출토 고려전기 평기와 고찰」-여주 원향사지 출토기와의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3) 정영호, 1969, 「신라 사자산 흥녕사지 연구」, 『백산학보』제7집, 백산학회.
박정주, 1992, 「신라말 · 고려초 사자산문과 정치세력」, 『진단학보』77, 진단학회.
남동신 원문교감, 1996, 「흥녕사징효대사보인탑비」, 『역주 나말여초 금석문』상, 혜안.
남동신 역주, 1996, 「흥녕사 징효대사 보인탑비」, 『역주 나말여초 금석문』하, 혜안.

하여 밝혀진 원향사와 관련된 政治勢力 및 佛敎界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Ⅱ장에서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검토하였던 내용을 종합하여 원향사의 寺格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Ⅱ. 원향사 가람의 변천

원향사지에 대한 조사는 1992년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귀목문 암막새를 비롯한 기와류 및 자기류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이로 미루어 고려시대의 사찰유적으로 추정되었다.[4] 원향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기전문화재연구원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여 1999년 8월 12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조사전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香寺'銘 기와가 수 점 확인되었으며, 현재의 지명이 元富里이고, 고유지명이 원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 유적이 문헌에 나오는 '元香寺'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원향사에 대한 기록은 江原道 寧越郡 興寧寺址에 있는 '澄曉大師寶印塔碑'의 碑文에 나타난다. 비문은 924년(신라 경명왕 8)에 왕명에 의해 崔彦撝가 지었으며, 비석의 건립연대는 고려초기인 944년(고려 혜종 1)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光啓〕二年 師避地於尙州之南 暫栖烏嶺 當此之時 本山果遭兵火 盡燔寶坊 大師預卜吉凶 以免俱焚之難. 眞聖大王 御宇之二年也, 特遣溟州僧正 釋浦道 東宮內養 安處玄等 遠降綸言 遙祈法力, 仍以陰竹縣 元香寺 永屬禪那別觀…"[5]

"…〔광계〕2년(886년) 대사는 상주의 남쪽으로 피난 가서 烏嶺에 잠시 머물렀다. 이 때를 당하여 본산(獅子山 興寧寺)이 과연 병화를 만나 귀한 절이 불타 버렸으니, 대사께서 미리 길흉을 점쳐 함께 불타는 재난을 면한 것이다. 진성대왕이 나라를 다스린지 2년(888년)에 명주승정 석포도와 동궁내양 안처현 등을 특별히 파견하여 멀리 말씀을 내리고 멀리서 법력을 빌었다. 그리고 음죽현(지금의 陰城 일대) 원향사를 영원히 선나별관에 속하게 하였다…"[6]

4)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2, 『중부내륙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5) 남동신 원문교감, 1996, 「흥녕사징효대사보인탑비」, 『역주 나말여초금석문』(상), 혜안.
6) 남동신 역주, 1996, 「흥녕사 징효대사 보인탑비」, 『역주 나말여초금석문』(하), 혜안.

비문의 내용에 따르면 원향사는 적어도 진성여왕대인 9세기말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888년(진성여왕 2) 이전에 이미 창건된 사찰로서 '元香寺'라는 사명으로 사찰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인화문토기 및 통일신라기 유물이 적지 않게 출토되고 있어 비문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문헌과 출토유물로 보아 원향사의 創建時期를 統一新羅時代까지 소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문 내용 중 "…진성여왕이 원향사를 영원히 禪那別觀에 속하게 하였다.…"는 기사를 통하여, 원향사는 본래 新羅王室에 속하는 사찰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시 병화를 피해 남행 중이던 澄曉大師에게 원향사를 寄進함으로써 징효대사 折中으로 대표되는 '九山禪門' 중 하나인 獅子山門을 왕실의 세력권 내에 정착시키려 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7] 이에 대해 징효대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비문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禪那別觀'은 곧 선종사찰의 의미로서, 이 시기에 원향사는 징효대사의 사자산문에 속하는 사찰로 성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주 원향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9년과 2000년에 1차 ·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및 2차 발굴조사에서는 (推定)木塔址 1개소와 건물지 17개소가 확인되었다. (〈도면 2〉 참조) 1차 발굴조사에서는 북쪽의 1호 건물지와 중앙의 6호 · 7호 건물지, 그리고 사이에 위치한 기타유구 1 을 제외한 나머지 유구는 대부분 조사지역의 경계면에 걸쳐 건물지의 일부분만이 확인되었으므로, 건물지의 규모나 배치, 성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2차 조사에서는 조사구간을 동 · 서로 확장하여 〈도면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구의 배치가 확인됨으로써, 원향사지 가람의 변화과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원향사지 가람배치의 구조는 조사지역 북동쪽의 13호 건물지 – (추정)목탑지 – 기타유구 1 – 3호 · 4호 건물지로 이어지는 일직선상의 배치를 주축으로 하고, 좌측에 12호 건물지 – 11호 건물지 – 1호 건물지 – 2호 건물지로 이어지는 축선과 우측에 15호 건물지 – 16호 건물지로 이어지는 축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배치는 가운데의 13호 건물지에서 3호 · 4호 건물지로 이어지는 중심축선을 좌 · 우 축선이 감싸안는 형태로 정형화된 배치를 보여준다. 배치공간내의 개별 건물지의 성격, 특히 (추정)목탑지 및 기타유구 1 의 성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되겠지만, 이 공간이 고려초기에 조성된 원향사지의 중심사역임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공간의 남쪽에는 6호 · 7호 건물지가 위치하는데, 6 · 7호 건물지에서는 1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7) 박정주, 1992, 「신라말 · 고려초 사자산문과 정치세력」, 「진단학보」 77.

宋나라 동전인 至和元寶(1054~1055)와 12세기대의 청자접시 50여점이 출토되었다. 지화원보는 6호 건물지와 7호 건물지 사이에 20㎝ 두께로 퇴적된 와적층내 소토층에서 출토되었고, 청자접시 50여점은 7호 건물지내 아궁이유구 부근의 소토층에서 일괄 수습되었다. 두 유물은 모두 12세기대의 유물로서, 이를 통해 6호 · 7호 건물지의 중심연대는 12세기대로 추정된다.

이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건물지의 배치와 중심적인 유물의 연대를 통하여 원향사지 가람배치의 변화상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것은 조사지역 북쪽의 (추정)목탑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과 남쪽의 6 · 7호 건물지가 위치하는 공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추정)목탑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먼저 조성되고, 6호 · 7호 건물지는 그 이후에 세워졌을 것이라는 가설의 설정이 가능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람배치 변화에 대한 가설과 원향사지 출토 평기와를 속성분석하여 연구한 결과[8]를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원향사지 평기와에 대한 연구에서는 출토된 평기와 1544점을 대상으로 이를 속성분석하였다. 먼저 평기와 외면의 문양을 6가지 주문양(승문, 선문, 격자문, 사격자문, 어골문, 집선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문양형태 및 문양구성에 따라 모두 35가지의 문양으로 세분하였다. (〈표 1〉 참조) 평기와에 대한 속성분성은 제작기법적 특징을 보여주는 11가지 속성(① 문양, ② 타날판크기, ③ 타날방향, ④ 내면 조정방법, ⑤ 측면 분할방법, ⑥ 두께, ⑦ 색조, ⑧ 경도, ⑨ 외면 정면방법, ⑩ 내면 정면방법, ⑪ 측면 분할깊이)를 분석단위로 하여, 이를 6가지 주문양별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6가지 주문양의 흐름에 따른 속성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속성인 타날판 크기, 내면 조정방법, 측면 분할방법, 내면 정면방법, 측면 분할깊이를 대비하여 모두 10가지의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표 1〉, 〈표 2〉, 〈표 3〉참조) 분류된 10가지 형식은 앞의 속성별 검토에서 보여지는 변화의 흐름과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형식간의 상대적 선후관계를 설정하였고, 모두 4단계의 발전단계를 설정하였다. (〈표 5〉 참조) 또한 동시기의 남한강유역 사찰유적인 안성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중 '丙辰' 명(956년, 광종 7) 기와와 '辛酉' 명(961년, 광종 12) 기와를 문양 및 제작기법적 측면에서 원향사지 출토 평기와와 비교하여 편년설정을 시도하였다. (〈표 6〉, 〈표 7〉 참조) 이상의 원향사지 출토 평기와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발전단계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문양과 제작기법에서 통일신라적 전통을 보여주며, 그 시기는 8~9세기대의 통일신라시기라 할 수 있다.

2단계는 문양과 제작기법에 있어 통일신라적 요소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적인 기와

8) 윤용희, 2001, 앞의 글.

제작 기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기와 제작기법이 정형화하기 이전의 과도적 단계로 생각되며, 그 시기는 9세기말~10세기초의 나말려초기로 설정할 수 있다.

3단계는 문양에 있어 복합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며, 명문와가 나타나고, 제작기법에 있어 타날판 크기에서 장판의 타날판, 측면 분할방법에서 내→외 방향의 분할, 내면 조정방법에서 물손질 조정, 내면 정면방법에서 물손질 정면, 측면 분할깊이에서 기와 두께의 1/2~1/5 범위라는 고려시대적인 기와 제작기법이 정형화되는 시기로 생각되며, 그 시기는 10세기중반~11세기중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

4단계는 문양에 있어 어골문 횡대식에 해당하며, 타날판 크기, 측면 분할방법, 내면 조정방법에서 3단계와 같지만 내면 정면방법에서 물솔질정면으로의 변화가 뚜렷하고, 측면 분할깊이에서 기와 두께의 1/5미만으로 약식화되는 고려시대 기와 제작기법 발전 2단계로 생각되며, 그 시기는 11세기후반~12세기로 설정할 수 있다.

〈표1〉 문양의 종류

종 류	문양형식		문양구성	암기와	수기와	개체수(%)
무 문				245	91	336
소 계				245	91	336(21.6)
승 문				1	0	1
소 계				1	0	1(0.1)
선 문	단독형	단조식		7	6	13
		직선식		8	11	19
		사선식		7	3	10
		횡선식		0	1	1
		복합식	직선+사선	4	2	6
소 계				26	23	49(3.2)
격자문	단독형	태선식	정방형	5	0	5
		세선식	정방형	3	1	4
			장방형	2	1	3
소 계				10	2	12(0.8)
사격자문	단독형	태선식	정방형	30	14	44
			마름모형	2	0	2
		세선식	정방형	33	0	33
	복합형	태선식	종선문	50	0	50
			화문	2	0	2
소 계				117	14	131(8.4)
어골문	단독형	비대칭식	태선식	42	40	82
			세선식	6	9	15
		대칭식	대칭식	56	11	67
			'香' 명1	15	14	29
			'香' 명2	63	7	70
	복합형	비횡대식	격자문	24	4	28
			격자문(장방형)	18	1	19
			사격자문	204	52	256
			사격자문(마름모형)	14	0	14
			중호문	56	0	56
			격자문+화문	16	0	16
			仰天祈福명	242	0	242
			元香寺瓦匠僧順文명	9	2	11
			'元香寺' 명	14	1	15
		횡대식	사격자문	30	0	30
			중호문+기하문	4	0	4
			국화문	45	0	45
			연화문	2	0	2
소 계				860	141	1001(64.4)
집선문	단독형		집선문	10	0	10
			'卍' 명	14	0	14
소 계				24	0	24(1.5)
계				1283	271	1554(100)

〈표2〉 5가지 속성과 문양의 대비

	타날판크기			측면분할방법			측면분할깊이			내면정면방법		내면조정방법	
	단판	중판	장판	완전	외측	내측	1/2	1/2~1/5	1/5	물손질	물솔질	깎기	물손질
승(단독식)	◎												
선(단조식)	◎			◎	◎		◎				◎	◎	◎
선(직선식)	◎			◎		◎	◎	◎		◎	◎	◎	◎
선(사선식)	◎			◎		◎	◎	◎		◎		◎	◎
선(횡선식)	◎			◎			◎						
선(복합식)	◎					◎	◎	◎		◎	◎	◎	◎
격(태정격)	◎							◎		◎			◎
격(세정격)	◎						◎			◎	◎		
격(세장격)		◎		◎			◎			◎	◎		◎
사(태정사)			◎	◎			◎		◎	◎	◎	◎	
사(태마사)			◎					◎					
사(세마사)			◎					◎		◎			◎
사(선문복)			◎					◎		◎			◎
사(화문복)			◎					◎		◎			
어(태선식)			◎		◎			◎		◎	◎	◎	◎
어(세선식)			◎		◎			◎		◎	◎		
어(대칭식)			◎	◎		◎		◎		◎	◎		◎
어(향1)			◎			◎		◎			◎		◎
어(향2)			◎			◎			◎	◎	◎		◎
어(정격복)			◎			◎	◎			◎	◎		◎
어(장격복)			◎			◎		◎			◎		◎
어(사격복)			◎			◎		◎		◎	◎		◎
어(사마복)			◎					◎			◎		◎
어(중호복)			◎					◎		◎			◎
어(격화복)			◎						◎		◎		
어(앙천)			◎					◎			◎		◎
어(순문)			◎			◎		◎		◎			◎
어(원향)			◎			◎		◎		◎	◎		◎
어(사격횡)			◎						◎		◎		◎
어(중기횡)			◎						◎		◎		◎
어(국화횡)			◎						◎		◎		◎
어(연화횡)			◎					◎			◎		◎
집(단독식)			◎					◎			◎		◎
집(만)			◎				◎				◎		◎

〈표3〉 5가지 속성에 따른 형식의 분류

형 식	문 양	타날판	분할방법	조정방법	정면방법	분할깊이	개체수
I Aa	승문 · 선문	단판	완전분할	깎기	–	–	31점
I Ab	격자문	중판	완전분할	물손질	–	–	1점
I Bb	선문	단판	외→내	물손질	–	–	1점
I Cb	선문 · 격자문	단판	내→외	물손질	–	–	29점
II Aa	사격자문	장판	완전분할	깎기	–	–	14점
II Ab	어골문	장판	완전분할	물손질	–	–	1점
II Ba	어골문	장판	외→내	깎기	–	–	4점
II Bb	어골문	장판	외→내	물손질	–	–	47점
II Cb1y	사격자문 어골문 · 집선문	장판	내→외	물손질	물손질	1/2~1/5	1010점
II Cb2z	어골문	장판	내→외	물손질	물솔질	1/5미만	80점

타날판 크기 : 단판/중판(I), 장판(II)
측면분할방법 : 완전분할(A), 외→내(B), 내→외(C)
내면조정방법 : 깎기(a), 물손질(b)
내면정면방법 : 물손질(1), 물솔질(2)
측면분할깊이 : 1/2이상(x), 1/2~1/5(y), 1/5미만(z)

〈표4〉 기와 제작기법 발전 4단계

	형 식	개체수(%)	문양종류	제 작 기 법		특 징
1단계	I Aa	31점 (2.5%)	승문 선문	타날판	단판	통일신라 제작기법 전통
				분할방법	완전분할	
				내면조정	깎기	
				내면정면	–	
				분할깊이	–	
2단계	I Ab I Bb I Cb II Aa II Ab II Ba II Bb	97점 (8.0%)	선문 격자문 사격자문 어골문	타날판	단판,중판,장판	과도기적 단계
				분할방법	완전,내측,외측	
				내면조정	깎기,물손질	
				내면정면	–	
				분할깊이	–	
3단계	II Cb1y	1010점 (82.9%)	사격자문 어골문 집선문	타날판	장판	고려시대 제작기법 정형화 (발전 1단계)
				분할방법	내→외	
				내면조정	물손질	
				내면정면	물솔질	
				분할깊이	1/2~1/5	
4단계	II Cb2z	80점 (6.6%)	타날판 어골문	장판	고려시대	제작기법 약식화 (발전 2단계)
				분할방법	내→외	
				내면조정	물손질	
				내면정면	물솔질	
				분할깊이	1/5미만	

〈표5〉 문양에 따른 기와형식의 분포

		I Aa	I Ab	I Bb	I Cb	II Aa	II Ab	II Ba	II Bb	II Cb1y	II Cb2z
1	승(단독식)	◎									
2	선(단조식)	◎		◎							
3	선(직선식)	◎			◎						
4	선(사선식)	◎			◎						
5	선(횡선식)	◎									
6	선(복합식)				◎						
7	격(태정격)				◎						
8	격(세정격)				◎						
9	격(세장격)		◎								
10	사(태정사)					◎					
11	사(태마사)									◎	
12	사(세마사)									◎	
13	사(선문복)									◎	
14	사(화문복)									◎	
15	어(태선식)							◎	◎		
16	어(세선식)								◎	◎	
17	어(대칭식)						◎			◎	
18	어(향1)									◎	
19	어(향2)									◎	
20	어(정격복)									◎	
21	어(장격복)									◎	
22	어(사격복)									◎	
23	어(사마복)									◎	
24	어(중호복)									◎	
25	어(격화복)									◎	
26	어(앙천)									◎	
27	어(순문)									◎	◎
28	어(원향)									◎	
29	어(사격횡)										◎
30	어(중기횡)										◎
31	어(국화횡)										◎
32	어(연화횡)									◎	
33	집(단독식)									◎	
34	집(만)									◎	

〈표6〉 봉업사지 출토 명문와의 문양과 제작기법

	문양종류	타날판크기	타날방향	분할방법	내면정면	분할깊이
'丙辰' 명 956년 (광종7)	사격자문 (세마사)	장판	횡방향	내→외	물손질	1/2~1/5
'辛酉' 명 961년 (광종12)	사격자문 (선문복)	장판	횡방향	내→외	물손질	1/2~1/5

〈표7〉 기와 제작기법 발전단계의 편년설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특징	통일신라적 전통	과도기적 특징	제작기법의 정형화	제작기법의 약식화
편년	8~9세기	9세기말~10세기초	10세기중반 ~11세기중반	11세기후반 ~12세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향사지 출토 평기와의 발전단계는 모두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결과가 앞에서 제시한 가람배치 변화에 대한 가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문을 제외한 1218점의 원향사지 출토 평기와의 출토지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참조)

〈표8〉 원향사지 평기와 출토현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기타1	기타3	담장	TR	지표	계
1	승(단독식)															1	1
2	선(단조식)	2		4		1	6										13
3	선(직선식)	3		3	1	4	4		1	1						2	19
4	선(사선식)			1	1	2	6										10
5	선(횡선식)		1														1
6	선(복합식)			4	1	1											6
7	격(태정격)			3									2				5
8	격(세정격)			2			1									1	4
9	격(세장격)											1				2	3
10	사(태정사)	1	4	23	2	1	2		1	2	1					7	44
11	사(태마사)															2	2
12	사(세마사)		3	2		2	3	9		8	2		1	1		2	33
13	사(선문복)	8	1	26		1	3	2	1	1	4				1	2	50
14	사(화문복)															2	2
15	어(태선식)	4	3	31	12	7	10	6	1	1	6			1			82
16	어(세선식)		1	1	1		1	1							1	9	15
17	어(대칭식)	1	2	9		5	10	6	3	3	4	1	1	3	6	13	67
18	어(향1)	2		4			2	5	5	2	3			4		2	29
19	어(향2)	1	1			10	12	11	4	1	3	3		2		22	70
20	어(정격복)		3	3	1		12	1	1	1	1		1	1	3		28
21	어(장격복)						1		1							17	19
22	어(사격복)	5	13	24	5	12	57	67	21	4	19	1	5	5	3	15	256
23	어(사마복)						3	5		1	5						14
24	어(중호복)	2		5		2	5	14	2	2	5		6	3	2	8	56
25	어(격화복)		1			1	2							1		11	16
26	어(앙천)	5		31		17	16	118	14	6			6	9	9	11	242
27	어(순문)			1		1		3	1	1	1		1	2			11
28	어(원향)			1				3	1		1			9			15
29	어(사격횡)						11							11	1	7	30
30	어(중기횡)						2	1	1								4
31	어(국화횡)			1		1	2	24			1			4	3	9	45
32	어(연화횡)							1								1	2
33	집(단독식)														5	5	10
34	집(만)														4	10	14
계		34	33	179	24	68	171	277	58	34	56	6	23	56	38	161	1218

〈표 8〉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평기와의 건물지별 분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장 많은 개체수를 차지하는 복합어골문(사격복) 기와(256점)와 '앙천기복' 명 기와(242점)이다. 이 두 기와는 6호 · 7호 건물지에서 각각 124점(48.4%), 134점(55.4%)씩 출토되어, 6호 · 7호 건물지에 집중되어 있다. 두 기와는 원향사지 평기와 발전 3단계에 해당하며, 제작시기는 10세기 중반에서 11세기 중반으로 편년한 바 있다. 이러한 기와의 편년에 따라 6호 · 7호 건물지의 중심연대를 10세기 중반 ~ 11세기 중반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와의 단계적 변화와 가람배치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개별 기와의 종류를 각 단계별로 묶어 출토지별 분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향사지 출토 평기와의 발전단계별 출토지 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9〉 참조)

〈표9〉 발전단계별 출토지 분포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기타1	기타3	담장	TR	지표	개체수
1단계	4	–	6	–	5	14	–	–	–	–	–	–	–	–	2	31
2단계	3	5	19	6	5	7	3	3	4	2	2	3	2	2	31	97
3단계	26	28	154	18	57	135	248	54	30	53	4	20	39	32	112	1010
4단계	–	–	1	–	1	15	26	1	–	1	–	–	15	4	16	80
개체수	34	33	179	24	68	171	277	58	34	56	6	23	56	38	161	1218
%	2.8	2.7	14.7	2.0	5.6	14.0	22.7	4.8	2.8	4.6	0.5	1.9	4.6	3.1	13.2	

전체 유구 중에서 기와가 가장 많이 출토된 유구는 7호 건물지로 227점(22.7%)이다. 다음으로는 3호 건물지와 6호 건물지에서 각각 179점(14.7%), 171점(14.0%)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기와 제작법의 단계적 변화와 가람배치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이 3개의 건물지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기와제작기법적 측면에서 각 단계별로 출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8~9세기)에 제작된 기와는 모두 31점으로 1호 · 3호 · 5호 · 6호 건물지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며, 7호 건물지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2단계(9세기말~10세기초)에 제작된 기와는 모두 97점으로 유적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데, 그 중 3호 건물지에서 19점(19.6%)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3단계(10세기중반~11세기중반)에 제작된 기와는 모두 1010점으로 유적 전체에서 출토되는데, 그 중 7호 건물지에서 248점(24.6%)으로 가장 많이 출토되었으며, 6호 건물지에서 135점(13.4%)이 출

토되어, 6호 · 7호 건물지에서 383점(37.9%)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3호 건물지에서도 154점(15.3%)으로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4단계(11세기후반~12세기)에 제작된 기와는 모두 80점으로 3호 · 5호 · 6호 · 7호 · 8호 · 10호 · 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7호 건물지에서 26점(32.5%), 6호 건물지에서 15점(18.8%), 담장지에서 15점(18.8%) 순으로 많이 출토되었으며, 전체 개체수가 179점(14.7%)으로 많은 기와가 출토되었던 3호 건물지에서 1점(1.3%)만이 출토되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 평기와의 출토빈도가 높고, 각 단계에 따른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3호 건물지와 6호 건물지 · 7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원향사지 기와의 제작시기에 따른 건물지별 분포범위와 원향사지 가람배치의 변화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1단계(8~9세기)에 제작된 기와가 전체 개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1218점 중 31점(2.6%)으로 매우 낮으므로 통일신라시대 운영되었던 원향사의 초창기 가람이 이번 조사지역내에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출토지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전체 건물지 중 가장 많은 기와가 출토된 7호 건물지에서 1점도 확인되지 않은 것은 7호 건물지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세워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2단계(9세기말~10세기초)에 제작된 기와는 모두 97점(8.0%)으로 유적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앞 절에서는 2단계를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적 제작기법으로 넘어가는 과도적 단계로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비문내용에 의하면 888년(진성여왕 2)에 징효대사가 전란을 피해 남행 중일 때, 진성여왕이 동궁내양 안처현과 명주승정 석포도를 보내어 대사의 불력을 빌고, 원향사를 영원히 선나별관에 속하게 하였던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원향사의 寺格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왕실에 속하는 사찰에서 선종사찰로, 그 중에서도 사자산문에 속하는 사찰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해당하는 기와의 전체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비문에 기록된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사찰내의 건물배치를 얼마만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3호 건물지에서 19점(19.6%)으로 가장 많은 2단계 기와가 출토되었으므로, 이 시기에 3호 건물지가 중요시됨에 따라 번와 등 작은 규모의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단계(10세기중반~11세기중반)에 제작된 기와는 모두 1010점(82.9%)으로 원향사는 이 시기에 대대적인 불사를 통하여 중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제작된 기와는 유적 전체에서 두루 확인되는데, 그 중 특히 6호와 7호 건물지에서는 2단계의 기와가 10점이었던데 반해 3단계의 기와가

모두 383점으로 급증하므로 6호 · 7호 건물지는 이 시기에 신축되었거나 혹은 대대적으로 개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3호 건물지에서도 이 시기에 제작된 기와가 154점(15.3%)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6호 · 7호 건물지와 같은 시기에 한 사역내에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호 건물지가 중요하게 사용된 것은 6호 · 7호 건물지보다는 다소 앞선 시기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단계(11세기후반~12세기)에 제작된 기와는 모두 80점(6.6%)으로 매우 적은 개체수를 차지한다. 출토지의 분포도 매우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6호 · 7호 건물지와 담장지에서 56점(70.0%)으로 비교적 많은 개체가 확인되므로 이들 유구가 있는 사역의 주로 남쪽 지역에서는 계속 번와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전체 179점이 출토되었던 3호 건물지에서는 4단계의 기와가 단 1점만이 출토되어 이 시기에 그 중요성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상 각 단계별로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와의 개체수를 비교하여, 신축 · 개축 혹은 번와 등의 건축행위가 변화하는 흐름을 구성하여 보았다. 이를 가람배치의 변화와 관련하여 재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참조)

〈표10〉 원향사지 단계별 가람 변화

단계	연 대	가람변화 단계	비 고
1단계	8~9세기	원향사 초창기 가람	원향사 초창기 가람은 현 조사지역 바깥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2단계	9세기말 ~10세기초	원향사 사격의 변화 (왕실→선종사찰)	원향사 가람배치의 변화는 유적 북쪽의 3호 건물지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단계	10세기중반 ~11세기중반	원향사 대대적 중창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원향사지 가람배치의 형태를 갖추게 되며, 6호 · 7호 건물지 지역으로 중심사역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4단계	11세기후반 ~12세기	사찰건물의 개보수	6호 · 7호 건물지는 계속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3호 건물지를 비롯한 유적 북쪽 지역은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원향사 단월세력의 추이

앞 장에서는 1차 및 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원향사 가람의 변천과정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원향사지 주변에 분포하는 유적의 분포를 통하여 원향사지가 가지는 역사지리적 위치를 검토하고, 원향사에 관한 기록을 전하는 강원도 영월군 흥녕사지의 '징효대사보인탑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원향사와 관련된 政治勢力 및 佛敎界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Ⅱ장에서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가설과 관련하여 검토하겠다.

원향사지는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고려시대에 陰竹縣이라 불리우던 곳으로 남한강의 지류인 淸渓川을 통하여 남한강의 중류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남쪽은 남한강의 상류지역으로서 지금의 충주시 일대와 연결되며, 서쪽은 竹山川·安城川 일대로서 현재의 안성시 일원과 연결된다. 북쪽은 남한강이 북서류하여 京安川과 합류되면서 현재의 하남·광주 일대와 연결된다. 수계를 중심으로 알아본 바와 같이 남한강 유역은 대하천을 따라 물자의 수송 및 문화의 유입이 유리한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찰 및 관방유적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유적의 중심연대는 통일신라말~고려초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려 건국의 중추세력이었던 지방호족세력의 지역적 기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대변한다. 이처럼 남한강일대는 통일신라말~고려초기에 걸쳐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지방호족을 중심으로 중앙문화와 지방문화가 결합된 지역적 특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남한강을 수계로 하는 경기남부·충북 충주·강원 원주 일대는 삼국시대부터 고구려의 남하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길목으로서, 이를 차지하기 위하여 삼국은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신라는 眞興王代(540~576년)에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적어도 眞聖女王代(887~897년)까지 약 350년간 이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쇠퇴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신라왕실의 통치권 내에 있던 지방세력들은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城主 혹은 將軍을 자처하며 할거하였다. 고려에 의한 후삼국의 통일 이후에도 이들 豪族들에 의한 지방지배는 계속 이어졌으며, 고려초기의 정치사는 왕실과 호족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연합과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라말~고려초에 남한강 일대의 지방세력은 통일신라시대의 中原京이었던 충주를 중심으로 원주(北原京), 안성(竹州) 일원에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였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남한강 일대의 지방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으며, 실제로 고려의 통일은 이 지역에

기반을 둔 호족세력, 특히 忠州 劉氏의 歸附와 협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당시 충주, 죽주(안성), 제주(제천), 음죽(음성) 일대는 忠州 劉氏의 세력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향사지의 지리적 위치는 당시의 이러한 세력분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남한강일대의 유적의 분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들 유적의 중심연대는 통일신라말~고려초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려 건국의 중추세력이었던 지방호족세력의 지역적 기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대변한다. 이처럼 남한강일대는 통일신라말~고려초기에 걸쳐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지방호족을 중심으로 중앙문화와 지방문화가 결합된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므로 고려초기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를 통하여 성격이 밝혀진 대표적인 유적은 안성천 · 죽산천 일대의 봉업사지, 남한강 중류 金塘川 일대의 高達寺址를 들 수 있다.

봉업사지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일대에 위치한다. 이 사찰은 1966년 경지정리 작업시 출토된 일괄유물 중 香琓飯子의 명문을 통해 1081년(문종 35) 이전에 창건되었던 "奉業寺"로 밝혀진 유적이다. 봉업사지는 『고려사』에 공민왕이 1363년(공민왕 12)에 죽주에 이르러 태조의 眞影을 봉업사에서 알현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眞殿寺院으로 알려져 왔다. 봉업사지는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2차에 걸쳐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발굴조사 결과 봉업사는 통일신라시대에 "華次寺"로 창건되었으며, 이후 고려전기에 이르러 태조의 진영을 모신 진전사원인 "奉業寺"로 대규모 중창을 하여 사역의 범위가 죽산 일대로 확대되었고,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번성하여 고려말까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찰로 밝혀졌다. 이후 봉업사는 조선초기까지도 일부 법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나 조선후기 이전에는 폐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달사지는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에 위치한다. 사찰 내에는 고달사지부도(국보 제4호)를 비롯한 석조물들이 남아있으며, 특히 고달사지를 중창한 것으로 알려진 元宗大師의 비문을 통하여 고달사지의 창건 및 중창과 관련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고달사는 840년(문성왕 2)경 원종대사 璨幽의 스승인 圓鑑大師 玄昱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921년(태조 4) 원종대사가 고달원으로 온 이후 태조대부터 광종대까지 왕실의 각별한 배려 속에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광종대 法眼宗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계의 재편 움직임 속에 고달사는 道峰院, 曦陽院과 함께 三不動院의 하나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 남한강유역에 분포하는 주요 사찰유적을 중심으로 유적의 연혁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고려전기에 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은 중앙적 성격과 지방적 성격이 공존하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들 사찰의 건립과 산성의 축조는 당시 고려왕조의 성립과 함께 제기된 정치적 · 사상적 통합이라는 중앙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세력 또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함

으로써 中央官界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방 거점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이해가 맞물려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남부 일대는 중앙과 지방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고려초기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정치사 · 사상사 ·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원향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호족세력은 '징효대사보인탑비'의 음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비문은 924년(경명왕8)에 왕명에 의해 최언위가 지었으며, 비석의 건립연대는 고려초기인 944년(혜종 원년)이다. 징효대사 折中은 900년(효공왕4)에 입적하였는데, 징효대사 사후 44년만에 고려 왕실의 후원에 힘입어 제자들에 의해 영월 흥녕사에 비석을 세운 것은 사자산문이 다시 중흥하는 계기가 되었을것으로 생각되는데,[9] 이런 맥락에서 원향사도 사자산문에 속하는 선종사찰로서 중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문의 음기에는 당시 비석건립에 참여한 檀越勢力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사자산문의 단월세력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인 정종(王堯), 광종(王昭) 등 왕실혈족과 廣州(王規), 溟州(王景, 王廉), 忠州(兢達)지방의 유력호족으로서, 이들의 후원에 힘입어 888년에 병화를 입으면서 위축될 수 밖에 없었을 사자산문은 비석의 건립과 더불어 다시 중창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석 건립에 참여한 정치세력의 지역적 분포로 볼 때 주로 명주와 충주세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10]

충주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은 충주 유씨이다. 충주 유씨는 광종의 외척세력으로서 고려초기 광종대에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시 막강한 세력으로서 왕실을 위협하던 광주, 패강진, 서경 세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지방세력으로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이들의 세력범위는 충주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 · 강원도 일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리적으로 보아 원향사는 이들의 세력권내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명주세력은 두가지 계통의 세력이 존재한다. 하나는 王順式 계열로서 신라말에 중앙에서 知溟州軍州事의 관직을 받아 파견된 군사집단으로 훗날 왕건에게 귀부함으로써 고려사회에 편입된다. 다른 하나는 王乂 계열의 在地勢力으로 군사적인 힘으로는 왕순식 계열에 못미치지만 오랜 토착적 기반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유력 호족은 예외없이 禪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는데, 이들의 출신이 다르듯이 이들과 관련된 선문의 기반도 달랐다는 점

9) 박정주, 1992, 「신라말 · 고려초 사자산문과 정치세력」, 『진단학보』77.
10) 김혜완, 2000, 「보원사 철불의 조상 -고려초 원주철불과 관련하여-」, 『사림』.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수선사학회)

이다. 왕순식 계열은 구산선문 중 獅子山門과 관련이 있고, 왕예 계열은 崛山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고려왕조가 성립된 이후 이 두 세력의 명암은 엇갈리는데, 왕순식 계열은 왕건으로부터 직접 王氏 姓을 하사받으면서 고려초기부터 일찍 중앙관계에 진출하여 在京勢力化하나 이들에 대한 기록이 후대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왕권확립 과정에서 숙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왕순식이 친신라계열로서 왕건세력에게 초기에 비협조적이었고, 이러한 감정은 재경세력화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들이 가진 막강한 군사력은 왕실에 매우 위협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왕권이 확립되는 초기에 정치적인 표적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왕예 계열은 후대에도 후손들이 과거를 통하여 중앙관계에 진출하는 등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흥망에 따라 이들이 속한 선문도 그 명운을 달리 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비문의 내용대로 사자산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향사의 운명도 왕순식 계열의 몰락에 따른 사자산문의 쇠락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 원향사지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 江原道 寧越郡 興寧寺址의 '澄曉大師寶印塔碑'의 碑文 내용을 분석한 연구결과와 이를 통하여 밝혀진 원향사와 관련된 政治勢力 및 佛敎界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Ⅱ장에서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원향사지 출토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화 및 가람의 변천과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8~9세기)

'징효대사보인탑비'의 비문에 의하면 원향사는 적어도 888년(진성여왕 2) 이전에 창건된 것이 확실하다. 1단계는 비문에 기록된 888년을 기점으로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통일신라시대에 존재하였던 창건가람의 시기로서 기록으로 미루어 원향사는 왕실의 영향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가람은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창건가람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조사지역 서북쪽의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탄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경작과정에서 탄생불 형태의 금동불이 수습된 바 있기 때문에 과거 사역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유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승문 기와 1점을 비롯한 선문기와 30점이며, 인화문토기 1점도 이 시기의 유물로 볼 수 있다. 단판의 타날판으로 성형하였고, 와도로 측면을 1~3회 분할하였으며, 내면을 깎기 조정한 형식이다. 문양과 제작기법의 측면에서 통일신라적 전통이 강하게 나타난다.

11) 김갑동, 1990,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45.

【2단계】(9세기말~10세기초)

비문에 기록된 '징효대사에게 888년 진성여왕이 원향사를 영원히 선나별관에 속하게 하였다'는 기사와 관련되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나말여초기로 불리우는 시기로서 신라말 진성여왕대의 정치적 혼란과 각지에서의 농민반란을 업고 지방세력이 왕실의 지배를 벗어나 각지에 세력권을 형성하던 시기로서 대표적인 인물은 궁예와 견훤이다. 신라왕실이 당시 사상계를 주도하였던 선종을 포섭함으로써 지방세력의 일부를 흡수하려는 움직임은 당시로서 매우 절박한 과제로서 생각되며, 원향사가 신라왕실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선종계열의 사찰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이 시기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가람은 발굴조사된 지역 중 북쪽의 3호 건물지와 그 주변이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기와는 모두 97점이다. 2단계에서는 승문이 사라지고, 선문 · 격자문 · 사격자문 · 어골문 등이 고루 나타나는데, 특히 어골문은 어골문과 타문양이 복합되지 않은 순수어골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타날판 크기에서 단판 · 중판과 장판, 측면 분할방법에서 완전분할과 외→내 및 내→외 방향 분할, 내면 조정방법에서 깎기와 물손질이 혼재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기와 제작기법이 타날판 크기에서 단판→장판, 측면 분할방법에서 완전분할→내측 방향 분할, 내면 조정방법에서 깎기→물손질로 변화하는 큰 흐름의 중간단계로 생각되며, 고려시대 기와 제작기법이 정형화하기 이전의 과도적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3단계】(10세기중반~11세기중반)

고려왕조의 성립기로 후삼국의 분열을 통합한 고려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적극적인 호족융합과 불교계를 통한 사상의 정비에 나서던 시기로서 개경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사찰조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원향사지와 관련하여서는 944년(혜종 1)에 영월 흥녕사지에 징효대사보인탑비가 건립되어 전란으로 위축되었던 사자산문이 이 시기에 부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고려왕실의 호족포섭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사찰을 세움으로써 호족세력을 회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왕실과의 연계를 유지하려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향사지의 중창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에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건물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중수되면서 조사지역 북쪽의 추정목탑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인 가람배치가 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점차 중심사역의 범위가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6호 · 7호 건물지의 중요성이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기와는 모두 1010점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문양에 있어 사격자문 · 어골문 · 집선문이 같이 나타나는데, 어골문 중에서도 어골문과 타문양이 결합된 복합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며, 명문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제작기법적 측면에서는 타날판 크기에서 장판의 타날판, 측면 분할방법에서 내→외 방향의 분할, 내면 조정방법에서 물손질 조정, 내면 정

면방법에서 물손질 정면, 측면 분할깊이에서 기와 두께의 1/2~1/5 범위라는 고려시대적인 기와 제작기법이 정형화되는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4단계】(11세기후반~12세기)

왕권이 안정되고 고려사회가 문벌귀족사회로 나아가는 시기로서 고려문화의 전성기로 일컬어지는 시기이다. 원향사가 이 시기에도 활발하게 경영되었음은 7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50여점의 청자접시 일괄유물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해당하는 평기와가 3호 건물지에서 단 1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로 6호 · 7호 건물지와 조사지역 가장 남쪽의 담장지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남쪽 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한 불사가 있었고, 이것은 가람의 중심사역이 점차 남쪽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기와는 모두 80점으로 적은 편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자산문의 성쇠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불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기와는 문양에 있어 어골문 중 횡대식에 해당하며, 타날판 크기, 측면 분할방법, 내면 조정방법에서 3단계와 같지만 내면 정면방법에서 물솔질 정면으로의 변화가 뚜렷하고, 측면 분할깊이에서도 기와 두께의1/5미만으로 약식화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며, 고려시대 기와 제작기법 발전의 2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Ⅳ. 맺 음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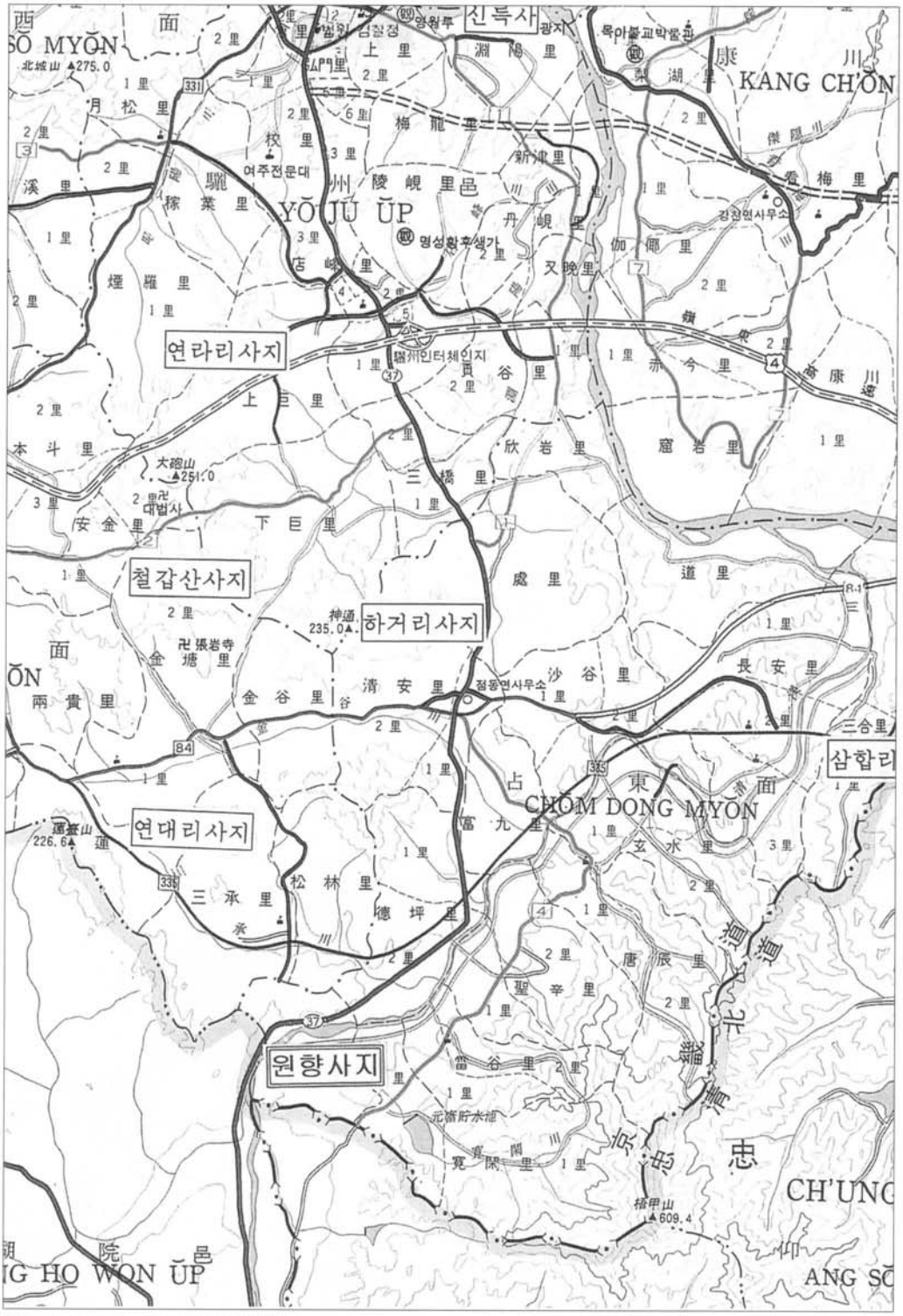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1999년부터 2001년에 걸쳐 1차 및 2차 발굴조사된 바 있는 여주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유구 및 유물과 원향사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 영월 흥녕사지의 '징효대사보인탑비'의 비문을 통하여 원향사 가람의 변천과정과 역사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1차 및 2차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건물지 등 유구의 배치관계와 출토된 유물 중 평기와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 ·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원향사지의 伽藍配置 및 變遷過程에 대한 하나의 假說을 제시하였다. 또한 흥녕사지의 '징효대사보인탑비'의 비문 내용 분석을 통하여 원향사와 관련된 政治勢力 및 佛敎界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던 가설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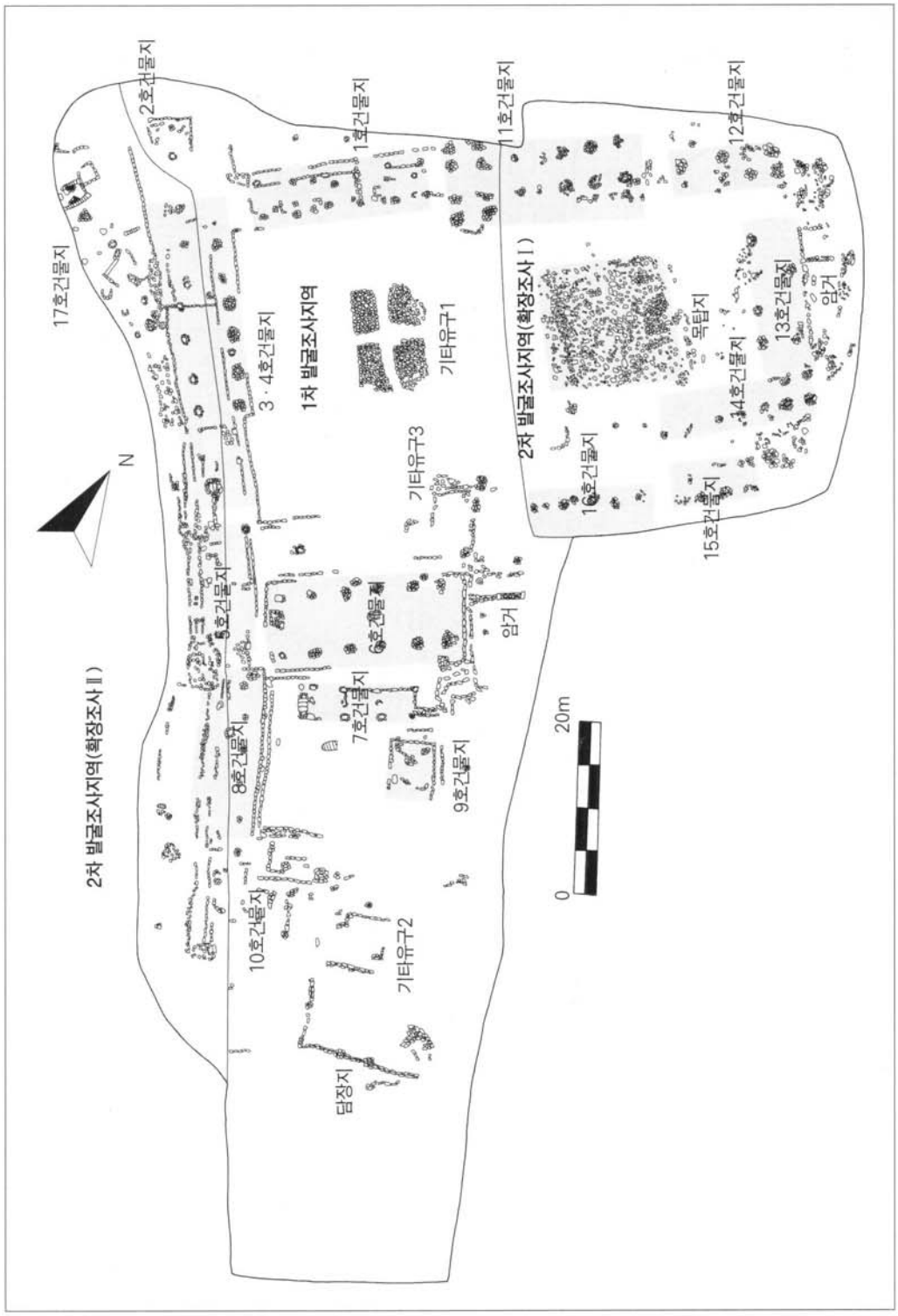
원향사가 존재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남한강 일대에 위치하는 원향사의 지리적 조건과 주변 호족세력의 분포 및 관련된 선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원향사는 고려시대 陰竹縣이라 불

리던 지역에 위치하므로, 당시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忠州 劉氏의 세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충주 유씨는 고려왕실의 외척으로 일찍이 태조대부터 중앙에 진출하였으며, 광종대에 왕권을 안정시키는데에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충주 유씨가 원향사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澄曉大師寶印塔碑'의 陰記에 劉兢達을 비롯한 이들 세력의 명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서 알 수 있다. 한편 음기에는 溟州勢力의 이름도 많이 보인다. 명주세력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라 출신의 王順式 계열로 獅子山門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在地勢力인 王乂 계열로 崛山門과 관련이 있다. 고려초기에 왕예 계열은 명주에 남아 계속 명맥을 유지하지만 在京勢力化한 왕순식 계열은 곧 제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력의 성쇠는 이들이 속한 선문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왕순식 계열이 몰락할 때 사자산문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지에 의하면, 888년에 진성여왕에 의해 선종사찰로 변화하였던 원향사는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원향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중심연대가 11세기~12세기이고 고려중기 이후 유물의 출토비중이 높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여주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유구와 유물 및 비문의 기록을 중심으로 원향사 가람의 변천과정과 역사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발굴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일부만을 정리한 하나의 고찰일 뿐이다. 따라서 추후에 보다 풍부한 자료의 고증이 요구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통일신라말~고려초기의 역사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1〉 원향사지 위치도(1/100,000)



〈도면 2〉 원향사지 유구배치도

조선시대 陵墓碑의 종류에 대한 一考察

이 민 식 *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능묘비 유행의 사상적 배경
Ⅲ. 조선시대 능묘비의 종류별 명칭과 개념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최근 경기도는 도내의 각종 개발로 인해서 문화유적이 파괴 또는 인멸되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군 단위의 광역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 지표조사는 크게 고고·관방·불교·유교·민속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유교분야의 경우 제분야보다 유적의 수량이 더 많이 조사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점점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유교분야의 향교·서원·사당·누정·정려문·묘소의 비석과 석물 중에서도 묘소의 비석과 석물이 대다수를 점유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조사 성과이다. 특히 능이나 묘소에 세워진 각종 비석의 경우, 사료적인 가치가 뛰어나 관련 학계로부터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으며 크게 주목받고 있다.

조선시대는 수 많은 비석이 세워졌던 만큼 그 종류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여러 종류중에서도 능묘비가 가장 많이 건립된 반면,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하여 능묘비에 대한 명칭과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입석 제한과 관련한 문제도 심도있게 연구된 적이 없다. 따라서 관련 학자들이 연구함에 있어 여러 곤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능묘비의 명칭에 대해서는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먼저 본고에서 조선시대에 능묘비가 크게 유행하게된 사상적 배경을 알아본 후, 이어서 능묘비를 종류별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명칭과 개념 및 입석제한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같은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여주군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Ⅱ. 조선시대 능묘비 유행의 사상적 배경

불교가 지배 이념이었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는 寺刹에 건립되던 高僧大德들의 塔碑나 行蹟碑가 그시대 비석의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崇儒抑佛 정책을 펼치던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陵이나 일반 墓所 앞에 세우던 陵墓碑가 크게 유행을 하였다.[1]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인 士大夫는 儒敎의 倫理的 價値觀에 입각해서 조상에 대한 崇慕의 마음으로 일정한 格式에 맞춰 묘비를 건립하였는데, 이같은 행위가 조상의 德을 밝히고 顯揚하는 것이며 올바른 禮의 실천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儒學의 창시자인 孔子가 延陵季子의 묘비에 '嗚呼延陵季子之墓' 라 題한 故事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 實例를 顯宗代의 명문장가인 龍洲 趙絅(1586~1669)이 撰한 「戶曹判書李自堅墓碣銘并序」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경은 묘갈을 세우지 말라는 이자견의 유언 때문에 묘갈의 입석을 주저하고 있던 후손에게 공자의 고사와 『禮記』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갈의 입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대가 참으로 공자께서 延陵季子의 묘에 쓴 바를 본 받아 다른 말이 없이 한다면 선조의 덕도 드러내고 선조의 훈계도 따르는 것이 되어 一擧兩全이 되는데 도리만 따라준다면 아울러 (묘갈의 입석을)행해도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2]

또 宋時烈(1607~1689)[3]이 寧陵의 表石에 관한 일로 조정에서 金佑明(1619~1675)과 논쟁할 때도 陵表石 건립의 정당성을 孔子의 고사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故事는 陵表 입석의 명분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4] 특히 조선시대처럼 孔子를 至高至純한 聖人으로 떠받들던 사회에서,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北宋代의 道學者인 司馬光(1019~1086)도 다음과 같이 말하여 묘비의 입석을 권장하고 있다.

---

1) 李浩官, 1981,「石碑의 발생과 樣式變遷」, 『石燈 · 浮屠 · 碑』韓國의 美⑮, 중앙일보사.
졸고, 1997, 「朝鮮時代 陵墓碑에 關한 硏究」,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20쪽.

2) 趙絅 撰,「戶曹判書李自堅墓碣銘并序」, 1669(현종1).
"今子 誠法夫子之題延陵季子墓 無餘辭 則著祖之德 遵祖之訓 一擧而兩全 道固存竝行 而不倍者矣"

3) 肅宗代의 대유학자 尤庵 宋時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묘비문을 찬술하였는데, 그의 개인 문집인『宋子大全』에 총 451개의 각종 묘비문이 실려 있다. 송시열은 묘비문을 지어 先賢의 훌륭한 功과 德을 鐘鼎과 墓碑石에 새겨 후세에 龜鑑이 되도록 전해야 하는 儒學者의 도리를 충실히 수행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졸고, 1997, 앞의 논문, 21~31쪽.
___, 2001, 「兩宋書派考」,『兩宋體 特別展-宋浚吉 · 宋時烈의 書藝-」, 한신대학교박물관.

4)『顯宗實錄』14年 9月 17日 癸未.

"古人이 큰 功勳과 德이 있으면 그 이름을 鍾과 鼎에 새기어 간직하고, 宗廟에 配享하지 않으면 豊碑(신도비의 별칭)를 만들어 하관할 따름이다. 秦漢以來에 처음으로 文士에게 命하여 功德을 褒賞하고 贊揚하게 하여 그 내용을 石에 새겼는데 또한 이를 碑라 일렀다…그러나 前人의 말에 아름다움이 없는데, 칭송하는 것은 무함하는 것이요, 아름다움이 있으나 칭송하지 않는 것은 엄폐하는 것이니 무함과 엄폐를 군자는 행하지 않는다" [5]

라고 하여 고인의 행적중에 공훈이 있다면 이를 鐘鼎이나 碑에 새겨 贊揚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대신 없는 사실은 만들지 말고, 있는 사실을 엄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서술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歐陽修(1007~1072)와 朱子(1130~1200)의 故事를 묘비문 작성에 인용한 사례가「宋胤昌墓表陰記」,「李福源墓表陰記」에서 나타나고 있어[6] 조선시대 지식층들의 立碑 행위가 이들 도학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는 이같이 조상의 功과 德을 밝히는 것을, 후손이 당연히 해야할 孝이며 禮라는 생각에서 立碑를 시작하였는데, 후대로 갈수록 점차 그 본뜻은 퇴색하고 自家의 威勢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도에 지나치게 입비를 하게 되었다. 입비의 주체가 입비를 많이 할수록 他人들로부터 조상에 대한 효가 지극하다고 인정 받을 수 있었고, 아울러 自家의 위세를 他家에 떨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門中에서는 官職을 지내거나 顯達한 先祖들의 묘역에 묘비를 다투어 건립하게 되어, 조선 팔도의 모든 지역에 묘비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그 종류도 세분화 되었다.

孔子로부터 시작된 儒學은 여러 道學者들을 거쳐 朱子에 의해 性理學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조선은 이 성리학을 國是로 삼았던 나라이다. 따라서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공자를 비롯해서 주자까지의 도학자들이 傳한 학문과 행동이 모든 것의 규범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묘비의 입석도 조선의 지배층들에게는 禮로 인식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주자성리학이 일부 선진적인 지식계층에 의해서만 이해되던 수준이어서 묘비의 입석도 이들에 의해서만 주도적으로 이루어 졌을 뿐, 아직까지는 저변확대가 안된 상황이라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成宗代(1469~1494)에 비로소 士林이 중앙정계에 등장하면서 주자성리학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明宗(1545~1567)과 宣祖代(1567~1608)에 활동하던 李滉(1501~1570)과 李珥(1536~1584)가 주자성리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자기화시켜 朝

5) 李爀 著,「四禮纂說」, 卷5, 喪禮, 石碑.
"司馬溫公曰 古人有大勳德勒名鍾鼎藏之 宗廟不祭則有豊碑而下棺耳 秦漢以來始命文士 褒贊功德刻之於石 亦謂之碑…然前人有言 無其美而稱者謂之諛 有其美而不稱者謂之蔽 諛與蔽君子不由也"

6) ① 宋浚吉 撰,「宋胤昌墓表陰記」, 1668(현종9).
② 李時秀 撰,「李福源墓表陰記」, 1800(정조24). 참조.

鮮性理學을 完成하기에 이르자[7] 지식층 전반에 걸쳐 묘비의 입석은 朱子가 제시한 家禮에 의한 禮의 한 실행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토착화 과정을 거쳐 朱子學은 이제 사회의 모든 면에 깊숙이 파고들어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理氣心性論과 禮訟에 대한 논쟁을 거치면서 深奧한 학문적 단계에 이르러서는 조선사회의 지도적 理念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 禮學이 크게 발전하였던 顯宗代(1659~1674)에는 士大夫뿐만 아니라 中·庶人層까지도 묘비를 건립하는 것이 一般化되어 그 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8] 중·서인층의 묘비 입석이 法度에 지나쳐 간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9] 이후에도 묘비의 입석은 조선말기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국 각지에 무수한 묘비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Ⅲ. 조선시대 능묘비의 종류별 명칭과 개념

조선시대에는 전시기에 걸쳐 다양한 비석들이 입석되었는데, 그 종류를 立石의 위치와 빗돌에 새겨진 비문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陵碑로 왕실의 각종 陵에 세워지던 비석이며 그 종류에는 陵表와 陵神道碑가 있고, 둘째는 墓에 세우던 墓碑로 그 종류에는 墓表, 墓碣, 墓神道碑가 있다. 그리고 세째는 寺刹에 세워지던 寺碑로 그 종류에는 高僧들의 塔碑와 사찰의 沿革을 기록한 事蹟碑가 있다. 또 네째의 一般事蹟碑에는 舊基碑, 遺墟碑와 각 書院의 廟庭碑 등이 있으며, 다섯째의 其他碑로는 고을 수령들의 善治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頌德碑와 주요 건축물의 정문 앞에 세우던 下馬碑 등이 있다.

위에 열거한 여러 종류 가운데 능비 중의 능표와 묘비 중의 묘표·묘갈은 호칭할 때 명칭을 '表'나 '碣'로 부르기 보다는 모두 '碑'로 통칭하기도 하였다. 신도비를 略稱하여 '碑'로 부르기도 하지만, '表'나 '碣'을 '碑'라고 한 것은 廣義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즉 능표와 능신도비, 묘표와 묘갈 그리고 묘신도비는 세분화되어 붙여진 각각의 명칭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두 '비'의 한 종류이기도 하여 '비'라고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간단히 '비'로 약칭하여 호칭함으로써 간혹, 동일한 비석을 놓고도 混用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의 예문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최완수, 1998,「조선 왕조의 문화절정기, 진경시대」,『진경시대』1, 돌베개, 13~23쪽.
8) 주자성리학의 이해 정도와 묘비 수량의 증가가 비례한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묘비를 지표조사해서 이를 시대별로 통계를 내어 보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졸고, 1997, 앞의 논문, 24~26쪽 참조.
9)『顯宗實錄』4年 5月 4日 辛未.

"七陵의 表石이 이루어졌다. 임금이 熙政堂에 나아가 印進한 簇子를 奉覽하고 營建한 당상관과 낭청에게 상을 차등있게 베풀었다"[10]

"(임금이)七陵의 碑를 세우는 役事 및 능에 거둥하는 모든 일들이 민간에 폐단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친히 하문하였다"[11]

위에서 보듯이, 칠릉에 세우려던 陵表를 表石, 碑의 두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表石이 적절한 표현이고, 좀 더 정확히는 陵表가 합당한 용어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表石은 陵에 관한 것이지 일반 墓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비란 용어도 틀린 것은 아니다. 표석도 넓은 의미로는 비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표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다. 비에도 陵碑, 墓碑, 寺碑, 事蹟碑 등의 여러 종류가 있어 단순히 碑라 하면 정확히 어느 碑를 지칭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혼용은 문헌 자료나 실재 건립된 비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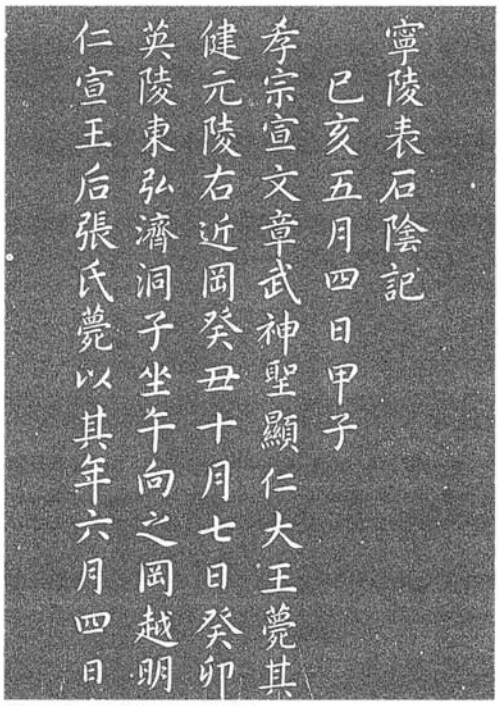
碑와 碣의 구분은, 고대부터 중국에서 長方形의 刻石을 '碑'라 하고 圓首形이나 方圓의 사이에 위는 작고 아래는 커다란 刻石을 '碣'이라 하였는데, 秦始皇이 돌에 그 공적을 새기면서 비로소 碑碣의 원형이 갖추어졌다고 전한다. 이후 東漢이래로 비갈이 점차 많아져서 碑誄·碑記가 있었고 또 墓碑가 있어 사실을 기록하고 德을 稱頌하는데 使用되었으며 비의 形制와 일정한 격식이 만들어졌으나, 후세에는 비갈의 명칭이 왕왕 혼동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12] 이와같이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外樣에 의한 명칭과 개념이 정리되고 그 쓰임새가 구분되었지만 後代에 이르러서는 구분히 모호해져 混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비와 갈의 명칭이 混用되어 사용되다가 차츰 정리되어 碑碣의 外樣에 의한 원시적인 구분법에 의거하지 않고, 外樣보다는 입석의 위치와 빗돌에 새겨진 글의 종류에 따라 碑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예컨대, 同一한 양식과 규모의 비석이라 하더라도 묘소에 立石하고 그 빗돌에 새겨진 글의 제목이 墓表陰記이면 '墓表'라 불렀고 墓碣銘并序이면 '墓碣'로 神道碑銘并序면 '神道碑'라 호칭하였던 것이다. 사찰의 塔碑나 事蹟碑 등도 이같은 방법에 따라 구분하였다.

10)『英祖實錄』31年 3月 27日 庚子.
"七陵表石成 上於熙政堂 奉覽印進簇子 營建堂郎 施賞有差"
11)『英祖實錄』31年 2月 8日 壬子.
"親問 七陵碑役及 陵幸凡事 能無貽弊於民間否"
12)1989,『中國工藝美術大辭典』, 碑碣條.

1. 陵墓表

1) 名稱과 槪念


寧陵表石陰記
己亥五月四日甲子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薨其
健元陵右近岡癸丑十月七日癸卯
英陵東弘濟洞子坐午向之岡越明
仁宣王后張氏薨以其年六月四日

〈삽도 1〉 녕릉표(1674, 현종15)

陵表石은 능에 세우던 표석으로 정확한 명칭은 '陵表'이다. 능신도비가 군왕의 일대기를 장려하게 서술하는 반면, 능표에는 군왕과 관련된 주요 사항만을 간략히 기록하는 차이점이 있다. 대개 능표의 앞면에는 大篆(큰 전서)으로 陵號를 크게 새기고[13] 뒷면에는 음기를 刻字하는 것이 능표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여주의 寧陵表(1674, 삽도1)를 꼽을 수 있다.[14]

이에 비해 墓表는 묘역의 봉분 앞에 세우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비석으로, 墓表石 또는 表石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묘표가 정확한 용어이다. 비신의 앞면에는 피장자의 성명과 관직을 그리고 뒷면에는 음기나 건립연대를 새겨 넣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다. 비석중에서 묘표로 분류되는 비석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① 묘표의 뒷면에 피장자의 생애를 略述한 글을 刻字하는데, 이를 '陰記'라 한다. 대개 음기의 서두에는 누구의 묘표음기인지를 밝히는 제목, 즉 '表題'가 나오기 마련이며 이를 통해서 묘표의 정확한 명칭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成渾墓表(1589)의 경우, 음기의 내용 첫머리에 '謚文簡公行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牛溪成先生墓表陰記'라는 表題가 새겨져 있어, 비석의 종류가 성혼의 묘표이고 거기에 새겨진 글이 묘표음기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형식이 조선중기이후 정착된 묘표의 전형적인 표기법이다. 동일한 예로 安坦大墓表(1656), 尹煌墓表(1711), 尹文擧墓表(1781, 삽도2) 등을

13) 陵號를 大篆으로 크게 새기는 것은 송시열이 1673(현종14) 8월 18일 왕을 인견하여 "國陵의 표석은 士庶와는 달라야 하니, 銘旌의 규정에 의거하여 篆文으로 쓰는 것이 매우 타당하겠습니다"라고 올린 進言에 의한 것이다.

14) 녕릉표 앞면에는 '朝鮮國 孝宗大王寧陵'이라 大篆으로 쓰고 뒷면에는 음기의 서두에 '寧陵表石陰記'라고 음기제목(表題)을 밝힌 뒤, 그 내용을 단정한 楷書로 써 놓았다.

〈삽도 2〉 윤문거 묘표(1781, 정조5)

들 수가 있다.[15]

② 表題를 '묘표'라고만 쓰고 '음기'라는 단어를 생략한 경우로 許稠墓表(1439년경)를 비롯하여 邊安烈墓表(1571), 宋黃生墓表(1665), 宋裕祚墓表(1716) 등이 있다.[16]

③ 表題를 '묘표'라 하고, 篆額도 올린 경우이다. 전액은 碑身의 상단에 비석의 명칭을 간략하게 큰 篆字로 써서 올린 것을 말한다. 이같은 예로 宋愉墓表(1656년이전), 宋奎淵墓表(1687) 등이 있다.[17]

④ 表題를 생략하고 篆額만을 올려 묘표임을 밝힌 경우로, 宋胤昌墓表(1668)와 宋之明墓表(1898) 그리고 宋龍壽墓表(1902) 등이 있다.[18]

⑤ 묘표의 앞면 우측 부분에 大楷(해서체 큰글씨)로 縱書하여 비석의 종류가 묘표임을 밝히고 그 좌측에다 음기를 기록한 경우로, 경기도 利川에 있는 金吉通墓表(1822)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19]

⑥ 묘표음기의 表題가 없지만, 음기의 撰者가 생전에 저술했던 글을 모아 만든 文集의 목차에서 묘표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묘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李元秀墓表(1670), 宋國澤墓表(1683), 宋光栻墓表(1711)의 음기가 宋時烈의 문집인 『宋子大全』에 묘표로 등재되어 있고[20], 李珥墓表

15) ① 安坦大墓表陰記의 表題는 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安公墓表陰記이다.
② 尹煌墓表陰記의 表題는 有明朝鮮國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尹公墓表陰記이다.
③ 尹文擧墓表陰記의 表題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吏曹參判兼… 石湖尹先生墓表陰記이다.

16) ① 許稠墓表의 表題는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贈謚文敬公府君墓表이다.
② 邊安烈墓表의 表題는 高麗國推忠亮節宣威翊贊補祚功臣…原川府院君邊公墓表이다.
③ 宋黃生墓表의 表題는 有明朝鮮通政大夫宋公墓表이다.
④ 宋裕祚墓表의 表題는 安城郡守李公墓表이다.

17) ① 宋愉墓表의 表題와 篆額은 다음과 같다.
表題 : 有明朝鮮處士雙淸堂宋公墓表
篆額 : 處士雙淸堂宋公墓表
② 宋奎淵墓表의 表題와 篆額은 다음과 같다.
表題 : 有明朝鮮通政大夫延安都護府使宋公墓表
篆額 : 延安府使宋公墓表

18) ① 宋胤昌墓表의 篆額은 禦侮將軍宋公墓表이다.
② 宋之明墓表의 篆額은 左承旨宋公墓表이다.
③ 宋龍壽墓表의 篆額은 知中樞宋公墓表이다.

19) 金吉通墓表의 비신 앞면에 大楷로 縱書해 놓은 表題는 戶曹判書月川君文平金公墓表이다.

20) 『宋子大全』의 권193에는 監察贈左贊成李公元秀墓表가 권201에는 全州府尹宋公國澤墓表와 工曹正郎宋君光栻 墓表의 음기가 묘표 항목에 실려 있다.

(1716)의 음기가 李廷龜(1564~1635)의 『月沙集』에 묘표로 실려있어[21] 이런 유형이 墓表임을 판단할 수 있다.

⑦ 묘표의 앞면에는 피장자의 신분만 쓰고, 뒷면에 建立年代만 써 놓았을뿐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金克孝(1542~1618) 묘표는 그 앞면에 관직과 성명을 쓰고, 뒷면에는 '皇明崇禎三年八月 日立' 이라는 건립연대만을 새겨 놓았는데, 1833(순조33)년에 발간한 『安東金氏世譜』의 金克孝 조항에 '有表' 라는 기록이 있어 이런 형태의 비석 종류가 묘표임을 파악할 수 있다.[22] 이밖에도 副司果 鄭佶(1583~1637) 묘표[23] 등이 이같은 유형에 속한다.

⑧ 묘표의 앞면에 피장자의 신분만 쓰여져 있을 뿐, 뒷면에 건립연대나 葬日을 비롯한 어떠한 글자도 刻字하지 않은 경우이다. 경기도 여주에는 숙종의 國舅 驪陽府院君 閔維重(1630~1687)의 묘소가 있는데, 봉분의 좌측에 세워진 비석의 앞면에는 어필로 피장자의 신분만 기록해 놓았을 뿐, 그 뒷면에 아무런 내용도 없어 비석의 종류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1744(영조20)년에 펴낸 『驪興閔氏家乘』의 민유중 조항에 의하면 '御筆書墓表大字' 란 기사가 있어 이런 유형의 비석이 묘표임을 판단할 수 있다.[24] 이와 동일한 예로 세종의 국구 靑川府院君 沈溫(?~1418)묘표[25]와 忠獻公 金昌集(1648~1722)묘표[26] 등을 꼽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충남 公州에 소재하는 尹拯(1629~1711) 묘표의 앞면은 大字로 '有明朝鮮徵士 坡平尹公諱拯之墓' 라 써 놓고 양측면과 후면에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았는데, 앞면의 大字 바로 아래에 小字로 "魯西先生(尹拯)의 墓表는 곧 石湖先生(尹文擧, 1606~1672)이 쓰신 것인데 石面의 13자는 다르지 않아 삼가 摸해 새겼으며, 다만 諱자는 그 작은 글씨를 늘여서 키워서 보충하였다"라는 짧막한 기록을 새겨 놓아[27] 이런 형태의 비석이 묘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立石 制限

陵表는 능에만 세우던 표석으로 조선시대에 처음 표석이 조성된 陵은 함경남도 文川郡에 소재하고 있는 淑陵이다. 淑陵에는 翼祖妃인 貞淑王后가 모셔져 있는데, 익조는 穆祖의 아들이자 朝鮮 太

21) 李廷龜 著,『月沙集』卷49, 墓表, 右贊成贈領議政諡文成公栗谷李先生墓表.
22) 『安東金氏世譜』(癸巳(1833)21世孫金履陽謹跋)의 金克孝 조항에 有表란 내용이 있다.
23) 정길 묘소에 세워진 비석의 전면에는 顯信校尉龍驤衛副司果鄭公佶之墓 宜人谷山延氏祔左라 되어 있고 뒷면에는 崇禎紀元之後三十七年甲辰三月 日立이라고만 쓰여져 있다. 비석의 종류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延日鄭氏世譜』(癸丑孟春文忠公19代孫前議政府贊政周永謹序)의 鄭佶 조항의 墓七代祖參議公墓下二十六步乙坐合窆 有表石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비석의 종류가 묘표임을 알 수 있다.
24) 『驪興閔氏家乘』(甲子五月弟遇洙涕泣謹跋), 藏書閣 所藏.
25) 『靑松沈氏世譜』(上之九年癸卯(1843)十二月下澣後孫崇政大夫判敦寧府事能岳謹序)의 沈溫 조항에는 表石安平大君八分書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26) 『安東金氏世譜』(癸巳(1833)21世孫金履陽謹跋)의 金昌集 조항에는 表前面男濟謙書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27) 尹拯墓表, 推定 18C.
"魯西先生墓表 乃石湖先生筆 而石面十三字 無異同 謹摸入刻 惟諱子演其小字而大之 以補焉"

祖의 曾祖夫가 되는 인물이다. 숙릉표는 1393(태조2)년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28] 조선시대 능표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다. 淑陵이후에는 소수의 능표만을 건립하였는데, 그간의 사정을 1673(현종14)년 寧陵表의 입석을 반대하던 金佑明의 아래와 같은 상소에서 살펴볼 수 있다.

"國陵에 表石을 세우는 것은 3백년 동안 행하지 않던 일입니다[29] 송시열의 소 가운데에 또한 '新陵의 石物은 일체 英陵을 보고 법으로 삼아야 한다' 고 해 놓고, 또 표석 세우기를 청하였는데 영릉에 없는 표석을 지금 어떻게 새로 만들어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의 陵寢에 비록 표석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인들 그것이 왕릉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왕릉인 줄을 알 수 없게 된 후세에는 비록 표석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열이 강론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그 마땅한가의 여부를 의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왕의 德業이 후세에 빛나는 것은 진실로 표석의 유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大明 太祖 洪武 4年에 역대의 제왕 35위를 추후로 제사할 때에 위로는 伏羲까지 미쳤습니다. 복희로부터 洪武까지 연대가 얼마인데 오히려 그 묘를 알고 있으니 제왕의 사업이 과연 碑表가 있어야만 전해진단 말입니까. 신은 이미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지만 세 조정에서 받은 은혜를 한결같이 마음에 잊지 못하고 있기에 품은 생각을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0]

그러나 김우명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녕릉표는 송시열의 주장대로 1674(현종15)년에 조성되었으며 여타 능의 표석도 英祖代에 차츰 건립되기 시작하여 高宗代에 이르면 거의 모든 능에 표석이 세워지게 되었다. 능표의 입석은 왕실과 관련된 사안이라 기본적으로 입석제한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위에 나온 예문처럼 능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그 입석의 가부를 군신간에 서로 논의하여 시행했을 뿐이다.

墓表의 입석은 국법을 정해서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양반사대부의 경우 당시 禮學者들의 필독서라 할 수 있는『家禮源流』의 내용중에 중국 北宋代의 도학자 司馬光이 제시한 品階別 비석 건립의 허용 규모가 아래와 같이 실려 있어서, 묘표를 포함한 모든 비석의 건립시 이 규정에 準해서 立石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朝鮮總督府 編, 1976,『朝鮮金石總覽』下, 亞細亞文化社. 719쪽.
"貞妃淑陵 (裏面) 洪武二十六年十月 日 立石"

29) 300년간 능표를 건립하지 않았다는 김우명의 주장은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 하다. 왜냐하면 1673(현종14) 9월 17일에 송시열이 상소한 내용 중에 "어제 듣건대 부원군 김우명이, 신이 건의한 능앞에 表石을 세우는 일을 잘못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무릇 표석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한가는 신 또한 감히 알 수 없지만, 列聖의 세 능과 北路의 여러 능에 모두 표석이 있으니 오늘날 처음으로 창시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30) 『顯宗實錄』14年 9月 9日 乙亥.

"司馬溫公曰 按今式墳碑石獸 大小多寡 雖各有品數

廣記, 封王 : 螭 首高三尺二寸 碑身高九尺 闊三尺六寸 龜趺高三尺八寸

一品 : 螭 首高三尺 碑身高八尺五寸 闊三尺四寸 龜趺三尺六寸

二品 : 盖用麟鳳高二尺八寸 碑身高八尺 闊三尺二寸 龜趺高三尺四寸

三品 : 盖用天祿辟邪 高二尺六寸 碑身高七尺五寸 闊三尺 龜趺高三尺二寸

四品 : 圓首高二尺四寸 身高七尺 闊二尺八寸 方趺高三尺

五品 : 圓首高二尺二寸 身高六尺五寸 闊二尺六寸 方趺高三尺八寸

六品 : 圓首高二尺 身高六尺 闊二尺四寸 方趺高二尺六寸

七品 : 圓首高一尺二寸 身高五尺五寸 闊二尺二寸 方趺高二尺八寸

唐葬令 五品以上螭首龜趺 降五品爲碣方趺圓首其高四尺

石碑 一品螭首 二品麒麟 三品天祿辟 皆用龜趺 四品至七品 皆圓首方趺"[31]

반면, 中·庶人의 경우 조선초기와 중기에는 거의 묘표를 입석하지 못하다가, 兩亂을 거치고 무너진 신분질서 사회속에서 크게 성장하여 顯宗代에 이르러서는 職牒을 사들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의 上昇을 꾀하고 死後에 묘소를 쓰면서 큰 비석을 해 세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大司憲 金壽恒(1629~1689) 등이 다음과 같이 왕에게 上疏하여 이들에게 죄주지 않을 수 없다며 한성부로 하여금 일일이 엄하게 조사해서 모두 그 죄를 다스리게 하고, 묘표를 전부 철거토록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치 풍조가 이루어진 탓으로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 하지 않고 날로 참람스러운 짓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근래 醫譯, 吏胥, 公私賤 들의 墳塚에 모두 5·6尺이나 되는 큰 비석을 세우고 있으며, 전면과 후면에 宰臣의 묘표와 똑같이 職銜을 陰記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戶曹, 刑曹, 工曹, 漢城府, 義禁府, 都摠府까지도 모두 兼職한 것으로 써 넣고 있으니, 간특하고 참람하게 행동한 죄를 懲戒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성부로 하여금 일일이 엄하게 조사하도록 하여 모두 그 죄를 다스리게 하고, 墓表를 모조리 철거토록 하소서. 그리고 이조를 신칙하여, 사대부가 아닌 경우에는 追贈을 절대 허락해주지 못하게 하고, 六曹, 京兆 및 金吾, 摠府의 兼職을 이미 追贈한 것들은 모두 還收하여 참람한 폐단을 막도록 하소서"[32]

31) 俞棨 著,「家禮源流」卷11,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32) 『顯宗實錄』4年 5月 4日 辛未.

이에 현종이 김수항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라 이르면서 이미 직첩을 준 경우 지금 꼭 환수할 것 까지는 없다는 하교를 내리고 있다. 조치후 6개월이 지난 同王 同年 11月에 한성부에서 그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여 현종에게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表石의 경우, 서인은 2尺을 넘지 못하게 하도록 先朝(효종) 때 분명히 承傳을 받들었으니, 자손이 없어 이름을 물어볼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모두 일체 철거토록 該部에 분부하는 한편, (한양성) 10리 밖 圻內와 접경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할 일로 경기감사에게 移文하였습니다. 그러나 律을 상고하여 죄를 다스리는 일은 臣府의 소관이 아니니, 該府로 하여금 품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33]

위 기록에 의하면 표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와 孝宗때 庶人의 표석이 2尺(60Cm)을 넘지 못하도록 왕명을 내렸으니 이를 어긴 자는 처벌하고,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표석을 철거토록 조치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효종때 庶人의 표석 크기에 대한 규정을 왕명으로 하달할 정도로 이미 庶人의 묘표 입석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庶人들의 墓表 건립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늘어만 가는 것이 조선말기까지의 일반적인 추세였다.

2. 墓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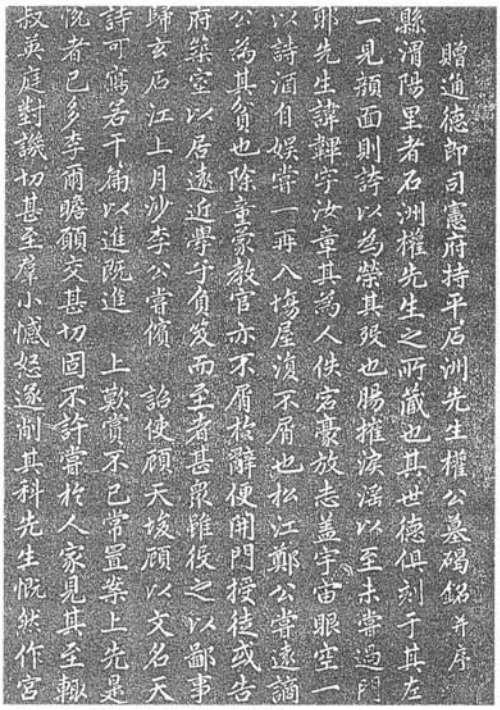
1) 名稱과 槪念

조선시대 이전의 碣로는 고려 顯宗 17年(1026)에 세워진 奉先弘慶寺碣이 유일한데 귀부와 이수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龍頭化된 龜頭의 방향이 특이하게 우측으로 돌아가 있다.[34] 이 시대에 세워진 다른 비석들과 양식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무슨 연유로 碣이라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세워진 수 많은 墓碣의 선구적인 예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橘山 李裕元(1814~1888)의 저서 『林下筆記』에는 묘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묘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唐나라의 묘갈 제도를 보면 趺石(비석 받침돌)은 네모나고 首石(비석 머릿돌)은 둥글었는데, 5품

33) 『顯宗實錄』4年 11月 1日 乙丑.
34) 李浩官. 1981, 『石燈 · 浮屠 · 碑』, 韓國의 美⑮, 중앙일보사. 참조.


〈삽도 3〉 권필 묘갈(1719, 숙종45)

이하의 관원만 사용하였다. 옛날에는 碑와 碣을 본래 서로 통용하였다. 그런데 후세에 관직의 등급 문제로 인하여 그 명칭을 구분하였지만,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문체도 碑와 비슷하다. 그러나 銘이 있고 없고는 짓는 사람이 하기 나름이다. 오로지 갈이라고만 하고서 도리어 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명까지 겸해 말하고서 도리어 명이 없는 경우도 있다"[35]

이로보면 묘갈은 외형상 首石이 둥글고, 원래 5품 이하의 관원만 사용하였으나 후대에 이르러 碑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위에 인용된 자료는 중국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조선시대의 실정도 거의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선시대 碣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陵에는 碣을 전혀 세우지 않았고, 오직 묘에만 碣을 세웠다는 점이다. 묘갈은 중간계급의 관직을 지낸 관리들이 세우는 비석이었던 만큼, 묘표보다는 규모가 크고 신도비보다는 작은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래서 왕실의 능에는 碣을 전혀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묘갈은 대부분 묘역내에 건립하였으나 간혹 묘소로 오르는 소로변에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묘갈에는 피장자의 생애를 서술한 '墓碣銘并序'를 刻字하는데, 글의 체제는 크게 序와 銘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序는 피장자의 傳記를 말함이며 銘은 피장자의 생애를 찬미한 韻文 즉 讚詩를 가리키는 것이다.[36] 이 '묘갈명병서'가 새겨진 비석을 약칭하여 '墓碣'이라고 호칭한다. 묘갈로 분류되는 비석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작품들이다.

① 비석에 새겨진 글의 서두를 살펴보면 그 글의 제목이 나온다. 이를 묘갈에서는 '碣題'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비석의 정확한 종류와 명칭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竺山君 李孝植 墓碣(1498)의

35) 『林下筆記』卷2, 瓊田花市編, 墓碣文.
36) 劉勰 著, 『文心雕龍』, 文體論, 第12章 誄碑.
37) ① 趙翊墓碣의 碣題는 有明朝鮮國通訓大夫軍資監正趙君墓碣銘并序이다.
② 權韓墓碣의 碣題는 有明朝鮮國 贈通德郎司憲府持平石洲先生權公墓碣銘并序이다.
③ 方泰輿墓碣의 碣題는 有明朝鮮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方公墓碣銘并序이다.
④ 趙仁賓墓碣의 碣題는 朝鮮國 贈通訓大夫司僕寺正…趙公墓碣銘并序이다..

경우, 글의 첫머리에 '有明朝鮮國正義大夫竺山君墓碣銘并序' 라는 갈제가 새겨져 있어 비석의 종류가 묘갈이고 거기에 쓰여진 글이 '묘갈명병서' 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형식이 조선중기이후 정착된 묘갈의 전형적인 표기법이다. 동일한 예로, 趙翊墓碣(1549)을 비롯하여 權韓墓碣(1719, 삽도 3), 方泰輿墓碣(1794), 趙仁賓墓碣(1808) 등이 있다.[37]

② 갈제를 '묘갈명' 이라 표기하고 '并序' 를 생략한 경우로는 鄭光輔墓碣(1525)과 鄭裕墓碣(1585) 그리고 柳自湄墓碣(1729) 등이 있다.[38]

③ 갈제를 '墓碣' 이라 쓰고 '銘并序' 를 생략한 경우의 작품으로는 李允濯墓碣(1536)과 崔栗(1715), 鄭亨復墓碣(1789) 등을 꼽을 수 있다.[39]

④ 갈제를 '墓碣記' 라고 사용한 경우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宋克己(?~1392)의 妻, 烈婦安人高興柳氏(1371~1452)의 墓碣(1657)이 있다.[40]

⑤ 갈제를 '墓碣陰記' 라고 적은 경우로는 贈貞敬夫人許氏墓碣(1635)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41]

2) 立石 制限

묘갈은 관직에 전혀 出仕하지 않았던 進士 崔澱의 墓碣(1611)[42]이 세워진 것으로 보아, 최소한 小科 이상에 합격한 양반사대부의 신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조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宗親이나 儀賓, 外命婦, 內命婦도 마찬가지였다. 1743(영조19)년에 영조가 貞陵에 나아가 酌獻禮를 행한 다음 參奉에게 惠愼翁主의 묘갈 길이가 얼마나 되냐고 질문하는 기사가 실록에 전하며[43] 또 同王 31年(1755)에 明宗의 後宮이었던 慶嬪李氏 墓碣을 영조가 친히 써서 畿伯에게 주면서 세우게 하고 있다.[44]

그리고, 顯宗代에는 中·庶人이 묘갈에 허위로 관직을 기재한 자가 많아 漢城府가 이를 색출해서

38) ① 鄭光輔墓碣의 碣題는 有明朝鮮國通政大夫行昌原都護府使…鄭公墓碣銘이다.
② 鄭裕墓碣의 碣題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鄭公墓碣銘이다.
③ 柳自湄墓碣의 碣題는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柳公墓碣銘이다.
39) ① 李允濯墓碣의 碣題는 有明朝鮮國啓功郎權知承文院副正字李公府君 安人高靈申氏夫人墓碣이다.
② 崔岦墓碣의 碣題는 有明朝鮮嘉善大夫刑曹參判崔公墓碣이다.
③ 鄭亨復墓碣의 碣題는 有明朝鮮國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鄭公墓碣이다.
40) 烈婦安人高興柳氏墓碣의 碣題는 烈婦安人高興柳氏墓碣記이며 篆額은 烈婦安人柳氏墓碣記이다.
41) 贈貞敬夫人許氏墓碣의 碣題는 有明朝鮮國 贈貞敬夫人許氏墓碣陰記이다.
42) 양주군·양주문화원, 1998, 『비문으로 본 양주의 역사』Ⅱ, 399~405쪽.
최전 묘갈의 갈제는 有明朝鮮國成均進士崔公墓碣銘并序이다.
43) 『英祖實錄』19年 8月 20日 庚午.
44) 『英祖實錄』31年 6月 14日 丙辰.
"贈淑儀李氏爲慶嬪 淑儀卽明廟後宮 而仁嬪表姊也 仁嬪少依焉 仍選入宣廟後宮至是 上以仁嬪旣上謚封園 淑儀當溯本而贈之 遂有是命 因親書墓碣 今畿伯竪之"

죄주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시기를 전후하여서 이미 중·서인들도 묘갈을 다량으로 입석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현종대에 中·庶人들의 묘갈 문제가 朝廷에서 논의될 정도로 중·서인들의 묘갈 입석도 일반화되었으니, 조선말기에 이르면 이들에 대한 남다른 규제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陵墓神道碑

1) 起源과 由來

墓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일정한 品階에 이르러야만 건립할 수 있었던 신도비는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중국에서는 처음 漢나라 楊震의 '故大尉楊公之神道碑'에서 시작 되었다는 설과[45] 晉과 宋의 시기에 처음으로 신도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으나[46] 이를 확증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신도비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安珦(1243-1306)에 의해 성리학이 전래되던 忠烈王代(1274-1308)로 추정되며, 문헌상으로 신도비에 관한 記事가 최초로 나오는 것은『高麗史』이다. 그 列傳 金方慶(1212~1300) 조를 살펴보면 忠宣王이 왕명으로 신도비를 입석하라는 내용이 있고[47]『東文選』에 그 신도비문이 실려 있어 실재로 입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존하지 않아 정확한 실정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또 李時發(1569~1626)이 撰한「金方慶墓誌」에 '신도비는 고려의 왕명으로 세웠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징험할 수 없다'[48]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立石 되었더라도 이시발의 생존전에 이미 훼손된 듯 하다.

위 기록이 확실하다면 김방경 신도비는 그가 돌아간 해인 1300(충렬왕26)년이나 그 다음해인 1301(충렬왕27)년에 건립 되었을 것이고 王命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장식도 화려했으리라 짐작된다. 아무튼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신도비임에 틀림이 없고, 신도비의 입석이 최소한 충선왕대부터는 시행되었음을 알게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외에도『東文選』에는 高麗末에 지어진 2개의 신도비문이 더 실려 있는데, 朝鮮太祖의 父로 判將作監事를 지낸 李子春(1315~1361)[49]과 曲城府院君 廉悌臣(1304~1382)의 신도비문이 그것이다.

45) 伏見沖敬, 1975,『楷書 顔勤禮碑』, 東一文化社.
46)『林下筆記』卷2, 瓊田花市編, 墓碑文.
47)『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 條.
"忠宣 贈宣忠協謀定難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 諡忠烈 命立神道碑"
48) 李時發 撰,「高麗宣忠協謀靖難定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上洛忠烈公金方慶墓誌」.
"墓在禮安縣治西陵洞 神道有麗王命立碑 世久無徵"
49) 李子春은 그의 아들인 李成桂(朝鮮太祖)가 王位에 오르자 桓祖로 追贈되고, 墓도 格上되어 定陵이 되었다. 그리고 李子春神道碑는 定陵神道碑로 改名되었다.

定陵神道碑는 1393(태조2)년에 건립되었다가 壬辰倭亂때 파괴되어 1612(광해군4)년에 다시 改立되었다. 그 비문이 印出되어 私家에서 간직해 오던 것을 1417(태종17)년에 王命으로 거두어 들였다는 기사가 實錄에 보이며,[50] 1612(광해군4)년 예조에서 定陵의 신도비를 改立하면서 그 碑文을 고쳐 쓰는 일에 대해서 아뢰는 내용이 남아 있다.[51] 廉悌臣神道碑에 관해서는『坡州廉氏世譜』의 廉悌臣 조항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文靖公 李穡(1328~1396)이 命을 받들어 神道碑銘을 撰하고 文敬公 韓修(1333~1384)가 명을 받들어 碑文을 쓰고 아울러 篆額을 올렸는데 光武 3年에 다시 신도비를 重建하면서 文忠公 宋秉璿(1836~1905)이 追記하고 判書 宋道淳(1858~?)이 篆額을 올렸다"[52]

이 기사에는 신도비의 정확한 建立年代가 보이지 않지만, 염제신이 돌아간 1382(우왕8)년과 韓脩가 돌아간 1384(우왕10)년의 사이에 神道碑를 처음 立石했다가 1899(광무3)년에 다시 重建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肅宗代에 朗善君 李俁1637~1693)가 編纂한『大東金石書』에 廉悌臣神道碑가 실려 있지 않아 實存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리고 定陵神道碑와 廉悌臣神道碑의 입석 위치가 현재 모두 北韓에 속해 있어 양식이나 규모를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동문선』에는 이밖에도 조선초기의 신도비문이 10개 더 실려 있다. 신도비가 고려 초기나 중기부터 유행했다면 이때에 지어진 신도비문도『동문선』에 실렸을 터인데, 고려후기의 비문 2개만 실린 것으로 보아 신도비의 입석을 忠宣王代(1308~1313)부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安珦(1243~1306)이 性理學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던 때라 신도비의 입석이 성리학과 깊은 연관 관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신도비 입석은 조선시대의 전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 건립되었다.

2) 名稱과 槪念

陵神道碑는 능에 세우던 신도비를 말한다. 조선시대의 능신도비는 定陵, 健元陵, 齊陵, 獻陵, 英陵에만 건립되었고 文宗이후에는 입석이 폐지되었다. 이는 帝王의 사적이 모두 國史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私家처럼 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53] 그래서 文宗이후에는 陵에 신도비를 세

50)『太宗實錄』17年 11月 20日 辛未.
51)『光海君日記』4年 9月 2日 癸巳.
52)『坡州廉氏世譜』廉悌臣條,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墓長湍南面大谷原亥坐 文靖公李穡奉敎撰神道碑銘 文敬公韓修奉敎書并篆額 崇禎后五己亥 重建神道碑 文忠公宋秉璿撰追記 判書宋道淳篆額"
53)『林下筆記』卷14, 文獻指掌編, 陵寢神道碑.

〈삽도 4〉 전계대원군 신도비 (1851, 철종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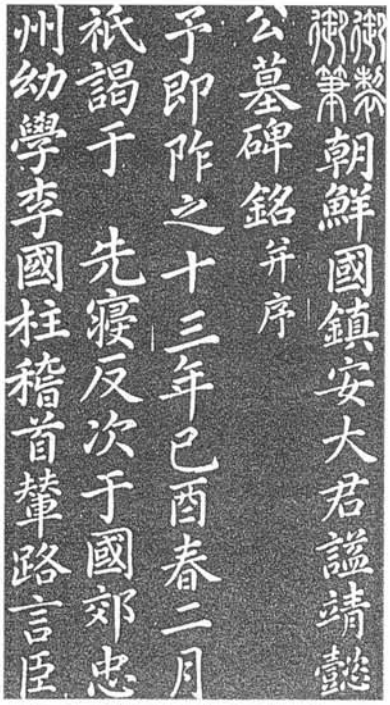
우지 않았으며 廣州에 소재하던 英陵이 驪州로 遷葬할 때에도, 睿宗朝에 이미 신도비를 폐지하기로 한 뒤라서, 신도비를 땅에 묻어 버리고 移建하지 않았다.[54]

墓神道碑는 西原伯 李挺(1297~1361)의 神道碑(1403)[55]를 필두로 조선말까지 꾸준히 조성되었다. 신도비는 대부분 묘소로 오르는 길가변에 세워졌으나 간혹, 묘역내에 건립하기도 하였다.[56] 또한 신도비는 묘갈과 마찬가지로 피장자의 생애를 빗돌에 기록하는데, 글의 체제는 묘갈과 거의 동일하였다. 신도비문의 가장 올바른 명칭은 '神道碑銘并序'이며, 이 '신도비명병서'가 새겨진 비석을 약칭하여 '신도비'라고 호칭한다. 신도비로 분류되는 비석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① 비석에 새겨진 비문의 서두를 살펴보면 그 제목이 나오는데, 이를 신도비에서는 '碑題'라고 한다. 비제를 파악하면 비석의 정확한 종류와 명칭을 알 수 있다. 비제의 말미가 '神道碑銘并序'라고 표기된 신도비는 誠寧大君神道碑(1418)을 비롯하여, 具致寬神道碑(1470), 鄭光弼神道碑(1562), 李貴神道碑(1634), 洪瑞鳳神道碑(1738), 全溪大院君神道碑(1851, 삽도4) 등이 있다.[57]

② 비제를 '신도비명'이라 쓰고 '并序'를 생략한 경우로, 韓聖翼神道碑(1712)와 韓配周神道碑(1765)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58]

54) 『孝宗實錄』2年 7月 26日 辛丑과 『英祖實錄』14年 9月 30日 己卯의 蓮城守 李樘이 올린 상소의 내용 참조.
55) 졸고, 1997, 앞의 논문, 109쪽.
충북대학교박물관, 1998, 『鎭川郡의 文化遺蹟』, 238~239쪽.
56) 이유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비록 지세에 따라서 (신도비를) 墓庭에 세우게 되기도 하나, 그것은 잘못이다. 東皐 李浚慶(1499~1572)의 신도비는 (묘의) 10리 밖에 서 있고 月沙 李廷龜의 신도비도 길가에 서 있으니, 그것이 예에 맞는 것이다 하였다(『林下筆記』卷33, 華東玉 編, 神道).
57) ① 誠寧大君神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大匡輔國誠寧大君卞韓昭頃公神道碑銘并序이다.
② 具致寬神道碑의 비제는 朝鮮輸忠佐翼純誠佐理功臣…諡忠烈綾城具公神道碑銘并序이다.
③ 鄭光弼神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贈諡文翼鄭公神道碑銘并序이다.
④ 李貴神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諡忠定李公神道碑銘并序이다.
⑤ 洪瑞鳳神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贈諡文靖洪公神道碑銘并序이다.
⑥ 全溪大院君神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全溪大院君神道碑銘并序이다.
58) ① 韓聖翼神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 贈嘉善大夫吏曹參判…韓公神道碑銘이다.
② 韓配周神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韓公神道碑銘이다.


〈삽도 5〉 진안대군 묘비(1789, 정조13)

③ 비제를 정확히 '神道碑銘并序'라 하고 篆額을 '墓碑'라 올린 경우가 있는데, 金友臣神道碑(1511), 尹萱神道碑(1543), 金詮神道碑(1611)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59] 그리고 동일한 예를 아래와 같은 實錄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성종) 장차 襄節公(韓確, 1403~1456)의 묘비를 고쳐 세우고자 하니, 글을 맡은 자로 하여금 발문의 말미를 지어서 바치게 하라"[60]

"史臣이 論하기를 '韓致禮(1441~1499)는 세도를 가진 富豪로서 居室의 화려함과 車馬의 아름다움을 날로 더하고 奢侈함을 일삼으면서도, 그 아비(韓確)의 墓碑에는 오히려 재물을 아끼어 세우지 아니하고 聖聽을 번거롭게 함에 이르렀으니, 당시의 의논이 鄙陋하게 여겼다' 하였다"[61]

"申叔舟(1417~1475)의 『保閑齋集』에 실린 權擊(1416~1465)의 墓碑를 보면, '一行을 다 원종 공신에 책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숙주는 원래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물며 이 큰 경사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62]

위 자료에 나오는 양절공과 한치례 아비의 묘비는 모두 '한확신도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에 신도비와 묘비를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확신도비는 비제를 '贈諡襄節韓公神道碑銘序'라고 하고 전액을 '襄節韓公神道碑銘'이라 올렸는데, 魚世謙(1430~1500)이 지은 신도비문의 내용 중에 "임금께서 신하인 世謙을 불러 전하여 이르되, 양절공이 죽은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59) ① 金友臣神道碑의 전액은 大明朝鮮金胡簡公墓碑이다.
② 尹萱神道碑의 전액은 贈領議政尹公墓碑이다.
③ 金詮神道碑의 전액은 有明朝鮮金忠貞公墓碑이다.
60) 『成宗實錄』 25年 4月 8日 丙寅.
"傳于承政院曰 予將欲改立 襄節公墓碑 令主文者 製跋尾以進"
61) 『成宗實錄』 25年 10月 2日 丁巳.
"史臣曰 致禮豪富 居室之麗 車馬之美日 以奢侈爲事 而其父墓碑 尙吝財不樹 至煩聖德 時議鄙之"
62) 『中宗實錄』 3年 4月 7日 甲戌.
"今見 申叔舟保閑齋集 權擊墓碑 有曰一行盡錄原從 叔舟固非妄言者 況此大慶事不可不錄"

지금까지 墓碑가 없다"[63]라고 하면서 묘비 즉 신도비의 건립을 독촉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 權擧의 묘비는 권남신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비문이 『보한재집』권17 신도비 항목에 '輸忠衛社…吉昌府院君翼平贈諡權公擧神道碑' 라고 실려 있어, 당시에 신도비를 묘비로도 통용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④ 따라서 비석에 새겨진 비문의 비제가 '墓碑銘并序' 로 끝나는 경우를 신도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는데, 李郁墓碑(1633)를 필두로 尹煌墓碑(1660), 鎭安大君墓碑(1789, 삽도5), 成三問墓碑(1802) 등이 이같은 예에 속한다.[64]

⑤ 비제를 '墓碑銘' 이라 표기하고 '병서' 를 생략한 경우는 李希男墓碑(1611), 李軸墓碑(1617), 李茂墓碑(1785)에서 그 예가 확인된다.[65]

⑥ 비제를 '神道碑銘并序' 라 한후에 篆額을 '碑' 라고만 올린 경우이다. 이런 예는 태조의 健元陵神道碑(1409)와 세종의 英陵神道碑(1425)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같은 예를 통해서 신도비를 '碑' 라고 略稱했음도 알 수 있다.[66]

⑦ 비제를 '신도비명병서' 라 쓰고 전액은 피장자의 생애를 일목요약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별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李舜臣神道碑(1794)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었다.[67]

4) 立石制限

신도비의 입석제한은 法典에 의거 정해진 바가 없으나 필자가 일정 수량의 신도비를 현장조사하여 碑主의 實職과 贈職의 品階를 비교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68]

조사 결과, 碑主의 實職品階는 正一品 大匡輔國崇祿大夫부터 從五品 奉訓郎까지 나오고 있으며 從二品 嘉善大夫 이하가 모두 42기 확인되었다. 이를 품계별로 살펴보면 正三品 堂上 通政大夫 20, 正三品 堂下 通訓大夫 11, 西班의 正三品 堂上 折衝將軍 4, 正三品 堂下 禦侮將軍 1, 從三品 中訓大夫

63)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 『자료집』남양주시지6, 761~771쪽.
64) ① 李郁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贈純忠補祚功臣…同僉節制使李公墓碑銘并序이다.
② 尹煌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嘉善大夫行司諫院大司諫尹公墓碑銘并序이다.
③ 鎭安大君墓碑의 비제는 朝鮮國鎭安大君諡靖懿公墓碑銘并序이다.
④ 成三問墓碑의 비제는 梅竹堂成先生墓碑銘并序이다.
65) ① 李希男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贈…顯祿大夫極浦君墓碑銘이다.
② 李軸墓碑의 비제는 有明朝鮮國贈…五衛都摠府都摠管李公墓碑銘이다.
③ 李茂墓碑의 비제는 奮志仗義定社佐命功臣…諡翼平李公墓碑銘이다.
66) ① 健元陵神道碑의 전액은 太祖健元陵碑이다.
② 英陵神道碑의 전액은 世宗英陵之碑이다.
67) 이순신신도비의 비제는 有明水軍都督朝鮮國…三道統制使諡忠武公李舜臣神道碑銘并序이며 전액은 尙忠旌武碑이다. 전액을 신도비라 올리지 않고 상충정무비라 한 것은 이순신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정조가 특별히 고안해 낸 명칭이다(『弘齋全書』日得錄16 訓語3).
졸고, 2000, 「朝鮮時代 御筆碑 小考」,『正祖大王 逝去 二百周年 追慕展』, 신구문화사, 130쪽.
68) 졸고, 1997, 앞의 논문, 66쪽. 참조.

1, 從四品 朝散大夫 1, 從五品 奉直郎 1, 從五品 奉訓郎 1기가 있으며, 無官職인 隱士가 2기 있었다. 실직품계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4기를 제외하곤 모두 從二品 嘉善大夫 이상의 贈職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신도비의 입석은 實職品階는 상관이 없었고 贈職品階가 從二品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점은 신도비 입석과 관련된 다음의 두 기사에서도 뚜렷히 확인할 수 있다.

"先考의 벼슬은 通政에 그쳤으나 南漢山城에서 扈從한 것으로 해서 賞으로 嘉善大夫의 階職을 더하여 批答을 내리고 壙함에 미쳐서 때로 걸림이 있기 때문에 묘지와 묘표에 모두 이것을 쓸 수가 없었다. 모두가 의논해서 말하기를 格에 준해서 碑(신도비)를 세우게 되면 二品의 관계는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에 行職의 높은 것을 더하였다"[69]

"선생의 顯德과 지극한 행위를 撰述하는 자가 없어 拯과 搢이 겨우 보고 들은 것으로써 대략 한두 개를 기록하여 家狀을 만들어서 장차 墓碣銘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追贈의 恩典을 힘입어 搢이 나(윤증)에게 말하기를 "지금인즉 마땅히 法式을 살펴 碑를 세워야 하는데 세상에 先人을 아는 자가 드무니 형이 어찌 이를 도모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70]

前者는 尹煌(1571~1639)이 南漢山城(丙子胡亂을 의미)을 扈從한 공으로 인해 嘉善大夫로 加資되었으나 丙子胡亂이 恥辱으로 끝나자 이를 부끄럽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고 死後에도 가자된 품계를 墓誌와 墓表에 쓰지 않았는데 碑를 세움에 있어서는 하는 수 없이 格式에 準해서 쓰게 되었다는 것이고, 後者는 尹舜擧(1596~1668)의 實職 品階가 正三品 通訓大夫에 그쳐서 碑를 세우지 못하고 墓碣을 세우려 하였으나 마침 從二品 嘉善大夫로 追贈되었으니 法式을 살펴 碑를 세우자는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판단컨대, 신도비의 입석 제한은 贈從二品嘉善大夫 以上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능한 이를 遵守하려 했음도 알 수 있다.

---

69) 撰者未詳,「尹煌墓碑 又追記」, 1660(현종1).
"先考官止通政 以南漢扈從 賞加嘉善資而下批 及壙後時有礎 故墓誌與表 皆無得以書之 諸議以爲準格 立碑則二品官階不容不書 故是加諸行職之上焉"

70) 尹拯 撰,「尹舜擧神道碑銘并序」, 1811(순조11).
"先生之玄德 至行無人譔述 拯與搢 僅就耳目之所逮及者 略記一二爲家狀 將以求碣銘 及蒙贈典搢謂拯 今則當按式竪碑而世人鮮有知先人者 兄盍圖之"

71) 柳碩은 실직품계와 관직이 正三品 堂上 通政大夫에 그쳤고 사후에 贈職된 적이 없다.

72) 姜子平은 실직품계와 관직이 正三品 堂上 通政大夫에 그쳤으며 사후에 贈職된 적이 없다.

73) 韓配周는 실직품계와 관직이 正三品 堂下 通訓大夫에 그쳤고 사후에 贈職된 적이 없다.

74) 李經漢은 실직품계와 관직이 行通政大夫黃海道水軍節度使에 그쳤으며 사후에 동일품계의 관직만을 承政院左承旨로 추증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從二品으로 贈職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비를 건립한 경우가 앞서 거론했듯이 柳碩神道碑(1690)[71]를 비롯한 姜子平神道碑(1728)[72], 韓配周神道碑(1765)[73], 李經漢神道碑(1876)[74]에서 확인되어 格式을 어기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문자 그대로 격식은 도덕적 의무이지 구속력을 갖춘 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어겨도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묘갈, 묘표를 신분에 맞지 않게 크게 세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中·庶人層도 신도비만은 입석하지 못했다. 사대부조차도 신도비를 건립할 때는 품계에 따라 그 격식을 따져서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Ⅳ. 맺음말

조선시대의 비석을 종류별로 나눌때, 겉에 드러난 外樣에 근거하지 않고 비석의 立石 위치와 빗돌에 새겨진 글의 종류를 파악해서 그 각각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같은 방법론으로 조선시대의 비석을 陵碑, 墓碑, 寺碑, 一般事蹟碑, 其他碑의 다섯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여기서 다시 陵碑는 陵表와 陵神道碑로 墓碑는 墓表, 墓碣, 墓神道碑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능묘비를 고찰한 결과, 먼저 陵碑 중의 능신도비는 定陵, 健元陵, 齊陵, 獻陵, 英陵에만 건립되었고 文宗이후에는 입석이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帝王의 사적이 모두 國史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체 비석으로 능표를 건립하였으며 구한말에 이르면 거의 모든 능에 세워지게 되었다. 또 묘표는 양반사대부라면 누구나 세울 수 있었던 비석인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중·서인까지도 입석 행위에 동참하였던 가장 일반적인 비석이다. 묘표는 음기의 '表題'에 의해서 그 종류가 확실히 구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묘표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묘갈 역시 양반사대부는 물론이거니와 조선후기에는 중·서인까지 건립할 수 있었는데, 묘표와의 차이점은 빗돌에 쓰여진 '碣題'나 '篆額'을 통해서만이 그 종류가 확인된다는 점이었다. 또한 묘갈에 새겨진 갈제의 완전한 명칭이 '墓碣銘并序'임도 알 수 있었다.

신도비는 왕실과 양반사대부만이 세울 수 있었던 비석이다. 양반사대부도 아무나 건립했던 아니라 사후에 追贈된 品階가 從二品 嘉善大夫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연구 결과 얻을 수 있었다. 신도비의 입석제한은 국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종 禮書에 소개된 중국식 비석의 품계별 제한 규모를 당시의 지배계층이 받아들여 그 격식에 맞춰 遵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간혹 이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또한 신도비를 넓은 의미로 '墓碑' 또는 '碑'라고도 略稱하였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으며, 신도비에 새겨진 碑題의 완전한 명칭이 '神道碑銘并序'임도 밝힐 수 있었다.

驪州 하거리 방미기골 古墳 出土 太環耳飾 構造와 製作技法에 대하여

김 선 덕 *

Ⅰ. 머리말
Ⅱ. 조사방법
Ⅲ. 보존처리
Ⅳ. 결과 및 고찰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산 40번지 일원이 위치한 古墳은 三國時代 政治的 소속이 百濟에서 高句麗(475년), 고구려에서 新羅(553년)로 바뀌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 삼국시대 분묘의 기본적인 性格이나 構造, 나아가 築造 主體를 밝히는 것은 考古學界에서 밝혀야할 과제 중의 하나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하거리 방미기골 고분 發掘調査는 1997년 말부터 1998년 상반기에 慶熙大學校 博物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출토유물의 保存處理는 京畿道博物館 保存科學室에서 담당하였다.

본고에서는 2호분에서 출토된 太環耳飾 1쌍과 청동방울 등의 구조와 제작기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태환은 크게 파손되기는 했지만 태환의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시료였으며, 보존·복원작업의 事前調査로서 태환의 구조 및 재질을 조사했다. 조사는 태환 본체로부터는 샘플링을 실시하지 않은 非破損的 방법에 의한 것을 전제로하고 우선 X線透過撮影法(X-rayRadiography)에 의한 전체적인 구조를 탐색하고, 도금방법과 접합에 이용된 매개제를 규명하기 위해 X-선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光學顯微鏡(Optical Microscope)을 사용한 微視的 構造觀察을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특히 태환의 구조와 제작기법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귀고리 등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의 金工技法에 대해 기초적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 경기도 박물관 보존과학실

Ⅱ. 조사방법

1. X-ray Radiography 조사

태환의 내부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X-ray Radiography(X선투시촬영)를 실시했다. 사용된 장치는 일본 SOFTEX사제, Special Type M-150W였다. 촬영조건은 전압 130kVp, 전류 2mA, 조사시간 2분이었다.

2. X-선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

태환의 표면 도금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X선형광분석을 실시하였다. X선형광분석의 원리는 시료에 X선을 조사하면 시료면에서 특성X선(형광X선)이 발생하는데 이 특성X선을 파장분산형의 분광기로 분석하는 것으로 다원소를 동시정량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경원소의 분석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료실은 진공으로 할수도 있고 분석치는 컴퓨터에 의해 정밀하게 보정계산된다.

시료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장치는 미국KEVEX사의 에너지 분산형X선형광분석기(EDXRF)로서 제품명 OMICRON을 사용하였다.

3.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관찰

태환의 접합단면 및 표면도금면의 관찰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사용한 장치는 LEICA MZ6, MZAPO였다.

Ⅲ. 보존처리

부식으로 인해 많은 손상이 있는데 연회백색의 가루처럼 부식되는 靑銅病(Bronze disease ; Paratacamite, Atacamite)이 발생되어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표면에는 진흙이 고착되어 있었다.

표면의 진흙은 Ethyl Alcohol과 이온수를 혼합한 용액에 침적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부드러운 수채화 붓과 면봉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한편 청동녹은 5%Formic acid와 Water Absorbent를 혼합한 Gel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부식방지 처리로 3% B.T.A(Benzotriazole-in ethyl alcohol)용액을 사용 眞空含浸한 다음 Alcohol로 세척한 후 열풍순환식 항온건조기(85℃)에서 강제 건조처리 하였다.

强化處理는 아크릴계 합성수지인 15% Incralac을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순간접착제(상품명 ; Cyanoacrylate Adhesive)로 접합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구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귀걸이의 각 부분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主環(중심고리) ; 태환이식의 중심이 되는 속이 빈 굵은 고리

遊環(노는 고리) ; 주환과 중간장식을 연결하기 위한 가는 고리

〈그림 1〉 방미기골 古墳 出土 金銅太環耳飾 保存處理 前 狀態

〈그림 2〉 방미기골 古墳 出土 金銅太環耳飾 保存處理 後 狀態

中間裝飾(垂下飾) ; 金絲로 된 고리를 連接한 花形球 및 花形半球 를 비롯하여 瓔珞 등을 統稱

끝장식(垂下飾) ; 中間裝飾 아래에 매달린 裝飾으로 心葉形, 펜촉형 끝장식 등

작은 고리 ; 遊環에 중간장식 및 끝장식(垂下飾)을 매달기 위해 사용한 작은 고리

開口部 ; 主環이나 遊環의 끝 부분을 말하며 착장했을 경우 귓불에 닿는 부분

內側 · 外側 面 ; 主環이나 遊環의 안쪽(작은 지름)을 내측 면이라고 하고 외측 면은 바깥쪽 큰 지름 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재질로 보면 ① 純金製인 것, ② 수은아말감으로 鍍金한 것, ③ 銅環이나 鐵製 환에 옻 등의 접착제를 사용해 金箔을 붙인

것, ④素地가 되는 銅線에 얇은 金板을 감은 것 등의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 있다.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고분에서 출토된 1쌍의 태환 중 한 점은 부식으로 인한 손상에 의해 태환의 일부만 남아 있으며, 나머지 한 점은 태환의 일부가 손실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간장식과 끝장식은 손실되었고 유환의 일부와 중간장식과 끝장식을 연결하는 연결금구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태환의 보존 · 복원작업에 앞선 과학적인 사전조사에 의해, 태환의 구조와 재질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 낼 수 있었다. 단 조사는 태환본체로부터 샘플링을 하지않은 비파손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제약하에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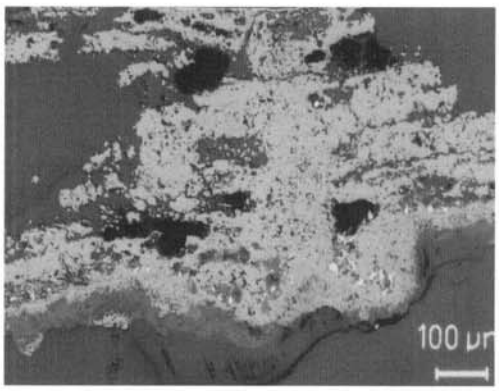
이번에 조사했던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고분 출토 태환은 본체의 부식 때문에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출토되었으므로 (그림 1, 2), 환내부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명확하게 中空太環이었음을 알수 있었다.

環의 지름은 12.6㎜와 10.9㎜이며 외측지름이 30㎜이며 개구부가 없다. 遊環은 靑銅細環에 鍍金하였으며 부식이 심하다. 끝장식은 남아있지 않고 연결금구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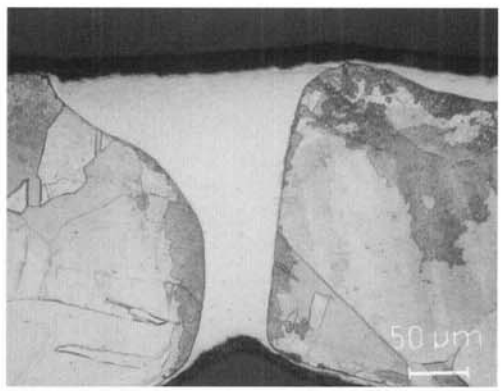
2. 제작방법

표면은 금색을 띠고 있어 금도금에 의해 표면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의 중공 내부는 상당히 두껍게 녹청이 덮혀있으며 목질 등 中芯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환본체의 접합 흔적은 환의 외측면에서도 Optical Microscope 관찰로 확인이 가능하고 X-ray Radiography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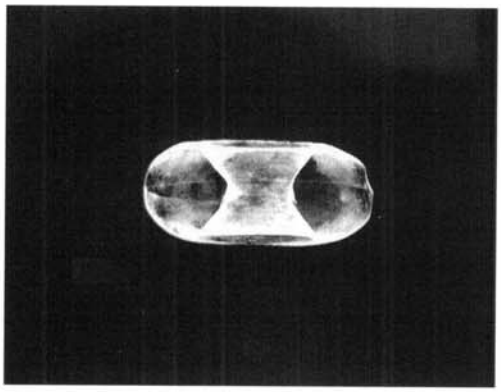
개구부가 없는 태환이식은 극히 드문 예이며 제작기법 상으로도 어려운 수준이라 여겨진다. 환내부의 내측면에는 톱니 모양의 돌기를 내어 서로 물려 놓았는데 이것은 접합(땜)을 용이하게 하기 위



〈그림 3〉 芳內里 出土 金銅太環耳飾 太環 接合部 金屬顯微鏡 寫眞



〈그림 4〉 接合實驗片 組織 金屬顯微鏡寫眞



〈그림 5〉 방미기골 出土 金銅太環耳飾 X-Ray寫眞

한 장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톱니모양의 돌기를 만든 구조도 이 태환이식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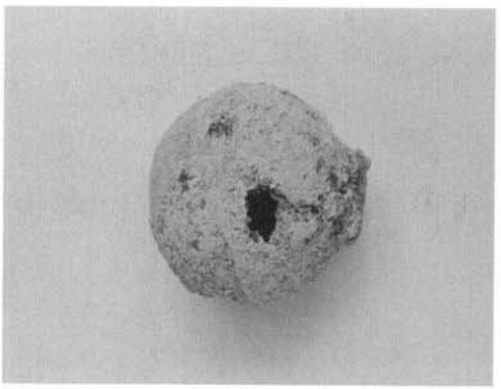
태환의 성형은 기본적으로 다이포밍(die-forming)기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다이포밍기법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반쪽을 땜(Soldering)으로 접합하여 원통을 만드는 것이다. 이 태환이식 역시 다이포밍에 의해 성형된 두 판을 땜으로 접합하였는데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톱니모양의 돌기를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은 땜금(solder)을 이용한 접합에 의해 제작된 태환이식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림 4는 땜 접합을 실험한 단면이다.

하거리 방기미골 고분출토 이식 역시 이러한 땜을 이용하여 접합하였다. 이 땜금의 정확한 성분은 확인하기 위해 X선형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銀(Ag)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으며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이 접합부위를 중심으로 검은색으로 부식되어 있는 층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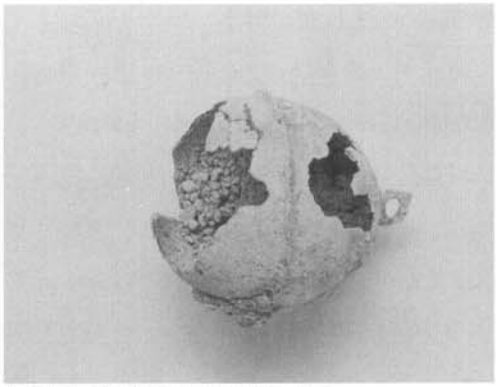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다이포밍한 태환의 접합을 위해 銀을 매개제(solder)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접합선 주위에서 발견되는 銀 부식층은 금아말감 도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먼저 은도금을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銅(Cu)의 용융점은 1083℃이고 銀(Ag)의 용융점은 960.5℃로 용융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바탕이 되는 銅과 銅의 접합에 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구부가 없는 태환을 만들기 위해선 형틀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료가 되는 銅板을 틀에 넣고 Anneling하면서 망치나 공구를을



〈그림 6〉 청동방울(1) 保存處理 前 狀態

〈그림 7〉 청동방울(1) 保存處理 前 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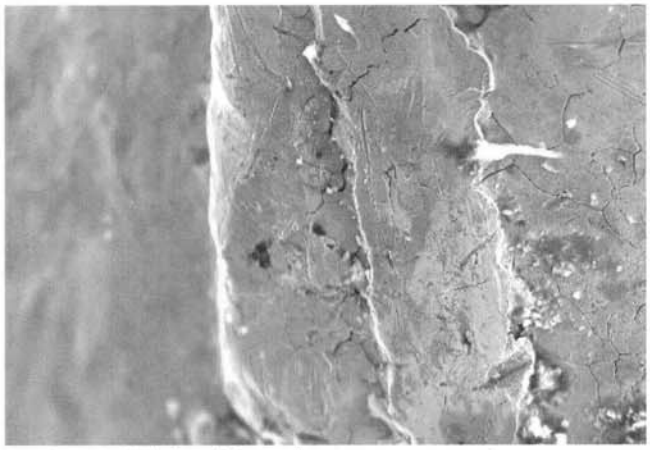
〈그림 8〉 청동방울(2) 保存處理 後 狀態

〈그림 9〉 청동방울(2) 保存處理 後 狀態

이용하여 추기(Raising)하여 만들 수 있다.

X선 라디오그래피에 있어서 검은 부분은 X-선이 잘 투과되는 부분이며, 흰색 부분은 X-선 투과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즉, 환의 중앙부분에 흰색 가로선은 외측면의 접합선이 보이는 것이며 검은 부분은 환본체의 내부가 심한 부식으로 X 선이 투과하기 쉽게 된 것이며, 환본체는 거의 구멍 투성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측면 근처에 약 5mm의 정도의 帶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톱니 모양의 돌기부분으로 판이 2중으로 겹쳐있어 X선이 잘 투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태환의 단면이 완전 원형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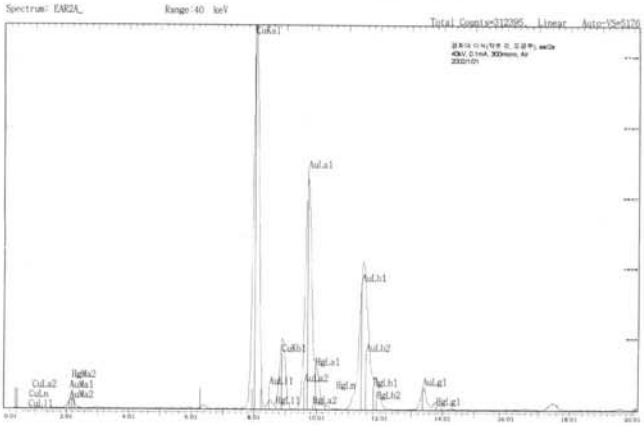
X 선 라디오그래피 조사와 X선형광분석 결과 및 현미경관찰의 소견을 종합해보면, 이 태환의 본체는 얇은 동판을 다이포밍하여 만든 두 개의 판을 접합하여 둥글게 만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환의 접합부분은 은(Ag)을 매개제로 사용하였고 표면은 금아말감도금하였다.(그림 11, 12) 또한 표면의 부식 및 손상에 의해 육안 관찰로도 이러한 接合線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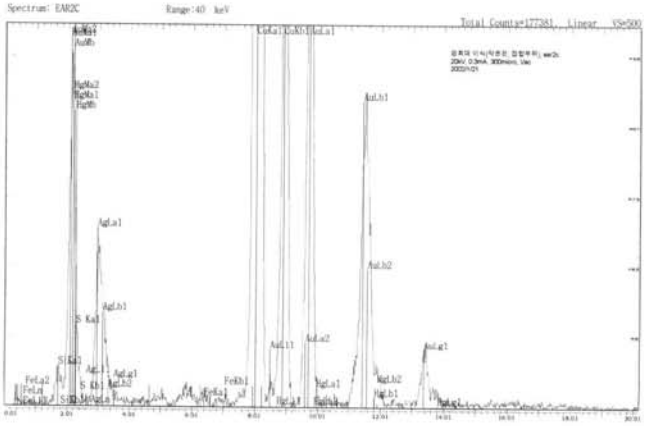
〈그림 10〉 湖巖美術館 所藏 細環耳飾
中間裝飾인 구슬 接合部 電子顯微鏡 寫眞

遊環은 靑銅素地에 도금하였으며 連結金具는 작은 고리 없이 유환에 직접 연결하였던 것이지만 부식으로 인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2호분에서 출토된 방울 2점에서도 다이포밍 기법 및 接合技術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11〉 금동태환이식 鍍金部分 성분분석표(XRF)



〈그림 12〉 금동태환이식 접합부분 성분분석표(XR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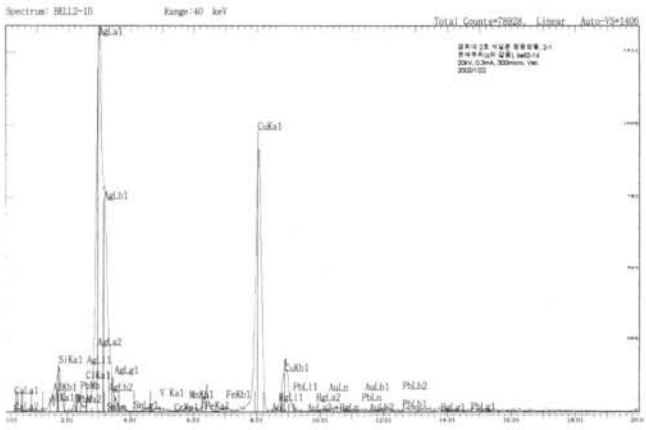
가운데 띠모양의 돌대가 접합부분이다.(그림6, 7, 8, 9)

방울의 성분분석에서는 주석(Sn)이 검출되어 바탕이 되는 소지는 청동임이 확인되었으며 수은(Hg)과 은(Ag)가 함께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표면은 銀아말감에 의한 銀鍍金이 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그림 13)

Ⅴ. 맺음말

땜질 기법은 삼국시대에 이미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금공기법의 하나로 특히 신라지역에서 출토되는 태환이식의 제작이나 금구슬류의 제작에는 예외가 없을 정도로 다이포밍과 땜질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도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출토 金銅太環耳飾에 대하여 기초적인 조사를 통하여 제작기법의 비밀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X線透過撮影(X-rayRadiography), X-線螢光分析(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 光學顯微鏡(Optical Microscope) 조사에 의해 다이포밍 기법과 접합(땜)에 의해 태환이 성형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접합(땜)에 사용된 땜금(媒介材, solder)은 銀이(Ag) 사용된 예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밝혀지긴 하였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 땜금에 대한 成分分析 데이터가 명확히 밝혀진 예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의 더 많은 시료에 대한 연구와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한 走査電子顯微鏡(Scanning Electron Microsope : SEM-EDS),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ser), 金屬顯微鏡 등을 이용한 精密 觀察 및 성분분석 등 自然科學的 調査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그림 13〉 청동방울 鍍銀 部分 성분 분석표(XRF)

(그림 3)의 芳內里 出土 金銅太環耳飾의 태환 접합부에 대한 金屬顯微鏡 調査에서 金屬 組成의 차이가 發見된 예이지만 역시 정확한 성분비는 밝혀지지 않았다.

湖巖美術館 所藏 細環耳飾의 경우에서 중간장식인 구슬의 接合部에 대한 電子顯微鏡微示觀察에서는 (그림10)과 같이 段差가 확인되고 바탕인 母材와 땜금(solder)의 성분비의 차이가 나타나 금의 품위(K) 차이에서 발생하는 용융 온도를 활용한 접합(땜)이었음이 확인된 예도 있어 앞으로의 금공기법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방울에 대한 X線螢光分析에서도 수은아말감에 의한 銀鍍金이 밝혀졌는데 이 은도금의 예도 좋은 연구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 參考文獻

한국체육진흥(주) · 경희대학교박물관, 1999,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고분』

김선덕, 1995, 「金屬裝身具의 形式과 製作技法에 대한 考察 -耳飾을 中心으로-」, 『淸原 米川里 古墳群』, 國立文化財硏究所

———, 2001, 『金製太環耳飾의 製作技法에 대한 考察』, 東國大學校 文化藝術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村上 隆, 1991, 「高川古墳群出土の耳環の構造と材質について」, 『高川古墳群』 兵庫縣敎育委員會

V. 글마당

1. 고인돌은 왜 안되나요 / 김병모

2. 땅을 파다보니… / 서봉수

고인돌은 왜 안되나요

김 병 모 *

말도 못해봐?

우리의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까지의 첫 단초는 이런 배짱에서 시작되었다.

나와 유네스코 허권 부장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마주앉아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 경주 문화엑스포를 위한 준비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나오는 길에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하여 우선 눈에 띈 아무 집에나 들린 참이었다.

– 이 교수는 무슨 발언이 그리 장황하고 길어...

우리 두 사람 공통의 불평이었다.

그날 회의는 한 사람의 독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각계의 자문위원 20여 명이 다음해에 개최될 세계 최초의 문화엑스포 행사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려고 아이디어를 모아보고자 만났다가 회의시간이 다 지나 버린 것이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모인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품은 생각들을 변변히 발언도 못해보고 회의는 끝났다. 미진하고 싱거운 회의였고 엄청난 시간의 낭비였다.

– 창덕궁은 어떻게 되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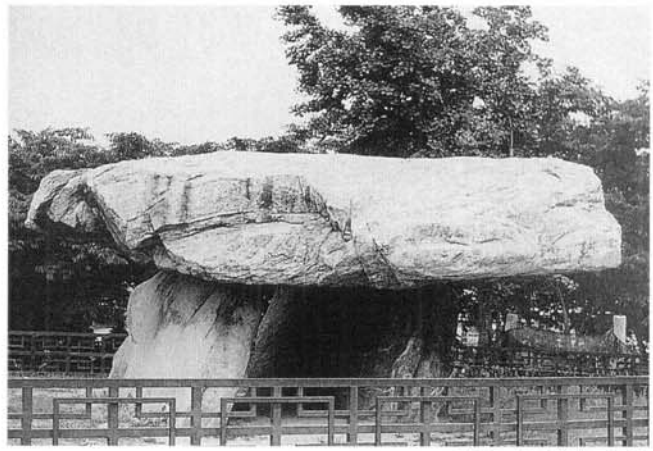
– 창덕궁과 수원 화성은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참, 지난번 스리랑카 출신 건축가가 현장조사 나왔을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셨을 터인데요.

– 고맙기는. 우리 나라의 문화재가 한 건이라도 더 세계문화유산으로 대접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더 자랑스러운 일일테니 누구던지 간에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니겠소. 마침 그 건축가는 내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롤란 드 씰바 박사(Dr. Roland de Silva)의 동생이랍디다. 세상이 좁기도 하지.

각 유적의 현장조사를 마친 사람들이 위원회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객관적으로만 보고서를 써준다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어느 위원이 지정에 반대하겠소. 당초 세계유산위원회의 구성목적이 인류의

*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문화유산을 한 개라도 더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소.


강화도 부근리의 고인돌

당시까지 우리 나라의 문화재 중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확정된 것은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藏經板殿)의 3건이 있었고 창덕궁과 수원 화성(華城)은 등록 추진이 진행 중이었다.

다행스럽게 나중의 2건도 무난하게 등록되어 한국의 문화재중에서 5건이 세계의 문화재로서 자랑스럽게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 한국의 문화재 중 더 이상 등록을 신청해볼 대상은 없겠죠? 뭐가 더 있겠습니까?

– 있고 말고, 세계 제일의 고고학 유적이 있지.

– 그게 뭔 데요?

– 고인돌무리들이지.

– 아이고, 그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붙여서 신청을 한답니까? 고인돌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무덤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세계 유일이다, 또는 세계 최초나 세계 제일의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 말도 안 된다고 신청서를 반려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김교수 님. 고고학자 앞에서 고고학 유적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듯 미숙한 표현을 해서 하하...

– 괜찮소. 보통사람들에게는 고인돌이 그저 들판에 널려있는 하찮은 바위 덩어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일테니까.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고인돌들은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서 유럽이나 남아시아의 고인돌 유적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한 것이오. 우선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들이 우리 나라에 있고 가장 키가 큰 고인돌이 또한 우리 나라에 있단 말이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 만개의 고인돌이 한 지역에 촘촘하게 밀집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데 있소. 그건 우리 나라뿐이란 말이오. 만약 우리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한국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이 된다면 그 중요성이 저절로 세계 고고학계에 선전될 것 아니겠소. 서방 선진국의 고고학자들 중에서 고인돌이나 거석기념물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이유는 거석기념물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

이오. 다행하게도 우리 나라는 서구에 비해서 산업화가 늦어졌고 늦게 산업화되는 과정만큼 국토개발이 늦게 진행되어 고인돌이 그나마 제자리에 살아남아 있는 거요. 그래도 원래 세워졌던 고인돌의 절반 이상은 없어졌을 것이오.

경남 합천 댐 공사수몰지역에서 고인돌이 수백개나 파괴되었다.

1981년에 아시아 거석문화 심포지움을 한국에서 했는데 아시아 고고학자들이 강화의 고인돌을 답사하고는 너무 크고 우람차서 입을 다물지 못합디다.

딱 한잔이 한잔 더로 반복되다가 소주병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 우리나라 고인들은 세계문화유산이 될 값어치가 충분하고도 넘친단 말이오. 그런데 도로 공사와 댐 공사로 한번에 수 백 기씩 중장비에 밀려나고 있지 않소.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고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되면서부터는 파괴되어 가고있는 우리 고인돌 유적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는 않게 될 것 아니겠소. 고고학자가 고인돌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걸 누가 들어줄 것이며 어느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로 내는데 불편하고 농사짓는 데 방해가 되는 돌덩어리들을 보호해 주겠소?

그러니까 이번에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해 봅시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고인돌은 저절로 보호될 것 아니겠소. 한번 만용을 부려봅시다 '말도 못해봐?' 라는 말도 있지 않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는 수원 화성의 방화수류정

고고학자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부장과의 대화는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 마지막으로 한잔 만 더합시다.

– 좋지요. 고인돌을 위하여 건배!

–세계문화유산을 위하여 건배!

한국의 고창과 화순, 강화의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잉태되는 순간이었다. 그날은 1997년 5월 15일.

우리의 작전은 시작되었다. 우선 '거석기념물 협회'가 결성되었다. 대표로는 영암출신 전 국회의원 유인학씨를 내세우고 백 여명의 학자와 지식인들이 모였다. 먼저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을 답사하는 여행으로 회원들 간에 안면을 익히고 다음 단계는 세계적인 고인돌 전문가를 초청해 『거석기념물의 세계』라는 책의 저자인 프랑스인 장 피엘 모앙 박사(Dr. Jean Pierre Moin)를 초빙하여 국내의 고인돌 유적을 소개하였다.

– 유럽 고인돌과는 다른 면이 많네요. 아주 많은 수가 무리지어 남아있고 또 그것이 한 장소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수백 개의 고인돌이 한 마을에 남아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모앙 박사가 『거석기념물의 세계』라는 책을 출판하였을 때 서평을 썼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글린 다니엘 교수(Prof. Glin Daniel)가 꼬집었던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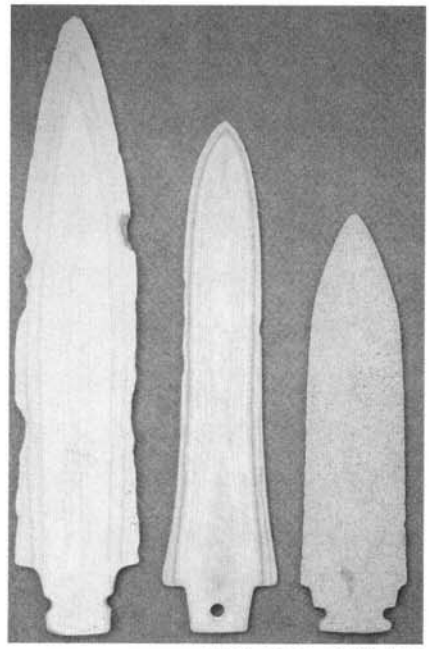
– 고인돌에 관한 한 김병모가 쓴 『아시아 거석문화』(Megalithic Cultures in Asia ; 1981)를 인용하지 않으면 불완전하다–『Antiquity』

그런 서평을 읽고 온 모앙 박사인 만큼 한국의 고인돌 군(群)을 실제로 답사하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1998년 8월, 무더위 속에서 강행되어 힘들고 고된 답사여행이었을 터이지만 모앙 박사는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경험이라 생각해서인지 연신 즐거워하였다. 지금쯤 그는 자신의 책을 고쳐 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가을에는 한국 거석협회 회원들의 유럽 거석기념물 탐방이 있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로 이어진 답사를 통하여 한국의 지식인들은 유럽의 거석기념물들과 한국의 고인돌들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통해 그 차이점을 구별해 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다.

– 우리 고인돌로 세계와 경쟁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12월에는 거석문화 국제 심포지움을 열었다. 호주, 포르투갈, 벨지움, 인도,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들어 각국에 소재하고 있는 거석기념물들을 소개하며 비교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시에 '세계거석기념물 협회'를 결성하고 상호 연구자료와 연구인력의 교환 등을 실시하기로 협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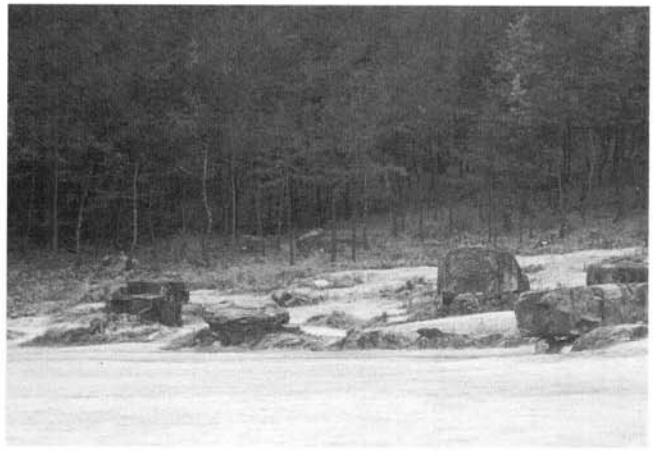


섬진강 댐공사 지역인 승주 우산리 선사유적에서 발견된 돌칼

일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척되었다. 모든 일에 앞장선 사람은 역시 추진력 있는 유인학씨였고 많은 문화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분위기는 조성 되어갔다.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세계문화유산의 후보 등록이 접수되었다.

2000년 6월 28일 오후 파리 유네스코본부 회의실.

세계유산위원회에는 118국가가 회원국으로 가맹되어있고 이번 회의에는 250명의 각국 대표가 참가하였다. 회의 순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장국가인 모로코 외에 집행국은 핀랜드, 그리스, 짐바브웨, 헝가리, 멕시코 그리고 호주였다. 우리의 안건은 고인돌과 역사도시 경주의 2건이었다



고창 죽림리 고인돌 군(群). 이 지역에는 600여개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다. 다른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늦었던 이유로 고인돌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2001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됨.

세계유산위원회 대표인 영국인이 각국의 신청 유적들을 한건씩 슬라이드 영상과 함께 소개해 나갔다.

-내 눈에는 돌덩어리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망언이 있나 이 영국인은 국제회의에 와서 농담을 하려는 것인가. 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 준비해 신청한 한국의 고인돌인데 저렇게 경솔하게 소개하면 안 된다. 여차하면 반박발언을 하려고 내 명패를 움켜쥐었다.

- 그런데 현장조사를 한 일본 니시타니 교수(西谷 正 ; 九州大)의 보고에 의하면 이 돌들이 세계적으로 희귀하게 잘 남아있는 선사시대의 기념물들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당사국 정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답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다면 등록하겠습니다.

그 순간 누가 내 어깨를 꽉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언제 들어왔는지 중국대표가 뒤에 앉아 있다가 내 어깨를 붙들고 무언의 축하를 하는 것이었다. 아마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날 오후 늦게까지 회의는 계속되었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티벳의 라싸 궁전이, 일본은 오키나와의 성들이 한국의 고인돌 및 경주와 함께 나란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축하하였다. '아이고 그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겠습니까' 라는 대화가 시작된지 꼬박 3년이 지난 후였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던 말던 고인돌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끼리끼리 앉아 수천년 이어온 명상을 아직도 깰 생각이 없나보다. 누가 감히 어줍잖은 대화를 시도 할 수도 없게 근엄한 자세로 눈을 감고 버티고 있다. 불가의 고승들이 참선을 하듯 고인돌은 자세의 바꿈도 없이 앞으로도 셀 수 없는 세월을 또 그렇게 버텨낼 것이다. 그 안에 품고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고인돌은 알고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황인종인지 아니면 흑인종인지 백인종인지, 선한 사람이었는지 모진 사람이었는지 고인돌은 알고 있다. 그러나 돌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개발에 사용되는 중장비 앞에서 문화유적들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파괴되고 사라질 운명의 고인돌을 우리 세대가 보호하는 일까지는 이룩해냈다. 이제는 고인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굳은 침묵을 상대로 하여 돌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돌에게 이야기를 시킨다. 오랫동안 시도하면 결국 돌이 자기 얘기를 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후학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도 싶다.

– 말도 못해봐?

(참고) 지구와 인류문화유산을 보존 ·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현재 690건이 등록되어 있다.

땅을 파다보니…

서 봉 수 *

· · ·

'역사' 라는 단어가 안겨주는 막연한 매력으로 사학과에 입학한 지가 벌써 15년. . .

일천(一淺)하기가 그지없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알 것 마냥, 안 것 마냥 기고만장한 때도 있었는데 그러한 자만감은 어데로 갔는지…. 거대한 폭풍 속에 내던져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15년 전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그 어린아이가 조금은 성장하여 그 거대한 폭풍의 존재를 깨닫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어느 큰 스님이 말씀하셨다. '오직 모를 뿐' 이고 '오직 할 뿐' 이라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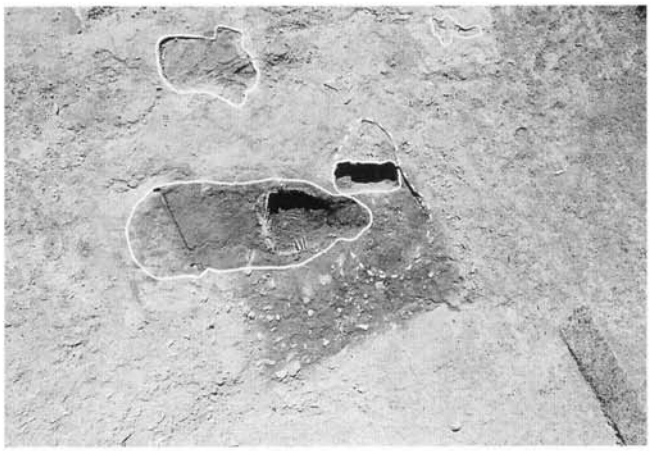
내가 감히 깨우침을 얻으신 분의 말뜻을 알고 그 진정한 자세를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그저 '모를 뿐' 이라는 단어가 주는 동질감과 함께 '할 뿐' 이라는 단어가 주는 괜한 안도감은 무엇일까? 나는 또 오직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역사라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작은 조각배의 사공 심정이 내 마음 같을까?

기와 조각 하나

내리쬐는 뙤약볕, 무심한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어 빗방울 하나 내려주지 않던 어느 여름날, 발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더위에 지친 남학생들은 이젠 거의 팬티 패션! 한술 더떠서 딴에는 잔꾀를 부린답시고 그늘진 트렌치를 찾아 지친 몸을 숨기고 삽질을 하는 내 모습이 측은했는지 현장을 찾아온 어느 선배가 다가와 말을 건넨다. 기와 조각 하나 들고서….

일장연설이다. 조그만 기와 한 조각 코 앞에 내밀고는 문양이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여긴 이렇게 만들어 활용했다는 둥, 근 30분을 설교(?)한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도 순간 한가닥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기와 한조각에도 저토록 많은 의미가 있었구나. . .' 그 동안, 화려하고 멋드러진 유물에만 눈길을 주곤 했던 내 마음이 기와 한조각으로 그렇게 진지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아마

*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남양주 호평동에서 발견된 기와 굽던 가마

그 선배는 자신이 의도한 바를 가장 소박한 기와 한조각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려 한 모양이었다. 더위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쳐 모든 일이 타성화 되어갈 즈음이었다. 선배는 이런 후배의 힘든 모양새를 직접 꾸짖거나 몇 마디 말로 위로하기 보다는 유물 한 조각에 깃든 옛 사람들의 땀과 정성을 느끼게 하여 하찮아 보이는 흔한 기와 한 조각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한 듯하다. 결국,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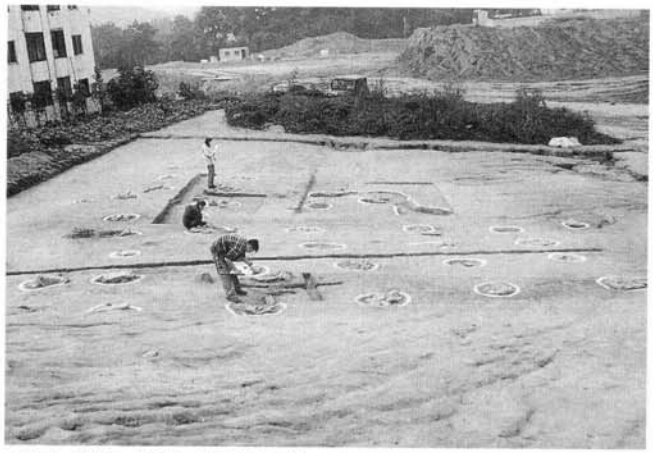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선배의 의도는 성공적이었다. 지식이라는 것은 기억하여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질 때 진정 내 것이 되는 가 보다. 무심했던 내 마음은 그 선배의 따뜻한 경고(?)로 옛 것을 대할 때 갖춰야 하는 자세를 새롭게 추스릴 수 있었으니까. 그 후 몇 년,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기와를 소재로 한 석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그때의 일을 떠올려 보곤 한다.

과거와 마주보기

요즘 내가 하는 일은 소위 발굴 현장에서 땅파고 쳐다보고 땅파고 또 쳐다보는 일이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조사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은 땅파기와 흙을 쳐다보는 일이다. 걸을 때에도 서있을 때에도 땅을 쳐다보고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 가끔은 수상한 놈으로 몰려 신원조회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땅을 보고 살아간다. 일종의 직업병이다. 남들은 산세나 자세를 보고 풍경을 감탄할때 우리들은 저 곳엔 어떤 유적이 있을 법하고 또 저 곳에 이런 유적이 있을 것이라고 쉴 새없이 눈과 머리를 괴롭힌다. 각설하고….

우리가 과거인들의 삶의 형태와 흔적을 알려고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곧 과거인들이 남긴 삶의 다양한 표현물들이다. 이를 흔히 史料, 즉 역사적 자료라고 알 수 있다. 현대에는 영상물이라는 것도 있어 현대의 삶을 그대로 사진이나 영화처럼 남겨 일정기간동안에는 그것이 후대로 남겨지기도 하지만, 아주 오랜 옛날, 그러한 매개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한 매개물로서의 역사적 자료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가 있다.


남양주 평내동 건물지 발굴조사 모습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등 옛 사람들의 기록들을 총칭하는 문헌사료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헌 기록물들은 당 시대인들의 정신적 결과물이고 표현물이다. 비록 그 결과물들이 그 시대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내지는 못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들은 이러한 문헌사료를 바탕으로 대강의 줄거리가 작성된다.

한편, 문헌자료는 그 시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기술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작성자의 개인적 주관이나 그 시대의 사상관이 개입되어 기록 그 자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따라서 역사를 전공하는 자는 사료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기도 한다.

그러면 문자가 발생하기 전이나 문자가 있었어도 문헌사료와는 또다르게 남겨진 것들은 무얼까?

이것이 바로 고고학적 자료들이다. 고고학적 자료라는 것은 과거인들이 남긴 기록물 외의 모든 물질자료를 총칭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발굴조사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수습되어 문헌사료가 갖지 못하는 생생한 역사적 상황을 온 몸으로 표현하여 준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유적이나 유물자료들은 문헌사료보다 당 시대의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표현하는 데에 더욱 가감없는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문헌사료와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오해되고 뒤틀려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따름이다.

어쨌든 그 시대 문화의 생생한 현장은 발굴이라는 고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땅 속에 묻힌 구조물이나 유물들은 흙이 한켜한켜 벗겨지면서 제 모습을 드러낼 때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과거의 일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고고학자와 도굴꾼

'인디애나 존스'는 사람들에게 '고고학자'로서 대명사적인 인물일 것이다.

그는 참으로 멋지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유적과 유물을 찾아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는 모험의 과정을 거쳐 결국은 진귀한 유물들을 손에 넣으니 말이다. 가히 고고학자가 아닌 고고학신이라고 해야할까? 존스 덕분일까? 현장의 많은 조사자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물탐사하는 탐험가 정도로 보이나 보다. 하지만 인디애나 존스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고고학자보다는 도굴꾼에 더 가깝다. 조금 좋게 표현하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출발할 때 도굴과 수집이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때의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해야할까?

지금의 고고학은 종합 과학 그 자체이다.

옛 것의 모든 것을 땅속에서 구하고자 하니 현대의 발달된 학문분야의 모든 정보가 고고학에 집결된다.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계량화되고 분석되며 최근에는 자연과학 분야의 도움도 절대적이 되어 흙속에 담긴 유기물의 분석에까지 그 수준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결국은 땅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과거사 복원을 위한 자료화가 되었다. 따라서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과 도굴꾼과는 그 시작(?)은 같았을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땅을 판다는 공통점 외엔 별다른 공통점도 없다. 고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행위의 결과물인 옛 유구(구조물)나 유물 등 땅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과거인의 산물로서 모두 소중하게 취급하는 반면, 도굴꾼들은 오로지 완형의 유물만을 개인의 경제적 가치로써 소중(?)하게 여길 따름이다. 더 나아가서 고고학자는 유구나 유물 그 자체의 역사적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유물이 어떠한 상태에서 모습을 나타내는가, 즉 출토위치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면, 도굴꾼들은 단순히 유물의 상대적 희소성과 작품성만을 가지고 돈을 매긴다.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고고학을 한다는 사람과 도굴꾼과는 종이 한 장 차이일수도 있다. 만약 고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출토되는 유물에 대하여 물적 욕심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그는 도굴꾼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 될테니까. . .

하지만 다행히 난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는 접하지 못했다.

현장 생활 하나

조사현장에는 참으로 일도 많고 탈도 많다. 전국에 땅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다 느끼는 것들이지만 말이다.

땅과 씨름하기도 머리아플 지경인데 조사를 이끄는 현장 조사원은 현장 조사외에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 대부분의 현장이 작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30명의 인간들이 한 곳에 모여 생활하며 발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무리의 조사단이 발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져야 할 조건과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숙소, 식사, 음주, 인간관계 등등 . . . 현장조사의 책임자들은 이런 문제아닌 문제들에 오히려 조사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가지 예만 들어보자. 가장 부담되는 것은 역시 먹고 자는 문제일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람이 모였으니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조사에 선행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현장 조사자는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만 한다. 이 경우 어찌되든 숙식을 해결하게 되지만 얼마나 부담이 적으면서 조사원들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향후 발굴조사의 능률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한적한 시골 동네인 경우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그 지역의 이장댁이라던가, 마을회관, 또는 동네유지들이 계실 만한 곳이다. 아무래도 현지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숙소는 커녕 현장인부를 비롯해 마땅히 식거리를 해결할 곳마저 구하지 못해 애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숙소를 구하러 다니면서 우선적으로 그 동네의 인심이 파악된다. 얘기가 잘되서 마을회관이라도 얻을 성 싶으면 더할 나위 없이 상중상(上中上)이었다. 지금까지 얻어본 숙소 중에 그래도 가장 경제적 부담도 적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은 마을회관인 것 같다. 이렇게 동네 어른들의 도움으로 숙식을 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다른 경우보단 적긴 해도 나름대로 신경쓸 일도 생긴다. 어른신들의 놀이공간을 잠시 빌렸으니 때때로 막걸리나 음료수라도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놀러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가 놀이거리가 되어 특공대를 조직하고 빈대떡도 부치고 술도 받아와서는 춤과 함께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식으로 숙소 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진다. 세상이 각박해져 이젠 대부분 월세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처지에 정상적인(?) 거래관계하에서는 대식구가 머물만한 곳을 구하기란 갈수록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도심지에 가까운 현장보다는 아무래도 시골 동네가 그래도 인심이 남아있어 집주인과 얘기만 잘되면 집 한 채를 거져 쓰다시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나도 도시인이긴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정보다는 철저한 이권과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숙소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안산이나 인천 등 공장지대나 상권이 밀집해 있는 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숙소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형편에 맞게 머물만한 곳은 더 없다. 그래서 결국 여인숙 쪽방을 비싼 값에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하고선 그것도 눈치보며 한달, 한달을 생활하기도 했다.

그렇게 일년에 두 세 번은 같은 짐을 풀고 싸고 한다. 어느 만화영화에서 캡슐에 큰 집을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는 사용하는 것을 보면 괜히 발굴장을 생각하며 부러워하는 내 자신이 처량하다.

아! 몇 번이나 짐을 싸고 풀어야만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현장생활 둘 – 술과 일

현장의 조사단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활력소 중 하나가 술인 것 같다. 현장생활 자체는 어찌보면 참으로 단조롭기 그지없다. 해뜨면 일어나 아침 먹고 일나가서 때되면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참먹고 일하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이면 현장정리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온다. 이런 생활의 반복이다 보니 마치 군대 생활같기도 하여 사람들의 머리는 점차 단순화되고 급기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도 한바탕 웃기도, 울기도, 싸우기도 한다. 그리곤 바로 잊어버린다. 소위 "발굴병"에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 누군가가 소주라도 한잔하자고 할 때면 그제서야 마치 인간으로 돌아온 냥 눈에서는 빛이 나고 입에서는 향내가 난다.

요즘은 시골 읍내에도 PC방이니 만화방이니 들어서서 놀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종일 일 마치고 돌아와서 굳이 차타고 읍내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잠깐 TV에 눈을 뺏았긴 채 멍청히만 있다간 모두가 바보아닌 바보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에서 술은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여 조사단을 하나로 묶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술자리는 곧잘 발굴문제, 이성문제, 인생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안주거리고 이어져 술자리가 자정을 넘기는 것은 예사일이 되버린다.(그래서 발굴커플이 많다.) 밤새 술을 먹고 다음날 일어나 항상 후회해도 그 전날과 다른 끈끈한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은 그래도 현장일을 해본 사람이면 느끼는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사회나 조직체에서도 그렇듯이 술이란 적당히 마시고 정리할 때가 가장 좋다. 비록 말뿐이지만…. 최근에까지 난 남양주의 한 현장에 있었다. 거기서 우린 경찰서를 두 번 갔는데 그 사건 둘은 아직도 가끔 나를 섬뜩하게 한다.

기분좋은 밤이었다. 하늘엔 별이 총총, 달도 휘영청하니 주말이라고 먼 곳에서 현장을 찾아와 준 옛 전우(함께 일했던 후배들)와 함께 지난 일을 회상하며 얼큰하니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 막 잠이 들었다. 잠결에서 '후타닥, 타닥' 하는 소리가 귓전을 간질이지만 개의치 않을 정도로 기분좋게 술에 젖어 있었다. 갑자기 옆에 자던 후배가 '불이다' 하며 오뚜기처럼 일어나 창문을 연다. 우리 숙소의 건너편은 바로 발굴현장이고 그 옆에는 작은 의류 재활용공장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불이 났다. 크게도 났다. 우리 조사단은 모두 일어나 우르르 밖으로 뛰쳐 나갔고 그 중 일부가 길 건너 공장으로 마구 뛰어 가는게 아닌가! 그러자 조건 반사적으로 모두 우르르 뛰어간다. 가지말라는 내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 아무도 듣지를 않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도 잘도 뛰어간다. 아마 낮에 현장에서 일할 때 공장옆의 작은 간이 숙소에서 뛰놀던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스치고갔기 때문이리라. 나도 뛰었다. 후배들은 자고 있을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는 행여 우리 조사단원들이 술먹고 섣부

른 행동을 하다 다칠까봐 가지 못하게 하려고 · · · 그래도 참 다행이었다. 불은 작은 공장을 모두 불태웠지만 숙소까지는 번지지 않아 우리 조사단원들 덕분에 잠에서 깨어난 공장 부부와 애기들은 아무런 상해도 없었으며 결국 애들을 막지 못한 나도 뒤늦게 개 두 마리를 구하는 섣부른 구조활동(?)을 펼치고는 곧이어 도착한 경찰과 소방서에 화재사건을 인수인계하였다. 그 다음날, 우린 경찰소장의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발굴현장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는 '빈 말'을 듣고선 잠도 제대로 못자 힘들었던 보람찬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 어려운 일은 일어났다. 그러나. . .

다른 한 사건은 남양주에서 철수하기 전에 발생하였다. 어느 한 발굴현장의 일이 마무리되면 대부분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여 해단식을 갖는다. 철수를 한 이틀 앞두고 우린 그 날 따라 1년 2개월여 동안 몸 담아왔던 남양주 현장을 떠나려는 착잡한 심정때문이었는지 상당히 감성적인 상태였다. 인사불성될 정도로 취한 사람은 없었으나 술 자리를 정리하고선 바깥에 바람쐬러 간다는 한 무리를 막지 않은 것이 나의 첫 번째 불찰이었다. 밖에 나간 단원 중 한 명이 뒤늦게 술이 올라 들판에 드러누웠다는 전갈을 받은 것이 자정 무렵, 나와 함께 잘 준비를 하던 후배 하나가 나 대신 술을 조금 먹은 죄로 나의 애마(코란도)를 끌고 뻗은 친구를 데리러 나갔으니, 아무리 허허벌판 공사현장이라 해도 가로등 하나 없는 벌판에서의 익숙치 않은 운전을 조장한 나의 죄가 또한 크다. 결국 현장으로 들어오는 중 깜깜한 2m아래 고랑길에 차는 자신의 배를 드러내고 말았다. 천만다행으로, 차가 튼튼해서인지, 차 안에 타고 있던 발굴단원들은 크게 다친 곳이 없었으나 견인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는 경황중에 몇몇 단원이 남양주에서의 마지막 밤을 남몰래 경찰서에서 보냈고 나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 사실을 모른채 숙소에서 잠만 퍼잤다. 이것이 나의 세 번째 죄다. 결국 나와 몇 년을 동거동락했던 애마는 남양주 현장철수와 함께 가장 먼저 정리되었고 우리는 공무에 충실한 경찰관을 괜히 욕하고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하나 더하고선 발굴장을 떠나왔다.

· · ·

지하철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본다. '넌 뭐냐?' 나는 난데 차창에 비친 나는 참으로 많기도 하다. 때론 잘생기고 자신감에 차 있는 누군가가 웃고 있고, 때론 못생긴 주제에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후자쪽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경우일까?

주저리, 주저리 되지도 않는 말을 늘어 놓았다.

언제쯤 '오직 모를뿐'에서 '오직 알뿐'이 될까? 아마 '오직 알뿐'인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오직 모를뿐'만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모를뿐'을 알고 오직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만 바랄뿐이다. 나에게서 말이다.

Ⅵ. 부록

1991~2000년 경기지역 문화재조사 자료

1991년도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파주 서곡리 벽화고분	고려	파주군 진동면 서곡리	국립문화재연구소	4.6~5.3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1993	
		고려 말기의 유적으로 군사보호구역내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확인되었다. 고려시대의 벽화묘가 주로 북한에서 발견되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고분의 구조는 물론 주인공과 그 신분, 분묘의 조성연대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고려 귀족층의 무덤양식 변천사와 미술사, 민속학, 금석학 연구 등에도 중요한 자료를 보탰다.						
2	안산 선부동 고인돌	청동기	안산시 선부동 산32 시흥시 군자동 산51-1	명지대박물관	4.25~5.3	〈안산 선부동 지석묘발굴조사보고서〉, 1991	
		이 고인돌군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정수장건립예정지에 위치하여 구제발굴이 시행되었다. 총11기가 조사되었으며 일단병식석검, 석촉, 반달돌칼, 각종 민무늬토기 등이 수습되었다. 시대는 무문토기 전기에서 중기로 보았으며 그 중심연대는 B.C.600-500년으로 보았다.						
3	일산지구유적	복합	일산 택지개발 지구 일대	1) 한국자원연구소 2) 경북대학교 3) 중앙대학교 4) 한국선사문화연구소 5) 충북대학교 6) 단국대학교 7) 성균관대학교	5.8~9.16	〈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1,2)〉, 1992	
		1권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내용이고 2권은 민속조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일산지역 유적발굴조사에서는 고고학발굴단과 자연과학조사단이 함께 현장작업을 함으로써 유적형성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4	파주 금파리 선사유적	구석기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국립문화재연구소	6.24~8.18	〈금파리 구석기유적〉, 1999	3차
		89년도의 1차 조사, 90년도의 2차 조사에 이어 3차로 A, B지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1, 2차 발굴에서 드러난 동류의 유물들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3차 조사에서는 총 619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불규칙한 것들이 많았고 깊이의 변화도 많았다.						
5	통일동산지역유적	통일신라 등	파주군 탄현면, 교하면 등	경희대고고미술연구소 등 3개 대학	8.30~10.31	〈통일동산 및 자유로개발지구 발굴조사보고서〉, 1992	
		통일동산지역 유적 중 성동리 고분군에서는 삼국말의 신라 석실묘4기, 석곽묘5기, 조선시대 토광묘 29기 등 3가지 묘제가 확인되었다. 이들 고분군의 시기는 출토 유물 중 고배굽, 장경호의 변화와 토기완과의 관계로 미루어 7세기 초엽 전후로 보고 있으며 토광묘는 16세기 후반 전후시기로 보았다.						
6	하남 이성산성	삼국~통일신라	하남시 춘궁동	한양대박물관	9.12~11.14	〈이성산성〉, 1992	4차
		2차 저수지 내부조사와 1차 저수지의 護岸線을 확인조사하였으며 다수의 목제품들과 토기류, 철기류, 청동방울 등 59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7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리 151, 156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11.8~11.30	〈보성강 · 한탄강유역구석기유적〉, 1994	8차
		제5지구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전곡리 제2지구의 강쪽에 배치되었던 피트와 유사한 층위가 여기서도 확인되고 다량의 석기가 채집되었으며 중부홍적세 때의 기후환경 복원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8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	신석기~고려	하남시 미사동 일대	숭실대/고려대/경희대/성균관대/한양대/서울대	90.12.26~91.12.26	〈渼沙里(1)~(5)〉, 1994	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라 87년에 이어 실시된 2차 연합발굴이다. 신석기시대 야외노지와 청동기시대 · 원삼국시대의 수혈주거지, 백제의 경작지 등 466여기가 조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2년도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한양대문화인류학과	4.6~5.3	〈전곡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92	9차
		제2지구의 중앙부에서 평면을 이루면서 출토되는 석기군은 지질학적 변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고인류의 행위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지형 복원을 통하여 유로의 범위를 확인하고 두 지역의 관계를 검토한다면 고인류의 행위와 거주양식의 복원에 중요한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양평 병산리 선사유적	구석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단국대박물관	4.7~5.6	〈양평 병산리 유적〉, 1992	1차
		20개 정도의 시굴 구덩에서 5개의 지층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중 2,3,4층에서 뗀석기가 출토되었으며 1층에서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토기, 돌도끼, 돌끌 등이 수습되었는데, 특히 양덕리에서 발견된 유적의 토기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3	고양 중산지구 유적	통일신라~조선	고양군 일산동 더부골	명지대/한양대박물관	4.27~5.28	〈고양중산지구문화유적〉, 1993	
		더부골 고분군을 I, II지구로 나누고 한양대박물관과 명지대박물관이 공동발굴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대체로 고려 후기에서 조선전기에 걸치는 토광목곽묘, 석곽묘 등의 고분군 유적으로 유물은 토기, 청자류, 청동수저, 철제편 등이 수습되었다.					
4	광주 백자가마	조선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이화여대박물관	6.8~7.30	〈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附 牛山里9호 窯址發掘調査報告〉, 1993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으로 보이는 백자가마 유적이다.					
5	파주 금파리 선사유적	구석기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국립문화재연구소	7.16~8.22	〈금파리 구석기유적〉, 1999	4차
		3차 조사지역의 남쪽으로 피트를 연장하였다. 적색점토층 내에서 석기유물이 비슷한 층위높이를 이루면서 출토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를 요한다.					
6	연천 삼곶리 적석총	삼국	연천군 중면 삼곶리	문화재연구소	10.5~11.4	〈漣川 三串里 百濟積石塚發掘調査報告書〉, 1994	1차
		91년도에 군사보호구역내 지표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학술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계획되고 1차 조사로 먼저 토층조사와 유구실측이 이루어졌는데 적석총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7	자유로2단계개설지역	통일신라~조선	파주군 탄현면 대동리, 사목리	한양대문화인류학과/호암미술관	10.19~93.4.16	〈자유로2단계개설지역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93	
		사목리 지석묘군, 대동리 4기층, 법흥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위의 2기관에서 실시하였다. 법흥리 고분군에서는 통일기의 석곽묘에서 시작해 고려 및 조선 초중기로 보이는 토광목관묘가 다수 발굴되었다. 대동리 4기층에 대한 시굴에서는 또다른 유구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8	연천 남계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건국대사학과	11.21~12.22	〈보성강 · 한탄강유역 구석기유적〉, 1994	2차
		89년에 이어 2차 발굴이 실시되었다. 결과 남계리의 한탄강 지역에는 중기 구석기시대 층위,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층위, 후기구석기시대 마지막 층위 등 세문화 층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모두 266점의 석물이 채집되었으며 그 중 석기는 51점이다.					
9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	신석기~고려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숭실대박물관/고려대/한양대박물관/서울대박물관	95.5.28~93.2.3	〈渼沙里(1)~(5)〉, 1994	3차
		87년의 1차, 90-91년의 2차에 이어 3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466여기의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의 수혈주거를 비롯하여 백제 경작유구가 조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	산본 청화백자 요지	조선	군포시 산본동 골안마을	충북대선사문화연구소	12.17~93.2	〈軍浦 山本洞 靑畵白磁窯址〉, 1993	
		고려시대부터 전통이 이어져 오고있는 관악산-수리산 지역 도자문화의 특색을 살필 수 있는 유적이다. 연대는 18세기 전반 경의 지방 청화백자로 보고있으며 광주 선동리나 금사리요와 비교하고 있다.					

1993년도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광주 백자가마 (2,3호)	조선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해강도자미술관	4.6~4.21	〈廣州 牛山里 白磁 窯址〉, 1995	
		안바닥에 '內用' 명문이 남아 있는 백자류가 수습되어 15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사용된 가마로 보았다. 특히 상품의 백자와 조질계 백자를 함께 생산하여 進上과 貢納을 병행했던 가마로서 官窯와는 달리 운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연천 삼곶리 적석총	삼국	연천군 중면 삼곶리	국립문화재연구소	4.27~5.26(2차) 6.21~7.27(3차)	〈漣川 三串里 百濟積石塚 發掘調査報告〉, 1994	2차 3차
		2차는 무덤의 구조확인을, 3차는 세부조사와 실측조사에 주력하였다. 연접하고 있는 쌍분에서 각각 1기의 묘곽과 추정 제사유구가 조사되었고 무덤보호 시설도 확인되었으며, 목걸이 두 개체분과 철촉 2점, 토기편 및 부서진 인골편 등이 수습되었다. 무덤의 구조는 고구려 적석총의 양식을 따랐으나 유물은 백제계이다.					
3	파주 가월리, 주월리 선사유적	구석기	파주군 적성면 가월리, 주월리	서울대고고미술사학과	7.23~8.31	〈파주 가월리, 주월리 구석기유적〉, 1993	시굴
		이 유적의 석기공작은 임진-한탄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바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찍개, 긁개, 몸돌 등의 대형 석기류와 소형 긁개, 홈날, 사용된 석재 등도 다량수습되었으며 발굴과정에서 드러난 소형석기, 망치돌 및 몸돌 등의 유물들은 석기제작과정의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4	화성 백곡리 고분	삼국	화성군 마도면 백곡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9~9.9	〈화성 백곡리 고분〉, 1994	
5	경희궁자정전자리	조선	서울 종로구 신문로	명지대건축문화연구소	10.20~12.19	〈경희궁 숭전전 회랑 및 자정전 발굴조사보고서〉, 1995	
6	파주 다율리, 당하리 지석묘	청동기	파주군 교하면 다율리 당하리	한양대문화인류학과/한국선사문화연구소	10.26~28	〈多栗里,堂下里 支石墓 및 住居址〉, 1994	
		다율리와 당하리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 16기에 대한 공동발굴 조사이다. 개석의 이동 가능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동기시대의 장방형 수혈주거지가 노출되었으며 공열토기, 무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반월도, 석착 등의 다양한 석기류가 수습되어 이 시기의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더했다.					
7	양평 병산리 선사유적	구석기	양평군 강산면 병산리	단국대박물관	12.6~94.2.4	〈양평병산리유적(2)〉, 1994.	2차
		1차에 이어 2차조사를 실시하여 각 발굴지점별로 문화층의 군과 함께 지층의 형성시기와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퇴적상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 5단계의 큰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병산리 5기, 3기, 1기에서 뗀석기가 수습되었다.					

1994년도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아산국가공단조성지역유적	구석기·조선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 등	한신대박물관 등2	2.4~3.11	〈아산국가공단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95	
2	시흥 오이도 패총	신석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서울대박물관	4.6~5.20	·	
		오이도 북부패총군 중에서 소래벌패총에 대한 조사로 88년도에 실시된 남부패총군의 신포동패총군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된 발굴이다.					
3	서해안고속도로(안산-안중)구간유적	고려~조선	안산 부곡동 일대 화성일대 평택일대	1) 단국대박물관 2) 서울시립대 박물관 3) 고려대박물관 4) 이화여대 박물관 5) 충북대선사 문화연구소 6) 한국자원 연구소	4.30~7.28	〈서해안고속도로(안산~안중간)유적발굴조사보고서(1,2,3)〉, 1995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과정에서 파괴될 매장문화재에 대한 구제발굴조사이다. 여러 대학이 연합조사단을 이루었으며 발굴조사 완료 후 전 3권에 걸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4	용인 좌항리 고분군	고려	용인군 원삼면 좌항리	명지대박물관	5.18~8.17	〈龍仁 佐恒里 高麗墳墓郡發掘調査報告書〉, 1994	
		주묘제인 석곽묘 13기 사이에 3기의 토광묘가 혼재되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주로 목관과 입구 사이에 매납되었다. 청자, 백자, 녹청자, 동경, 청동과대, 동곳, 철제가위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편년은 자기의 기형과 번조 상태 등으로 비추어 11세기 중반으로 보았으며 토광묘와 석곽묘는 동일 시기의 묘제로 추정하였다.					
5	경복궁 동궁지	조선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국립문화재연구소	6.21~11.26	〈경복궁〉, 1995	
6	수원 영통동 유적	고려	수원시 권선구 영통동	한신대박물관	6.25~9.15	〈水原 靈通高麗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96	
		고려시대 생활유적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사결과 일부 조선시대층과 교란되어 있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고려시대의 용도불명한 석렬구조가 확인되었다. 이 문화층에서 마제석검, 반월형 석도, 유구석부의 파손품 등 청동기시대 유물들이 채집되어 확장발굴을 통하여 선사문화층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7	여주 상리 미술관 부지내 유적	통일신라~조선	여주군 여주읍 상리	한림대박물관	10.17~11.19	여주 상리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시굴
		미술관과 야외조각전시장 건립지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총 7기의 파괴된 석실고분과 조선시대 토광묘1기가 확인되었으며, 석실분의 경우 상리를 포함한 여주 일원의 고분군은 통일신라기의 무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8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	원삼국	포천군 영중면 영송리	한양대박물관	7.16~9.14	〈영송리 선사유적〉, 1995	
		북한강 및 서울의 한강변에서 나타나는 원삼국문화와 연결되는 문화양상이 임진·한탄유역에서도 나타나 주목을 끈 유적이다. 좁은 지역이기는 하나 주거지가 연속적으로 발견되었으며 특히 1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유구가 발견되었고 토기류는 주로 경질무문토기류가 수습되었다.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0	이천 효양산유적	삼국	이천군 부발읍 신촌리	호암미술관	10.6~11.24	〈이천효양산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95	
		효양산 유적에서는 주거지1동, 고상가옥의 주혈 및 소형 수혈, 유물포함층을 비롯하여 토성의 단면조사가 이루어졌다. 토성의 하층에 백제 생활유적이 비교적 넓게 분포하며 상당량의 백제토기편을 포함하는 토기편과 철기 4점, 청동방울 1점, 목기1점 등이 수습되었다.					
11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한양대박물관	11.16~95.5.30	〈전곡구석기유적 1994-1995년도 발굴조사보고서〉, 1995	10차
		이 발굴에서 꼽는 주요 성과는 박리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물집중지점의 발견과 층위구조의 확인이다. 대부분의 유물은 규암 또는 석영암제 강돌을 이용한 임의 가공 형태의 석기들이다. 석핵,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박편, 석편 및 석핵류와 반입석재, 천석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12	의정부 민락동지구유적	구석기, 백제	의정부시 민락동	서울대박물관	94.11.17~12.26 98.3.4~4.16	〈의정부 민락동유적〉, 1996	시/발굴
		후기구석기시대의 흑요석제 석기와 박편 40여 점, 백제시대 수혈주거지, 고상식가옥, 경작유구 등의 유구와 백제토기편이 다량 발견되었다. 이들 토기류는 한강유역에서 출토되는전형적인 백제토기와 형태상 유사 하나 일부 기종에서는 늦은 시기의 특징이 확인되고 있어서 대략 5c 중엽에서 6c로 그 연대를 추정하였다.					
13	안성 망이산성	삼국	안성군 일죽면 금산리·망이산	단국대박물관	94.11.28~96.6.20	〈망이산성발굴보고서(1)〉, 1996	1차
		1차 조사에서는 봉수대 주변, 서문지의 건물지와 2호 치성 및 남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구별 초축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며 유물은 청동기시대 토기도 보이지만 통일기의 유물이 주로 보인다.					

1995년도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화성 송라리 고분군	조선	화성군 매송면 송라리	고려대박물관	2.14~4.10	〈송라리분묘군 발굴조사보고서〉, 1995.	
2	포천 반월산성	삼국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단국대박물관	7.27~9.26	〈포천 반월산성 1차발굴조사보고서〉, 1996	1차
		장대지, 북문지, 서치성, 헬기장 주변의 건물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馬忽受解空口單' 명문와를 비롯하여 호, 뚜껑, 고배, 완, 대부발, 접시 등의 토기가 다량 수습되었다.					
3	양주 대모산성 동문자리	삼국	양주군 주내면 어둔리 산99/유양리 산100	한림대박물관	8.28~10.26	양주 대모산성 동문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5차에 걸쳐 진행된 문화재연구소 발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산성의 전반적 구조와 잔존상태를 완전히 밝히고자 추정 동문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4	과천 온온사지	조선	과천시 관문동	수원대박물관	8.9~9.25	〈穩穩舍〉, 1996	
5	경희궁 회랑지	조선	서울 종로구 신문로	명지대한국건축문화연구소	6개월동안	〈경희궁 숭전전 회랑 및 자정전 발굴조사보고서〉, 1995	
6	평택 현화리 개발지구 유적	구석기·백제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충북대선사문화연구소	9.23~96.2.12	〈평택 현화리 유적〉, 1996	
		구석기를 포함한 제4기 고토양층, 공열, 각목문, 이중구연 등 동북한과 서북한계의 특징이 보이는 무문토기가 반출된 움집터 5기, 광구유경호, 단경호, 낫, 자귀, 손칼, 집게 등이 부장품으로 확인된 5세기 초반 경의 백제토광묘 등이 확인되었다. 그외에 백제토기를 생산하던 가마터,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5기의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7	용인 풍덕천리 개발지구유적	백제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한신대박물관	9.30~11.25	〈용인수지2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95	
8	양주 송산사지	조선	양주군	서울시립대박물관	9.27~11.25	〈양주 송산사지〉, 1996	
		조선개국에 참여하지 않은 고려말 충신 6인의 절의를 추앙하여 양주의 유림과 후손들이 18세기 말에 건립한 사우로서 발굴조사 결과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의 건물지 및 담장지를 확인하였다.					
9	김포 문수산성 서남단도로개설 지역내 유적	조선	김포군 월곶면 성동리	한양대박물관	10.4~	〈文殊山城〉, 1996	
		문수산성의 남서쪽 성곽이 강화 제2대교와 강화-양촌 간의 확장도로 접합부에 해당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화강석재의 치석으로 만들어진 성곽유구가 노출되었으며 성벽의 교차점에서 雉를 확인하였다. 지층이 교란되어 유물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으나 조선후기 성축조방식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0	화성 당하리 고속철도구간 유적	백제	화성군 봉담면 당하리	서울대박물관	250일간	〈화성 당하리 I 유적〉, 1999	
11	평택 원정리 유적	신석기, 청동기, 조선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아주대박물관	11.29~96.2.15	〈科技考古研究〉2집, 1997	
12	화성 행궁지	조선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한양대/수원대박물관	95.12~96.2	〈화성행궁지〉, 1996	1차
		御道가 확인되고 지하에 매몰된 長臺石列이 확인되었다.					
13	영종도 송산 선사유적	신석기	인천시 중구 중산동	서울시립대박물관	11.25~96.1.8	〈영종도 송산 선사유적〉, 1996	
14	화성 연양리 유적	원삼국~통일신라	여주군 영주읍 연양리	국립중앙박물관	95.11.13~12.12	〈여주 연양리유적〉, 1998	1차
		원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구 5기가 조사되었으며 원삼국시대의 철기생산과 관련된 다수의 슬래그와 단조박편이 수습되었으나 추위로 인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15	풍납토성 인근지역	삼국	서울시 송파구	한양대박물관	1995.5~	〈風納土城隣近地域試掘調査報告書〉, 1996	
		중앙병원의 복지시설 부지에 풍납토성의 해자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결과 뚜렷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으나 트렌치 내부에서 각종 백제토기류가 출토되어 풍납토성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였다.					
16	강화 관청리 외규장각자리	조선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한림대박물관	95.10.1~12.19	조선궁전 및 외규장각지 발굴조사약보고서	1차
		병인양요 때 소실된 외규장각의 전모를 밝혀 복원자료로 이용하고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조선궁지의 전체 경계는 2차 발굴예정지보다 더 넓은 범위로 보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도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고양 원당동 태비석군	조선	고양시 원당동	국립문화재연구소	3.20~4.19	〈西三陵胎室〉, 1999	
		조선왕조 태실 표석군 보호를 위해 시멘트담장과 철문을 철거하고 경종의 태실 등 3기의 태실에 대한 시굴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태비석군 전체를 정식으로 발굴하여 태지석 및 태항아리의 매장형식 등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결과 경내에서 태실 54기와 태실 내에서 출토된 태항아리와 지석 등이 수습되었다. 특히 일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신사문과 日자형 담장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고양 북한동 중흥사지	고려-조선	고양시 북한동	명지대한국건축문화연구소	4.9~9.9	〈북한산 중흥사지 발굴조사보고서〉, 1997	
3	연천 원당 구석기 유적	구석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건국대박물관	7.15~8.20	〈漣川 元當里 舊石器時代 遺蹟〉, 1997	1차
		발굴자는 원당리 구석기 유적을 한반도 최초 도래인의 생활터전으로 보았다. 이는 원당리 7층 유물의 유형과 층위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층위로서 약 15-2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다. 2층, 4층, 6층, 7층에서 긁개, 밀개, 단면기, 석핵, 첨두기, 박편 등 타제석기 29점이 수습되었다.					
4	포천 반월산성	삼국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단국대사학과	6.20~8.20	〈포천 반월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1997	2차
		남문지와 주변의 건물지, 나지역의 토광, 북문지, 서치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와류 뿐 아니라 연화문 수막새, 당초문 암막새 및 각종 토기류, 철기류가 수습되었다.					
5	화성 행궁지	조선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한양대/수원대박물관	8.12~10.20	〈화성행궁지〉, 1997	2차
		1차 조사의 동쪽으로 연장하여 어도, 복내당지, 유여택지와 경룡관지, 중앙문지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고 유물로는 생활자기류, 경질토기류, 철정, 잡상, 상평통보 등이 수습되었다.					
6	용인 마북리 단국대 이전 부지내 유적	통일신라-고려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2-2	단국대한국민족학연구소	5.27~6.25	〈용인 마북리 유적〉, 1997	2차
		돌덧널무덤, 움무덤 등 통일신라와 고려기에 걸친 총 9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거의 도굴된 상태로 도기류, 인화문토기, 청자류, 청동수저, 동곳, 관정, 청동합 등이 수습되었다.					
7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청동기	부천시 고강본동 산93-1·2, 산89-2, 산90, 산92-68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8.3~9.6	〈富川 古康洞 先史遺蹟 發掘調査報告書〉, 1996	1차
		주거지 5기가 확인되어 한강 이서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청동기시대 집단 취락유구임이 확인되었으며 석곽묘 1기가 더 확인되었다. 이곳의 무문토기는 구순각목과 공렬이 혼합된 한강변의 양식을 띠고 있으며 다수의 반월도를 포함하는 마제석기가 출토되었다.					
8	광명 가학동 지석묘	청동기	광명시 가학동	한양대박물관	11.12~	〈광명 가학동 지석묘 발굴조사보고서〉, 1997	
9	파주 주월리 선사주거지	신석기, 청동기, 삼국	파주시 주월리	한양대박물관/경기도박물관	1996.11~	〈파주 주월리 유적〉, 1999	
10	경부고속철도 서울·경기권 문화유적조사	원삼국-삼국	화성군 매송면 송라리/봉담면 왕림리/봉담면 마하리/향남면	서울대박물관	96.4~	〈경부고속철도 서울·경기권문화유적 지표·시굴조사보고서〉, 1996	시굴
		이 지역에서는 백제 형성기의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7년도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여주 연양리 유적	원삼국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전 30.-1,30.-3	국립중앙박물관	3.24~5.12	〈여주 연양리유적〉, 1998	2차
		원삼국시대에 조영된 5기의 온전한 수혈주거지와 다양한 형태의 노지, 제철관련 유구 등이 확인되어 한강유역의 원삼국기 문화와 함께 초기 백제로의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얻었다. 유물로는 각종 원삼국기의 토기류편, 삼국기의 토기류편, 7세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 고식와를 포함한 와편류, 유리구슬 등이다.					
2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고분	삼국	여주군 여주읍 하거리 산40	경희대박물관	97.12.10~98.4.28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고분〉, 1999	
		이 유적은 횡혈식과 횡구식 석실분, 소형석곽묘 및 통일신라기의 횡구식 석실분, 고려기의 분묘, 조선시대의 회곽분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조사결과 이곳의 무덤 양식은 횡혈식 석실분에서 횡구식 석실분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 신분의 고하와 관계지어 형식을 구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용인 壬辰山城址	조선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산37	경기도박물관	6.4~7.10	〈용인 임진산성〉, 2000	
		1997년 아파트 부지에서 조선시대 현자총통 2점이 수습되어 긴급 발굴이 실시되었다. 조선시대에 축조된 성벽이 일부 발견되었고 백제 주거지가 조사되기도 했으며 무문토기를 비롯해 타날문토기, 철기류, 도자류 등이 수습되어 이 일대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 곳임이 밝혀졌다.					
4	양평 앙덕리 유적	신석기~백제	양평군 개군면 양덕리 29-47외	단국대박물관	7.23~98.12.30	〈양평 앙덕리 유적〉, 1998	
		유물과 유구가 후대의 재퇴적 과정을 거쳐 출토되었으나, 앙덕리 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 고인돌과 무문토기,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초기백제토기 등 4개의 문화층이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구순부에 삼각거치문이 약화되어 찍혀있는 토기들은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5	인천 운서동 삼목도 신공항건설 예정지역내 유적	신석기	인천 중구 운서동 산329-1외	서울대인문학연구소	70일간	〈영종도 는들 신석기유적〉, 1999	
6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청동기	부천시 고강동 산89-1 외	한양대박물관	8.25~10.24	〈富川 古康洞 先土遺蹟 第2次 發掘調査 報告書〉, 1998	2차
		1차 발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주거지에 대한 정리와 주변지역에 대한 연장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 동북쪽 능선에서는 폐기되고 반파된 주거지에서 상당량의 토기가 수습되었으며 남쪽지구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주거지가 확인되어 당시의 사회가 꽤 발달된 형태의 청동기시대 농경사회였음을 추정케 해주고 있다.					
7	여주 상리 유적	통일신라	여주군 여주읍 상리 10-13외/산3-1	한림대박물관	8140~11.15	여주 상리 발굴조사 약보고서	
		무문토기 주거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구릉선은 침식으로 사라지고 소형 1기만이 바닥면에 가까운 윤곽을 남기고 있다. 고분에 대한 조사에서는 10여기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모두 도굴되어 유물이 남아있지 않으며 구조도 교란되어 있는 상태였다. 토기의 수준과 석곽의 규모로 미루어 통일신라기 주민들의 공동묘역으로 보고있다.					
8	광주 관음리 주택신축예정부지내 유적	조선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195	건국대박물관	9.1~9.5	도침 등 35점	
9	광주 건업리 골프장건설부지내 조선백자도요지	조선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 산102-1번지 일원	해강도자미술관	12.2~98.1.10	〈廣州 建業里 朝鮮白磁窯址-建業里2호가마 遺蹟發掘調査報告書〉, 2000	
		15세기 중반으로 보이는 조선시대 백자 가마터이다.					
10	아차산 제4보루 유적	삼국	구리시 아천동 산 49-4 일원	서울대박물관/서울대인문학연구소	9.22~11.5	〈아차산 제4보루〉, 2000	1차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1	안성 죽산리사지(봉업사지)	고려	안성군 죽산면 죽산리 150-1외	경기도박물관	1997.9.24~98.3.31	〈奉業寺〉, 2002	1차
		1차 조사는 오층석탑 북편과 북동편에 위치하는 경작지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결과 건물지 21개소와 보도석렬, 목탑지 등의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최초 건립시기는 통일신라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기와류, 자기류등이 다수이며 명문와가 70여 종류 수습되어 고려시대 평와의 편년과 지명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2	아차산성 '96보수구간내 조사	삼국	광진구 광장동 산31번지 일대	명지대한국건축문화연구소	9.22~11.5	〈아차산성 '96보수구간내 실측 및 수습발굴조사보고서〉, 1998	
		성벽의 유구가 잘 남아 있고 성 안쪽에서도 건물지가 확인되어 차후로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3	하남 이성산성	삼국	하남시 춘궁동 36번지 일원	한양대박물관	10.8~10.22	〈이성산성〉, 1998	5차
		1991년 4차조사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조사이다. 2차 저수지의 서쪽지역과 남쪽성벽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유물은 이전의 발굴상과 유사하나 토기 중 호의 비율이 높고, 인화문토기의 비율이 낮으며 철기류의 비율도 낮다.					
14	용인 상갈리 택지개발지구내 유적	신석기~조선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산50번지 일원	명지대박물관/한신대박물관	10.17~11.16	〈기흥 상갈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1998	시굴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토광묘 유구, 건물지를 포함하는 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15	광주 학동리 121-28번지 창고 신축부지내 유적	조선	광주군 초월면 학동리 121-28번지	건국대박물관	10.27~10.31	도침 등 16점	시굴
16	용인 보정리 임진산 성지	조선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산73-1번지	경기도박물관	9.27~10.11	철모 등 6점	시굴
17	양주 회암사지	고려-조선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14-1번지외	경기도박물관	97.11.10~98.3.31	〈회암사 I〉, 2001	시굴
8	파주 주월리 유적	원삼국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406번지	경기도박물관	1.11~98.1.24	〈파주 주월리 유적〉, 1999	2차
		수해로 인한 수습조사였으나 1996, 97년 2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및 원형 구덩유구가 다수 조사되었다. 육계토성이라는 성안에 위치하는 주거지 유적으로서 중부지방의 凸자형 주거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그 중요성을 더했다. 유물로는 즐문토기, 마제석기류, 타날문토기류, 마연토기 등이 수습되었으며 중도식무문토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심연대는 유물과 연대측정 결과를 고려해 볼 때 4세기경으로 잡고 있다.					
1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판교-퇴계원)구간내 유적	조선	하남시 춘궁동 474번지외	경기도박물관	11.17~12.26	약보고서 제출	시굴
		조사 결과 춘궁동 東寺址와 관련된 유구는 찾을 수 없었고 조선시대 기와편, 백자편, 경질토기편 등이 퇴적층에서 수습되었다.					
20	강화 관청리 조선궁전지(외규장각지 등)	고려, 조선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산36-1번지외	한림대박물관	96.11.11~97.6.15	강화조선궁전지(외규장각지) 약보고서	2차
		2차 조사에서는 남향한 건물의 전면기단 석재가 노출되어 있는 건물지의 북편이 후대에 우물을 조성하면서 완전히 파괴되어 건물지의 앞부분과 정원시설로 보이는 유구만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21	인천 영흥도 영흥 화력발전소 건립 부지내 유적	신석기 ~원삼국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 2리 산182-4번지 외	한양대박물관	12.13~98. 6.30	〈영흥 화력건설지구 업벌 토기산포지 발굴조사보고서〉, 1998	
22	시흥 방산동 초기 청자 · 백자요지 발굴조사	고려말-조선	시흥시 방산동	해강도자미술관	1차97.3.17 -5.20 2차98.5.28 -8.4	〈芳山大窯〉, 2001	1 · 2차
		10세기를 중심 시기로 하여 상한은 9세기 후반, 하한은 10세기 말까지로 연대를 보았으며 중국적인 전축요에서 한국적인 토축요로의 전환을 알려 주는 중요한 유적이라 보고하고 있다. 특히 청자와 백자를 동시에 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23	고양 경부고속철 도차량기지 건설 예정부지내 유적	·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원	숭실대발굴조사단	11.24~12. 8	출토유물없음	시굴
24	안성 망이산성	청동기 · 고려	안성군 일죽면 금산리 산48번지 외	단국대박물관	12.29~98 .5.28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9	2차
		2차 조사에서는 서문지와 주변의 평탄지대 및 산성 전체에 대한 평면도 작성에 주력하였다. 서문지에서 峻豊四年명 기와가 출토되어 문지의 변천과 더불어 고려시대 안성지역 기와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주었다.					
25	의정부 금오택지 개발사업지구내 유적	기타	의정부시 신곡동 537-4번지 외	한양대박물관	12.29~98 .2.28	〈의정부 금오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98	
		발굴조사는 추정지석묘 7기와 삼국시대고분 추정 유구1기 그리고 5기의 조선시대 민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결과 지석묘와 삼국시대 고분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쌍분을 포함한 조선시대 민묘 6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26	용인 마북리 고려 고분	고려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45번지 일대	경기도박물관	12.15~12. 30	〈용인 마북리 고려 고분〉, 2001	
		토광묘와 석곽묘로 나뉘어지는 고려 고분으로 유물은 도자기, 청동발, 동곳, 청동숟가락, 동경, 유리옥, 철제가위 등 유구에 비해 다양하며 토광묘와 석곽묘의 유물의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중심연대는 출토자기의 편년에 따라 11세기를 중심연대로 보았으며 지방 호족의 무덤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7	경복궁 태원전지 조사	조선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97.10.18~ 98.4.4	〈景福宮 泰元殿址〉, 1998	
		조사 결과 태원전의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영사재지 및 부속 건물지가 확인되어 북궐도형과 궁궐지에서 보이는 건물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다. 출토유물은 와전류, 자기, 도기류, 금속류 등이다. 그 중 도깨비눈 무늬 내림새와 막새, 청자의 존재로 미루어 고려건물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8	연천 원당리 구석기 유적	구석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2리 701-4	건국대박물관	8.1~8.30	〈漣川 元當里 舊石器時代遺蹟〉, 2001	2차
29	풍납동 유적	백제	서울시 풍납동 231-3번지 외 39필지/246-3외 122필지	문화재청/ 서울대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97.1~	〈風納土城〉,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년도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광주 오전리 주택신축부지내유적	조선	광주군 중부면 오전리 291번지외 1필지	건국대박물관	2.26~3.2	백자저부편등 10점외 성과없음	시굴
2	하남 하사창동상수관로 매설구간내 유적	·	하남시 하사창동 72-3	경기도박물관	2.23~3.1	출토유물없음	시굴
3	용인 마북리 아파트건립부지내 유적	조선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23-2	한신대박물관	2.17~2.27	〈京畿 南部의 朝鮮時代 遺蹟〉 수록- 龍仁 麻北里 石築遺構-	시굴
		백제토기 산포지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결과 당시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조선시대 석축유구와 청동총통편, 도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4	파주 금촌동 택지개발지구내 유적	·	파주시 금촌동 579-3번지	한양대박물관	3.21~4.30	출토유물없음	시굴
5	광주 산이리 아파트건립부지내 구석기 유적	구석기	광주군 초월면 산이리 130번지	한양대박물관	2.28~3.14	다각면원구 등 6점	시굴
6	오산 양산동 아파트건립부지내 유적	통일신라	오산시 양산동 산19-3번지외 2필지	한신대박물관	2.27~4.3	〈京畿 南部의 朝鮮時代 遺蹟〉 수록- 烏山 陽山洞 기와가마	시굴
		조사 결과 3기의 조선시대 기와가마와 통일신라기 생산관계 시설로 보이는 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고려말과 조선후기의 두 시기로 구분되는 와류, 도기뚜껑 1점 등이 수습되었다.					
7	양주 대모산성 서문지	삼국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789번지	한림대박물관	4.20~8.6	양주 대모산성 서문지 약보고서	
		서문지의 확실한 위치와 구조, 잔존상황 및 주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북문지, 동문지와 비교함으로써 성의 구조 복원에 필요한 자료축적 및 효과적인 보존조치와 복원을 기하고자 실시되었다.					
8	이천 설봉산성	삼국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단국대박물관	4.2~5.17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9	1차
		남장대지 일원의 평탄대지를 주로 조사하여 저수조, 팔각기단, 토광 등의 유구와 '咸通6년' 명 벼루를 비롯하여 평와류, 토기류, 철제품 등을 수습하였다.					
9	용인구갈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346번지	한신대박물관	3.24~3.26	출토유물없음	
10	용인 상현리 아파트건립부지내 유적	조선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산13-2번지	한신대박물관	4.28~5.7	〈京畿 南部의 朝鮮時代 遺蹟〉 수록- 龍仁 上峴里 기와가마	
		조사 결과 2기의 조선시대 기와 가마가 조사되었다. 유구의 상태는 좋지 않으며 유물로는 기와 외에 도자류편, 토제방추차 1점 등이 있다.					
11	화성 경부고속철도 화정-상리구간내 유적	삼국	화성군 매송면 일대 산38-3번지외 92필지	숭실대박물관	10.7~12.31	출토유물없음	시굴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2	여주 고달사지	고려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번지	경기도박물관	7.27~9.1.27	통합보고서 발간 예정	1차
13	포천 반월산성	삼국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산5-1번지	단국대박물관	7.8~9.5	〈포천 반월산성 4차 발굴조사보고서〉, 1999	4차
		동치성의 규모와 윤곽, 애기당지 유구 확인, 유단식 성벽의 실체와 규모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1차 성벽의 축조국으로 고구려일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주 사용국은 신라로 보았으며 출토된 신라후기양식의 토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4	경부고속철도 공사구간내 화성 당하리 유적	원삼국	화성군 봉담면 당하리 83-1외 4필지	숭실대박물관/서울대박물관	6.9~8.8	〈華城 堂下里 I 遺蹟〉, 2000	
		조사결과 전형적인 토기가마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0여 기의 토기생산 및 폐기와 관련된 구덩이를 비롯해 공방으로 추정되는 집자리 1기, 저수지로 추정되는 유구와 더불어 많은 기둥구멍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류, 기와류, 토관류, 방추차류, 鐵滓, 소토와 목탄, 석기류 등이 있다. 특히 토기의 경우 호, 발, 옹, 완, 장란형토기, 시루 등으로 구분되는데, 시기로 구분해보면 순수한 원삼국시대 토기복합체(중도양식), 원삼국시대 토기복합체+백제초기토기복합체로 구분할 수 있다.					
15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신석기	인천 중구 운서동 외	한양대박물관	5.19~7.16	〈永宗島 文化遺蹟〉, 1999	시굴
		신공항고속도로 예정부지내 토기산포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IC지역으로 편입된 운서동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운서동 유적은 주거지, 야외노지, 수혈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즐문토기편은 신석기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며 인접한 시도패총, 삼목도패총, 영종도 송산유적의 출토품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16	아차산 제4보루 유적	삼국	구리시 아천동 산49-1외 1필지	서울대인문학연구소/서울대박물관	7.23~9.10	〈아차산 제4보루〉, 2000	2차
		2차조사에서는 성벽의 축조시기 및 축조방법, 성곽의 시설물과 성내부 전체에 산재해 있는 유구의 기본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7	고양 벽제관지	조선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번지	경기도박물관/연세대건축과학기술연구소	9.11~12.9	〈고양 벽제관 건축유적지 발굴조사보고서〉, 2000	
		벽제관의 옛모습을 복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주 건물지로는 정청, 동서익헌이 각각 3×2칸의 규모로 분리되어 건립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남쪽 문지는 3×1칸의 삼문 형식이며 마당의 보도석렬은 주 건물지의 보도석렬과 문지의 후면 기단을 연결하고 있다. 유물은 와전류가 주로 보이며 도자 및 철기류가 소량 분포한다.					
18	용인 평창리 전원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구석기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106-14	경기도박물관/서울대고고미술사학과	7.11~7.25	〈龍仁 坪倉里 舊石器遺蹟 試掘調査報告〉, 1998	시굴
		지표조사에서 고토양층과 다각면원구 1점을 비롯해 타격흔이 있는 석영 및 규암덩어리를 채취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암반풍화토, 적갈색실층, 황갈색실트층, 표토층의 4개 층위가 확인되었으며 주로 석영제의 첨두기 · 찍개 · 긁개 · 새기개 등이 수습되었다. 특히 석영을 미세 가공한 기술이 주목되며, 대형석기들과 나타나는 소형석기들은 후기 구석기시대의 제작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19	포천 성동리 유적	원삼국	포천군 영종면 성동리 644-1번지외 1필지	경기도박물관	7.23~8.12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 1999	
		주거지 9기, 소형유구 45기, 구상유구 1기 등이 확인 조사되었으나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유구의 중복관계로 보아 동일 시기의 유적은 아니고 신석기에서 원삼국, 한성백제, 신라 순서로 파악된다.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와 같은 백제토기류, 신라계토기 등 토기류가 주종을 이루며 소수의 철기류가 수습되었다.					
20	연천 원당리 구석기 유적	구석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932-1	건국대박물관	7.31~8.24	〈漣川 元當里 舊石器時代遺蹟〉, 2001	3차
21	수원 화성행궁지	조선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일원	한양대박물관	8.4~9.3	〈華城行宮址〉, 1999	3차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22	용인 평창리 전원주택부지내 유적	구석기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산106-4번지	경기도박물관/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9.8~12.7	〈龍仁 坪倉里 舊石器遺蹟〉, 2000	2차
		황갈색층, 황색층, 갈색층, 암갈색층, 황갈색층, 적갈색층등 6개 퇴적 단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임진강 유역의 전곡리나 주월리 혹은 한강유역의, 병산리를 비롯한 각지의 구석기유적에서 알려진 바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유물은 대략 6만-3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갈색조의 점토층에서 주로 출토되었으며 특히 B구덩에서 많은 유물이 수습되어 모종의 공작행위를 추정케 하며 석영자갈을 양면가공한 찍개와 정교하게 손질된 긴 박편이 인접해 출토되어 주목된다.					
23	부천 고강동 선사 유적	청동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90번지외 4필지	한양대박물관	9.19~11.10	〈富川 古康洞 先史遺蹟 第3次 發掘調査報告書〉, 1999	3차
		3차 조사에서는 청용산 일대 능선상에도 청동기시대 주거지군이 연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3개소의 장방형 주거지를 더 확인하였는데 지형상 좁은 능선을 이용였다. 유물로는 각종 마제석기류, 공열토기, 구순각목공열토기, 점토대토기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4	인천지방법원청사 신축부지내 유적	•	인천 남구 학익동 279-2번지외 5필지	건국대박물관	8.31~9.14	조개껍질 외에 성과 없음	시굴
25	인천 운서동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지역내 유적	신석기	인천 중구 운서동 1500번지외 4필지	한양대박물관	8.1~10.30	〈永宗島 文化遺蹟〉, 1999	발굴
		즐문토기편 등 39점 수습					
26	안성 화곡리 도요지	조선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산1번지	이화여대박물관	12.14~99.2.12	〈陶磁史 硏究方法으로서의 '發掘'〉, 2001	시굴
27	광주 남한산성 행궁지	조선	경기도 광주군 산성리 928번지	토지박물관	12.10~99.4.10	〈남한산성행궁지〉, 1999	1차
		행궁 상·하궐 건축물의 규모와 전체 행궁의 규모, 개별 건축물의 평면적 배치구조와 건물 기초 석재의 특성, 축조방법 등을 고찰하였고, 다수의 도자편과 와편류를 수습하였다.					
28	하남 광암동 지석묘	청동기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산115-1번지	세종대박물관	9.22~10.11	〈하남시 광암동 지석묘〉, 1998	
		4기의 지석묘를 조사하였다. 2호 지석묘는 반구형의 장방형 토광을 파고 지석을 놓은 다음 벽석 보강을 위한 적석시설을 하고 매장후에는 적석부분과 동쪽 벽석에 걸쳐 덮개 돌을 얹은 후 상석을 놓은 독특한 구조이다. 여기서 인면 암각화가 발견되었으며 그외 볍씨자국이 찍힌 무문토기편, 갈돌, 갈판 등 43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29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리 185-4, 5번지	한양대박물관	11.30~12.8	석핵 등 12점	
30	안성 산정리 도기가마	조선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6-1	한신대박물관	10.27~11.5 99.1.16~99.1.30	〈京畿 南部의 朝鮮時代 遺蹟〉 수록- 安城 山井里 도기 가마	시굴/발굴
		조사결과 50평 정도의 좁은 면적에서 3기의 도기가마가 발굴되었다. 2기는 반지하식의 도기 가마이고 1기는 지상식으로 보이나 바닥의 일부만 남아있어 그 기능을 알 수 없다. 유물은 도기편들로서 완형 4점, 구연부편 94개체, 저부 58개체가 수습되었다.					
31	화성 당성	삼국~통일신라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31번지의 일대	한양대박물관	98.3.16~98.5	〈당성 1차발굴조사보고서〉, 1998	1차
		남양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黨項城으로 비정되어 오던 산성으로 정비,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청동기시대, 삼국시대의 유물을 포함하여 신라후기양식의 토기류 및 토제마, 철제마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32	광주 학동리 공장 신축부지내 유적	•	광주군 초월면 학동리 121-6, 7번지	건국대박물관	7일간	성과없음	시굴
33	하남 이성산성	통일신라	하남시 춘궁동 35번지	한양대박물관	12.8~99.4.17	〈이성산성〉, 1999	6차
		A지구의 성벽 절개, C지구의 저수지 구조 및 추정 건물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34	광주 상번천리 조선백자 도요지	조선	광주군 중부면 상번천리 188-28번지외	아화여대박물관	30일간	〈陶磁史 硏究方法으로서의 '發掘'〉, 2001	발굴
		번천리 9호에 대한 시굴조사로서 16세기 중반에 걸리는 조선백자 요지이다.					
35	평택-안성간 고속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유적	청동기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고덕면 방축리 일원	세종대박물관	12.19~99.1.3	〈평택-안성구간고속도로 공사예정지역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서〉, 1998	
36	안성 운수암 삼성각 유적	고려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85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12.15~99.1.8	〈안성 운수암 삼성각 건립부지 발굴조사보고서〉, 1999	
		조사결과 운수암과 관련된 유적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무한성과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수습되었다. 암반층 기저부에 불규칙한 석열 및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기에 이르는 상당량의 토기 및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37	경부고속철도 화성 상리구간내 유적	삼국	화성군 봉담면 왕림리, 당하리, 마하리 일원	숭실대박물관	180일간	〈경부고속철도 화성 상리 구간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1999	시굴
38	화성 반월리 분묘군	조선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한신대박물관	5.6~5.31	〈京畿 南部의 朝鮮時代 遺蹟〉 수록- 華城 半月里 墳墓群	
		조사결과 횡구식 석곽묘 1기, 토광묘 8기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백자대접, 청동 숟가락, 崇寧重寶, 朝鮮通寶가 출토된 6호묘를 제외하고는 부장품이 보이지 않는다.					
39	양주 회암사지	고려-조선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14-1전지외 8필지	경기도박물관	98.8.27~99.6.30	〈회암사 I〉, 2001	1차
		정밀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역의 전체적인 범위와 유적의 전반적인 층위상황, 그리고 건물지의 분포상황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사역의 범위는 지표상에 드러난 담장지 외곽을 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역범위, 층위관계, 대략적인 건물지의 배치상태를 확인하였다. 유물은 크게 기와류, 도자기류, 금속류, 석제류 등이 있다. 기와류 중 막새는 범자문, 順天四年銘이 보이고 있으며 15-16세기 광주 중앙관요산 백자류, 목잘린 석제불상 등이 보인다.					

1999년도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인천 운서동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지역내 유적	신석기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155 일대	서울대인문학연구소	99.03.06~99.04.06	〈영종도 는들 신석기유적〉, 1999	
		수혈주거지, 적석유구, 回 자형 방형구 1기와 용도불명의 수혈 9기가 확인되었으며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토기편이 총 269점 확인되었다. 이 유구와 유물들은 기존의 서해안 지역의 신석기유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화성 산척리 도로종합기술연구원부지내 유적	조선	화성군 산척리	건국대박물관	99.04.08~99.06.10	〈도로종합기술연구원부지내 유적발굴조사보고서〉, 2000	
3	수원 고읍성	조선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한신대박물관	99.05.18~99.06.26	〈수원고읍성〉, 2000	
		수원 고읍성의 성벽은 거의 유실되고 일부만 남은 상태지만 융·건릉 내부에 있는 성벽이 원래의 수원부읍성이었고, 현륭원 재실의 정확한 위치 및 관아터에 대한 층위조사를 통해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의 문화층을 확인하였다.					
4	안중-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내 유적	청동기	평택시 지제동 산44번지	세종대박물관	99.06.22~99.08.24	〈平澤 芝制洞遺蹟〉, 2000	
		조사결과 청동기시대의 집터 7기와 화덕자리, 움 1기가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무문토기편, 화살촉, 반달돌칼, 돌도끼 등의 석기류가 채집되었다. 그러나 동시기의 묘제인 고인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돌널무덤보다는 장구가 필요치 않은 토광묘 등의 무덤을 쓴 것으로 추측하였다.					
5	시흥 오이도 패총	신석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서울대인문학연구소	99.06.23~70일간(99.08.31)	종합보고서에 수록 예정	3차
		오이도 패총 중에서 남서부에 위치한 가운데살막패총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결과 야외노지 4기와 수혈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빗살무늬토기와 석기, 골각기가 수습되었다. 토기는 직립구연에 밑이 뾰족하거나 둥근 포탄형으로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전형적인 기형을 가진다.					
6	강화 선원사지	고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1	동국대박물관	120일간	종합보고서에 수록 예정	
7	양평 함왕성지	고려~조선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수원대박물관	99.05.19~99.05.25	〈양평 함왕성지 지표 및 시굴조사 보고서〉, 1999	
		이 성은 고려 후기 몽고침략기에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내의 시설물로는 문지, 추정 건물지, 장대지, 치성, 우물지, 수구지 등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유구로는 다량의 평와 및 소량의 도자류가 수습되었다.					
8	시흥 조남동 지석묘	청동기	시흥시 조남동	한양대박물관	99.06.28~99.07.18	〈始興市 鳥南洞 支石墓〉, 1999	
		경기도기념물제 103호로 지정된 조남동 지석묘의 정비 및 공원화를 위한 장기계획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개석의 길이가 4m가 넘는 대형으로 23개의 성혈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표나 하부구조에서도 관련되는 유구나 유물이 보이지 않았고 조선시대의 도자류, 토기류, 철기류가 몇 점 수습되었다.					
9	화성 행궁지	조선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한양대박물관	99.07.29~90일간(99.10.26)	〈화성행궁지〉, 2000	4차
		御道, 景龍館, 維與宅과 그 行閣址 그리고 中陽門과 洛南軒에 이어지는 행각지를 기준으로하여 外整理所 행각지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다량의 백자와 도식화된 문양의 청화백자, 분청사기, 철화백자, 석간주자기 등이 수습되었다.					
10	여주 고달사지	통일신라~조선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경기도박물관/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99.09.27~00.6.22	통합보고서 출간예정	2차
		유적관리에 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유적정비를 목적으로 1차에 이어 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건물지는 6건물지를 중심으로 한 1차 사역, 1건물지를 중심으로 한 2차 사역으로 나뉘어지며 그 외로 1,2차 사역의 부속 건물이거나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 유물로는 각종 와편, 암·수막새, 도자류, 그리고 1축대에서 출토된 주구토기가 수습되었다.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2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	고려~조선	안산시 수암동 256-1 및 산26-4	수원대박물관	99.07.26~90일간(99.10.23)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보고서〉	
	성내에서 문지, 장대지, 건물지 등이 파악되었다. 고려 읍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물은 기와류와 자기류가 대부분이다.						
13	과천 관악사지(과천시 향토유적1호) · 일명사지(과천시 향토유적2호) 유적	통일신라~고려	과천시 중앙동 산12-1/산11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충청대학박물관	99.01.21~90일간	〈과천 관악산 관악 · 일명사지 시굴 및 발굴조사보고서〉, 2000	
	출토 유물을 토대로 보아 관악사지의 초축은 통일신라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창기는 14세기 말 경으로 추정되며 17세기까지는 존속했던 사찰로 보인다. 일명사지는 통일신라 말엽에 초축된 이래 12세기 중기까지 이어오다가 14세기 말경에 중창, 17세기말 경에는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14	구리 아차산 시루봉 보루지 유적	삼국(고구려)	구리시 시루봉	서울대인문학연구소	99.07.20~99.10.27	보고서 간행 예정	1차
	시루봉을 A,B지구로 나누어 A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벽과 건물지의 기단 석축, 저수시설, 온돌, 배수로가 조사되었다.						
15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내 여주 원향사지 유적 발굴	고려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99.08.16~90일간	보고서 간행 작업중	1차
	여러 개의 건물지가 중복되어 발견되었고 세련된 귀면와와 연화문막새, 청자 등 통일신라기에서 고려에 이르는 유물이 다수 수습되었다. 기와 중에 원향사명문와가 발견되었다.						
16	용인 마북리 아파트 건설부지내 유적	고려~조선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한신대박물관	99.07.19~99.08.12	보고서 간행 작업중	
17	여주-연양간 도로확장, 포장공사구간내 유적	조선	여주읍 상리 산1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99.08.02~40일간	〈여주 상리 · 매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보고서〉 부록 3, 2000	
18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청동기~초기철기	부천시 고강동 장갯마을 뒷산 일대	한양대박물관	99.08.05~70일간(99.10.13)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2000	4차
	장갯마을 뒷산의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발굴이 진행되었다.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주거지와 함께 제사유구로 판단되는 적석환구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삼국 또는 통일신라로 보이는 석곽묘들이 발견되었다. 유물로는 공열문토기, 점토대토기, 제기형토기, 두형토기 등이 있으며 마제석촉 · 석착, 원형의 철광석 등이 있다.						
19	수원 화령전	조선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23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99.09.03~20일간	〈華寧殿 典祠廳址 發掘調査 報告書〉, 2000	
	복원정비를 목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20	여주 파사성지	삼국~조선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9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99.09.15~20일간	〈여주 파사성지 중간보고서(Ⅰ)〉, 2002	
	산성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이후의 산성으로 보이며 신라후기양식의 토기류와 다량의 와편류, 고려-조선기의 도자류 및 와편류가 수습되었다. 특히 높은 구릉지대에서 백제주거지가 발견되고 장란형토기가 수습되어 주목된다.						
21	양평 광탄리 용운-용두간 도로공사구간내 유적	신석기~청동기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산28일원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99.08.18~99.09.02	약보고서 제출(파괴)	
22	용인 처인성지	고려	용인시	충북대중원문화연구소	99.08.27~35일간	근간예정	
23	구리 아차산성	삼국(고구려)	서울시 광진구 광동 산 31/구리시 아천동 경계 일원	서울대박물관/서울대인문학연구소	2. 24~5. 12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2000	시굴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24	연천 원당리 구석기 유적	구석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932-1	건국대박물관	99.08.02-30일간	〈漣川 元當里 舊石器時代遺蹟〉, 2001	4차
25	용인 언남리 아파트 건립부지내 유적	통일신라~조선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한신대박물관	99.07.01-99.07.20	보고서 작성중	시굴
26	여주 근린생활시설 공사 부지내 유적	•	여주군 여주읍 상리 산3-3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99.08.16-15일간	〈여주 상리·매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보고서〉 부록 4, 2000	
27	포천 송우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	포천군 송우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20일간	〈포천 송우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유적조사보고서〉, 1999	시굴
28	여주 매룡리 농업용도로 개설부지내 유적	삼국-통일신라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산 4-25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99.09.13-5일간	〈여주 上里·매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보고서〉, 부록1, 2000	시굴
		도굴되고 파괴된 상태로 8기의 횡구식석실묘가 조사되었다. 유물로는 병형토기, 호, 완, 접시, 대부완 등이 수습되었다.					
29	광주 남한산성 행궁지	조선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933	토지박물관	99.09.29-90일간 (00.6.종료)	〈남한산성 행궁지〉, 2000	2차
		문헌자료를 통해 초축시점과 행궁의 조성 목적, 이용, 배치 상태 등을 고찰하고 내행전지, 남북 행각지, 재덕당지, 좌승당 및 유차산루지와 이위정, 이명정지, 내외곽담장지, 배수시설, 출입시설, 추정 집수시설 등과 다량의 다양한 평와와 막새류, 자기류, 철기류, 동제품 등이 수습되었다.					
30	하남 교산동 건물지	통일신라~조선	하남시 교산동 78-3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99.08.23-90일간 (99.11.20)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2000	1차
		교산동 건물지는 50cm 내외의 레벨 내에서 여러 차례의 증개축이 확인되었다. 관아의 객사와 관계있는 건물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유물 중에서 최고의 것은 9c대의 주름무늬병편이 보이고 있으며 건물의 중심 연대는 크게 9~12세기와 15~17세기의 2기로 나누고 있다.					
31	연천 군남면 삼거리 선사유적	신석기, 청동기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722-2	경기도박물관	9.27~	〈연천 삼거리유적〉, 2002	긴급
		1996년도 집중호우로 파주 월리유적과 함께 처음 학계에 보고된 유적이다. 신석기시대 주거지 5기와 청동기시대 주거지4기 및 소형유구 3기, 조선시대의 용도미상 적석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암사동계의 즐문토기를 비롯하여 청동기시대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공열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검, 반월도, 석착, 석부, 석촉, 방추차, 토제어망추 등이 수습되었다					
32	수원 고읍성내 화산유적	삼국	화성군 태안읍 기안리-안녕리 일원	한신대박물관	1999. 여름	-백제 전기 기와에 대한 신지견-「백제연구」, 2000	긴급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33	하남 이성산성	통일신라	하남시 춘궁동	한양대박물관	1999. 10~	〈이성산성〉, 2000	7차
34	이천 설봉산성	삼국-통일신라기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단국대매장문화연구소	1999.3~7	〈이천 설봉산성 2차발굴조사보고서〉, 2001	2차
		산성 칼바위 주변 평탄지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지의 규모와 성격을 밝히고 서벽의 축조방식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물로는 고배, 호, 옹, 장란형 · 심발형 토기, 시루 등 백제 토기류와 신라계 토기 및 이후 시기의 유물이 다양하게 출토되었으며 초축시기를 백제까지 올려보고있어 주목된다.					
35	강화도 초루돈대	조선	강화군	국립문화재연구소	30일간	약보고서 제출	
36	풍납동 유적	삼국	서울시 풍납1동 136번지 일대	한신대박물관	99.9~00.6	근간예정	
37	대모산 유적	삼국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한양대학교	99.6.23~	〈大母山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1999	시굴
		소방방재본부의 무선통신망 기지국 건설과 관련하여 대모산 정상의 석성과 그 내부시설물의 부존 여부를 파악하고자 조사가 실시되었다. 현장에서 대모산성의 북벽에 해당하는 석렬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의 조합상도 인근의 통일신라기 산성들과 유사한데,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원형의 점토대토기, 고배와 각배 등이 수습되어 주목된다.					
38	시흥 계수동 지석묘	청동기	시흥시 계수동 260-4	한양대박물관	11.3~11.28	〈시흥시 계수동 지석묘〉, 1999	
		장축 3m의 남방식지석묘로서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제발굴 후 이전 복원되었다. 유물로는 마제석착, 무문토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인근에서 3기의 고인돌이 더 확인되었다.					
39	안성 화곡리도요지	조선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산1	이화여대박물관	99. 8~	〈安城 和谷里 陶窯址-朝鮮白磁 · 高麗陶器窯址 發掘調査報告〉, 2000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치는 조선백자, 고려 도기요지이다.					
40	용인 언남리 아파트건립부지내 유적	조선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산 5-1	세종대박물관	99.06.12-99.07.21	〈龍仁 彦南里遺蹟〉, 2001	
		조사 결과 유구로는 우물지, 가마터, 건물지 및 석곽묘와 회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자기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기와와 토기 등도 다량 수습되었다.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것이고 통일기와 고려기의 것도 소수 보이고 있다.					

2000년도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	파주 금파지방 산업단지내유적	구석기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27	한양대문화재연구소	14일간	성과없음 약보고서 제출	
2	고양 덕이택지개발지구내 유적 발굴	조선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179-3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00.3.27 ~'00.4. 19	〈일산 덕이동 중앙아파트 건설부지 고분 발굴조사보고서〉, 2000	
		조선시대의 중기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 3기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회곽묘로서 1,2호는 청동수저와 유리구슬 등의 부장품이 수습되었으나 3호분은 인골 이외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3	과천 관문체육공원조성부지내 유적 시굴	삼국, 조선	과천시 관문동 32-2일원	세종대박물관	'00.4.20 ~'00.5. 20	약보고서 제출	시굴
4	용인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조사	신석기 ~조선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일원	기전문화재연구원	00.5.24~ 02.6.30	현장조사 완료/보고서 작업 중	시굴
5	인천 문학경기장 부지내 유적	청동기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산5-1	기전문화재연구원/ 인하대박물관	20일간	〈仁川 文鶴洞 先史遺蹟〉, 2000	시굴
		지표조사에서 백제타날문토기편이 발견되어 발굴이 실시되었다. 결과 溝狀遺構 1기, 타원형수혈유구 1기, 근대 민묘 11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로는 무문토기류, 마제석기, 석영제 타제석기, 석기 반제품 등이 수습되었다.					
6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부지내 유적	구석기, 조선	광주군 실촌면 삼리 26-9 일원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00.6.23 ~12.31	광주2001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조성예정부지시굴조사약보고서/1차조사/2차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시/발굴
		시굴에서는 와요지, 구석기시대의 퇴적층 및 타제석기들이 수습되었으며 1차조사에서는 와요지 2기, 석영제 몸돌과 격지 등이 수습된 갈색토양층, 쐐기층, 편마암의 몸돌, 찍개, 여러면 석기 등이 포함된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7	연천 전곡리 골재채취지역내 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614일원	한양대문화재연구소	'00.8.9 ~'00.9.3	〈전곡구석기유적2000-2001전면시굴조사보고서〉, 2001	시굴
8	중부고속도로(하남-호법)확장공사구간내 유적 시굴	조선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60-1일원	세종대박물관	'00.6.5 ~'00.6. 25	〈광주 엄미리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000	시굴
		조선시대 집터 2곳이 확인되었으며 청화백자, 시루편, 항아리편 등 생활용기가 다수이다. 기와는 복합문이 타날된 조선후기의 수키와가 유일하게 1점 수습되었다.					
9	하남 교산동 건물지	조선	하남시 교산동78-3	기전문화재연구원	00.7.3~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中間報告書III(2000)〉, 2001	2차
		2차 조사는 서쪽건물지와 그 외곽 및 중앙부 평탄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성격미상의 적석유구, 석축연못 및 배수로, 소성유구, 선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유물로는 각종 토기편, 와편류, 도자류, 석제품 등이 수습되었다.					
10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88-2일원	한양대문화재연구소	'00.6.28 ~	〈전곡구석기유적2000-2001전면시굴조사보고서〉, 2001	시굴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11	용인 신갈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고려말, 조선초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산5일원	기전문화재연구원	'00.6.30 ~	〈龍仁 新葛 宅地開發地區內發掘調査 報告書〉, 2001	시굴
		조사 결과 유구는 건물지 2동과 담장석렬 2동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교란이 심하여 건물지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玄化寺'명 기와가 출토되어 寺址로 보았다. 다량의 와편과,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말-조선 초기에 걸치는 것으로 보았다.					
12	시흥 서해안고속도로 IC접속부개량공사구간내 유적	구석기, 고려-조선	시흥시 거모동 1596-4 일원	기전문화재연구원	00.7.9~ '00.11.30	〈시흥 서안산 IC 접속부 개량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001	시굴
		구석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된 고토양층과 고려-조선에 해당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도자편과 와편이 수습되었다.					
13	풍납토성내미래마을재건축아파트부지내 유적	삼국	송파구 풍납동 197, 281-1 외 143필지	국립문화재연구소	'00.8.10 ~'00.9. 18	보고서 작업중	시굴
14	강화산성보호구역 배수로 공사구간내유적	조선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629-4	충북대중원문화재연구소	'00.8.28 ~'00.9. 25	보고서 작업중	시굴
15	남양주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내유적	조선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일원	기전문화재연구원	'00.7.24~	보고서 작업중	시·발굴
16	화성 당성	삼국	화성시 상안리 일원	한양대박물관	2000. 7~	〈당성 2차발굴조사보고서〉, 2001	2차
17	의왕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부지내 유적	조선	의왕시 월암동 385일원	세종대박물관	'00.7.24~ '00.8.12	〈의왕 월암동유적〉, 2001	시굴
		조사결과 1,2지구에서 온돌시설과 불탄자리가 각 1곳, 조선시대와 근래 조성된 토광묘 2기가 발견되었으며, 유물은 백자와 기와류가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토기류와 분청사기가 소수 보인다.					
18	이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부지내 유적	통일신라-조선	이천시 관고동 398번지 일대	기전문화재연구원	' 00.7.28~ ' 00.12.13	〈利川 2001世界陶磁器엑스포敷地試掘調査報告書〉, 2001	시굴
		조사결과 A구역에서 파괴된 통일신라기의 와요지가, C지구에서는통일신라-조선기에 이르는 건물지 외 여러 유구들이 확인되었으며 유물로는 토기류, 도자류, 기와류가 수습되었다.					
19	포천 일동-이동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	구석기	포천군 일동면 화대리 468-3일원	강원대사학과	40일간	약보고서 제출	시굴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20	용인 봉명리 공장 신축부지내 유적	청동기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115-2일원	기전문화재연구원	'00.8.23. ~9.30	용인 봉명리 공장부지시굴 조사 약보고서, 2000	시굴
		청동기시대의 세장방형 주거지 1기가 확인된 이외 다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반월형석도 3점, 방추차 1점, 석촉 1점, 토제방추차 2점, 어망추 4점, 무문토기편, 홍도편 등이 수습되었는데 유물이 종류별로 몰려 있어서 주거지 공간이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	용인 기흥 구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백제~ 조선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57-2일원	기전문화재연구원	'00.8.23~ 11.30.	〈기흥 구갈(3)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유적 긴급시굴조사보고서〉, 2001	시굴
22	화성 고금산 유적	청동기, 원삼국	화성군 태안면 기안리 245-9일원	서울대박물관	'00.8.20. ~10.5	약보고서 제출	시굴
23	시흥 오이도 안말 패총 유적	신석기	시흥시 정왕동 1078일원	서울대박물관	'00.9.21~ 11.24	종합보고서 예정	시굴 4차
		오이도 패총 중 최북단에 위치한 뒷살막패총에 대한 조사이다. 패각층의 두께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경사면 상부는 40cm, 하부는 1.5m가 넘기도 한다. 시기는 크게 신석기 패각층과 백제시대 패각층으로 나뉘어 진다. 빗살무늬토기는 대체로 무문양이거나 단치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으나 구연부에 단사선문, 기복부에 단치횡주어골문을 시문한 구분문계토기도 확인되었으며 석기는 갈돌, 갈판, 고석, 석부편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24	강화 하도리 고인돌	청동기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618-2	선문대발굴조사단	40일간	근간예정	
25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	조선	오산시 지곶동 155	기전문화재연구원	'00.10.5 ~12.20	〈오산 독산성 · 세마대지〉, 2002	시굴
		독산성의 활용방안 및 중장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된 조사이다. 조사결과, 현재 복원성벽 아래로 삼국시대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성벽이 확인되었으며 성내의 부속시설이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문토기편, 백제토기편, 통일신라기의 토기편들이 수습되어 성내에 관련유구의 존재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26	남양주 마석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고려-조선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518-2	한림대박물관	'00.11.3 ~01.5.31.	〈남양주 마석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2001	
		조사 결과 나타난 건물지는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조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와 석재 및 건축기법은 지방 소규모 암자 수준이지만 사용된 자기의 수준은 중앙 귀족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기를 알려주는 대표적 유물은 청자편이 있으며 그 외 토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이 보인다.					
27	풍납동 250-7, 9번지 건축부지내 유적	삼국	송파구 풍납동 250-7, 250-9번지	국립문화재연구소	'00.9.21 ~'00.9. 25	근간예정	
28	하남 추정 방어시설 유적	청동기	하남시 신장동, 광암동, 하사창동 일원	세종대박물관,	'00.10.	하남 방어시설 추정지 시굴조사 보고서, 2001	시굴
29	하남 천왕사지 유적	고려시대	하남시 하사창동 340-2 일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00.11.1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2001	시굴
		지표조사시에 이미 '天王'銘 와편이 수습되어 고려, 조선조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유적의 중심지였다는 사전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다. 조사결과 추정 목탑지 1동, 건물지 1동, 담장시설 3열, 배수시설 3열, 기타 석열 1렬 등이 확인되었으며 '天王'銘 와편, 암수막새, 연목와, 방형전 등 다양한 와전류와 대호, 해무리굽 청자, 소조불상편 등 6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30	안성 봉업사지	고려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53-2	경기도박물관	'00.10.10 ~01.3.31	〈奉業寺〉, 2002	2차
		1차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탑을 중심으로한 서북쪽 지역에서 중첩된 건물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가장 선행하는 적심구조에서 華次寺명의 기와가 수습되기도 하였다.					
31	강화 선원사지	고려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2일원	동국대박물관	'00.11.13 ~01.6.28	선원사지 4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1	4차
		4차 조사에서는 사적지의 내부 곳곳에 보이는 중복유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서남단부의 추정 중문지대를 전면 조사하여 건물지궁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32	여주 고달사지	고려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일원	기전문화재연구원	'00.11.1~	보고서 발간 작업중	3차
		원종대사혜진탑비각지 서쪽 지역과 이주한 민가 지역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건물지가 각각 조사되었으며 귀면와와 명문와를 비롯한 각종 와류, 토/도자류, 금속유물 등이 수습되었으며 그 외 석제 벼루편도 수습되었다.					
33	광주 남한산성 성곽보수 · 정비지역 내 유적	조선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16	토지박물관	'00.11.1 부터40일간	〈남한산성〉, 2002	
34	광주 남한산성 행궁지	조선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936-3 원	토지박물관	00.9.20~ 01.6.30	〈남한행궁지〉, 2001	3차
		상궐 북서편의 좌전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행궁복원시 주변지역 정비에 활용코자 하였으며 상궐 주요부에 대한 정밀 보완조사 및 상궐 외곽 담장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상궐지역 건물배치와 구조 및 범위를 추정함으로써 행궁 복원에 필요한 자료구축을 완료하고자 하였다.					
35	일산 부광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조선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164-3	세종대박물관	00.11.4~	토탄층 확인, 조선시대 도자류 확인 외 성과없음	시굴
36	구리 아차산 시루봉 보루	삼국	구리시 아천동 산7-2	서울대박물관	'00.10.24 ~12.22	근간예정	2차
		2차 조사에서는 성벽의 규모와 雉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결과 성벽이 활모양으로 유적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그 안으로 대형 건물지의 기단 석축열이 성벽과 남아 있다. 그 내부에서 1기의 온돌과 문비석이 조사되었고 석축열과 성벽의 중간에서 수혈유구와 온돌 2기,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약 300여 점이 수습되었는데 대형 옹과 호, 동이, 접시, 장동호, 완, 직구호, 뚜껑 등이며 철기로는 화살촉과 철모, U자형 삽날 등이다. 이는 아차산 4보루의 양상과 다르지 않으며 대략 6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된다.					
37	풍납동 324-1 건물신축공사장내 유적	삼국	송파구 풍납동 324-1	국립문화재연구소	'00.20.28 ~	근간예정	시굴
38	광주 초월면 산이리 지석묘	청동기	광주군 초월면 산이리 139-3	한양대박물관	'00.12.5~ '01.1.6	〈산이리 지석묘〉, 2001	2차
39	화성 지방산업단지 부지내 유적	청동기, 고려-조선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산 154-2	한신대박물관	'00.3.~ 12.27	〈화성지방산업단지내 동학산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001	시굴 1 · 2차
		6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4개 지구에서 주거지와 건물지 溝로추정되는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무문토기, 자기, 기와류 등이 수습되었다.					
40	용인 성복리 아파트건립부지내 유적	통일신라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산7 일원	한신대박물관	'00.11.20~ '01.1.15	보고서 작업중	시굴

차례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발굴기관	발굴기간	참고문헌	기타
41	광주 엄미리 유적	청동-초기 철기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산60-1일원	세종대박물관	00.6.5.~20일간	〈廣州 奄尾里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2000	시굴
		조사결과 조선시대 집터 2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도자류, 토기류가 소량 수습되었다.					
42	고양 문봉서원지 유적	조선	고양시 덕양구 문봉동 산73-2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	'00.12.20~'01.1.1	〈고양 문봉서원지 기본조사용역 보고서〉, 2001	시굴
43	양주 회암사지	고려-조선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14-1	기전문화재연구원/경기도박물관	00.1.31~6.29	종합보고서 간행예정	2차
		2차 조사지역은 회암사지 7단지와 6단지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과 8,7단지 중 1차 조사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6, 7단지의 전각 배치는 목은 이색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건물지의 중복관계로 보아 최소 4단계로 시기구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회암사의 폐기가 화재로 인한 것으로 압축되었으며 그외의 건물지, 담장지, 석축단, 배수시설 등이 잘 남아 있어 고려-선초의 사찰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유물 중 보광전지 주변에서 출토된 청동금탁에는 149자의 명문이 남아 있어 보광전의 중수와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였으며 그외 자기류, 와전류, 금속기류, 소조불 등이 수습되었다.					
44	양주 회암사지	고려-조선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14-1	기전문화재연구원/경기도박물관	'00.3.8~01.4.26	종합보고서 간행예정	3차
		6단지 건물지의 내부구조 확인과 5단지 서쪽지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5단지에서 총 4개 소의 건물지가 새롭게 확인되었으나 내부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건물지의 외형 파악만 일단락되었으며 출토 유물은 도자기류, 기와류, 명문이 음각된 청동발을 포함하는 금속류 및 사암제 불상대좌 이외의 석제품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기본적으로 1,2차 발굴조사시의 출토유물과 큰 차이는 없다.					
45	남북연결도로(통일로-장단간)구간내 유적	복합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산24일대/ 장단면 도라산리 전 108번지 일대	경기도박물관/육군박물관	'00.11.27.~12.7	〈남북연결도로(통일로-장단간)구간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2001	3차
		16-18세기에 걸친 6기의 조선시대 분묘군을 발굴하고 9개체의 인골을 수습하였다. 그 외에 고려고분 3기가 확인되었으며 기타 고토양층의 분포를 확인하였고 지표에서 격지 등 소량의 석기유물이 수습되었다.					
46	경복궁 태원전 권역 복원정비를 위한 시굴	조선	종로구 세종로 1	한국건축문화연구소/기전문화재연구원	12.1~12.30.	〈경복궁 태원전권역 시굴조사〉 약보고서	시굴
47	양주 산북리 유적	조선	양주군 주내면 산북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00.3.22~4.29	〈양주 산북리유적〉, 2000	
		확인된 유구는 조선시대로 판단되는 주거지, 숯가마, 토광묘, 수혈유구 등 23기이며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19점, 자기류 18점, 철기류 18점, 기타 6점 등 모두 61점이다.					
48	용인죽전택지(7번) 개발사업지구	삼국	용인시 수지읍 죽전 5리 산10-4	기전문화재연구원	'00.12.19~01.12.15	보고서간행 작업 중	
49	성남 천림산 봉수	조선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	토지박물관	40일간	〈城南 天臨山烽燧〉, 2001	
		봉수의 정비와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장축방향은 동서로 확인되었으며 방화벽과 담장지, 연조, 출입시설, 3개소의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로 조선시대의 것들로서 크게 도·토류, 자기류, 화폐류들이며 연조의 연통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와편이 봉수 내부에서 소량 수집되었다.					
50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구석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28-1	한양대문화재연구소	00.7.4.~11.24.	〈전곡구석기유적2000-2001전면시굴조사보고서〉, 2001	시굴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전반적인 문화층 분포상황 확인과 그 성격 규명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4지구에 전면적으로 4기층이 남아 있으며, 일부 중심지역에는 유물이 집중 출토되는 지점이 있으며, 약6m 두께의 퇴적단면이 확인되었다. 40% 이상의 시굴 피트에서 주먹도끼를 비롯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 기전문화재연구원 학술 총서

1집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집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집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 유적
4집 시화호 공룡알 화석 발견지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 학술조사 보고서

1책 여주 상리 · 매룡리 고분군 정밀지표 조사보고서
2책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1999)
3책 양주 관아지 1차 발굴 및 시굴조사보고서
4책 화령전 전사청지 발굴조사 보고서
5책 여주 파사성 발굴조사 중간 보고서(Ⅰ)
6책 하남 시가지 우회도로 확 · 포장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7책 하남 덕풍-광암 정수장간 도로 확 · 포장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8책 용인 구성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9책 용인 보라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0책 화성 발안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1책 화성 태안(3)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2책 기흥 구갈(3)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유적 긴급시굴조사 보고서
13책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4책 용인 신갈 택지개발지구내 발굴조사보고서
15책 이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16책 시흥 서안산 IC 접속부 개량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7책 성남-장호원간 도로개설(2공구) 건설공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8책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 시굴조사 보고서
19책 화성동탄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책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중간 보고서(Ⅱ)
21책 남양주시 호평 · 평내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시 · 발굴조사 보고서(Ⅰ)
22책 양평 양수리 선사유적 시 · 발굴조사 보고서
23책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畿甸考古

創刊號 (2001)

발 행 일 : 2002년 4월 1일
발 행 처 :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편 집 : 기전문화재연구원 (전화 : 031-258-5105)
제 작 : (주) 경기출판사 (전화 : 031-231-5520~7)

〈비매품〉